

칼빈주의 비평

지은 이 / 클라우드(D. Cloud) 외 다수
옮긴 이 / 이정원 외 다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칼빈주의 비평

지은 이 / 클라우드(David Cloud) 외 다수
옮긴 이 / 이정원 외 다수

1판 1쇄 /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35-7 03230

정가 :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Calvinism Debate

—D. CLOUD—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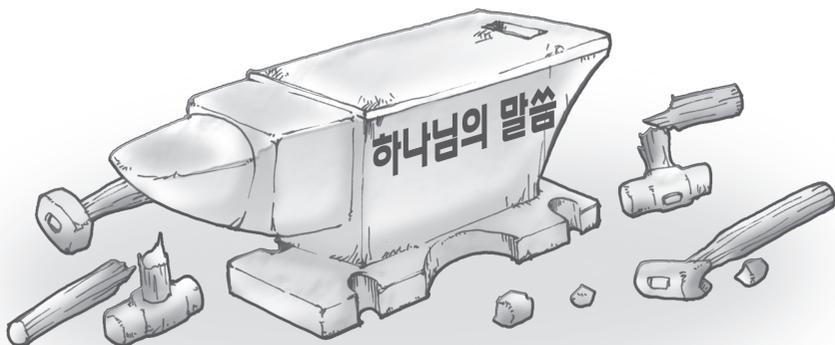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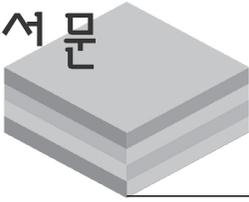
목 차



목 차	5
서 문	6
1. 어거스틴의 실체	15
2. 칼빈의 실체	55
3. 칼빈주의 비평	77
4. 왜 나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가?	205
5. 개혁주의 신학의 위험들	239
6. 로드십 구원이란 무엇인가?	281
7. 칼빈주의에서의 14년 여정	295
8. 칼빈주의자의 정직한 의심	325
9. 칼빈주의 비평 결론	375
부 록	385
1. 율법과 은혜	387
2. 두 본성	394
3.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402
4. 선택과 자유 의지	408
5. 어거스틴의 창세기 6장 해석 변경	415
6. 마르틴 루터의 흑역사	423

본서의 뒤에는 7장의 저자가 만든 <성경과 칼빈주의 비교>, <성경적 구원 선도>, <칼빈주의 구원 선도>, <칼빈주의 5대 강령 비교> 컬러 선도가 들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8-10).



장성한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목회를 하며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책들을 저술하면서 왜 한국 교회는 사미니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히 율법적이며 구원에 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영혼의 자유를 찾는 여러 성도들의 간증과 연구를 통해 칼빈주의(Calvinism)라는 구약 시대 율법주의 신정 정치 틀이 한국의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을 엮어매고 있고 그 결과 신약 시대 목사들이 구약식 교회를 하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¹⁾를 믿는 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칼빈이 가르쳐 준 틀을 통해서만 보려 하며 그 결과 성경의 많은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영해하려 합니다. 특히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치므로 이런 신학에 종속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론과 예언에 관한 한 캄캄한 무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주의 연구 및 비평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교리가 심히 왜곡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에게 믿음을 준 뒤에야 비로소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그들의 구원 방법은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들과 정죄받아 지옥에 갈 자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치므로 이렇게 배운 성도들의 삶은 극도의 숙명론에 의해 지배를 당합니다.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성도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율배반적 실행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한국의 칼빈주의 목사들의 다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의 위치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서 성도들이 스스로를 평신도로

1) 16세기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빈(칼뱅)에게서 발단한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예정설을 주장하였으며 신앙생활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는 활동주의적 경향을 지녔다. <국어사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대단히 힘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위엄을 보여 주시려고 온 우주와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계로 사람은 타락하여 죄를 짓고 세상 왕국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내주었고(눅4:5-6) 그 이후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통치자로 지난 6,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할 여자의 씨, 즉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창 3:15) 아담이 망쳐 놓은 왕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운영해 오시면서 때가 충만히 차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심으로써(계 20:1-10)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려 했던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알리려 하시며 이런 웅장한 계획 속에 사람의 구원과 마귀의 파멸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오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카톨릭교도들과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형제들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왕국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²⁾

이제 세상의 끝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왕국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목사들과 신학자들 또 그들로 인해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돌아오으로써 이스라엘 대제신학을 가르치는 칼빈주의는 이미 그 해에 종말을 고하였

2) 이것은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라고 불리는데 <위키백과>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천년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땅에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물리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이론의 추종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이 6번이나 언급하는 1,000년은 상징적 숫자이지 문자적으로 수용할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교회 시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가 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최후 심판 때에 그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야 하지만 오히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청교도 신학,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려두고 “조난단 에드워치처럼 살 수는 없을까?”³⁾라고 말하며 칼빈과 그의 직계 스승인 어거스틴 탐구에 폭 빠진 목사들을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철저한 로마 카톨릭교도인 어거스틴, 그것도 천주교의 비성경적 교리들을 확립한 공로로 천주교의 대표 박사라 불리는 인물을 탐구하기 위해 ‘어거스틴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칼빈주의라는 눈가리개로 눈이 가려져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한 채 “어거스틴과 칼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외치는 목사들과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겸손해지는 길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요3:10)라는 말을 들어야 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칼빈주의 시스템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런 나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칼빈주의/개혁주의라는 ‘인본주의 신정 국가 통치 철학 시스템’을 분석하고 바르게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번역/편집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베버(Otto Weber, 1902-1966)의 「칼빈의 교회관」에 나와 있듯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16-17세기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는 신정 정치라는 통치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세기경부터 로마 카톨릭교회가 형성되면서 존재한 ‘기독교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 개념의 핵심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공인한 신앙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⁴⁾ 종교/정치적으로 이런 국가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라고 불리며 이런 국가의 교회는 ‘국가 교회’(State Church)라고 불립니다. 칼빈주의는 바로 이런 국가 교회의 신정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체주의 국가 통치 철학’입니다. 즉 종교 개혁 당시 칼빈과 개혁자들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통해 구약의 신권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시대에 편견 없이 신약 성경을 읽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교회는 그와 같은 신정 정치 국가 체제가 아니며 그런 체제가

3) ‘부흥과 개혁사’라는 개혁주의 출판사는 실제로 이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다.

4) 대다수 이슬람 국가에서 현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보통 ‘정교일치’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만든 이런 철학은 이 자유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설물같이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성경의 단순함을 버리고 교묘한 궤변으로 가득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책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기에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의 부재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 체계가 소위 ‘다섯 솔라’라 불리는 주장과 합치된다고 주장합니다.

1. ‘Sola Scriptura’(오직 성경): 진리나 아니나의 유일한 권위는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있다.
2.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 ‘Sola Gratia’(오직 은혜):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
4. ‘Sola Fide’(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5.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에 의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다섯 솔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위대한 ‘다섯 솔라’를 대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며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론을 떠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칼빈주의자들의 ‘다섯 솔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거나 이해하는 ‘다섯 솔라’가 아니라 칼빈이 해석한 ‘다섯 솔라’입니다.

1. 칼빈주의의 ‘오직 성경’: 성경이 있다고 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주장이 삶과 믿음에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지 않고 은혜와 율법을 혼합하여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같은,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들도 다 성경대로 믿고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여 유대인 조상들이나 유대인들이 뭘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나누어 신약의 교리를 제대로 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딤후 2:15). 성경 말씀의 적용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성도를 얻어내는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인데(갈4:4-5, 히9:16-17) 대부분의 목사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던 때를 신약 시대로 이해하기에 성도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 예가 바로 칼빈주의/개혁주의입니다.

2. 칼빈주의의 ‘오직 그리스도’: 칼빈주의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알지 못하는 무자비한 그리스도입니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실행하신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하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눅23:34). 그리스도께서는 창녀와 세리같이 세상 법으로도 정죄받을 상황에 있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지성인으로 여기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고 정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대리자인 교황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친히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주의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와 매우 많이 다릅니다.
3. 칼빈주의의 ‘오직 은혜’: 칼빈주의의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혜를 주셔서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그 동일한 하나님은 지옥 불의 정죄를 받도록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믿으려 해도, 은혜를 받으려 해도 냉정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부하는 분이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극도로 무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라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공평과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공평과 공의가 없는 은혜로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매우 많이 다릅니다.
4. 칼빈주의의 ‘오직 믿음’: 루터 이후의 프로테스탄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즉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칭의를 얻는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칼빈주의의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강권적으로 그 믿음이 오게 되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반대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믿고자 노력을 하고 알고자 노력을 해도 결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자유 의지가 전혀 없는 쇠덩어리 로봇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야만 신권 통치가 가능하므로 칼빈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5. 칼빈주의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 혹은 본성을 왜곡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성경 신자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salvation)과 구속(redemption)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위’(works)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자유 의지 능력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로 인해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이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⁵⁾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온 인류를 사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인간이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데 사람들 중에서 얼마는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여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어, 불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칼빈주의 틀에 얽매이기 전에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이런 명백한 결론에 다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지성의 동원하여 사람이 복음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롬4:5). 그러하기에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나 목사의 말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말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들이 말한 바를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베레아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의 말이 성경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고귀한 자들이라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행17:11).

이 책은 칼빈주의로 얼룩진 한국 교회의 어두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경과 역사의 진리를 보여 줌으로써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신약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술되었습니다.

1장과 2장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시대와 삶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구체적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칼빈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도

5) ‘구속하다’(redeem)는 ‘대가를 치르고 무르다’는 뜻이다.

칼빈주의 비평서들이 더러 있었지만 이런 책들은 거의 대부분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을 들어가며 칼빈주의 신학의 오류만 비판합니다. 그러나 실용 학문인 공학을 전공한 저는 일단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이론이 적용된 실례를 보여 줌으로써 이런 이론의 허구와 폐해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어거스틴주의이고 카톨릭 종교 시스템을 개혁하려 한 종교적 가르침이므로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어거스틴주의가 조금 개혁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3장은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클라우드(David Cloud) 선교사가 지은 「칼빈주의 비평」(*Calvinism Debate*)을 번역한 것입니다.⁶⁾ 클라우드 선교사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신자이고 그의 웹사이트에는 주옥 같은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칼빈주의 비평」처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⁷⁾

4장은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가 중 한 사람인 가이슬러(Norman Geisler) 교수가 왜 자기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를 요약한 것입니다. 가이슬러는 미국 최고의 신학교로 알려진 델러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책을 저술한 크리스천입니다.

5장은 미국 미들타운성경교회의 젤러(George Zeller) 목사가 쓴 ‘개혁주의 신학의 위험들’이라는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⁸⁾ 미들타운성경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경 공부 자료들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고 아무나 무료로 다운받아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해석과 견해 차이에 따라 이견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교회의 자료들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6장은 미들타운성경교회의 젤러가 쓴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 반박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7장은 14년 동안 칼빈주의에 빠져 있던 니켈(Brenda Nickel)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담은 간증입니다.

8장은 헌트(Dave Hunt)가 지은 「대체 이게 무슨 사랑인가?」(*What Love Is This?*)에서 칼빈주의에 빠졌다가 벗어난 사람의 예를 다룬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⁹⁾ 7장과 8장의 예를 통해 우리는 칼빈주의가 어떻게 사람을 혼동에 빠뜨려 고생하게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73쪽에 달하는 헌트의 책은 많은 참고 문헌을 동원하여 칼빈주의 역사와 오류의 실행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실로 귀중한 교과서입니다.

다음은 헌트가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이 책을 편집하였기에 그의 글을 소개합니다.

6) http://www.wayoflife.org/free_ebooks/the_calvinism_debate.php

7) https://www.wayoflife.org/free_ebooks

8) <http://middletownbiblechurch.org/doctrine/dangerso.htm>

9) <http://www.amazon.com>에서 ‘What Love Is This?’를 치면 데이브 헌트의 유명한 책이 나온다.

제 주변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하나님이 칼빈주의의 하나님처럼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분이려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칼빈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를 원치 않아서 멸망 받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롬1:16) 선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눅2:10).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성경적 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믿어 온 칼빈주의자들이 이 책을 통해 변화되어 어떤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내버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칼빈주의의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이 좋은 복음, 즉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9-13).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22:17, 21).

9장에는 칼빈주의 비평의 총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그 자체를 비판할 뿐이며 그렇게 믿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성경과 그 해석이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위적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와 성경이 주는 해방의 자유를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갈5:1).

부록에는 클라렌스 라킨이 지은 「성경 바로 보기」(*Rightly Dividing The Word*)에서 율법과 은혜를 다루는 17장, 사람의 두 본성을 다루는 19장,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를 다루는 20장 그리고 선택과 자유 의지를 다루는 22장을 실었습니다.

이정원 자매님께서 클라우드의 책과 헨트의 책을, 남윤수 자매님께서 켈러의 글을 번역해 주셨고 태은상 자매님께서 표지를 만들어 주셨으며 김지훈 형제님과 감애리 자매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꼼꼼히 교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여 1-2장을 기록하고 5장과 7장을 번역하였으며 부록의 어거스틴과 루터 부분을 번역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꼼꼼하고 의지가 강철같이 투철했던 칼빈은 그가 살던 종교 개혁 시대의 시대정신에 사로잡혀 당시 세상 변화를 보면서 성경과 자기 시대를 합치시키려는 불굴의 시도를 하며 많은 저서에 자기의 사상을 담았습니다. 만일 칼빈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허락된 21세기에 살았다면 아마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신약 시대의 원리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약 교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경 신자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칼빈의 오류들이 그 시대가 만든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시대의 오류들을 그 시대로 밀어 놓고 영혼의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에 마음 놓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물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 주시는 교리들에 순종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4-500년 전에 유행하던 시대정신과 그 시대의 유물을 성경 위에 두면서 지금도 심혈을 기울여 그것을 지키려는 시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청교도니 개혁주의니 하는 것은 다 종교 개혁 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정신이 지배하는 이 시대와 또 신약 성경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체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2023년 1월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제 1 장

Chapter 1

어거스틴의 실제



Identity of Aurelius Augustine

한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의 사상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다수 학자들이 칼빈의 사상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증언하므로 우리는 먼저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¹⁾ 칼빈의 신정 정치 국가 교회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 즉 칼빈주의의 원조는 누구인가? <위키백과>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Augustinian_Calvinism'이라는 항목에 정확히 나와 있다.²⁾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완벽히 충실하게 그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칼빈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논문」(Calvin's Calvinism, A Treatise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987, Henry Cole.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p. 38).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자기를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어거스틴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칼빈주의자들은 '어거스틴-칼빈주의자'로 간주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 결과 칼빈주의는 특별히 어거스틴주의라 불려 왔다.

어거스틴은 생애의 마지막 후반부 18년 동안 어거스틴-칼빈주의 5대 강령의 변형된 것들을 가르쳤다. 그전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숙명론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옹호하는 '전통적 기독교 관점'을 가르쳤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10년 정도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다. 마니교에서는 신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에 이를 자들을 선택하고(택자) 정죄받을 자들(비택자)을 선택한다.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 교부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예정은 이교도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이를 반박하였다. 어거스틴 전에 있던 50명의 초기 크리스천 저자들이 인간의

1) 예를 들어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워필드(B. B. Warfield)는 칼빈주의 교리 체계는 '어거스틴주의의 대부흥'이라고 말하였다. 칼빈주의/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칼빈 사상의 대부분이 어거스틴에게서 왔음을 인정할 것이다.

2) https://en.wikipedia.org/wiki/Augustinian_Calvinism

자유 의지와 숙명론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50명은 전부 다 100% 모두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마니교의 숙명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 의지를 지지하였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주후 412년 이전에는 무려 26년 동안 이러한 숙명론을 대적하는 전통적 기독교 신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틀어서 영지주의와 마니교의 관점을 따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곧 구원하는 믿음이고 만다(즉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야 믿을 수 있다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

• 유아 세례와 관련이 있는 어거스틴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교리

어거스틴이 자기의 신념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의 논쟁 때문이었다. 주후 200년경에 살았던 터툴리안(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155-220)은 유아 세례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세례나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유아 세례를 반박하였다.

사실 주후 400년까지도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교회 내에 전혀 없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은 유아 세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가 영원한 정죄를 수반하는 아담의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가르침이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미세한 것까지 다 미리 정해서 간섭한다는 개념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땅의 어디로 떨어지는지, 수탉들이 싸울 때 목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도 다 정해져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책 「섭리」(Providence)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유아 세례 대상인 아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주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신다거나 혹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유아 세례를 통해 이 아이들은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경우, 그 부모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막아서 그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옥 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천주교 내에서도 논쟁이 있고 학자들은 이런 개념이 플라톤주의, 스토아학파, 마니교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그 뒤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유아에서 어른으로 확장하였다.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반드시 예정하셔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즉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영지주의에 물든 마니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마니교는 낙태나 유산된 아이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지옥 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니교 신자들의 신은 믿음과 은혜를 먼저 사람에게 주입함으로써 사람의 죽어 있는 의지를 부활시켜야만 하였다. 어거스틴은 전적 타락의 원인을 아담의 죄라고 바꾸었지만 여전히 스토아학파, 마니교, 신플라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입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지는 죽어 있다는 가르침을 유지하였다. [즉 그는 전적으로 속명론을 믿었고 칼빈은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였다.]

결론: 어거스틴이 실제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인 TULIP을 발명했으므로 ‘어거스틴-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여전히 적합하다. 어거스틴의 5대 강령은 지금도 여전히 개혁신학 내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위키백과> 말고도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워필드: 칼빈이 가르친 교리 시스템은 어거스틴주의 바로 그것이며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by Calvin is just the Augustinianism common to the whole body of the Reformers.)

존 파이퍼: 루터와 칼빈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스펠전: 칼빈 자신은 주로 어거스틴의 글들에서 칼빈주의를 유도해 냈다.

그렇다면 칼빈이 어거스틴을 그대로 답습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다 로마 카톨릭교회 출신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를 세워 준 네 명의 박사 중 한 명이고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으므로 어거스틴과 그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루터, 칼빈 등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 젖어 있던 종교 개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들이 회심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젊은 시절에 뿌리 깊게 형성된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들의 시대정신이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교회의 신학과 전통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루터 등이 일으킨 사건을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이것은 ‘종교’라는 단어가 없이 단순히 ‘Reformation’이라고 불린다.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이 말은 ‘reform’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리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쓰이는 말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물건을 리폼해서 쓴다고 하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을 ‘리폼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죽옷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바뀌면 새 시대의 유행에 따라 리폼샵에 그것을 가져다준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원래의 가죽은 그대로 두고 형태만 유행에 따라 바꾸어 준다. 그것이 바로 리폼이다.

16세기 종교 개혁도 이와 비슷하다. 그것은 카톨릭교회라는 종교의 본질은 거의

그대로 두고 형태만 리폼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종교 개혁 이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대다수 유럽 사람들은 카톨릭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세상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피우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은 종교’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종교인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리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칼빈은 그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종교를 개혁해서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칼빈 사상의 대부분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다고 객관적 증거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므로 칼빈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거스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생애를 고찰하고 그의 신학(엄밀히는 황제나 교황의 세상 국가 통치 철학)의 원리와 중심 사상을 살피려 한다.³⁾

1. 어거스틴 당시의 시대 상황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354-430년)은 4세기에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서구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히에로니무스(제롬),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스(암브로시우스) 등과 함께 서방(카톨릭) 교회의 4대 교부⁴⁾ 중 한 사람이며, 아프리카의 북부 도시 히포에서 주교로 활동하였으므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린다. 그는 카톨릭교회와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그의 축일은 그의 사망일인 8월 28일이다. 그의 상징물은 주교관과 목장·책·펜이며 그는 인쇄공과 신학자의 수호성인이다.

어거스틴은 낡은 세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던 격동의 변천기에 태어났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가 죽은 뒤 로마 제국이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통치되다가 둘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에 의해 재통일되던 해인 354년에 태어났다. 361년에 콘스탄티우스 2세가 죽자 그의 사촌인 유리아누스가 왕위에 올라 2년 정도 로마 제국을 다스렸다. 그 뒤 몇 명의 황제가 제국을 다스린 뒤 395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죽자 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뉘게 되었으며 이로써 로마 제국의 위력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3) 이를 위해 칼빈주의 신학자인 나용화 교수가 지은 「칼빈과 개혁신학」(기독교문서선교회, 1992)과 영어 및 우리말 <위키백과>의 ‘어거스틴 항목’을 참조하여 요약하려 한다.

4) 앞으로 전개되는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교회의 아버지’를 뜻하는 ‘교부’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카톨릭교회의 성인들로서 신약 성경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은 정확하게 ‘카톨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교회사 - 특히 종교 개혁 이전의 16세기까지의 교회사 - 는 엄밀한 의미에서 카톨릭교회가 포장한 ‘카톨릭교회사’이다.



히포의 어거스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국가 교회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고 무력으로 성경 신자들을 제압할 것을 규정한 인물이다. 그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연옥 교리를 창안하였으며 사람의 자유 의지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바로 이때에 북방의 여러 민족이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대량 유입되어 왔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알려진 이 침입으로 인해 유럽 정치 무대의 주인공이 바뀔 위기에 놓였다. 훈족, 고트족, 프랑크족, 반달족 등의 연쇄적 이동과 침입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세력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인 476년에 완전히 멸망하였으며 정치권력은 게르만족의 손에 넘겨졌다. 이로써 5세기의 교회 - 엄밀한 의미에서 카톨릭교회 - 는 게르만 민족의 이교 문화에 맞서며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기독교적 문화를 보존/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떠맡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태어나 ‘로마 카톨릭교회’라는 비성경적 교회⁵⁾의 기초를 확고히 놓게 되었다.

2. 어거스틴의 생애

어거스틴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어거스틴 자신의 저서인 「고백록」과 그의 제자인 포시디우스가 쓴 전기를 통해 자세히 알려져 있다. 어거스틴은 354년 오늘날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북아프리카의 소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다. 당시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혈 결혼을 허용하였으므로 그는 이교도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교육했으나 어렸을 때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고향과 인근 도시 마다우라에서 초등 교육을 받은 뒤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잠시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370년경 집안 사정이

5)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스웰전 목사는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수6:26)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교회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 선조 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거대한 벽이 믿음의 힘으로, 노력의 인내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옛 터전 위에 것처럼 저주받은 제도를 재건하려는 자들이 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중흥무진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 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20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천주교 사상 평가」에서 로마 카톨릭 시스템을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불렀다.

나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16살의 어거스틴을 카르타고로 보내 수사학을 배우도록 했다. 카르타고에서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철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자기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당시 철학에 심취해 있던 그는 마니교⁶⁾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에 매력을 느껴 마니교도로서 10여 년을 지내며 마니교를 지지하여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다. 또 371년에 17세이던 그는 한 젊은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여 1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였다. 자기 아들의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던 모니카는 아들과 절교를 선언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거스틴은 마니교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회의를 느껴 소아시아와 이집트 등에서 전래된 종교 사상과 신비주의 철학을 사변적으로 종합한 이원론적 세계관의 신플라톤주의의 신봉자가 되었다가 마니교도 동료의 추천으로 타가스테,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등에서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그는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스(혹은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of Milan, 340-397)를 만났다. 암브로스 주교는 어거스틴과 같이 수사학이나 철학에 능한 언변의 달인으로 타협의 명수였다.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의 설교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한동안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고 결국 386년 여름의 부활 주일에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았다.⁷⁾

어거스틴은 이듬해 낙향하여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고향에 돌아온 그는 동료들과 스스로 수도회를 설립하는 등 수도사 생활에 전념하였다.

391년에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레기우스에서 발레리우스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 과거에 자기가 몸담았던 마니교를 비판하는 등 많은 설교 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며 예정론을 반대하던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을 단호히 대적하였다.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마니교나 플라톤

6) 마니교는 3세기에 '빛의 사도'로 알려진 예언자 마니(Mani, 210?-276)가 페르시아에서 창시한 이원론적 종교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마니의 활동 초기에 그것은 그리스도교,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여러 요소를 가미한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고유한 종교로 자리 잡았다. 마니는 자신이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 붓다, 예수, 조로아스터로 이어져 내려온 예언자들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생각했다. 또한 종교적 진리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여겨 그는 선교 초기부터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 마니교에는 간명한 교의(敎義)와 예배 양식, 엄격한 도덕 계율이 있었다. 그들의 교의는 빛과 선 그리고 어둠과 악의 이원론과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영지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다른 모든 형태의 영지주의처럼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악의 물질과 섞여 있지만 지혜가 이를 해방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은 신화를 통해 설명된다. 신화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간음·출산·소유·경작·추수·육식·음주 등의 육적인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육체가 연속되는 환생의 저주를 받게 된다. <두산백과>

7)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카톨릭교회와 여러 개신교회에서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며(보통 '세례 중생' 교리라 함) 세례를 구원과 동일시한다.

주의의 숙명론과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완전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며 그를 비난하였다.⁸⁾ 펠라기우스를 대적한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후대에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발레리우스 주교가 죽자 어거스틴은 395년에 히포 교구의 부주교가 되었다가 곧바로 주교가 되어 죽기까지 평생 동안 히포 교회와 북아프리카 교회⁹⁾를 위해 일하였다. 427년에 반달족이 북아프리카에 쳐들어와서 히포를 점령하기 전인 430년에 그는 76세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 생을 마감했다.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이 저서들을 통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 및 하나님의 통치의 불변성' 등을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irresistible)¹⁰⁾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는 이런 사상을 확립하고 이용하여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권 통치 국가 혹은 그런 국가의 교회에 종속된 인간, 즉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만 하는 로봇 형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 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 믿음을 받아야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래야 그는 로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로봇 조절 프로그램 혹은 리모컨에 의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오직 [카톨릭] 교회와 교회의 제사장들이 베푸는 성사(聖事)¹¹⁾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국가 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8) <위키백과>는 펠라기우스가 이단 교리를 창안하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 의지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지만 그의 사상이 어거스틴 뒤에 숨어 있던 영지주의의 숙명론 배경을 건드렸기에 탄압을 받았다는 최근의 분석 자료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교회사는 '카톨릭교회의 교회사'이므로 그들이 이단이라 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바르게 다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세에는 성경대로 믿고자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심한 고초를 겪었고 많은 경우 죽임을 당했다.

9) 세속 백과사전과 역사서 그리고 종교 사전 등에서 언급되는 교회 - 특히 16세기 이전의 교회 - 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로마 카톨릭교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 교회'(Free church)가 아니라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국가 교회'(State church)이다.

10)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을 뜻한다.

11) 성사(sacrament)란 카톨릭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종교 의식을 뜻하며 여기에는 유아 세례, 견진, 고해(고백), 성체(미사), 신품, 혼인, 종부 성사가 있다. 이 중에서 성체 성사는 미사 때 제사장(신부)에 의해 축성되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의식을 뜻하며 이를 영성체(領聖體)라고 한다. 성체 성사는 일곱 성사 중 가장 큰 성사로 다른 성사들은 성체 성사를 위한 준비이고 영성체로 완성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Christianity)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Churchianity)라고 부른다.¹²⁾

시간이 흐르면서 어거스틴의 ‘교회교’ 사상은 결국 로마 카톨릭교회가 세상 국가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침이 되었고 중세에 예수님의 자유 교회를 억누르는 무기로 이용되다가 1,200년이 흐른 뒤에는 마침내 개혁 교회 및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네바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다. 어거스틴의 삶과 저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과 기독교 그리고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황제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3. 로마와 기독교

이교도 국가인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을 읽기 바란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큰 기적들과 이적들을 많이 이루셨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독교는 초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기독교는 산을 에워싸고 대양을 건너갔으며 왕들을 떨게 하였고 폭군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뒤집어엎었다! 실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영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행17:6).

그러나 여러 해가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¹³⁾ 이들은 초기 교회 시대와 같이 영적 방법과 진리로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방법으로 치리하며 스스로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12)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되거나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국가 교회’라고 하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 즉 예수님께서 친히 마22:21에서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지지하므로 앞으로 이 책에서는 ‘국가 교회’를 기독교의 ‘자유 교회’와 대비되는 말로 ‘교회교’라 부르기도 할 것이다.

13) 계2:6, 15에는 니콜라당(Nicolaitans)이라는 이단이 나온다.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콜라당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여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계2:6)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들 ‘제사장’(priest)이라 부르며 철저한 성직자 계급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에는 교회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pastor)가 감독이나 혹은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하며 양 떼에게 꼴을 줌을 보여 준다(행 20:17, 28; 엡4:11; 딤후3:1-7; 딤후1:5-9; 벧전5:1-4).

언급한 것을 보면 이교주의를 기독교와 합치려는 시도가 심지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는 또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곧 이교도들의 가짜 교리들을 경고한 것이다(살후2:3, 7; 딤후4:1). 그때 성도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유3-4).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파고들어 온 여러 형태의 바빌론 미스터리 이교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빌론 이교주의의 관습이나 믿음과 상관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되고 고소를 당하고 사자 굴에 던져졌으며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당시에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지만 그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곧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공포한 것이다. 또한 로마 황제는 로마 전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그 결과 교회의 주교들(감독들)¹⁴⁾은 높은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교회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했고 기독교와 이교주의 사이에는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이 세상 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황제는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이교주의에서 황제는 항상 신으로서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교주의가 도맷값으로 혼합되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로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14)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bishop)은 특정한 지역 교회의 목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교회가 권세를 잡자 ‘bishop’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여러 지역 교회의 사제(목사)들을 다스리는 의미의 지역 감독이 되었고 지금은 천주교, 성공회 등에서 주교 혹은 대주교라 불린다. 현시대 감리교회의 감독 등은 바로 천주교 시스템에서 나온 후자의 감독을 말한다.

4. 콘스탄틴과 국가 교회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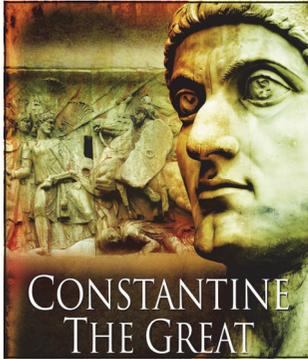
로마가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면서 도처에서 밀려드는 이교도들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황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가장 교묘하게 이룬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황제(Constantine, 콘스탄티누스 1세, 272-337년)이다. 그는 306-337년까지 재위한 중기 로마 황제로서 동방 정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여 ‘성 콘스탄티누스’라 부른다.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그는 330년에 공식적으로 비잔티움(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고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로 개명되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성도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회는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국가 교회인 천주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세속 역사가들과 천주교 사관을 가진 교회 역사가들이 한목소리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가 행한 일을 영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기독교 진흥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수많은 내전을 거쳐 권력을 잡게 된 콘스탄틴에게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로마 황제는 교회의 권위 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임명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하려 하였다. 이로써 국가 교회에서 황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 되어 권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국가 교회’(State Church)를 국가 체제의 이상적 모델로 보았다. 반면에 교황들은 세상 군주들을 교황권 아래 두고 다스리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를 이상적 모델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지상의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하며 국가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교회 국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국가 교회’나 ‘교회 국가’는 신권 통치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황제든 교황이든 국가의 수반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혹독한 속박 속에 가두려 했기 때문이다.



대음모자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콘스탄틴은 사실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으면서 대음모를 꾸민다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비성경적 국가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5. 콘스탄틴의 개종과 업적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소위 ‘밀비안 다리 전투’로 알려진 전투에 직면해야 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라 그는 희생 짐승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던 하루스피스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는데(겔21:21) 신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자기가 그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후에 말한 것처럼 환상(또는 꿈) 속에서 그에게 십자가가 나타났으며 “이 표적을 갖고 정복하라.”는 말이 있었다. 그다음 날인 주후 312년 10월 28일 그는 십자가가 달린 깃발을 내세우며 진격했고 그 결과 그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드디어 개종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콘스탄틴의 십자가 환상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유일하게 이 이야기의 증거나 권위를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265-340)가 지은 「콘스탄틴의 생애」에 두었다. 유세비우스는 이단인 오리겐의 추종자로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권력을 누린 어용학자이다. 그래서 현시대 학자들은 콘스탄틴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사실 유세비우스에 의해 교회사와 성경 본문은 카톨릭교회 중심으로 편향되며 크게 왜곡되었다.

또한 콘스탄틴이 실제로 환상을 보았다 해도 과연 우리는 그 환상을 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평화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교도 황제에게 십자가를 나타내는 군기를 만들고 그 표적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죽이도록 지시했다 말인가? 만일 그 환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콘스탄틴의 개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의 개종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설령 그가 그 시대의 교회 행습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제정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적 의미에서 참다운 개종(혹은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사실이 매우 많다. 역사가들은 그의 개종이 그 시대의 표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개종이었

15) <위키백과> ‘유세비우스’(Eusebius) 항목

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가 참다운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회심 후 그가 몇 차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였다. 성경은 “살인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요일3:15).

콘스탄틴은 미네르비나를 첫째 아내로 두었고 그녀를 통해 크리스푸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의 둘째 아내는 파우스타인데 그녀를 통해 그는 세 딸과 두 아들을 두었다. 크리스푸스는 뛰어난 군인으로서 그의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니케아 공회가 열린 직후인 주후 326년 그는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를 사형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둘째 아내인 파우스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파우스타의 고소 내용이었다. 파우스타는 그의 첫째 아내의 아들 크리스푸스를 그런 방법으로 몰아내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를 설득하여 사실은 그의 아내 파우스타가 그의 아들에게 몸을 바친 것으로 믿게 했으며 그래서 결국 콘스탄틴은 자기 아내 파우스타를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 넣고 질식사시켜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그는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죽였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목 졸라 죽였다. 이처럼 잔인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런 황제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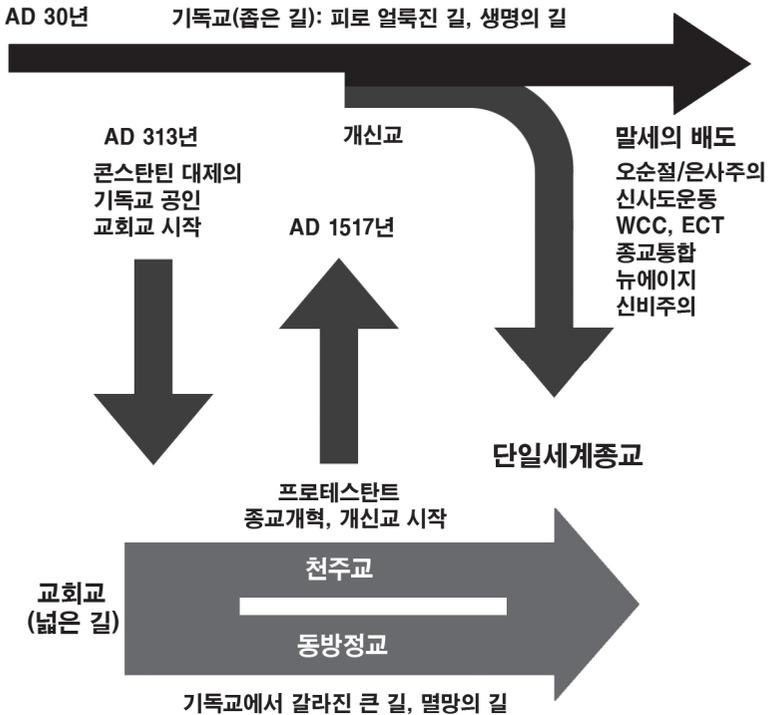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십자가 처형을 폐지하고 로마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행하던 박해도 중지시켰다. 그러나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동기에서 그렇게 했을까?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몇 주교들은 궁전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심지어 황제를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로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호의를 베풀은 것은 순전히 정치적 동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는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약삭빠른 폭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⁶⁾

유명한 역사가 두란트가 콘스탄틴에 대해 내린 결론도 위의 진술과 거의 같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참된 것이었는가? 과연 그것은 종교적 신앙 행위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지혜의 극치였는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 그가 기독교 주교들(감독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비록 그가 제국의 단합을 위해 종교적 불일치 의사를 표명하는 자를 억압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 기독교계를 동요시켰던 신학적 차이점들에 대해 그가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취급하였다. 그는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하였고 무엇이든지 대다수

16) 「카톨릭 백과사전」, 제4권, p. 300, ‘콘스탄틴’ 항목



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참된 신자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에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¹⁷⁾

콘스탄틴은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제국이 분열되자 그는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종교를 혼합하여 제국에 필요한 통일된 힘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두 종교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며 십자가 상징도 양측을 나누는 요소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콘스탄틴 군대에서 미트라 - 고대 인도와 이란의 신화에 등장하는 빛의 신 - 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가 실족거리가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미트라 빛의 십자가 군기를 지니고 싸웠기 때문이다.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 비록 그가 이교 신전들로부터 자기의 형상을 제거하고 자기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황제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황의 호칭인 ‘최고 승원

17) 「문명의 역사: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pp. 655-656.

장'(Pontifex Maximus) 지도자로 불린 그는 이교 예배를 돌보고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330년 콘스탄티노플의 봉헌식에서도 그는 받은 이교도 의식을, 받은 기독교 의식을 사용했다. 태양신 마차가 시장에 진열되었으며 그 위에 십자가가 놓였다. 콘스탄틴이 만든 동전들 중 어떤 것들은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마르스나 아폴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교도들의 마술적 방식을 신봉하고 이로써 농작물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치려 했다. 심지어 「카톨릭 백과사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콘스탄틴의 방법, 즉 혼합주의 개념은 분명히 로마 카톨릭주의가 발전되고 재물을 늘리며 부유하게 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였다.

콘스탄틴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제거되는데 죽기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이후의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6.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콘스탄틴이 세운 ‘국가와 교회의 일치’는 결국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Theocracy)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신정 정치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신권 정치’(神權政治)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정 정치에서는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心情)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 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정 정치는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적 형태를 보인다. 신정 정치의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빈(John Calvin)의 제네바 지배를 들 수 있고, 현대의 신정 정치로는 혁명 후의 이란 정부를 들 수 있다.¹⁸⁾

콘스탄틴과 그 이후의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

18) 칼빈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칼빈의 제네바 통치가 신정 정치라는 것과 그의 신정 정치 사상이 어거스틴을 통해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칼빈의 제네바 통치는 우리가 현시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중동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력 통치’와 같거나 그 이상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 ‘칼빈의 5대 강령’(TULIP)으로 잘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지식백과>라는 세속 사전이 칼빈의 제네바 통치를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킨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신정 정치와 같은 것으로 분류한 것은 객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나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천주교회 같은 교회교의 속박이나 목사나 교회의 독재에 대항하며 성경에 입각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였으며 바로 이 일을 위해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황제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 왕국들까지 다스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통치 모델을 완성하였다.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사상은 1,000년 이상 중세 시대를 지배하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떨치며 신정 국가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정교 관계’라는 글에서 이범성 교수는 제정일치(祭政一致) 혹은 정교일치(政教一致) 시스템인 국가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약 시대의 전통은 제정이 일치되거나 적어도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를 취했지만 신약 시대 복음 전도자들의 전통은 정교가 분리된 형태를 취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대로 제자들의 의견이 되었고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도 정교 유착이 아니라 정교분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산되던 4세기 초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손자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이로써 정교 유착(신정 정치) 시대가 왔다.

종교 개혁을 맞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권에 대한 민족 국가들의 반대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을 뿐이다. 그것은 교황과 황제의 제국적 정교일치를 개신교 주교들과 왕 혹은 성주들의 정교일치로 전환한 모양에 불과하다. 여전히, 더욱 밀접하게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했고 국가는 교회의 인정을 필요로 하였다. 루터는 독일에서 정부의 권력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교회의 선한 역할 분담론을 선전했으며 칼빈은 스위스에서 교회의 적극적 정부 활동을 장려했다. 한편 헨리 8세의 주장력을 통한 영국 국교회의 탄생은 로마 교황청 대신에 정부와 더욱 밀착된 정교일치를 가져왔다. 종교 개혁은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정교 유착에 불과하다.¹⁹⁾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신정 정치 모델이 확립된 이후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유럽의 모든 국가는 오직 카톨릭교회만을 국가의 교회로 인정하였고 천주교 외의 다른 믿음은 모두 이단 교리로 정죄받았다. 반면에 동유럽은 정교회(Orthodox Church)가 국가 교회가 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생긴 루터교 역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국가 교회가 되었고 칼빈의 장로교는 나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었으며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잉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고 말았다.²⁰⁾

19)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56>

20)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등이 이론 ‘종교 개혁’(Reformation)은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 종교의 틀 안에서 항거하며 개혁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거의 대부분 카톨릭교회의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유아 세례, 성직자 계급 체계, 예배당의 성전화(聖殿化), 카톨릭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등). 사실 역사는 인간의 종교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유대교라는 종교(행26:5; 갈1:13-14) 안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이처럼 종교와 종교인은

21세기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가 교회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교회에만 다녀야 하고 거기서 지정해 주는 믿음만을 따라야 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 암흑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대로 살고자 애를 쓴 무리들이 있어서 성경적 믿음이 전수되고 결국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통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에 우리는 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콘스탄틴의 국가 교회 확립 이후로 약 1,400년 만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허락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며 국가 교회와 투쟁해서 얻은 고통의 산물이다.

국가 교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성경을 재해석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Christ killers)로 규정하고 구약 성경의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신약 시대의 교회가 대신 차지한다는 이론 곧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정립하였다.²¹⁾ 이 일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을 영적으로/비유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들의 비유 해석을 도입하여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대단히 무섭다. 종교는 성경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갈1:14). 이러한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등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기독교는 성경적 의미에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목사, 교회 혹은 성도들을 조심해야 한다. 종교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단 신학과 교회나 목사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 위에 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 이들은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늘 살피는 ‘성경 신자’(Bible believer)가 되어야 한다. 유일하게 그것만이 종교의 틀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21) 초기 교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신약)이 모세 언약, 즉 옛 언약(구약)을 대체하고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유대교의 완성이며 성취’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유대인 대학살과 1948년의 이스라엘 국가 형성 이후로 주류 신학자들과 교단들은 이런 관점을 거부하고 있다. <위키백과> 한편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추천사가 붙은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존 김, 예영커뮤니케이션, 2014)이라는 책이 나왔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 멈추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 바늘을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인류 역사를 마지막 정점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이해하였던 기독교 신학의 관행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7.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그리스 제국은 넷으로 분열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의 중심지가 되어 헬레니즘이라는 이교도 문화를 온 세상에 퍼급시키는 중심 도시가 되었다. 거기에는 주전 300년경부터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적당히 혼합한 채 이교도들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주전 3세기부터 고대 그리스 시인이나 작가들의 본문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플라톤의 철학과 구약 성경을 접목한 인물이다. 초기 크리스천들 중 어떤 이들은 필로의 철학을 신약 성경에 적용해 ‘영지주의’²²⁾라는 이단을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바실리데스와 발렌티누스 등의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카톨릭교회의 ‘70인역’(Septuagint)이라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배도한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조품이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통합하려는 욕망에 불탔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신의 영감을 받았으므로 그 기원이 신성하며 신의 말씀과 같다는 그릇된 가정하에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정립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란 죄명을 씌운 카톨릭교회는 오리겐이 주장한 ‘유대인 개종, 추방, 멸종의 3단계 이론’을 교의로 삼아 오늘날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반셈족주의(Anti-Semitism)로 불린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180년경에 펜타누스(Pantaenus, 200년 사망)가 복음 선포자와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교리 학교를 설립했다. 19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가 이 학교를 인수했

22) 영지주의(Gnosticism)는 초대 교회가 겪은 주요 이단 중 하나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보다는 그리스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보았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하는 기독교론은 가현설(假現說)로 이해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육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을 제어하고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과도한 금욕주의를 실행하였다. 또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한 지식(영지)을 추구하였으며, 예수는 그 지식을 매개하는 중재자로 생각하였다. 구원의 방법으로서 지식을 중시하는 것은 영지주의에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영지주의는 결코 통일된 운동이 아니었으며 지역과 지도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띠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특징을 다분히 보여 주었다. 기독교 신학과 삶의 양태 안에는 항상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으며 영과 육을 구별하는 금욕주의적 특징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기독교의 교파」, 남병두 저, 2006, 살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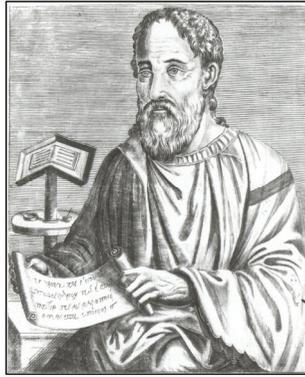
으며 결국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창설자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철학이 기독교의 하너라고 믿었으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이교도들의 철학으로 옷 입혀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론적이고 철학적이며 비유적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 이후에는 오리겐(Origen, 185-254년)이라는 배도한 인물이 나와 역시 성경을 영해²³⁾하고 성경 본문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부유하게 살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나이에 교사로서 크게 성공했다. 그의 삶은 세르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있던 주후 202년경에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순교했고 그의 가정은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1년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오리겐은 18세의 젊은 나이에 클레멘트가 창설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는 천재였으며 수많은 책을 모으고 읽고 저술했고 또 영지주의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암브로스(Ambrose of Alexandria, 212-250)의 책들을 소장했다.²⁴⁾ 그는 또한 이교도로서 신플라톤주의를 창설한 사카스 밑에서 공부했고 매우 금욕적 삶을 살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땅에서 잤으며 심지어 스스로 거세했던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다.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제자로서 필로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성경 본문이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 혹은 풍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비 혹은 풍유적 의미를 통해 진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셋째 의미는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을 ‘영해’라고 한다.

23) 영해(靈解)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로 푸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짐승을 네 복음서에 비유하면서 마태복음을 사자로, 마가복음을 송아지로,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했다. 영해를 따르면 모든 성경 구절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영해를 가장 널리 파급시킨 사람은 필로다. 유대인으로 신플라톤주의자인 필로는 성경의 모든 문자의 배후에는 어떤 신비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필로는, ‘걸음으로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실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플라톤의 관념주의를 성경에 적용하였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종파들(cults)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해하여 성도들을 유혹한다. 다음은 영해의 한 예이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난다.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부통증이 되었다면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받으려면 이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다.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를 말하므로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한다.”

24) 이 암브로스는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리고 이교도들의 사상을 혼합하여 비유 해석(영해)이라는 오류를 만들어 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성경 및 교회사 변개의 주범이다.

오리겐은 특히 성경 본문 부패의 장본인이다.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카톨릭 교회사이므로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는 오리겐을 가리켜 ‘위대한 크리스천 학자요, 고대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 중 하나’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리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다 콘스탄틴의 어용학자인 유세비우스의 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오리겐은 한때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이단자로 판명되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다.”라는 이단 교리를 퍼뜨렸다.²⁵⁾

오리겐의 사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로고스 교리’였다. 이 사상은 요한복음 1장 1-5절과 다른 기독교 저술 안에도 나타나 있는데 특히 오리겐은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란 창조의 신적 원리와 이성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름이었는데 오리겐은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적용하였다. 그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듦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성을 가져다 주는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로고스’로 취급하였다. 그리하여 오리겐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며 가르치기도 하신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무시하였다. 이 같은 교리는 4세기경의 이단 그룹인 아리우스파가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오리겐은 콘스탄틴 황제의 문화 비서 역할을 하던 유세비우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성경 본문 복사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유세비우스는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순수한 본문을 사용하려고 기독교의 모태가 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대신에 이교도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그는 거기서 ‘학자들의 수정판’인 국지적 소수 본문을 얻었고 이것을 50개의 복사본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하나가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된 ‘바티칸 사본’이며 이 사본은 NIV, 개역성경 등과 부패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었다.

25) 「뉴스탠다드 백과사전」(New Standard Encyclopedia) 제9권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철학은 암브로스라는 밀라노의 주교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비유 해석 체계를 근간으로 카톨릭교회의 교리들을 확립하였다. 암브로스는 340년 독일의 트리어에서 출생하였다. 부친과 사별한 후 그는 로마로 가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368년에 변호사가 되었으며 370년에는 북이탈리아 밀라노의 집정관이 되었다. 밀라노에 있을 때 그는 밀라노 성당의 주교 후계자 논쟁을 수습하면서 아리우스파와 카톨릭 양쪽의 신망을 얻어 374년에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교가 되었다. 암브로스는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 수완을 동원하여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국가의 수반인 황제를 교회 밑에 두려 하였다. 그는 성골, 유물, 마리아 숭배 사상 등을 로마 교회 안에 들여 놓은 첫 번째 교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귀족주의적 권위주의자였다. 그는 카톨릭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1. 그는 로마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다 배제하였고 믿음의 영역에서 주교는 황제를 판단할 수 있으나 황제는 주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2. 그는 국가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독교의 도덕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데살로니가에서의 반란 진압 시 특별히 잔인성을 보인 데오도시우스 대제에게 교회에서 참회(고해 성사)할 것을 강요하였다.
3. 그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결속 관계를 추구하였고 이 일이 교회에 크게 유익하리라 확신하였다.

암브로스는 불굴의 의지와 절대적 고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 카톨릭교회의 왕자였다. 그는 로마 제국과 앞으로 세워질 모든 황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립하였다.

1. 국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단과 투쟁하거나 논쟁하는 방법
2. 오리겐과 필로처림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3. 마리아의 무원죄(無原罪)를 주장하여 중세 마리아 숭배 기초 확립
4. 수호성인 만들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스를 존경하였으며 그는 설교를 통해 이단에 빠져 있던 어거스틴을 인도하여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편협하고 미신적이며 거의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책에서 모니카가 자기 아들의 사회적 신분 유지 및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 이미 아들까지 낳고 동거 중인 그의 내연의 처를 지옥으로 보낼 정도의 인격을 가진 여자이며 인간 양심의 도덕범마저 무시한 종교적 잔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미화되어 개신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을 취함으로써 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제거했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논증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머리가 되는 소위 ‘교회교’를 창설한 초대 교부들은 교회사에서 엄청난 망언의 씨를 뿌렸다. 이 씨의 열매들은 첫 번째 정치 신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해 암브로스와의 어거스틴 등에게 전달되며 로마 교회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에 없는 ‘바울-어거스틴-루터’라는 족보까지 만들어 놓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성경 메시지’ 대신 ‘카톨릭 미사곡’까지 교회 안에서 연주하고 있다.

8.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

어거스틴은 신약 시대에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는 국가 교회가 세상에 확립되는 시대에 태어나 마니교, 플라톤주의, 알렉산드리아 철학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다.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잘 드러난다.

유럽 교회의 성서로 불린 「하나님의 도시」- 원제목은 「이교도들에 맞서는 하나님의 도시」임 - 라는 ‘역사 사회 철학서’는 예수님의 복음에다 키케로, 마니, 플라톤 등의 이교 사상을 혼합한 것으로, 카톨릭교회가 지상에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문자 그대로의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배하는 ‘가시적 교회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주의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무천년주의’의 핵심 내용이다.²⁶⁾

사실 어거스틴은 어거스틴 연구가들에 의해 실제와는 매우 다르게 미화되었다. 그는 국가 교회로 전락한 로마 교회 안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교권에 밀착하고 말았다. 제롬과 비드 등이 ‘옛 바빌론의 딸’로 간주한 로마, 즉 신약의 ‘로마’의 멸망을 변호하기 위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시」를 쓰게 되었고 이 책은 4세기경에 ‘교회-국가-종교’의 모든 신학적 문제에 대한 조직적 해답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주후 410년경, ‘영원한 도시’(?)로 간주되어 온 로마가 흔들리자 카톨릭교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의 도시」란 표현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의 글에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유세비우스는 시편 87편 3절을 주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성경의 예루살렘이

26) 무천년주의자들은 현재 교회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년 왕국 시대(계20:1-6)라고 말한다. 그들이 믿는 천 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육체적 통치가 아닌 영적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 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미래에 다가올 천 년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묘사된 것이 교회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 역사가 같은 유세비우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²⁷⁾

옛 바빌론의 '도시 국가'(City State)에 뿌리를 둔 그리스의 폴리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역, 종교, 법, 문화, 도덕 등 모든 것이 같아야 함을 의미했고 어거스틴의 도시 개념 또한 정치와 종교가 즉 카이사르와 그리스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도시 국가'(City State)였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의 여러 곳에서 누차 '하나님의 도시'가 카톨릭교회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도시는 거룩한 교회이다(8권 24)... 그의 교회인 하나님의 도시(15권 26)... 하나님의 도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16권 2)... 하나님의 도시에 대하여 즉 교회에 대하여(시편 71편 18절 주해)... 하나님의 도시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시편 98편 4절 주해) 등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교회'란 다른 아닌 '카톨릭교회'이다.

우리는 중세를 통해 두 형태의 하나님의 도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태어나서 발전한 것들이다. 첫째는 샤를마뉴(Charlemagne, 742-814)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평소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를 즐겨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 제국의 이상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을 8-9세기의 역사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책은 '로마의 통치자는 천국의 안수를 받은 자'라고 선언하며 십자군 원정을 선동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한 로마 교회의 성자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를 부추겼다.

12세기의 오토 주교(Otto of Freising, 1114-1158)는 「두 도시의 역사」(*Chronicle of The Two Cities*)라는 책을 지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가 로마 제국의 연장인 카톨릭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이론을 더욱 확장함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발전을 부채질하였다. 아퀴나스(T. Aquinas, 1225-1274)는 어거스틴의 비전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들을 첨가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옹호했으며 그 뒤 로마 카톨릭교회는 합스부르크가를 역사 안에 등장시켰다.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도시는 니콜라스 1세와 그레고리 7세 등의 교황들에게서 발견되는 교황주의 교회 형태이다. 어거스틴이 제공한 하나님의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 교회는 세속적 권세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그들은 '콘스탄틴의 기증' 등의 위조문서를 만들어 자신들을 합법화하려 했으나 이것이 위조문서임을 밝혀 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교회의 신학자 니콜라스(Nicholas of Cusa, 1401-1464)였고 그 이후에는 발라(Lorenzo Valla, 1407-1457)가 더 정확히 그 문서의 허위성을 증명하였다.²⁸⁾

27)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느니라.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그들이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셀라(시87:2-3). 여기의 '하나님의 도시'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28)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은 750년에서 850년 사이에 조작된 동로마 황제(비잔틴 제국 황제)의 '4세기 것으로 위조한 칙령 문서'이다. 이것은 중세 서유럽의 유명한 위조문서이다. 8세기경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는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1469-1527)의 굳건한 독재주의 이론을 자신들의 교리에 첨가하여 카톨릭 군주들을 늘 로마의 중심으로 모이게 하였다. 비록 루터의 종교 개혁이 로마 교황청과 합스부르크가를 흔들기는 하였으나 로욜라(Ignatius Loyola, 1491/1495-1556)의 반개혁²⁹⁾과 이어서 일어난 카톨릭 르네상스를 통해 카톨릭교회는 더욱더 조직화되었다.

결국 전체 중세 시대를 통해 서로 갈등을 빚었던 교회와 국가, 교황과 황제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견해 뒤에는 어거스틴의 두 도시가 왜곡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교 개혁 시대에는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이론이 루터와 칼빈의 국가 및 교회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칼빈은 프로테스탄트계의 교황으로서 천주교처럼 교회가 다스리는 신정 정치 국가를 제네바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9. 어거스틴의 세상 문화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늘 긴장 관계에 있다. 성경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곳곳에서 가르친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롬12:2).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멩어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를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상천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상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작성된 이 위조 칙령 문서는 13세기부터 시작하여 중세 기간 동안 세속 황제에 대한 기독교 교황의 우위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교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자들은 역사 문법적 해석 방법으로 이것이 4세기 문서가 아니라 후기의 위조문서임을 증명했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학자인 로렌초 발라는 이 문서를 역사 문법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것이 4세기의 칙령이 아니라 8세기경에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 <위키백과>

29) 루터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동등한 제사장(벰전2:9-10)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반면에 옛 그리스 및 로마의 혼합 사상에 뿌리를 둔 로욜라의 반개혁(Counter reformation) 사상은 루터가 크게 훼손한 제사장/성직자 계급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철저하게 구분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의장, 타이틀, 행동 규범을 고안하여 성직자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고 그 결과 중세 암흑시대를 능가하는 성직자 무리가 생산되고 말았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의 평신도라는 말은 '다른 예수'(고후11:4)로 둔갑하여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휘둘렀던 사제들에게 '중속된 백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로욜라가 조직한 예수회, 즉 예수회는 유럽 사회에서 온갖 악한 일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예수 없는 예수회'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고후6:14-18).

초대 교회 이후로 좁은 길을 걸은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의 분리 모델에 따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고 그 결과 국가 교회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 1세기 후반에는 그 당시의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또 국가 교회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깊어지고 도시를 떠나 산지에서 계곡에서 유랑하며 꾸준히 순례의 행보를 이어갔다.

후주 2세기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들(Montanists)이 사도 교회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믿는 성도만이 교회의 회원이 됨을 주장했으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선언하고 재침례(Ana-baptism)를 행했다.

후주 3세기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노바티안들(Novatians)이 일어났다. 이들 역시 유아 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Cathari)이 되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Donatists)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또한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Paulicians)이 초대 자유 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다.

그 뒤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Waldensians)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천주교회와 분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Bogomil)이라는 이름의 자유 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은 알비겐시스(Albigenses)³⁰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고 그 부패한 본성이 왜곡된 문화를 산출하였으며 왜곡된 문화가 다시 인간의 본성을 더욱 썩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죄가 용서되고 사탄의

30)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발도파와 알비파’라고 치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 사람들에게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절대자가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나 지배층이 기술하고자 한 것만 기술한 것이다. 한마디로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다. 그런 까닭에 역사에서 잊히거나 잘못 알려진 사건 또는 존재들을 캐내는 작업은 뜻도 있고 재미도 있다. 발도파와 알비파도 역사와는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곡된 채 알려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알비파는 프랑스의 알비시 근처에 살면서 성경에 근거한 삶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청빈한 삶,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 신자와 수도자 사이에 평등함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했고, 교황과 기존 교회는 이러한 삶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알덴시스와 아나뱃티스트 처형

<Martyrs mirror>(Thieleman J. van Braght, Herald press)는 1158쪽의 책으로 중세 천주교회의 성경 신자 박해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지배를 받던 세상이 새로운 창조물로 갱신됨으로써 창조 세계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의 통치를 받으며 사람들이 변화되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³¹⁾ 따라서 그의 이론에 의하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긴 대립, 갈등, 탄압, 착취, 전쟁 등 각종 무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한 어그러진 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보통 현대 개신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정복 이론이다.

어거스틴의 이론은 「하나님의 도시」에 잘 나타나는데 그가 이 작품을 쓴 목적은 이교도들이 로마 제국의 쇠퇴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문화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고자 했다. 그는 이교의 덕이 기독교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왜곡된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변혁되고 갱신된다고 믿었다. 문화 변혁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이 문화 자체를 변혁시키

31) 후천년주의자들은 천 년이 흐른 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간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해지면, 점차적으로 ‘평화’와 ‘의’의 천 년 시기가 이 땅 위에 도래하게 되고, 정확한 수치로서의 천 년은 아니지만 그 천 년만큼의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기간이 지속된다고 믿는다. 만약 세상에 전쟁과 갈등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후천년설은 하나의 바람에 불과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심지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이것이 중세 천주교 무력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루터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신정 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려 한 이유이다.

10. 어거스틴과 도나티스트: 교회의 무력 사용

주후 251년, 데키우스(Decius) 황제의 박해가 끝나자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로마 교회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모진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생겨나자 교회는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던 키프ريان(Cyprian, 200-258)은 일정 기간 신앙 훈련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교회가 이들을 용서해야 하며 이 모든 결정은 감독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 문제를 봉합하려 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신자들이 죽음으로 신앙을 지킬 때 자기 혼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일로 인해 그는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고 있었다. 살아 있는 순교자로 불리며 신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권위를 인정받았던 ‘신앙 고백자들’(옥중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반대를 표명하였고 키프리안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던 장로들이 합세하면서 교회는 급격히 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키프리안은 ‘신앙 고백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감독의 권위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키프리안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거기에는 성령님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도 없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성례전도 집전될 수 없었다. 키프리안은 이와 같은 이유로 분리주의자들이 다시 카톨릭 국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재세례를 시행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키프리안은 감독 중심의 교회론을 개진했다. 키프리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황 제도의 기초를 확고히 놓았다.

로마의 감독은 교회 연합의 중심에 있으며 감독들은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로마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과 교회는 사도적 전승 안에 존재하므로 이들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즉 사도적 계승과는 관계없이 모인 무리들은 교회가 아니다.

결국 키프리안이 주장한 카톨릭교회 체제를 인정할 수 없었던 분리주의자들이 새로운 감독을 선출함으로써 교회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이에 앞서 로마 교회도 같은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던 코넬리우스가 되돌아온 배교자들을 용납하려 하자 교회의 장로였던 노바티안(Novatian, 200-258)은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강경론으로 맞서며 분리주의의 길을 택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노바티안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퍼졌고 후에는 ‘순결함을 유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카타리’라는 이름의 무리가 되었다. 이들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아 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분류되었다.

시간이 흘러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배교자를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논쟁이 발생하였다. 박해받던 시절에 주교(감독)들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변절했다. 박해가 끝난 뒤 북아프리카 지역은 변절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했고 도나투스(Donatus Magnus, 출생 시기 모름, 356년 사망)를 따르는 도나티스트들은 특히 심하게 색출 작업을 수행하여 기존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며 분리주의자들이 되었다. 이들은 특히 변절자가 준 세례 등이 무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파는 일찍이 몬타니스트들과 노바티안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교회의 거룩함’을 매우 큰 가치로 보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도나티스트들이 생긴 직접적 원인은 박해 기간 중에 강압이나 두려움에 의해 성경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나티스트들은 교회가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떠난 교회이므로 참 교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죄를 저지른 지도자로부터 세례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대부분의 감독들은 관용 정책을 써서 박해 때에 죄를 지은 자들을 비호하고 도나티스트 같은 강경론자들을 탄압했다.

도나투스는 313-355년에 ‘순교자들의 교회’를 이끈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었다. 핍박당하던 시절 당국에 협조했던 카르타고의 감독 멘수리우스가 311년 사망하고 박해자들에게 굴복한 캐실리아누스가 감독이 되어 문제가 생기자 강경론자들은 316년에 도나투스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도나티스트들은 다시 태어난 성도들로 구성된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되고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들의 교회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교회로 번성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카르타고에는 두 명의 감독이 있게 되었고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그 후 약 100년간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노바티안들처럼 도나티스트들도 급속히 발전하여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 퍼지게 되었다. 그들은 콘스탄틴 황제에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그는 처음에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했다. 그러나 박해를 당하자 도나티스트들은 더 열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에 콘스탄틴은 태도를 바꾸어 321년에 그들에게 완전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주는 새 법을 선포했으며 카톨릭교회에는 인내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권고했다.

도나티스트들은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를 강조했고 세속적

인물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했으며 교회 일에 세속 권력자가 간섭하는 것 역시 단호히 배격하였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약 교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4세기경의 카톨릭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배도하였으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국가 교회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이로써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카톨릭교회와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로 분열되었고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은 콘스탄틴 황제가 도나티스트 편이 아니라 카톨릭 편이라는 문서를 근거로 국가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도나티스트 교회를 제압하였다.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즉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 교회를 국가 교회에 종속시키려 하였다.

어거스틴은 강압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보았고 치명적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에는 교회가 물리적/군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 즉 그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때로는 ‘치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카톨릭교회에 대항하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회심(개종)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중세 천주교회의 십자군 원정과 종교 재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에서 나타난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은 중세 천주교회와 그 이후 개혁자들의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강압 박해 명령에 따라 405년에는 교회 일치 칙령이 발효됐고 411년에는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를 대적하는 파문령이 공포되어 국가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을 사형을 시켜 엄하게 다스렸다. 그 이유는 북아프리카에서 막강한 교세를 가진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를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나티스트들은 “황제가 교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외치며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를 외쳤고 결국 7세기경에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13세기 무렵, 로마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꺼 버리고 인류를 성경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끈질기게 애썼다. 싸움의 불씨를 지핀 것은 도미니크 구즈만(Dominic Guzman, 1170-1221)이라는 이름의 스페인 카톨릭 사제였다. 그는 교황 이노센트 3세(Pope Innocent III, 1161-1216)와 더불어 로마의 가장 흥포한 통치 도구인 종교 재판을 고안한 사람이다. 종교 재판은 마녀나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작되었다.³²⁾

32) 종교 재판은 이단 심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처벌을 포함하는 이단자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그 임무로 하였다.



도미니크 구즈맨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더불어 로마
교회의 가장 흥포한 통치 도구인
종교 재판을 고안한 인물. 도미니
크회의 창시자

그 당시에는 알비겐시스(Albigenses)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때에 알비겐시스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고 특히 구즈맨과도 논쟁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성 도미니크라고 숭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³³⁾ 도미니크는 알비겐시스를 이단이라고 고소했지만 그의 유명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알비겐시스가 실제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단자에 대한 탄압은 4세기 그리스도 교회 -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교회 - 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12세기에 이르러 그 태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남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적 이단 운동이 교회에 준 심각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로마 교황은 일종의 십자군을 결성해서 20년에 걸친 이단자 박멸 전쟁을 일으켜 어렵게 이들을 진압하였으나 사후 대비책으로서 이단 박멸 강화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그래서 이단자와 신학적 논쟁을 전개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종교적 열의를 가진 적격자를 전 그리스도교 국가 - 카톨릭 국가 - 에 파견하고 그에게 교황의 대리인으로서 치의 법권을 부여하여 전적으로 '이단 사냥'에 종사하는 전문적이고도 항구적 조직을 만들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1233년 4월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교황 교서로서 이를 발표하고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를 '이단 심문관'에 선임하였다. 이렇게 제도화된 종교 재판 조직은 이단 심문관의 진주(進駐)에 따라 전 그리스도교 국가에 퍼졌다. 종교 재판 방법은 피고에게 유리한 변호는 일절 허용되지 않고 불리한 증언만 허용되었으며, 이단에 대한 밀고는 비록 친자식 형제 사이의 것이라도 정죄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받았다. 또한 다종다양하고 처절한 고문에 의해 자백이 강요되거나 날조되어, 용의자는 반드시 유죄 판결과 처형으로 귀착되도록 짜인 암흑재판이 시행되었다. 이단 탄압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은 각국의 국왕, 영주,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세속적 재판에 의해서도 행해졌다. 그 뒤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자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종교 재판이 성행되었는데 그 재판 방법은 카톨릭 측의 방법과 같았다. 이 종교 재판 제도는 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1820년경에 거의 폐지되었다. <두산 백과>

33)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교파가 없이 하나라고 오해한다. 그런데 개신교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이 있듯이 천주교에는 어거스틴파, 도미니크파, 프란시스코, 베네딕트파, 갈렐파 등의 이십여 개의 파가 있다. 영어 <위키백과> 혹은 구글에서 'Catholic religious order'라고 치면 전체 명단이 나온다. 구즈맨은 종교 재판을 실시한 도미니크파의 원조이며 카톨릭교회의 성인으로서 보통 '성 도미니크'(Saint Dominic) 혹은 '오스마의 도미니크'로 알려져 있다. 우리말 <위키백과>에서 '도미니크회'라고 치면 이 파의 활동을 알 수 있다.

알비겐시스는 권력과 영화의 과시나 그럴싸한 옷차림을 통해 개종자를 확보하지 않았다. 열정적 설교, 겸손함, 절제하는 생활이 그들의 무기이다. 그들은 겉보기에도 티가 난다. 그러나 그들의 거룩함은 겉치레일 뿐이다.

도미니크는 알비겐시스의 거룩함이 허울 좋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탄로 낸 뒤 천주교식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도미니크도 자신의 설교로 알비겐시스를 누르려고 마음먹었지만 그의 노력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알비겐시스는 성경을 폭넓게 잘 아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도미니크가 로마로부터 들여온 비성경적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더 나아가 알비겐시스는 주후 1206년에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가 아니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그들에게는 로마 교회가 그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혼돈의 교회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David W. Cloud)는 자신의 저서 「로마와 성경」(*Rome and the Bible*)의 9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³⁴⁾

로마 카톨릭교회는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지도 않았다.

주후 1207년, 프랑스의 몬트리올에서는 도미니크를 주축으로 한 카톨릭 사제들과 알비겐시스 사이에 최후의 신학 논쟁이 벌어졌다. 역사가들은 도미니크가 이 논쟁에서 참패를 당했으며 알비겐시스의 대표자였던 드 테름(Benoit de Termes)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고 기록한다. 도미니크는 협박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탄 공회를 만들어 종교 재판을 집행하고 스스로는 공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도미니크의 분노에 찬 간청에 힘입어 알비겐시스 신자들을 박멸할 것을 지시했다.³⁵⁾

이러한 피의 숙청은 도미니크의 친한 친구인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³⁶⁾가

34) 현재 네팔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클라우드는 현대 근본주의 침례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책을 저술하며 예리하게 시대를 분석하는 분이다. 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생명의 길'(www.WayOfLife.org)은 미국의 근본주의 웹사이트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에 속하며 여기에는 킹제임스 성경, 각종 이단, 침례교 역사 등의 자료가 매우 많다.

35) 그는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룩하며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인물이다. 그는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결성을 제창하고 1209년에는 제5차 십자군 결성을 제창하였다. 그는 재위 기간 중 많은 부분을 프랑스 남부에서 일어난 알비파를 탄압하는 데 썼다.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교황청의 특사를 살해한 알비파를 카톨릭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십자군을 편성하였다. 카톨릭교회와 알비파의 싸움은 크게 확대되어 14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1240년에 이르러서야 평정되었다. 우리말 <위키백과> '인노첸시오 3세' 항목

36) 12세기 초 교황 이노센트 3세 시절 남부 프랑스의 링구에독과 프로방스 지역에서는 카톨릭교회의 요구와 주장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은 다른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였는데 그중 '라 미네르브'(La Minerve)라는 곳에서는 140여 명의 남녀 신자들이



화형당하는 성도들

중세 암흑시대에 구즈맨과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시작된 종교 재판으로 수천만 명의 성경 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였다.

주도했는데 이 사악한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용감한 십자군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잔인무도한 학살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알비겐시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의 흔적마저도 송두리째 없애려 한 자이다. 이를 위해 드 몽포르르는 그들에 관한 문헌까지도 철저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박멸했다.³⁷⁾

주후 1233년,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종교 재판을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했다. 이로써 성경 신자들을 향한 600여 년간의 피의 참극이 시작되었다. 알비겐시스를 박멸한 뒤 교황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소지하거나 읽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 버렸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 말씀이 비추는 빛은 로마 교회의 이단 교리를 모조리 폭로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퍼부었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까지 모조리 없애려 했다.

알비겐시스를 시작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종교 재판은 수 세기 동안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다. 역사학자 돌링(John Dowling)이 1845년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들을 죽이려는 카톨릭 군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때 그들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카톨릭 군대 지도자 드 몽포르르는 커다란 장작더미를 준비하고는 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나 사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뿐이다.”라고 외치며 모두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새 교회사 I』, 정수영, p. 283). [정수영 목사님의 ‘새 교회사’는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우며 킵바이블(www.KeepBible.com)의 우측 상단 구글 검색에서 ‘정수영 목사님 새 교회사 총 12개 PDF 파일 모음’이라고 치면 스캔 받은 책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유튜브에서 ‘정수영 교회사’라고 치면 40여 개의 교회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37) 『Rome and The Bible』, David W. Cloud, p. 65.

종교 재판에 의한 사망자 수는 5,000만 명이 넘는다. 이 숫자는 천주교에 의해 이단 판결을 받고 죽임 당한 사람의 누계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학자들이 빈틈없이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이다.³⁸⁾

도나티스트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세례³⁹⁾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 세례는 성경 신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다. 로마 제국이 국가 교회를 시행하다 보니 누구든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카톨릭교회는 사람이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 믿음의 순례 여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것을 ‘세례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세례 중생’을 믿지 않았고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이런 차원에서 도나티스트들은 비록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행한 것이므로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이 성경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받는 세례가 참 세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이 베푸는 세례가 ‘재세례’가 아니라 ‘성경적 참 세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그가 속한 카톨릭교회는 이와 같은 도나티스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리하면 국가 교회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대상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부호’가 새겨진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노예들의 이마에는 흔히 각인을 새겼다. 그들이 훗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 오더라도 다시 각인을 새길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마에 이미 과거에 새긴 각인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든 그 대상자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도나티스트 같은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단들이 카톨릭교회로 돌아올 때에도 재세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런 신학적 이유 때문에 어거스틴은 극심하게 도나티스트들을 핍박하였다. 파라(F. W. Farrar, 1831-1903)는 어거스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성경을 짜 맞추어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해석을 이끌어 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점이 있다. 그는 교회, 즉 카톨릭교회의 정설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만 하며 어떠한 성구도 다른 어느 것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권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을

38) 「The History of Romanism」, John Dowling, 1845, p. 541.

39) 성경적으로는 재침례가 맞지만 역사서와 백과사전 등에 거의 공통적으로 재세례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침례 대신 세례를 썼다. 사실 초기에 재세례의 목적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것이다. 나는 카톨릭교회의 권위가 지지해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시된 구원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맡겨져 있고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류투성이인 교회로 대체함으로써 철저하게 ‘사탄의 교회교’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에게는 교회 자체가 진리의 표준이었고 따라서 교회가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권위나 교회를 판단하는 교회 이상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교회의 책, 즉 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말씀해 주듯이, 교회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는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이후로 로마 교회는 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경해 왔다.

11. 어거스틴의 다른 사상⁴⁰⁾

1. 마리아 숭배: 비록 자기 나름의 마리아 사상을 펴지는 않았지만 어거스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였다.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기 전에 이미 그는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다.
2. 교회: 그는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으며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그중 하나는 보이는 요소로서 카톨릭 성례와 성직자 계급 체계 및 평신도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었다. 전자는 구원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푸는 제도적 교회, 즉 그리스도가 세운 카톨릭 교회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혹은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사제들의 사도적 계승: 그는 키프리안의 가르침에 따라 카톨릭교회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가르쳤다.
4. 자유 의지: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이성적 존재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 자유 의지가 죄를 짓는 용도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유 의지는 물질들에 의해 갇혀 있으므로 죄를 짓기 전의 의지만큼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었다. 그는 종종 누구든지 원하면

40) 영어 <위키백과>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항목에서 그대로 발췌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원죄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믿고 가르쳤다.

5. 유대인: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세상으로 흩으셨고 그들은 결국 세상 끝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땅에 살되 흥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6. 종말론: 처음에 그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전천년주의(Premillennialism)를 믿었지만 후에 그것이 육신적이라는 이유로 그 관점을 버렸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유평피아를 이루는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에 가까운 믿음을 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를 주장하였다.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땅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무천년주의를 확립하였다. 종교 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신학자들 역시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다.
7. 연옥: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의 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믿었다.
8. 현시대의 추종자들: 파이프(John Piper) 목사나 아렌트(Hannah Arendt) 같은 작가들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

12. 어거스틴 사상 총정리

위에 열거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정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도 동원하여 신정 정치를 구현하는 국가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다.
2. 무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
3.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곧 구약 시대의 왕국이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어받는다.
4. 인간의 자유 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5. 세례 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6. 연옥: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상태로 죽은 자들은 연옥 불에 의해 정화된다.
7. 마리아 숭배: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로서 죄 없이 수태되어 그리스도를 출생한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8. 성인들의 공작: 수호성인들의 공적이 있으면 연옥에 있는 자들의 죄들이 경감된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지난 1,500년 이상 로마 카톨릭교회가 공언한 믿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⁴¹⁾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증언을 통해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모든 교리를 놓은 장본인이며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의 박사'(Doctor of the Church)로 불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알 수 있다.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사는 배도자 유세비우스나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⁴²⁾ 등과 같이 카톨릭 교회사거나 카톨릭 편향의 개신교 교회사자들이 저술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같은 철저한 카톨릭교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성도)로 묘사한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더 테레사, 프란시스 등의 카톨릭교회 성인들은 사도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 즉 '행위 복음'을 믿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들'(saints)의 반열에 결코 들 수 없는 사람들이다.⁴³⁾ 그 이유는 카톨릭교회의 '성인들'(saints)은 육에 속한 행위에 의해 카톨릭교회나 교황이 생산해 내는 '인조 성인들'이지만 성경대로 믿어서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saints)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보고서도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바울의 은혜론과 필적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과연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4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의 유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를 참조하기 바람.

42) 스위스 출생의 미국 신학자 샤프는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유니언 신학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영미 합동 작업에 의해 1885년에 완성된 영어개역 성경(RV)의 미국 측 위원장도 역임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그리스도교의 여러 파의 일치 협력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즘의 선각자이며 추진자였다(『종교학대사전』, 1998). 샤프는 RV의 미국판인 미국표준역(ASV) 번역 위원장을 지내면서 성경 번개에 앞장섰고 1893년에는 당시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 회의'(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를 주도함으로써 영원토록 종교 통합 운동(WCC 운동)의 선구자로 남게 되었다.

43)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saints', 즉 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카톨릭교회가 인조 성인들을 양산해서 'saints', 즉 성자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므로 성경 번역 시 어쩔 수 없이 'saints'를 성도 곧 '거룩한 무리'로 번역하였다. 카톨릭교회는 벨기에의 '제수이트' - 예수회 사제들 - 인 볼란디스트파를 동원하여 17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카톨릭교회 성자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악타 쌍토름」을 편찬하였다. 전 유럽에서 일어난 제수이트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은 벨기에에서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 책은 카톨릭교회의 공식 순교사로 읽히고 있다. 사실 현대 개신교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인용하는 성 프란시스 등의 카톨릭교회 성자들 이야기는 거의 다 이 책에서 유래되었다. 볼란디스트파의 우두머리였던 델레하에는 그의 저서 「성자들의 전설」에서 성자들에 관한 전설과 관련된 전기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또 카톨릭교회 학자인 아트위트는 「성자 사전」에서 "초기 순교자들에 대해 기록된 많은 것 중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많은 부분이 순전히 가공된 이야기이며 나머지는 전설과 전기의 배합물이다."라고 시인하였다.

할 것이다. 어거스틴의 믿음을 따르면 성경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확립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중생’(重生), 즉 ‘다시 태어남’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다수 카톨릭교도들은 위로부터 임하여 인간의 질을 새롭게 창조하는 중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들려주듯이 카톨릭교회에 귀의해서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의 제도적 의식이 마치 중생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사악한 카톨릭주의의 제도에다 고해 성사라는 또 다른 굴레를 하나 더 씌워 주었다.

어거스틴의 수도원 규칙을 보면, 그는 아비 종교를 더욱 강조하여 아비 계급에 절대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제를 ‘신부’(神父), 즉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영어권에서도 카톨릭교회의 사제는 ‘Father’(아비)로 불린다. 그들은 베드로를 유일한 카톨릭교회의 통일성으로 삼고 - 참고로 제함과 더불어 어거스틴이 만든 교황 리스트는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 교회의 특성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두기보다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함, 전통’에 두고 있다.

3세기경에 오리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암브로스에게 왔을 때 그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다 ‘성물 숭배 사상’을 더했고 어거스틴은 이 모두에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인정하는 연옥설을 보태어 ‘연옥설의 원조’가 되고 말았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후1:15)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이야말로 그의 고백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을 온 영혼으로 체험하였으며 이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했다. 그래서 그의 짧은 서신서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In Christ Jesus)라는 말이 무려 40회나 기록되었다.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이다!

그런데 영생의 심판자 노릇을 해 온 카톨릭교회 안에 안주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온통 카톨릭교회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실은 그가 복음을 모방한 거짓 종교에 빠진 채 침울하고도 우울한 종교적 위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종교성 테두리 안에서 끝없이 방황하였음을 우리에게 잘 들려준다.

그는 악의 비참함을 철저히 되씹음으로써 얻게 되는 종교적 위안을 통해 회한의 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찾지 못했고 따라서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빌3:13-14) 그 환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하르낙(A. Harnack, 1851-1930)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이사르적이고 동시에 어거스틴적인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기에 혹은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토록 자상하게 설명한 은혜에 이르는 길이 부족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 밖에서 어거스틴의 은총론 같은 인본주의 은총론을 들먹여야 하는가?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로마 교회의 공회 중 가장 사탄적인 공회로 알려진 트렌트(트리엔트) 공회가 결정하고 발표한 카톨릭교회의 의인론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어거스틴파에 속했던 루터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늘날 카톨릭교회와 수도원에서 수많은 현대판 모니카와 어거스틴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아직도 인간의 종교적 은총론에 갇혀 방황하고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성구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고 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성모 교회, 즉 ‘거룩한 어머니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딤후3:5). 비록 그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뒤적이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살아 계신 생명의 주’를 찾고 있으나 그들의 길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큰길이다.

제 2 장

Chapter 2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장로교를 창시한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종교 개혁자이며 성공회의 성인이기도 하다. 칼빈은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의 누와옹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 귀족의 비서/경리 등으로 일한 소시민이었다. 처음에 그의 아버지는 칼빈이 카톨릭교회 사제가 되기를 원했으나 카톨릭교회와의 갈등과 시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들에게 진로를 바꿀 것을 권했다.

칼빈은 1523년 말에 파리의 몽테규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인문학자이자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준 에라스무스와 라블레 등에게 수학하며 수사학 등을 배웠다. 이 시기에 그는 그의 사촌인 올리베탕(P. R. Olivetan, 1506-1538) 등의 영향을 받았다. 1528년 파리에서 학업을 시작한 로올라¹⁾도 칼빈과 비슷한 시기에 몽테규 대학에 다녔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528년에 칼빈은 아버지의 권유로 오를레앙 대학과 부르주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는 1532년에 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의 주해(註解)를 발표하여 인문주의자로서의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는 1533년에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인용한 이단적 강연의 초고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은신하면서 교회를 초기 사도 시대의 순수한 모습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짐하고 카톨릭교회와 결별했다.

1533년에 그는 이른바 ‘돌연한 회심’²⁾을 하면서 영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데 이것은 그의 시편 강해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가 교회를 개혁하라는 하나님의 대언자적 소명을 확실히 믿었음이 나타나 있다.

-
- 1) 카톨릭 반종교 개혁의 선구자(Ignatius of Loyola, 1491-1556). 그는 스페인의 바스크 출신 군인으로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상에서 예수님과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예수님의 병사가 될 것을 결심한 뒤 성모 마리아에게 헌신을 맹세하였다. 그는 만레사에서 1년간 기도와 금욕 생활에 전심하면서 신비적 체험을 거쳐 영적 수련의 방법을 체계화한 「심령 수행」(Spiritual exercises)을 집필하였다. 그는 로마와 예루살렘을 순례한 뒤 면학에 힘쓰다가 1534년, F. 사비에르 등 학우 6명과 함께 몽마르트 언덕에서 ‘청빈·정결·성지 순례’를 서약하며 예수님과 교황을 위한 용병대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회를 창립하였다. 그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되돌리려는 반종교 개혁을 추진하는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 2) 정확하게 칼빈이 언제 어떻게 회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후대의 학자들이 그의 글을 분석하여 추론만 할 뿐이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종교 개혁의 불길이 퍼지면서 1533년 11월 1일에 칼빈의 친구인 니콜라스 콕(Nicolas Cop, 1501-1540)은 교수들과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기독교 철학과 법과 복음의 관계 등에 관해 비판적 연설을 하였다. 이에 국회가 이 연설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콕은 도시를 빠져나갔고 국왕 프랑수아 1세(1515-1547년까지 재위함)가 종교 개혁 주동자들을 박해하기로 결심하자 칼빈도 도시를 몰래 빠져나갔다.

1534년 10월 17-18일 밤에는 미사 때 빵 조각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카톨릭교회의 성변화 교리, 즉 화체설에 반대하는 과격한 벽보가 파리와 전국 각지에 나붙었다. 이에 프랑수와 1세는 일단의 조치를 취했고 파리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11월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몇 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한편 1535년 6월 4일에는 천주교 소수 본문이 아닌 개혁자들의 공인 본문³⁾에서 올리베탕(칼빈의 사촌)에 의해 번역된 성경⁴⁾이 출판되어 천주교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1535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이단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칼빈은 스위스의 바젤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1536년 장로교회의 고전이 된 「기독교 강요」(*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⁵⁾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박해받던 프랑스의 개신교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망명객의 귀환을 허용하는 특별 사면이 포고되었고 이에 칼빈은 프랑스로 떠나서 친구들을 방문하였으며 그 뒤 프랑스를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일들을 정리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 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로 가서 조용히 공부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프랑스 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군대의 이동을 피해 우회하여 스위스의 제네바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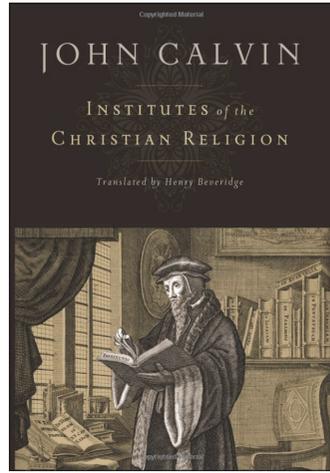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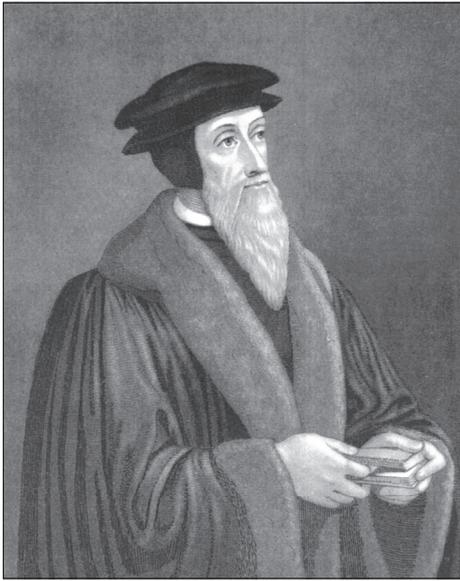
1. 칼빈과 제네바

1536년 당시 제네바는 약 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1532년 이후에

3)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은 초대 교회 이후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한 그리스어 본문을 말한다. 이 본문은 흔히 다수 본문, 보편적 본문, 종교 개혁 본문, 비잔틴 본문 등으로 불리며 성경 신자들은 한결같이 이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만을 사용하였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등이 다 공인 본문에서 나왔다. 한편 NIV, NASB,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본, 개역성경, 공동번역 등은 모두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번역되어 교리 면에서 신실함을 잃고 심각한 부패를 보인다.

4) 이것은 보통 ‘올리베탕 성경’이라고 불리며 프랑스의 대표적 국민 성경이다.

5) 영어 단어 ‘Institute’는 규칙, 관습, 관행, 원리 등을 뜻하고 법률에서는 ‘요점을 뽑아서 적은 기록’, 즉 적요(摘要)를 뜻한다.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신학에 관한 칼빈의 대표적 저서이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에 파란을 가져왔던 종교 개혁에 큰 사상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의 개신교계에서도 그 영향력이 상당히 남아 있다. <위키백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한 칼빈(1509-1564)

베른이 개신교 주(칸톤, 독일어 Kanton)⁶가 된 것을 계기로 삼아 파렐(G. Farel, 1489-1565)과 그를 돕던 사람들은 줄곧 제네바에 종교 개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베른의 도움에 힘입어 마침내 제네바는 이 시기에 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하는데 성공했고 1536년 5월 21일에 제네바 시민들은 파렐의 지휘 아래 종교 개혁을 수용하기로 하며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는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복음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바로 이때부터 제네바는 카톨릭주의를 청산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도시 및 국가(주)의 유일한 신앙으로 확정하였다.

1534년에 공식적으로 제네바의 목사가 된 파렐은 제네바에서 카톨릭교회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종교 개혁을 이끌고 나갈 능력이 없었다. 그는 천성이 광신적이고 단순한 기질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었고 에라스무스는 그에 대해 “일생 동안 이보다 더 불손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혹평하였다. 폭력적 천성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열정으로 민중을 선동하여 이 과업을 달성했지만 막상 승리한 뒤에 그는 창조력 없는 무능한 혁명가로 드러나게 되었다. 낡은 질서의 잣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던 파렐은 칼빈이 제네바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 제네바로 들어와 종교 개혁 사업을 완수해 달라고 간청했고 칼빈은 이를 승낙하였다.

1536년 9월 5일의 시 의회 기록에는 파렐의 뒤를 이어 프랑스 사람을 성경 교사로 고용한다는 것 외에는 칼빈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시 의회 의원들 중에는

6) 스위스는 26개의 주(칸톤)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종교 개혁 당시 스위스의 주들은 각각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 투쟁을 벌였다.

아무도 다음과 같은 무서운 독재 사상을 가진 칼빈이 자기들을 규제하기 위해 「기독교 강요」에서 명백하게 밝힌 요구 조건을 내걸며 고용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교회의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행할 권한이 있고 이 세계의 위인이나 모든 권력자를 강요하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여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만들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령을 세울 수 있으며 사탄의 왕국을 쳐부술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양들을 보살피고 늑대를 절멸시켜야 하며 복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며 반항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절멸시킬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결합할 수도 해체할 수도 있으며 번개와 천둥을 내리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537년 1월 16일에 제네바의 목사들은 시 의회에 일련의 규정들을 제출했는데 이것들은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이 받아들여지자 모든 제네바 시민들은 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칼빈이 이 규정들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엄격한 교회의 권징(勸懲)을 시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주일에 베푸는 주의 만찬(천주교의 성만찬)에는 거룩하게 생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칼빈은 시 의회와 협력하였다. 칼빈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심지어 그는 종교 개혁 신앙 고백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누구든지 도시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가 이런 일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칼빈은 구약 시대의 왕국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 채 어거스틴의 신권 통치 개념을 이용하여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칼빈이 제시한 교리 교육서와 신앙 고백서를 시민들이 수용하고 교회의 신권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시 의회가 베른의 요청에 따라 베른에서 행해지고 있던 몇 가지 교회의 관례들을 제네바에 도입하려 하자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중세 카톨릭교회의 독재를 벗어나고자 했던 제네바 시민들은, 천주교 교황보다 더 완고하고 무서운 칼빈의 독재 아래에서 신음하고 죽어가야 했다. 칼빈은 이 모든 흉악한 일을 신권 통치 독재 체제인 국가 교회를 위해 자신이 직접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결국 목사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기꺼이 순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38년 4월에 칼빈과 그의 일당은 제네바로부터 추방되었다. 칼빈과 파렐은 베른과 취리히를 통과하여 바젤로 갔고 그 뒤에 칼빈은 1538년 9월에 스트라스부르그로 가서 400-500명의 프랑스 망명객으로 새로 구성된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칼빈이 제네바에 없는 동안 시민들은 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앙 문제로 방황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 카톨릭교회는 제네바를 다시

교황 편으로 돌리려 하였다. 이런 와중에 다시 교황의 세력 밑으로 들어가면서 혼동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칼빈의 엄격한 계율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결국 1541년 5월 1일에 제네바시 의회는 칼빈에게 내렸던 금지령을 폐지하고 만장일치로 그를 다시 청빙하기로 결정했으며 칼빈은 마침내 1541년 9월에 제네바를 향해 출발했다.

이때부터 칼빈은 1564년까지 약 22년 동안 제네바에 머물며 ‘개신교의 교황’으로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처음 실패를 경험한 뒤 그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장로 통치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다. 물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였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구약 시대 신권 정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이었다. 종교 개혁이라는 자유 운동에서 출발한 칼빈의 교조적 강압 정치(신정 정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냉혹하게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 버렸다.

고린도 시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경건치 못한 삶을 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력으로 고린도 시민들을 통치하려 하였을까? 우리는 중세에 무슬림들이 서진하면서 정복민들에게 “꾸란이나, 칼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며 강제로 개종하게 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일을 한 이슬람 세력의 횡포에 분개한다. 그런데 칼빈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네바에서 무슬림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만행을 저질렀다.⁷⁾

교회가 시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뛰어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사실을 역사는 잘 보여 주고 있다.

2. 칼빈의 제네바 통치의 실상

다음 글은 오스트리아의 작가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바오출판사, 2009)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칼빈과 동시대에 제네바에 살면서, 신정 국가를 건설한 칼빈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며 관용을 부르짖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1563)의 감동적 싸움을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인 츠바이크가 기술한 것이다. 아무도 이 책이 보여 주는 역사적 사실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카스텔리오는 칼빈의 최후의 대적이었다. 칼빈의 본모습을 알지 못했던 카스텔리오도 처음엔 멋모르고 그의 문하에 들어가 일했다. 그러나 칼빈의 독재와 그의 측근들의 위선이 시 전체를 망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까놓고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

7) 유튜브에서 ‘정수영 교회사’라고 치면 신약 사관에 입각한 ‘새 교회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37-40번 강의는 칼빈과 제네바 역사를 잘 보여 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만다. 쫓겨난 카스텔리오의 삶은 비참했다. 칼빈의 입김으로 그는 일정한 직업도 얻지 못한 채 구걸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고 기껏해야 바젤의 한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는 일로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

우리는 청교도 신앙/개혁주의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무서운 독재자의 사상을 성경 위에 두고 그대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천주교회의 통치보다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통치의 실상이 국내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려지기를 원한다. 다시는 그런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는 실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역사는 잘 보여 준다. 칼빈에 대한 카스텔리오의 평은 다음과 같다.⁸⁾



칼빈은 타고난 대로 질서의 인간이었다. 불규칙한 것, 체계 없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그의 천성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새로운 신앙에 알맞도록 훈련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들에게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지상의 왕국처럼 모든 정신의 왕국도 눈에 보이는 경계선과 법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석 달이 지나자 벌써 <교리 문답서>를 시 의회에 제출했다. 그것은 개신교의 기본 원칙들을 21개 조항으로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었다. 이 <교리 문답서> — 어느 정도는 개신교의 십계명으로서 — 는 시 의회로부터 원칙적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칼빈은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점도 벗어남이 없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다. 교리를 형식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따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따를 것인지 하는 자유가 여전히 개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리 문제와 생활에서 한 치의 자유도 허락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정신적/종교적 문제에서 개인의 내적 확신을 위해 단 한 줌의 여지도 남겨 둘 생각이 없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요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가지며, 단순히 열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46-51쪽에서 발췌함.

“다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의 직무가 설교를 마친 뒤에는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교리 문답서>는 단순히 신앙의 노선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주)법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공개적으로 이 <교리 문답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따르기로 맹세하는 일을 직권으로 강요해 달라고 시 의회에 요구했다. 시민들은 초등학생처럼 열 명씩 ‘장로’의 안내를 받아 교회에 가서는 오른손을 들고 장관이 낭독하는 맹세를 같이 해야만 했다. 이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바로 도시를 떠나라는 강제 명령을 받았다. 이 요구는 매우 단호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때부터 종교 문제에 관한 한 칼빈의 요구와 견해에서 머리카락만큼만 벗어나도 제네바 성벽 안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었다.

루터가 요구한 ‘기독교인의 자유’는 제네바에서 끝이 났으며, 종교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는 생각도 종말을 고했다. 논리가 윤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문자가 종교 개혁의 정신 위에 놓이게 되었다. 칼빈이 제네바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이 도시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유도 다 끝이 나고 말았다. 이제 제네바에는 단 하나의 의지, 즉 ‘칼빈의 의지’가 모든 사람의 의지 위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독재는 폭력 없이는 생각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권력의 수단을 질 필요가 있다. 명령하는 사람은 형벌을 줄 권리도 함께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칼빈의 임용 조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교회의 위반 사례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 시 의원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성경 강사’를 초빙했을 뿐이었다. 즉 그들은 설교를 함으로써 신자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설교자를 초빙하였을 뿐이다.

시 의원들은 시민들의 법적/도덕적 태도에 대해 형벌을 내릴 권한은 자신들의 재판권에 속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루터도 초빙글리도 다른 어떤 개혁 지도자들도 그때까지 시 당국에 이러한 권한이나 권력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천성이 권위적인 칼빈은 시 당국을 자신의 명령과 지시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격하하기 위해 초인적 의지를 쏟아 부었다.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제명이라는 수단을 도입해 그런 권한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그는 ‘주의 만찬(성만찬)’이라는 종교적 신비를 천재적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개인적 권력과 압제의 수단으로 바꾸었다.

칼빈파 설교자는 평소 도덕적 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을 ‘주의 만찬’에 와도 좋다고 허용했다. 그런데 설교자의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 바로 여기에 이 무기의 힘이 실려 있다 — 시민으로서도 끝장이 나 버린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사서는 안 되었다. 그럼으로써 종교 관청이 이용하는 순전히 종교적 조치가 곧바로 사회적 조치로 바뀌고 사업상의 거부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추방될 사람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설교자가 요구하는 공격

참회를 거부하면 칼빈은 그에게 추방을 명령했다. 칼빈의 적대자는 비록 가장 존경받는 시민일지라도 제네바에서 계속 살 수 없었다. 종교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번개를 손에 든 칼빈은 자기에게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단 한 번 대담하게 움켜쥐는 행동으로 그는 번개와 천둥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것은 전에는 도시의 주교도 감히 가져 보지 못한 무기였다. 카톨릭교회에서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끝없는 심급 과정을 거쳐야만 교인 한 명의 추방을 결정할 수 있었다. 카톨릭교회의 파문은 '초개인적 행동'에 의해 한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권력 의지를 추구하는 일에는 대단히 합목적적이고 냉혹했던 칼빈은, 그러나 이러한 추방권을 일상적 일처럼 설교자들과 종교국에 넘겨주었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위협을 거의 규칙적 형벌로 만들고, 테러의 효과를 잘 계산하는 심리 전문가로서 이 형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권한을 무한정 높였다.

칼빈은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네바시 당국은 아주 애를 써서 간신히 그것을 일 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강력한 무기를 다시는 자기 손에서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진 뒤에 그는 비로소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총체적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

대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국민들은 독재 체제의 그 엄격한 규율과 강화된 집단적 작용력이 언제나 개인의 권리들을 희생시키며, 모든 새로운 법칙은 예외 없이 과거의 자유를 대가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제네바 시민들도 이제 서서히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민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종교 개혁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중앙 광장에 모여들어 독자적 인간으로서 손을 높이 쳐들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형리의 감옥 아래 있는 포로들처럼 열 명씩 짝을 지어 도시를 가로질러 가서 교회에서 칼빈의 21개 조항에 맹세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공화주의적 자존심은 몹시 상하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단지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노래했거나 아니면 칼빈이나 파렐의 눈에 너무 울긋불긋해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온 설교자로부터 추방의 위협을 받으려고 엄격한 관습 개혁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시민들은 도대체 이토록 건방지게 구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네바 시민들인가? 이전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이 도시의 위대함과 부를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인가? 입증된 애국자들인가? 수백 년 전부터 최고 가문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 방금 흘러들어 온 망명자들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여서 방과 거처를 제공해 주고 좋은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나라에서 온 관세 징수인의 아들은 자기 형제들과 친척들이 이 따듯한 보금자리로 불러들이더니, 이제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시민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고 책망하는 자가 되었다! 자신들이 고용한 이 망명자가 이제 와서 누구는 제네바에서 살아도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독재 초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직 다 완전히 억압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두 쫓겨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저항 세력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네바에서 공화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거리의 도둑들처럼’ 야단맞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몇몇 거리, 특히 알레망 거리에서는 맹세를 거부하지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자신은 맹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 떠돌이 프랑스 가난뱅이들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지도 않겠노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칼빈은 자기에게 헌신적인 ‘작은 시 의회’를 이용해서 실제로 맹세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추방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 인기 없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의 결과가 드러나자 시 당국이 칼빈의 독선을 거부하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무조건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1538년 시 의회에서 열세가 되었다. 제네바에서 민주주의는 칼빈의 권위적 요구에 맞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이로써 칼빈은 제네바에서 일단 추방되었다.]

3. 제네바의 종교 재판

[1541년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뒤로] 칼빈은 국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용한 종교 재판을 이용하였다.⁹⁾ 그는 신약 교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 계율’을 도입하고 종교국을 만들어 제네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이런 감독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제네바에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사라졌다. 도덕 경찰관들은 어느 집이나 들어가 모든 것을 살살이 검사하였다. 하나님의 계율을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테러 속에서 제네바 시민들은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 연극, 오락, 민속 축제, 춤, 온갖 형태의 유희, 심지어 스케이트 타는 것도 - 을 다 박탈당하였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살다가 죽는 것, 일하고 복종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었다. 제네바에서는 오로지 “금지, 금지, 금지!” 그리고 “의무, 의무, 의무!”의 외침만 들렸다.

칼빈은 10,000여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잘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종교 개혁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빙자한 살상 행위였다. 이 같은 잔인한 피의 숙청은 칼빈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어떠한지 여실히 증명해주며 국가 교회 통치를 위한 칼빈주의 교리가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거스틴의 카톨릭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멸망의 교리였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칼빈은 종교적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사람들과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문학자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다 처형당했다. 단 하룻밤

9) 이 책 44쪽의 ‘종교 재판’ 각주를 참조하기 바람.

사이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칼빈이 처형한 사람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칼빈의 예정론 교리를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들: 설사 칼빈의 예정론 교리가 성경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 교리를 비난했다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약 시대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칼빈을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들
3.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재침례 성도들(Ana-Baptists)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어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 칼빈의 개혁 교회를 포함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한 로마 카톨릭교회와 루터 교회 등에 의해 부당하게 학대를 당하였다.
4. 부모를 구타한 사람
5. 칼빈과 생각이 같지 않은 자유사상가: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칼빈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가차 없이 죽였음을 증언한다.
6.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7. 마귀 들린 것으로 판단되는 마법사(?)
8. 이외에도 그는 삼위일체, 유아 세례, 성만찬 등의 해석에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칼빈과 그의 종교국의 고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것
2. 창자가 튀어 나오도록 꼬챙이로 찌시는 것
3.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
4.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
5. 칼로 살갓을 찢는 것
6. 불에 그슬리는 것
7. 사람의 몸을 절단내는 것
8.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9. 해충들이 살을 뜯어 먹도록 방치하는 것

이 모든 고문 방법은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잡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방법들이다. 이런 극심한 일들이 진행되자 고문받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자 종교국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박수를 치게 했다.

사실 그때까지 제네바시는 칼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이런 폭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Honoré de Balzac, 1799-1850)는 칼빈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테러가 프랑스 혁명의 피의 축제보다 더 잔혹했다고 지적하였다.

역사는 칼빈과 그의 종교적 후예들인 청교도들이 자행한 인간 사냥이 여러 개신교 분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이 참혹한 실상은 한 줄의 글로 축약하기에는 규모가 심히 크므로 이 당시 제네바 시민들이 겪은 수많은 고문과 가혹한 만행을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슬쩍 덮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 모든 행위와 역사를 바로 규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거짓 교리가 성경적 정통으로 숭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실로 인본주의 철학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대개 지성주의자들이 거기에 매료된다. 그러다 보니 현시대 칼빈주의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11:3-4).

그리스도의 교리의 단순함에서 떠나 인간의 철학을 숭배하게 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노예가 된다.

우리가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점은 칼빈의 이러한 만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칼빈에게는, 스스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믿으며 세운 본인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시며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신약 시대라는 새 시대를 여셨다. 예수님의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무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며 무력으로 불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주후 100년 이후로 교회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며

10) W. J. Seaton,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1970, p. 8.

J. B. Davis, 「The Berea Baptist Banner」, 1995, p. 30.

M. Duncan, 「The Five Points of Christian Reconstruction from The Lips of Our Lord」, 1990, p. 10.

세상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행은 모두 다 국가 교회를 시행하는 카톨릭교회와 거기서 파생된 개신교회(특히 칼빈의 장로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났다.

4. 칼빈과 세르베투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만행은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를 화형시키는 일에서 절정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의사인 세르베투스는 종교 개혁자들과 교류하면서 1530년에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칼빈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1533년에 이미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종교 재판소로부터 공식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하였고 몇 개월 뒤 제네바에서 열린 칼빈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칼빈에게 체포되었다.

세르베투스를 체포한 뒤 칼빈의 비서는 그를 고소했고 이에 제네바시 의회는 세르베투스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시 의회는 세르베투스의 재판을 위해 두 달이 넘는 기간에 조심스럽게 제네바와 자매 관계를 맺은 네 도시에 자문을 구하였고 네 도시는 다 세르베투스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왔다. 제네바시 의회는 최종 단계에서 삼 일 동안 논의한 뒤에 만장일치로 ‘가장 고통스런 사형’인 화형을 선고하였다. 이 모든 결정의 배후에 칼빈이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개신교도들도 종교적 이유로 종교 재판을 통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세르베투스의 화형은 당시 유럽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칼빈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게 바뀌게 되었다. 당시 제네바에 있던 카스텔리오는 세르베투스가 칼빈의 신학 사상에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하게 칼빈에게 죽임을 당했음을 증언하였다. 현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세르베투스는 자유사상가나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칼빈의 삼위일체설과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된 기독교론,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견해를 비판하였을 뿐이다.

그 당시 개신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카톨릭교회처럼 종교 재판을 도입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카톨릭주의의 교의와 통제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였는데 이러한 기대감은 세르베투스의 처형으로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직접 목격한 카스텔리오는 그가 화형당하는 끔찍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세르베투스는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였다. 야윈 몸뚱이 위로 밧줄이 네댓 번이나 돌아갔다. 형리는 책과 또 세르베투스가 칼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극비리에 보냈던 그 원고들, 살아 있는 몸뚱이를 잔인하게 옥죄고 있는 밧줄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세르베투스의 머리 위에 끔찍한 고통의 관이 씌워졌다. 그것은 유황을 문힌
앞으로 만든 관이었다. 이 모든 잔인한 준비를 마침으로써 형리의 일은 끝났다.
이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다.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사방에 불꽃이 솟구쳐 오르자 고문당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 순간 몸서리치며
물러설 만큼 끔찍한 외침을 토해 냈다. 곧이어 연기와 불길의 고통으로 죄어드는
육체를 감쌌다. 그러나 점점 더 끔찍하게 살아 있는 육체를 천천히 갇아 먹는 불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는 사람의 날카로운 절규가 여전히 울려 나왔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통의 외침이 들렸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형언할 길 없이 두려운 죽음의 투쟁이 반 시간이나 더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만족한 불꽃이 잦아들고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검게 탄 기둥에는 시커멓게
탄, 연기를 내뿜는 덩어리가 빨강계 달구어진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더는 인간의
어떤 형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녹아내린 모습이었다. 한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영원을 갈구하던 창조물,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숨 쉬던
한 창조물이 이제는 끔찍하게 역겹고 냄새나는 오물 덩이로 변해 버렸다(「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pp. 172-173).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직접 본 카스텔리오는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무기를 들어 박해하고 그들에게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일이다. ... 스스로 기독교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과 물에
의해 살해당하고 살인자와 도둑보다 더욱 잔인한 취급을 받는다면 오늘날 과연
누가 기독교도가 되려 하겠는가!(동일 문서, pp. 194, 202).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제네바 사람들이 세르베투스를 죽였을 때, 그들은 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희생시킨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 단지 신앙을 위해 불에 타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
(동일 문서, p. 214).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 「로마 제국 쇠망사」를 지은 기본(E. Gibbon, 1737-1794)
은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종교 재판의 화형대에서 사라져 간 수천 명보다 더 나의 가슴을
흔들었다. ... 그 이유는 이것이 개신교에서 일어난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었고 따라서
개신교 원래의 이념을 분명하게 부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세르베투스가 죽은 지 390여 년이 지난 1903년에는 제네바에 사는 칼빈의 후예들은
그의 처형지인 제네바 근교에 자기들의 조상 칼빈의 만행을 속죄하는 기념비를
세웠고(거리 이름도 미가엘 세르베투스로임) 1908년에는 그가 죽은 곳에서 약 5킬로
미터 떨어진 프랑스의 도시 안마스에 그의 기념상이 세워졌다.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한 자리에 칼빈주의 추종자들이 1903년에 세운 기념비에는

프랑스어로 “우리의 위대한 개혁자 칼빈을 존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후예들로서 우리는 그 시대의 오류이자 그의 오류를 척결하고 종교 개혁과 복음의 진정한 원리들을 따라 양심의 자유를 견지하면서 1903년 10월 27일에 이 화해의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적혀 있다(동일 문서, p. 281).

5. 칼빈의 철권 독재의 이유

왜 칼빈은 이토록 무섭게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였을까? 그 이유는 그의 왜곡된 교회관 때문이었다.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일웅 박사의 논문 「독일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 교회의 통일 노력」에는 ‘종교 개혁을 통한 교회의 분리와 연합’이라는 장에 칼빈의 교회관이 정확하게 들어 있다.¹¹⁾

로마 카톨릭교회는 중세기로 오면서 두 번째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된다. 직접적 동기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제기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에 있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면죄부 사건과 관련해 로마 교회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다. 또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원칙이 되지 않고 인간 교황과 제도와 전통적 권위가 중요성을 띠면서 카톨릭교회는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루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개혁의 가치 아래 더 많은 동조자를 얻게 됐고 종교 개혁은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돼 유럽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수차례에 걸쳐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회 일치를 위해 프로테스탄트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황의 절대적 통치 제도와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만찬의 화체설이 서로 간에 좁혀지지 않는 논쟁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 하나의 교회로 통일되거나 교리에 일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며 유감스럽게도 루터파와 칼빈파 교회로 나누는 불행을 겪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성만찬[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심각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 정신을 가장 많이 보여 줬다. 칼빈의 교회 일치에 대한 관심과 입장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별히 칼빈이 ‘교회의 하나 됨’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천주교의 트리엔트 종교 회의¹²⁾를 통해서였다. 약 18년간 계속됐던 트리엔트

11)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4779>

12) 트리엔트(혹은 트리트) 공의회는 종교 개혁에 따른 교회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소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517년 루터(Luther, 1483-1546)의 종교 개혁 이후 교회 개혁을 위한 공의회 개최 요구가 꾸준히 나타났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 이탈리아 북부 도시 트리엔트에서 열린 이 공의회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카톨릭의 교리를 정의하고 카톨릭교회의 규율과 제도 개혁을 결정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음을 내세워 카톨릭교회의 권위를 부정했고 믿음으로만 면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사만을 받아들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은총을 부여한다는 예정설을 강조하고, 성모와 성인들에 대한 숭배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루터의 주장을 배격하고 성경과 성전, 즉 교회의 전통 모두를 신앙의 원천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성경의 해석은



세르베투스 기념상의 글

미카엘 세르베투스: 지리학자, 의사, 생리학자

그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헌신적 태도와 결코 굽아지 않는 자주적 지성과 양심으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였다. 그의 신념은 아무도 결코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진리의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종교 회의 기간에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자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종교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장의 제목에서 벌써 교회의 하나 됨(일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그것은 참된 교회에 관한 설명으로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므로 우리가 그 교회[천주교회]와 더불어 하나 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칼빈에게는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단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법으로 이해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갈라놓을 수 없듯이 교회가 둘 혹은 셋으로 분열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가 나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분열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서로 분열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반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의 하나 됨’에 있어서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 ‘하나 됨’의 실현을 위해 모범을 보인 인물이다. 칼빈은 마지막까지 카톨릭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1540년의 하계나우 종교 회의와 1540-41년에 개최된 보름스 종교 회의, 레겐스부르크 종교 회의에 대표로 참석했다.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하나 됨(일치)을 위해 힘썼던 노력의 역사적 사건들이다.

교회만이 권위를 가짐을 명백히 하여 교황의 권위와 성직계서제를 재확인했다. 또한 예정설과 믿음에 의한 면죄설을 배격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더불어 선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면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며 그 은총은 성사를 통해 인간들에게 내려온다고 하여, 성사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을 일반 신도들과 엄격히 구분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카톨릭교회는 로욤라가 결성한 예수회의 확장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트의 진출을 막으며 카톨릭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두산 백과>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칼빈은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와의 일치를 가장 큰 목표로 여겼고 카톨릭교회의 모든 통치 제도의 근간을 놓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칼빈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계보를 어거스틴까지로 한정한다.

베버가 지은 「칼빈의 교회관」(김영재 역, 합신대학원 출판부, 2008)에도 칼빈의 교회관과 카톨릭주의의 교회관이 같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칼빈 연구가 중 하나인 베버는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으며 개혁주의 신학에 공헌을 많이 한 신학자이다. 1938년에 그가 번역 출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72년 최초의 번역판 이후 처음으로 나온 독일어 완역판이다. 다음은 그의 저서의 제2장 「칼빈의 교회관」(pp. 132-133)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관에 근거하여 실천하였다. 그는 교황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흔적이나 잔재를 남겨 두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세례는 모든 교회에 다 공통적이다. 교황 교회가 교회이며 교회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교회는 실재하지만 참되고 법도에 맞는 교회관은 갖고 있지 않다. ... 칼빈은 교황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거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화해는 점점 불가능하게 되어 갔다. 그는 카톨릭적으로 사고했으며 본래적 의미의 '카톨릭교회'라는 개념은 그의 가르침에서 늘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카톨릭교회를 개신교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개신교 교회 내에서 좀 더 나은 일치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을 의무로 알았다.

칼빈이 말한 '본래적 의미의 카톨릭교회'는 '어거스틴이 가르쳐 준 카톨릭교회'이며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직 한 교회, 한 믿음, 한 성례만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였고 그런 일은 구약 시대의 신권 통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교회를 신정 국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해해야만 한다. 「칼빈의 교회관」(p. 135)에서 볼 수 있듯이, 칼빈이 펍박한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는 칼빈의 이러한 영해를 반대하였다. 원래 사도 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대목이 있다.¹³⁾ 카스텔리오는 사도 신경의 이 대목, 즉 그리스도께서 실재하는 지옥으로 실제로 내려가셨다는 대목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칼빈은 지옥이 실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不在)와 진노로 인해 비상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영적

13) 영어와 원어 그리고 카톨릭교회의 사도 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있지만 우리나라 개신교 사도 신경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없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번역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카톨릭주의에서 주장하는 연옥과 립보 등의 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도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낙원, 즉 지하 세계의 지옥 부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음을 말한다(마12:40; 행2:27; 시16:8-11; 엡4:8-10). 개혁성경은 이런 구절들에서 'hell'을 지옥이라 하지 않고 음부라고 하여 불교 냄새를 피운다.

해석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델랑크톤, 츠빙글리, 베자 등의 개혁자들은 카스텔리오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지옥을 장소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없는 것, 즉 '장소로 서술할 수 없는 상태'로 이해했다. 이러한 설명은 지옥을 '하나님의 결핍'(carere Deo)이라고 표현한 어거스틴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이런 견해를 지지하였다. 루터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것을 단호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지옥을 비유로 보는 견해는 사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며 성경 신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지옥에 다녀오셨음을 믿는다.

사실 카스텔리오는 무슨 이단 교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그분께서 땅속의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말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영해를 신봉한 칼빈은 이런 견해를 묵살하고 그를 이단자로 몰아 핍박하였다. 즉 제네바에서는 오직 칼빈의 말만 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던 신정 정치 신봉자들의 이상을 자신의 섭리로 묘하게 바꾸셔서 자본의 축적을 통한 자유 시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출현하는 근간으로 삼으셨다.

칼빈주의는 모든 점에서 개인주의와 개인의 맹렬한 욕구를 파괴하고 관의 권위를 강화한다. 칼빈주의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정확한 하인,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전체에 소속된 인간 유형, 그러니까 관리와 이상적인 중산층 인간을 조형적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막스 베버(Max Weber)가 유명한 자본주의 연구서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다른 어떤 요소도 절대적 복종을 가르치는 칼빈주의만큼 산업화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은 옳았다. 이미 대중은 학교에서 종교적 방법으로 동일한 계층화와 기계화의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칼빈, 베자, 녹스 등 '기쁨을 죽이는 자들'이 그 최초의 조잡한 형태의 요구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되었을까? 그랬더라면 얼마나 재미없고 단조롭고 빛깔 없는 특성들이 유럽을 사로잡았을까! 예술을 싫어하고 기쁨을 미워하고 삶을 미워하는 이 신도들이 존재의 그 모든 풍족함과 사랑스런 여유에 반대하며 날뛰었더라면...

다행히도 유럽은 칼빈주의 기율 [즉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에 물들지 않았고 척도도로 변하지도 않았으며 제네바처럼 되지도 않았다. 세계를 단 하나의 체계 속에 옥여넣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언제나 저항해 왔던 삶의 의지는 이번에도 영원한 새로움을 갈망하면서 강한 반발력을 보여 주었다. 단지 유럽의 일부에서만 칼빈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었다...

칼빈의 가르침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 지나친 가혹함을 잃어버렸고 칼빈주의가 권력을 잡은 곳에서도 칼빈주의는 엄격한 성서 독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다. 칼빈의 신정 정치가 지속적으로 전권을 휘두른 나라는 없었다. 그가 죽고 나자 곧장

현실의 저항 앞에서 그 옛날 그토록 가혹했던 ‘기율’은 삶과 예술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인간적으로 변화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던 칼빈주의 체계는 극히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 정치적 자유의 이념이 되었다. 칼빈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 크롬웰이 통치하던 영국, 그리고 미국은 가장 너그럽게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 이념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되었다(동일 문서, pp. 277-282).

6. 칼빈의 삶과 사상 총정리

위에 열거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칼빈의 삶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정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도 동원하여 신정 정치를 구현하는 국가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다.
2. 무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
3.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의 교회가 곧 구약의 왕국이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의 교회가 받는다.¹⁴⁾
4. 인간의 자유 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5. 세례 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6. 무력 통치: 그는 시민 10,000여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베었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7. 목사의 권위: 그는 목사가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는 것을 가르쳤고 모든 사람이 목사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

칼빈의 사상은 마리아 승배나 성인들의 공적과 연옥 인정을 제외하고는 지난 1,500년 이상 로마 카톨릭교회의 믿음을 지탱해 준 어거스틴의 사상과 동일하다. 현시대 칼빈주의자들 중에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14)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반셈족주의(Anti-semitism)를 신봉하여 유대인들을 핍박하였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루터에게서 심하게 나타났고 칼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1,000년 이상 카톨릭교회가 어거스틴의 교리를 수용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유대인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구약 시대의 왕국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천주교회와 장로교회는 지금도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를 추종하며 유대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한다.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인간 지성의 추구라는 짜릿한 맛을 포기하지 못해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칼빈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 즉 무력을 써서라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 교회를 몸으로 철저히 실행하려 했던 불굴의 의지를 지닌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의 교황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불린다.

칼빈주의자들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가 신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저서가 유명해도 그것에 성경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요 이단 교리이다.

우리는 칼빈의 신학이 그의 사후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철저하게 역사의 증언을 들어 보아야 한다. 칼빈 신학은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영생을 얻을 자들과 지옥 정죄를 받을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전도와 선교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한 구약과 신약을 혼합한 칼빈 신학은 성경의 이해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였다. 그는 요한계시록 20장과 구약의 대언서들에 수없이 나오는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무천년주의를 신학의 기본 틀로 전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칼빈주의의 벽은 너무도 두터워서 일반인은 근방에 가기도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복음이라 아이들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의지적으로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런 단순한 복음을 어거스틴을 추종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뒤범벅을 해 놓은 시스템,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라는 국가 교회 지침서이다.

사도 바울의 다음의 경고는 인간 시스템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 11:1-4).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Galatians 5: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갈5:1).

제 3 장

Chapter 3



이번 장은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클라우드(David Cloud) 선교사가 지은 「칼빈주의 비평」(*Calvinism Debate*)을 번역한 것이다.¹⁾ 성경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칼빈주의를 비평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우선 <위키백과>가 정의하는 칼빈주의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비평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임을 보여 주려 함이다.

위키백과의 칼빈주의 요약

칼빈이 창시한 칼빈주의(Calvinism) 혹은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사상 및 신학 사조로서 종교 개혁을 통해 체계화되어 당시 개신교 주류의 신학으로 자리 잡은 사상을 가리킨다. ‘칼빈주의’란 말은 칼빈 개인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이며 그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발전하게 되는 일에 칼빈이 미친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칼빈주의’란 이름이 붙여졌다. 종교 개혁 당시 칼빈주의가 개신교의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유럽 전역에 개혁 교회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갔다. 이런 개혁 교회를 통해 칼빈주의는 꽃을 피우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개혁 교회 전통을 계승하는 교파의 하나로서 칼빈주의를 말할 때에는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이외에도 칼빈주의에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우선 그 사상의 흐름이 어거스틴에 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거스틴 전통의 칼빈주의’라고도 하며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은혜의 교리라고도 한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 교파들로는 종교 개혁 때부터 시작된 개혁 교회 외에도 장로교회와 개혁 침례교회 등이 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비판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은 결국 개신교회(프로테스탄트)의 분리를 가져왔다. 종교 개혁을 주도한 주요 인물에는 다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칼빈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영향력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칼빈은 개혁 교회 시각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기독교 진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1) http://www.wayoflife.org/free_ebooks/the_calvinism_debate.php

칼빈은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는데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 루터는 주로 독일에서, 츠빙글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하였다. 종교 개혁의 열풍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 가면서 개신교 신학은 점차 칼빈의 신학 쪽으로 기울었다. 그 결과 루터교가 주류로 뿌리내린 독일 및 스칸디나비아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칼빈주의가 개신교 신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 자리 잡은 개신교회가 개혁 교회이며, 박해를 피해 제네바에 거주하면서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낙스(John Knox, 1513-1572)가 스코틀랜드에 개혁주의를 전파함으로써 설립된 교회가 장로교회이다. 이런 교회들의 성장과 더불어 체계화된 신학 사상 및 그 전통은 보통 개혁주의라고 불린다.

초기 미국 이주민들은 잉글랜드(영국)의 청교도들과 네덜란드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신교 신도들이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17세기 초 남아프리카에도 개혁주의를 전파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혁 교회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교리를 악용하여 백인들에게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흑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칼빈주의는 ‘사람의 전적 타락’이라는 근본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이것은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 내지 못함을 뜻한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질(質)이 있어서 그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도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종류의 믿음도 있는데, 이처럼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지만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무능력’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타락하여 참된 믿음을 갖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지 못한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칼빈주의와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칼빈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적 타락’에서 언급하였듯이 칼빈주의는 자연인이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선택의 자유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연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심성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말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성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칼빈주의에 의하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중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제야 비로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종교 개혁 당시 이러한 칼빈주의 원죄론에 반대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심성을 따로 바꾸어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 대표적 인물은 당시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이다. 루터는 자신의 저서 「의지의 속박」(*Bondage of the Will*)에서 에라스무스를 반박하고 칼빈과 같이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로서 이에 대한 기독교 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협력설(Synergism):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그것을 취하느냐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 경우에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 된다.

단독설(Monergism):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 주셔야만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²⁾

앞서 언급한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협력설에 해당하며 루터나 칼빈의 주장은 단독설에 해당된다. 협력설과 단독설 논쟁은 기독교 초창기에 이미 있었고 그중에 잘 알려진 것이 5세기에 있었던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다. 펠라기우스는 협력설을 주장하였고 어거스틴은 단독설을 주장하였는데 카르타고 회의에서 카톨릭 교회는 어거스틴의 편을 들며 펠라기우스 사상을 정죄하였다. 이런 결론으로 인해 루터와 칼빈 연구자들은 자기들의 사상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종교 개혁 이후로는 17세기에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³⁾를 따르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협력설을 주장하였고 이때 아르미니우스주의

2) 이번 장에서 곧 보겠지만 협력설, 단독설 등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심히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철학을 세우려는 칼빈주의자들이 창안해 낸 용어들이다.

3)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인 아르미니우스는 처음에 칼빈의 신학을 따랐으나 그의 예정론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의 사망 이후 그의 문하생들은 <센텐티아 레몬스트란 티아>라는 5항의 문서를 공표했다. 그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은 있다. 2) 하나님은 누구도 불신앙으로 예정하지 않으셨다. 3)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4) 회심은 성령님에 의한 은혜에 의해 일어난다. 5)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다”(『종교학 대사전』, 1998). 아르미니우스는 처음부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믿지는 않았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은 성경 신자이다. 그러나 후대에 그의 추종자들이 구원 상실 교리를 첨가하자 칼빈주의자들이 아르미니우스를 비난하기 위해 마치 그가 구원 상실론을 가르친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현대에는 많은 이들이 아르미니우스가 구원 상실론의 원조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초기부터 서방 교회, 즉 카톨릭교회를 제외한 동방의 모든 교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르미니우스가 요약한 대로 인간의 자유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속죄를 믿었다. 칼빈주의 혹은 어거스틴주의는 서방 카톨릭교회에서 어거스틴이 득세하던 5세기 초반과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등장한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도르트 종교 회의에서 작성된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Five Points of Calvinism)이다.

루터와 칼빈 이후로 오웬(John Owen, 1616-1683),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윗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스피들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 1899-1981) 등의 개혁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칼빈과 루터가 정의한 ‘전적 타락설’에 의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였다.

한국 교회는 칼빈의 전통에서 있는 장로교회가 가장 강한 나라이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거의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었으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장로교 교인이다. 신학교의 경우에도 장로교 교단 신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칼빈의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회는 2009년에 칼빈 5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끝으로 [현시대의 온건한] 칼빈주의 - 맥아더 목사 등이 주장하는 것 - 와 극단적 칼빈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대상과 속죄의 유효성과 범위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다. 온건한 칼빈주의는 복음의 유효성에 있어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계량적인 뜻만이 아니라 한정적 또는 특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시대에 칼빈이 주장한] 극단적 칼빈주의는 인류에 대한 복음의 유효성과 제한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예배의 전통과 형식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기 종교 개혁 시대의 전통을 고수한다.

[이 끝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조차도 이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쪽부터는 클라우드 선교사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한 그분의 철저한 칼빈주의 분석과 해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분들의 다양한 연구와 간증은 칼빈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16세기에만 잠시 세력을 폈다. 이것은 뵈트너(L. Boettner), 벌코프(L. Berkhof) 같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사실이다. 이런 추세는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뵈트너는 이제 미국에서는 철저한 칼빈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가 칼빈주의를 지지한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칼빈주의 혹은 어거스틴주의는 오직 서방의 카톨릭교회에서만 그것도 5세기와 16세기에만 잠시 번성하였고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전체 교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였다.

1.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

■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들이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義)를 자기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없다. 인류는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사람의 이 무서운 타락의 상태는 로마서 3장 10-18절에 잘 묘사되어 있다.

10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 타락한 사람들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고(엡2:1)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며(엡2:3)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엡2:12).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들은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시58:3).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므로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렘17:9).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고(요3:18)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며 자기들의 죄와 불신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롬1:18-20).

■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고전11:7)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롬2:14-15)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행10:1-2). 그러나 그는 구원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없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 심지어 그의 의로운 행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사64:6).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무서운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짓값 지불이나 구원 방법에 의해 그 상태에서 구속될 수 없다(시49:7-9).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을 수행하신다(엡1:11; 시135:6; 사46:10-11; 단4:35).

■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다(딤후2:4-6).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벧후3:9).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요3:16).

■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요일2:1-2).

■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엡2:8-9).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이 일에 기여하는 사람의 행위는 0%이다(롬11:6; 딤후1:9; 벧전1:18-21).

■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롬3:25, 30, 31; 갈3:8, 14; 엡2:8; 3:15; 히6:12).

■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성경은 믿음을 행위와 대조해서 보여 준다(롬9:32; 갈2:16; 3:2). 구원이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된다면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롬3:27-28).

■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비슷하다. 선물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며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구원 과정의 모든 영광은 선물을 주는 이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하신다.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 있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 없으며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으며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요12:32).

■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고(행1:8)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며(요16:7-11) 죄인들에게 조명의 빛을 주신다(히6:4). 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역에 반응하여 성령님의 유죄 확증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의 노예 시장에서 구속을 받고(엡1:7)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엡1:7) 다시 태어나고(딤후3:5)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지며(엡2:1) 즉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골1:13).

■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는데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요1:12-13).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 구절이 분명히 말하므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 죄인은 자기 뜻에 따라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일5:11-13)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며(골1:13)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수용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엡1:3-7).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앉혀졌다(엡2:5-7). 그들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3:3). 그들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닦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그들을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다(히6:19-20).

■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르게 하였고 그들을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벧전 1:3-5).

■ 구원은 회심한 성도의 삶에 의해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요일2:4).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므로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요10:27-28).

■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다(엡2:10).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그들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딤후2:11-14).

2. 칼빈주의의 개론적 요점들

칼빈주의는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칼빈은 종교 개혁 초반부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출신의 목사이며 종교 개혁자이다. 그의 작품 중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 강요」이다.

그는 1530년경에 로마 카톨릭교회를 떠나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도망하였으며 1536년에 스위스에서 「기독교 강요」 1판을 출간하였다. 1541년에 그는 제네바에서 교회 국가(The Church State)를 형성하였다. 이론적으로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⁴⁾를 믿었지만 실제로 제네바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작동하였다.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은 자기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만 했고 - 이것을 어기면 심한 핍박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 교회(국가)의 회원이 되었다.

교회 위원회는 시 위원회와 함께 법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제네바에서는 모든 악기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칼빈이 죽은 뒤에는 베자(Theodore Beza, 1519-1605)가 제네바 교회의 수장으로 일하였다.

1555년 초부터 칼빈은 영국에서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대륙으로 오려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나스(John Knox)와 휘팅엄(William Whittingham)의 주도하에 교회를 형성하였는데 휘팅엄은 제네바 성경(Geneva Bible, 1560)을 편찬한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제네바에서 칼빈은 시편집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마롯(Clément Marot), 칼빈, 부르조이(Louis Bourgeois) 외 여러 사람들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시편집에는 부르조이가 지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가 들어 있다(기존 새찬송가 1장).

칼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학교를 창설하였다. 하나는 칼리지라고 불리는 문법 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아카데미라 불리는 고급 학교였다. 이 학교는 처음에 베자가 교장으로 있었다. 후에 칼리지는 칼빈 대학(College Calvin)이 되었고 아카데미는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이 되었다.

칼빈의 신학은 장로교회와 개혁 교회의 근간이 되었고 영국과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 안에도 넓게 퍼졌다. 칼빈 신학은 네덜란드 개혁 교회(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벨기에 교리 문답)의 기초가 되었고 헝가리 개혁 교회(2차 헬베틱 신앙 고백)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1646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칼빈주의 신앙 고백이며 회중 교회(1658년의 사보이 선언)와 특수침례교회⁵⁾(1689년의 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 역시 이것을

4) 교회와 국가의 분리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5) 전 세계 침례교회 안에는 두 부류, 즉 일반침례교인(General Baptists)과 특수침례교인(Particular Baptists)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침례교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였다.

칼빈주의 신학의 근본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sovereign election)인데 이것은 종종 주권적 은혜(sovereign grace)라고도 불린다. 칼빈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어거스틴 신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어거스틴은 카톨릭교회가 추앙하는 네 명의 박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칼빈은 자신의 ‘선택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뜻한다고 믿으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이르도록 예정된다. 각 사람은 이 둘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생명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왔다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By predestination we mean the eternal decree of God, by which he determined with himself whatever he wished to happen with regard to every man. All are not created on equal terms, but some are preordained to eternal life, others to eternal damnation; and, accordingly, as each has been created for one or other of these ends, we say that he has been predestinated to life or to death(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21).

이것은 보통 ‘칼빈의 이중 예정’(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불리며 이것의 핵심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들과 저주받아 지옥에 갈 자들이 이미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칼빈주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 가지 근본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요약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1. 나는 칼빈주의를 정통으로 연구하였다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나는 과거와 현재에 나온 많은 영향력 있는 칼빈주의 저자들의 저작물을 공부하였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47년 동안 칼빈주의를 연구해 왔다. 나는 신학 대학을 다닐 때 회심하였는데 그 당시 칼빈주의는 학생들 사이에 열띤 논쟁을 하던 많은 주제 중 하나였다. 바로 그때에 나는 처음으로 칼빈주의를 공부하였다. 나는 이전에 칼빈주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를 이해하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 핑크(Arthur Pink, 1886-1952)⁶⁾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과 그 주제에

이며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정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특수침례교인이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일반침례교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

대한 다른 많은 책을 읽었다. 그 시점에 어떤 학생들은 칼빈주의자가 되었다.

사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몇 가지 좋은 논점을 이끌어 내며 하나님의 위상을 인간 위로 높이 두려고 매우 애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며 구원은 100%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교리에 동의하고 미국의 많은 독립침례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인간 중심의 피상적이며 교묘한 전도 방식을 싫어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칼빈주의가 몇몇 성경 구절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칼빈주의가 성경기록들의 명백한 말씀들과는 너무나 많은 점에서 모순을 일으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0년에 나는 인디애나주 그린우드에 있는 헤리티지 침례 대학에서 열린 칼빈주의 학회에서 설교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 대회는 다음 해인 2001년 4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 학회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이었으며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신학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심도 있게 검증해 왔고 그 결과 반대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학회를 위한 설교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나는 조금 더 철저한 방식으로 칼빈주의를 재검증해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마스터스 박사(Dr. Peter Masters)에게 연락하여 그와 칼빈주의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는 칼빈주의에 대해 그와 그의 전임자인 스펀전 목사(Charles Spurgeon)⁷⁾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 사실 이것 말고도 동의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이 몇 가지 더 있다 -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스펀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칼빈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나는 마스터스 박사에게 그 주제에 대해 그가 믿는 것을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줄 수 있는 책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를 원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 가지 중에 마스터스 박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머레이(Iain Murray)의 「스펀전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복음 선포를 위한 전쟁」(*Spurgeon vs. Hyper-Calvinists: The Battle for Gospel Preaching*,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5)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서 나는 그것들을 읽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의 입장에서 그 이론을 살살이 재검토하였다. 나는 헌트(Dave Hunt)의 「대체 이게 무슨 사랑인가?」(*What Love Is This?*)와 「이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된 한 칼빈주의자의

6) 아더 핑크는 영국 노팅햄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건너가 무디 성경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는 청교도 스타일로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열렬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7) '설교의 왕자'(Prince of preaching)로 널리 알려진 찰스 스펀전(1834-1892)은 영국 침례교 목사이다. 그는 1854년, 20세에 런던 남부의 뉴파크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되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1861년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는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매주 1만여 명의 청중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온건한 칼빈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1970년부터 마스터스(Peter Masters)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다.

정직한 의구심들」(*A Calvinist's Honest Doubts Resolved by Reason and God's Amazing Grace*)이라는 책을 읽었고 헌트와 화이트(James White)가 논쟁을 벌이며 작성한 「칼빈주의 논쟁: 다섯 가지 강령, 두 가지 관점」(*Debating Calvinism: Five Points, Two Views*)이라는 책을 읽었다. 또한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상세하게 다시 읽었다.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극동 성경 대학(Far Eastern Bible College)에서 칼빈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출간한 100쪽짜리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이 학교는 장로교 신학교이다.⁸⁾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기꺼이 그 진리를 따르려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하였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독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항상 비(非)칼빈주의자가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 연구하였다.

2. 침례교인들은 칼빈주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칼빈주의는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이지만 이 이론 자체가 성경적 진리의 가장 중요한 논점들의 일부를 다루고 있고 또 복음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론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칼빈주의에 대해 침례교인들 사이에 항상 분열이 있어 왔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영국의 초기 침례교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해 그분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지(즉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지(즉 특별한 것인지)에 따라 일반침례교인(General Baptists)과 특수침례교인(Particular Baptists)으로 구분되었다.

테일러(Adam Taylor)가 지은 「영국의 일반침례교인들의 역사」(*History of the General Baptists of England, 1818*)라는 책은 영국의 비(非)칼빈주의 침례교인들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수가 굉장히 많았다. 내가 알기로 테일러는 19세기 영국 침례교 역사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칼빈주의자가 아닌 인물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대다수 침례교 역사가들이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 결과 그런 책들이 일반적으로 비칼빈주의 침례교도들의 역사와 믿음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잘못 보고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침례교인들이 항상 칼빈주의 문제로 대립해 왔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룸에 따라 분열이 생긴다고 해도 오늘날 이 문제를 다루는 일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8) 극동 성경 대학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학교이며 클라우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다.

3. 칼빈주의보다 성경적 복음 전도를 더 많이 방해하는 것은 거의 없다

칼빈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 침례교회들의 복음의 열정을 거의 말살하였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복음 전도에 대한 노력은 칼빈주의 때문이 아니라 칼빈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침례교 역사가인 아르미티지(Thomas Armitage, 1819-1896)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가 지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해야 할 크리스천들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1792년에 출판되었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거의 없었고 사실 이것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에게 그의 관점은 환상적이고 심지어 거칠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공공연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라일랜드가 회장을 맡고 있던 목회자 모임에서 캐리는 다음 회의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라일랜드는 충격을 받고 팔짱 뛰어오르며 캐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이나 나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앉으라고 명령했다.

스펠전이 1854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사정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머레이가 지은 「스펠전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복음 선포를 위한 전쟁」에 잘 묘사되어 있다.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스펠전이 죄인들을 차별 없이 광범위하게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초청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예를 들어 스펠전 당시에 한 칼빈주의 저술가는 “구원받을 만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설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토기」(*Earthen Vessel*), 1857)라고 경고하였다.

4. 칼빈주의는 아직까지도 틀이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신학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이런 추세는 늘 그러하였다. 그들은 ‘타락 이전 선택설’(전택설, Supralapsarianism), ‘타락 이후 선택설’(후택설, Infralapsarianism), ‘원죄 이후 선택설’(Sublapsarianism) 등을 놓고 늘 다툰다. 타락 이전 선택설은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작정하셨다고 주장하며 타락 이후 선택설은 그분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주장한다(매클린톡과 스트롱의 주장, McClintock & Strong). 네덜란드의 도르트 종교 회의(Synod of Dort, 1618-1619)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선택설을 포함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⁹⁾ 1675년에 스위스 일치(헬베틱) 신조(Helvetic Consensus Formula)를 작성한 칼빈주의자들은 소뮈르 학교의 프랑스 칼빈주의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칼빈주의 진영에는 극단적 칼빈주의와 비극단적 칼빈주의가 있고 엄격한 칼빈주의자들과

9)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중에 무엇이 선행하는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즉, 인간의 최초 범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① 타락 전 선택설과 ② 타락 후 선택설로 나뉜다. 도르트 회의에서는 후택설을 취하였고 칼빈은 전택설 입장을 견지하였다. <교회용어사전>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영원히 버림받는 교리(유기)와 속죄의 범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고 5포인트, 4포인트, 3포인트, 2포인트 신봉자¹⁰⁾로 나뉜다. 또 미국에서 칼빈주의자들은 구학과(Old school)와 신학과(New school)로 분열되어 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은 19세기에 분열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신이 칼빈주의의 TULIP 신학을 언급하며 그것을 논박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칼빈주의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당신과 논쟁하려는 칼빈주의자들이 항상 나타난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칼빈주의를 잘못 설명하지 않았다. 당신은 많은 칼빈주의자들 혹은 심지어 칼빈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신이 그들의 칼빈주의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주의의 진영에는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자와 풀러(Andrew Fuller, 1754-1815)를 따르는 칼빈주의자 그리고 핑크를 따르는 칼빈주의자가 있다. 또한 장로교 칼빈주의자, 침례교 칼빈주의자 그리고 다른 종류의 많은 칼빈주의자가 있다.

사실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심지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직접 읽어 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근거도 없이 칼빈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사실 칼빈 역시 스스로 자기가 어거스틴을 따른다고 시시때때로 말하였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칼빈의 결론들을 거부하거나 일부분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며 나아가서 우리 또한 칼빈주의가 성경기록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면 그것 전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5. 칼빈을 따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는 기독교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건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칼빈은 본인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언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카톨릭교회의 유아 세례를 새로운 탄생으로 보았다. 「기독교 강요」에 기록된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기 바란다.

우리가 침례(세례)를 언제 받았든지 그때 우리는 전 인생에 단 한 번 씻겨서 정결하게 되었다(「기독교 강요」, 4권 15장 3항).

세례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다...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며...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그들이 태어나는 날 바로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므로 세례의 자격을 얻는다(「기독교 강요」, 4권 16장 24항). {곧바로 나오는 3장 <칼빈의 점진적 과정 구원 신학>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영어권에서는 한 사람이 칼빈주의 5대 강령(Five points, 다섯 가지 포인트) 가운데 몇 개를 믿느냐에 따라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칼빈주의자라는 명칭이 붙는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책에서는 포인트를 그대로 두고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려 한다.

칼빈은 희생물을 집어삼키려는 늑대와 같이 자신의 대적들을 사악하게 다루었는데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반대가 된다. 역사가 존스(William Jones)는 ‘칼빈의 일생에 걸쳐 천주교의 가장 악의적 특성인 박해의 영이 그에게 들러붙어 있음’ 목격하였다. 그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주목해보라.

온갖 추행과 악행을 지닌 자들... 하나님의 위엄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의 오물을 토해 내며 모든 종교를 왜곡시키는 미친개들, 이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1555년 10월 16일)

『칼빈의 자서전』(*Calvin: A Biography*)에서 코트렛(Bernard Cottret)은 칼빈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36건 이상의 처형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혹독한 투옥과 무서운 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재침례교도들(Anabaptists)을 미워했는데 사실 이들은 칼빈보다 훨씬 더 신약 교회의 성경적 형태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들을 ‘사탄의 심복들’이라고 불렀다.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칼빈과 의견을 달리했던 4명은 참수되거나 사등분으로 찢겼고 그들의 시신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서 제네바에 있는 전략적 장소에 걸렸다. 그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세르벤투스(Michael Servetus)를 화형시켰다. 칼빈은 세르벤투스에 대해 “단순히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잔인하게 불에 태워야 한다.”라고 기록하였다.¹¹⁾

6.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나는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크고 불필요한 분열을 가져왔다고 확신한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단순히 성경 자체가 말하는 바를 성도들이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또 사람이 만든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성도들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세계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을 것이며 또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분열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한다(살전5:21). 성경 자체는 진리를 시험하는 수단이지 어떤 사람의 조직 신학이 아니다. 나는 성경으로 모든 신학을 시험해 볼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 앞에서 그런 신학의 일부뿐 아니라 전부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인간이 만든 신학들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는 크리스천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인 성경,

11) 칼빈과 동시대에 같은 곳에 살면서 그의 비인간적 만행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그 위에서만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 논쟁에 대한 진실」과 「토기장이의 자유」 등 다수의 책을 지은 화이트(James White)는 1999년경에 내게 편지를 보내 공개 토론을 하자고 도전을 하였다. 자기가 칼빈주의를 옹호할 테니 나더러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옹호하라고 그는 다그쳤다. 사실 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지도 않고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은 사실 내게 낯선 개념이었다. 나는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¹²⁾의 신학에 대해 얼마간 공부하면서 칼빈의 신학에서 오류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의 신학 안에서도 몇 가지 오류들을 발견하였다. 나는 아르미니우스가 칼빈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방어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화이트는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생각, 즉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그는 분명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칼빈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복음의 원수로 취급했고, 사람이 칼빈주의를 거절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47년 전 내가 하나님의 놀랍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때부터 바로 이날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 즉 성경기록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했다.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나는 그것을 나의 유일한 권위로 만들었다. 나는 조직 신학을 좋아하여 성경 교리 강의를 하고 성경 신학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였지만 오직 성경기록만으로 모든 다양한 신학들을 검증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어떤 조직 신학에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내가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 중 하나를 따라야 하는 절대적 의무 아래 있지 않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2)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 라이든과 함께 제네바에서 공부한 뒤 암스테르담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라이덴 대학 교수직에 임명되었을 때 선임자인 고마루스 등의 반대를 받았다. 그의 사망 후 이듬해, 그의 문하생들이 ‘센텐티아 레몬스트란 티아(선언문)’라는 5항의 문서를 공표했다. 그 문서의 요점은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는 도르트 회의를 열어 이 주장을 반박하고 아르미니우스파를 네덜란드에서 추방했다. 이들에 대한 핍박은 후에 완화되었고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 등의 복음 전도자들이 아르미니우스의 신조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인 구원설’ 복음을 널리 전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칼빈주의자들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

7. 칼빈주의는 성경의 전체 취지보다는 그 추종자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증거 본문 위에 수립되었다

칼빈주의의 렌즈를 통해 문맥에 상관없이 따로 떼어 해석하는 경우 칼빈주의를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성경기록 전체를 증거로 취하면 칼빈주의는 곧바로 무너져 버린다. [이제 독자께서는 이 말이 사실임을 곧 보게 될 것이다.]

3. 칼빈의 점진적 과정 구원 신학

최근에 나는 세상에 널리 잘 알려진 침례교 역사학자인 비일 박사(Dr. David Beale)¹³⁾에게 “칼빈이 단 한 번이라도 유아 세례를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세례 중생 교리를 반박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비일 박사의 회신

성경의 구원은 결코 점진적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지만 구원 자체는 일순간에 태어나는 출생입니다(요3:3). 구원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며(엡2:1) 어둠의 권능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일순간에 옮겨지는 것입니다(골1:13). 이렇게 일순간에 출생하는 구원 외에 다른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3,000명이 구원받은 것,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에 의해 구원받은 것, 사울과 고넬료와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가 회심한 것 등이 모두 일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 줍니다.

“칼빈이 단 한 번이라도 유아 세례를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세례 중생 교리를 반박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없습니다!”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갈리아 신앙 고백(1559)¹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교황의 모임을 정죄한다... 그럼에도 교황 제도 안에 여전히 참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세례의 효력이 누가 세례를 주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28항).

이로써 칼빈은 천주교회의 유아 세례 및 세례에 의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세례 중생’ 교리를 포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3)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교수(1973년부터 현재까지), 역사 신학 전공, 「근본주의 역사」(*In Pursuit of Purity*) 등 다수의 책들을 저술함.

14) 이것은 종교 개혁 시기의 개혁파 교회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며 프랑스 개혁파 교회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의 초안은 칼빈이 직접 쓰고 그의 제자들이 가필했다. <종교학대사전>

칼빈의 책들은 구원이 점진적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삶과 작품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소위 자기의 ‘동산 체험’¹⁵⁾이라 불리는 체험과 물세례가 일생동안 지속되는 점진적 회심의 시작 단계라고 말합니다(「어거스틴: 그의 삶과 영향」(*Augustine: His Life and Influence*), David Beale, Historical Theology In Depth, 2013, 1:334-50).

칼빈은 자기의 회심에 대해 자신의 「시편 주석」(1557) 서문에서 단 한 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누르시고 무언가를 가르치실 수 있는 형태로 내 생각을 이끄셨다.

내가 볼 때 이런 회심은 단순히 지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칼빈은 자기의 회심을 일생 동안 지속되는 회심의 여러 단계 중 하나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나 여부에 상관없이 칼빈은 회심, 회개, 중생을 모두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구원을 점진적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칼빈은 ‘회심의 시작’(commencement of conversion)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기록합니다(「기독교 강요」, 2권 3장 6항).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적 회심이란 회개라는 말로 이해된다(「기독교 강요」, 3권 3장 5항).

다시 말해 나는 회개가 회심이라고 이해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목표로 지정하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전생애 동안 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야만 한다(「기독교 강요」, 3권 3장 9항).

칼빈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청교도들이 믿고 가르치는 ‘점진적 과정의 구원’이라는 교리는 칼빈에게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왕(헨리 8세)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개개인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것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 다. 그 결과 청교도들의 설교에는 심히 율법적으로 들리는 요소들이 많고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구약식 희생에 따른 복음’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르간(Edmund Morgan)이 지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 청교도 사상의 역사」(*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를 보기 바랍니다.

개혁신학은 ‘점진적 과정의 구원’의 기초인 ‘유아 세례 중생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나는 기독교 역사가 샤프(Philip Schaff)의 「기독교계의 신조들」(*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에 들어 있는 종교 개혁 개신교의 주요 신조와

15)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따르면, 그는 30세가 넘은 나이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유아 세례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1.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1563, Q and A, pp. 69-74)

성경은 세례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죄들을 씻어 버리는 것이라고 부른다.

질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물론이다. 아이들의 부모와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에 속하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에서 구속받는 것과 믿음을 세우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그들도 언약의 징표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들의 아이들과 구별된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할례에 의해 성도들의 아이들이 구별된 것과 같으며 신약 시대에는 유아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여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되었다.

2. 칼빈의 갈리아 신앙 고백(1559, 28 및 35항)

우리는 교황의 모임을 정죄한다... 그럼에도 교황 제도 안에 여전히 참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세례의 효력이 누가 세례를 주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28항).

유아 세례는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는 것에 대한 서약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지기 때문이다(35항).

3. 벨기에 신앙 고백(1561, 34항)

우리는 진지하게 영생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평생에 단 한 번 이 유일한 세례(유아 세례)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또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기들이 이전에 받았던 유일한 세례(즉 유아 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유아 세례를 정죄하는 재침례교도들의 오류를 몹시 미워한다. 우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유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 위에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아 언약의 징표로 봉인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4.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1560, 21장)

우리는 [유아 세례 같은] 성례들이 단지 별것 아닌 허무함의 표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 아마도 재침례교도들 - 의 헛된 말을 정죄한다. 아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접붙여짐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죄들을 덮고 사면해 주시는 그분의 공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5. 도르트 종교 회의 법규(1619, 17항 초반부)

믿는 자들의 아이들은 본성에 의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효력에 의해 거룩하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경건한

부모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이 선택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릴 때에 이 세상의 삶에서 그들을 불러내신다.

6.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1647, 28장)

본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3장 5절 즉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에 나오는 물이 물세례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물세례는 성례이고… 은혜의 언약의 징표요 봉인이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 등의 징표요 봉인이다.

7. 1차 헬베틱 신앙 고백(1536, 벌링거에 의해 기록됨)

물세례, 즉 거룩하게 목욕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목욕이다(21항). 디도서 3장 5절의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은 곧 물세례이다.

8. 2차 헬베틱 신앙 고백(1566, 19-21장)

물세례는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을 영구히 봉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언약과 가족 안으로 영접되어 등록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속 유업이 주어진다. 그렇다. 그 결과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며 죄들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수여받는다(20장).

4. 칼빈주의 TULIP 신학의 개요

칼빈주의는 16세기에 칼빈(John Calvin)이 발전시킨 신학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신학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후에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 신학은 종종 TULIP이라고도 불린다. 칼빈 자신은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TUL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단어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그의 관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TULIP 신학의 모든 기준점은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칼빈 신학은 아르미니우스와의 교리에 대한 논쟁에서 제시된 5개의 강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르미니우스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Theodore Beza) 밑에서 수학하였지만 칼빈주의를 배척하고 네덜란드에서 비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쳤다.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은 그의 교리(혹은 신학)를 다음의 5개 강령으로 정리하여 1610년 네덜란드 교계에서 반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유 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Free will or Human ability)
- (2) 조건적 선택(Conditional Election)
- (3) 보편적 속죄 또는 일반적 속죄(Universal or General Atonement)

(4) 저항할 수 있는 은혜(Resistible Grace)

(5) 불안정한 믿음(Insecure Faith)

이러한 5개 강령은 1618-1619년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도르트 종교 회의(Synod of Dort)에서 거기 참석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의 대표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그들은 이 회의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반대하는 칼빈의 5대 강령을 공식화하였다.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은 그 이후 교계에서 추방되었으며 칼빈주의 형제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다. 18세기 후반에 칼빈의 5대 강령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것들의 머리글자를 따서 TULIP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¹⁶⁾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것도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여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죄인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야 할 뿐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를 되살려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전적 타락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에 동반되는 어떤 영적인 선(미덕)에 이르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선(미덕)을 심히 싫어하며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자연인(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자신이 그러한 회심에 이르도록 준비시킬 능력이 없다.

전적 타락에 대한 칼빈의 교리는 죄인은 자기 자신의 의가 전혀 없다는 것과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복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완전히 속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 믿을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만 함을 의미한다. 핑크(Arthur Pink)는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은 새로운 탄생(즉 구원)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이다. 이것은 결코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하나의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본성의 열매이다. 다시 태어나지(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하나님의 주권」, p. 73).

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며

16) 칼빈주의에서 구원이나 영벌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주권적으로'(sovereignly)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주권으로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 책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선택은 죄인의 행위, 즉 복음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그 어떤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고찰해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작정하심으로써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여졌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운명이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구원받는 자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숫자는 확실하게 정해져서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없다. ... 나머지 인류[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에 따른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 그 계획에 따라 그분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공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간과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그들의 운명을 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뜻한다고 믿으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이르도록 예정된다. 각 사람은 이 둘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생명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왔다고 말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받아 줄 사람들과 멸망에 이르도록 정죄할 사람들을 영원히 확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사람들에 관한 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공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고 흠이 없으면서도 이해가 불가능한 심판에 의거하여 정죄에 이르도록 내어 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 부르심과 칭의에 의해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봉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구분하심에 이르는 것을 끊어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표징을 주신다(「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칼빈은 주권적 영벌(영원히 버림받는 것, 즉 유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신다. ...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결점이 없어도 오직 그분의 주권적 의지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 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도록 태어나며 이로써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파멸로 인해 영광을 받는다. ...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택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영원히 내버리신다(「기독교 강요」, 3권 23장,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

3.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칼빈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구원의 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특별히 교회의 자녀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부패시켜 악용하는 것이다(「기독교 강요」, 3권 22장,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¹⁷⁾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며 아무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죽어 있던 죄인은 주권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뒤에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거하여 때를 따라 어떤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갖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이다(행15:18; 엡1:11).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마음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부드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작정에 따라 결국은 믿음을 갖도록 굴복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을 통해 그들 자신의 완악함과 완고함에 남겨 두신다(도르트 종교 회의 문서에서 요약 발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님에 의해 소생하고 새롭게 된 이후에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주어지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일반적 효력을 체험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5. 성도들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고 소생하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시고 자신의 영으로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전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확실하게 끝까지 견디어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태만과 유희를 통해 죄에 떨어질지라도 또 이로서 그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들을 훼손하며 교회의 수치가 되고 일시적 심판에 처해질지라도 그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17) 이 책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저항할 수 없는’ 혹은 ‘거부할 수 없는’이라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새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존될 것이다(「원리의 요약」(*Abstract of Principles*), 1858).

5. 칼빈주의의 확산 행진

칼빈주의는 이제 복음주의자들과 남침례교인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006년 9월호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는 ‘젊고 불안정하며 개혁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가 되살아나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칼빈주의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더 성경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근본주의자들과 근본주의 침례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 글은 널리 알려진 파이퍼(John Piper), 스프로울(R. C. Sproul), 몰러(R. Albert Mohler), 질리오(Louie Giglio), 해리스(Joshua Harris), 팩커(J. I. Packer) 그리고 과거의 유명한 청교도들이 칼빈주의 급증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파이퍼의 책 「하나님을 갈망하기」(*Desiring God*)는 무려 275,000부 이상 판매되었다.

칼빈주의를 수용하려는 경향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고든-콘웰 신학교, 남침례 신학교와 같이 복음주의를 이끄는 신학교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혁 신앙 칼빈주의는 지난 40년 동안 남침례교 안에서도 널리 확산되어 그들 가운데 ‘신칼빈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헨킨스(Eric Hankins)는 이 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 운동은 ‘칼빈주의 은혜 교리’, 즉 TULIP에 대한 공격적 주장을 통해 남침례 교단 교회들 안에서 배타적인 칼빈주의식 구원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리의 정의 측면에서 칼빈주의를 남침례 교단의 믿음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남침례교회의 전통적 이해에 대한 진술>(*A Statement of the Traditional Southern Baptist Understanding of God's Plan of Salvation*), 1장,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남침례교회의 ‘전통적’ 구원론 변호’(*Anyone Can Be Saved: A Defense of 'Traditional' Southern Baptist Soteriology*), p. 16).

남침례 교단 신학 대학 중 하나(켄터키주 루이빌 소재)의 9대 총장을 지낸 몰러(Al Mohler, Jr.)의 주도하에 남침례신학교는 칼빈주의의 온상이 되었으며 칼빈주의 개종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내고 있다. 또한 1982년부터는 연례 창립자 대회에서 총회 내의 칼빈주의를 장려해 왔다.

2007년 당시 남침례교 출판사 연구소인 ‘생명의 길 연구’(Life Way Research)의 이사였던 스텡저(Ed Stetzer)는 최근 남침례 교단 신학교 졸업생 중 거의 30%가 칼빈주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침례 신학교의 조직 신학 부교수인 얀넬(Malcolm Yamell)은 남침례교회 기관지인 <SBC Life>에 기고한 글에서 칼빈의 TULIP 신학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았다. 남침례교 소속 뉴올리언스 침례 신학 대학 총장인 램케(Steve Lemke)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나는 [칼빈주의]가 잠재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직면할 문제 중 가장 폭발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문제라고 믿는다. 칼빈주의는 이미 말 그대로 수십 개의 교회를 분열시킨 일의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전체 총회를 파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복음주의를 지향하는 남침례교의 미래」(*The Future of Southern Baptists as Evangelicals*), 2005, p. 4).

램케는 ‘최신 세대의 남침례교 사역자들이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알았던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칼빈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칼빈주의가 복음 전도에 대한 헌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할 사람들을 이미 선택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성도들과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 사실이 성도들의 전도 열정을 식힐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경우 복음 전도 과정에서 전도자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으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칼빈주의가 복음 전도 열정을 식히는 경향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는 ‘전도는 칼빈주의 때문이 아니라 칼빈주의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칼빈주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사실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펔전 목사는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였으나 그 당시의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스펔전이 죄인들을 차별 없이 광범위하게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초청한다고 그를 비난하며 적대시하였다. 예를 들어 스펔전 당시에 한 칼빈주의 저술가는 “구원받을 만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설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토기」(*Earthen Vessel*), 1857)라고 경고하였다.

칼빈주의는 18세기 영국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주의적 열심을 거의 다 죽여 버렸다. 침례교 역사가인 아미티지(Thomas Armitag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가 지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해야 할 크리스천들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1792년에 출판되었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거의 없었고 사실 이것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에게 그의 관점은 환상적이고 심지어 거칠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공공연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라일랜드가 회장을 맡고 있던 목회자 모임에서 캐리는 다음 회의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라일랜드는 충격을 받고 펄쩍 뛰어오르며 캐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이나 나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앉으라고 명령했다.

남침례교 총회에 속해 있는 비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교단에서

목회하면서 혼합 다중적 사고방식에 전념하고 있어서 이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 비칼빈주의 남침례교 신학교 교수와 목사 10명이 쓴 책에서 그들은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칼빈주의자들에게서 분리하거나 교단 총회에서 칼빈주의를 몰아낼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델러스에 있는 남침례교 소속 사우스웨스턴(남서) 침례 신학교의 설교학 대학 학장인 앨런(David Allen)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남침례교회의 '전통적' 구원론 변호」라는 제목의 책 첫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자주는 아니지만 남침례교회에서 칼빈주의자들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즉 '지나치게 열성적인 전통주의자들'(비칼빈주의자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이 총회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남침례교회의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할 자유가 있고 또 항상 그래야 합니다. ... 나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신학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더 광범위한 남침례회 총회 안에서 칼빈주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최근의 남침례교 총회 내 칼빈주의 논쟁, p. 2).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이며 혼란 그 자체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합된 다수 속에서 교인이나 신학생이 된다고 상상해 보라. 이런 곳에서는 칼빈주의 교리가 복음 자체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구원에 대한 칼빈주의 식 이해와 비칼빈주의 식 이해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롬 16:17)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매우 중요한 교리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신약 교회는 교리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전1:10).

나는 칼빈주의자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되거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단으로부터 양 떼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칼빈주의는 근본주의자들과 근본주의 침례교도들 가운데서도 확산하고 있다’

20년 전에 나는 한때 근본주의의 성지로 불렸던 밥 존스 대학의 서점을 방문했다. 거기서 나는 청교도들에 관한 많은 양의 책을 보고 놀랐으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경고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때 이것은 아마도 많은 밥 존스 대학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이후로 나는 이것에 대한 증거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전에는 비칼빈주의 침례교회였으나 밥 존스 대학 졸업생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뒤 칼빈주의 교회가 된 침례교회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있다. 최근에 호주로 여행을 갔을 때 나는 독립 침례교회에서, 밥 존스 대학 졸업생에게 보낸 출판물, 즉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들의 글을 읽는 이유」(*Why Read the Puritans Today*)를 보았다. 그 소책자에는 청교도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10가지 이유가 나열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개혁주의 신학과 그에 수반되는 칼빈주의와 무천년주의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들어 있지 않았다. 그것을 받은 졸업생이 칼빈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를 알리는 데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었다.

밥 존스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기독교 학교를 위한 성경의 진리」(*Bible Truths for Christian Schools*), 교사용 제3판에는 칼빈주의적 사고를 격려하는 진술문과 질문들이 있다. 이 책의 4장과 5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 초청을 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해야 하나요?

그 교과서는 구원에 이르는 예정을 ‘운명을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것은 밥 존스 대학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5년에 ‘젊은 근본주의자들’(Young fundamentalists)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젊은 근본주의자의 신념과 개인 생활’이라는 제목의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¹⁸⁾

설문 조사의 목적상 ‘젊은 근본주의자’는 35세 미만의 근본주의 성도(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경 신자들)들이다. 설문 조사에는 삶과 교리에 관한 135개의 질문이 포함되었고 대략 1,100개의 설문 조사가 완료되었다. 대다수 응답자는 자신이 3개의 근본주의 학교, 즉 밥 존스 대학교(29%), 마라나타 침례교 성경 대학(Maranatha Baptist Bible College)(22%), 노스랜드 침례교 성경 대학(Northland Baptist Bible College)(21%)에 다닌 적이 있다고 밝혔다. 칼빈주의적 견해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칼빈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다른 8%는 확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본주의자 설문 조사 응답자의 약 35%만이 칼빈주의를 거부하였다. 응답자의 약 14%는 무천년설(8%) 또는 후천년설(5%)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개혁주의 신학과 같다.

앞으로 미국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천천년주의,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누군가가 sharperiron.org 블로그에 칼빈주의의 성장에 관한 내 기사, 즉 ‘금요일 교회 뉴스 노트’(Friday Church News Notes)에 실린 기사의 원본을 올리자 무려 16페이지의 응답이 있었고 응답의 대부분은 칼빈주의를 찬성하거나 공감하는 것이었

18) <https://sharperiron.org/article/young-fundamentalists-survey>

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젊은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전형적 방식으로 나를 조롱했다. 그들의 반응이 보인 특징 중 많은 부분이 세속적 교만이었다.

2019년 10월에 나는 밥 존스 대학교 총장인 페티(Steve Pettit)이 제2장로교회에서 개최한 ‘개혁신학에 관한 그린빌 컨퍼런스’(Greenville Conference on Reformed Theology)에 참석했다. 페티 말고 다른 두 명의 연사는 비케(Joel Beeke)와 필립스(Richard Phillips)였다. 비케는 청교도 개혁 신학교(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이며 필립스는 특히 존 파이퍼, 팀 켈러, 존 맥아더, R. C. 스프로울 등의 칼빈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복음 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의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다. 나셀리(Andy Naselli)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밥 존스 대학의 ‘커스터 교수 강연 시리즈’(Stewart Custer Lecture Series)의 초청 연사였다. 나셀리는 파이퍼 목사의 베들레헴 신학 대학 교수이자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장로이다. 나셀리는 또한 복음 연합(TGC)의 직원이기도 하다.

왜 밥 존스 대학교가 개혁 신앙 칼빈주의자인 게티(Keith Getty)와 칼빈주의자들의 모임인 복음 연합의 저명한 회원이며 게티의 목사인 베그(Alistair Begg)에게 다리를 놓고 있는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복음 연합은 새로운 개혁 신앙 칼빈주의를 대표한다. 구 개혁과 칼빈주의와 달리 새 개혁과 칼빈주의는 초교파적이다. 구 개혁과 사람들은 로마(로마 카톨릭교회)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음녀’라고 믿었지만, 새 개혁과 사람들은 로마와 초교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적어도 그런 관계에 대해 열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복음 연합 웹사이트의 “기독교인은 초교파 성도가 되어야 하나요?”라는 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의 일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요한복음 17장)는 나에게 기독교에서 초교파적 과업을 중요하게 여길 의무를 줍니다(왁스(Trevin Wax)). [왁스는 게티와 연합하고 있는 남침례교 계열의 휘튼 대학교(Wheaton College) 교수임]

왁스의 말은 거짓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종교 통합 일치 운동’(ecumenism)과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에서 종교 통합 일치 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요17:6, 8, 14, 17, 19).

매튜닉(Lou Martuneac)은 이런 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밥 존스 대학 총장인 페티(Steve Pettit)이 이 연사들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습니까? 첫째, 밥 존스 대학이 개혁신학을 받아들일도록 그가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시다. 둘째, 복음 연합의 지도자들 중에는 소위 ‘보수적’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독한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타협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관찰자라면 누구나 밥 존스 대학이 그것 자체의 근본주의 및 분리주의 원칙을 포기했다는 것을

아무 의심도 없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 항상 신학적으로 광범위한 것을 포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것은 밥 존스 대학이 과거에 근본주의를 지지한 적이 없는 타협된 교단과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이것은 당신 아버지 세대의 연속성을 가진 밥 존스 대학이 아닙니다’, In Defense of the Gospel, 2019. 11. 14).

2020년 3월에는 남침례 신학교 교수이자 맥아더 목사의 매스터스 대학(John MacArthur's Master's University) 성경상담학과 학과장인 스트릿(John Street)이 밥 존스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리고 밥 존스 대학 총장인 페팅은 맥아더 목사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다. 맥아더는 극단적 칼빈주의자이다.

칼빈주의가 근본주의 교회와 가정에 침투하는 또 다른 길은 비전 포럼(VISION FORUM)이다. 이 조직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머리 직분을 맡도록 권면하는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은 대부분 훌륭하고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비전 포럼은 개혁과 칼빈주의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의 믿음 진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새 마음으로 응답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들은 그분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며 봉인되었다.

비전 포럼이 추천하는 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존 칼빈의 저작물, 천년 왕국 시대의 인간, 영국 청교도들 이야기, 세계의 위대한 종교 개혁사, 제네바 성경 칼빈판, 아이들을 위한 종교 개혁 이야기, 스코틀랜드의 언약주의자들 이야기, 종교 개혁의 영웅들, 개혁 교회의 유명한 여성들, 청교도 아버지들의 고전 총서, 존 길의 ‘교리적 하나님의 몸’(Gill's Body of Doctrinal Divinity, 이것은 극단적이고도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책임).

그들은 심지어 칼빈의 동상을 판매한다! 비전 포럼은 반세대주의적이며 7년 환난기 전에 이루어질 휴거를 거부한다.¹⁹⁾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복음 전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역점을 두어 강조하신 것이며 사도행전의 강조점이지만(마28:18-20; 막16:15; 눅24:44-48; 요20:21; 행1:8) 그들의 사명 선언문 어디에도 이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 놀랍게도 현시대 한국 장로교회의 많은 목사들도 휴거를 부인한다.

설교자들로부터의 피드백

2006년 9월 25일에 근본주의 침례교 정보 서비스에 게시한 글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칼빈주의가 근본주의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확인해 주는 이메일을 많이 받았다. 다음은 이러한 이메일 중에서 몇 개를 발췌한 것이다.

■ 제가 졸업한 성경 대학은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최근에 그곳에서 혼란이 조금 있는 동안 그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칼빈주의 신앙 때문에 사임 압력을 받았던 한 남자를 성경 학과의 책임 교수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칼빈주의적 성향을 인지하거나 기꺼이 그것을 조사해 보려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소수인지를 보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와 학교 측에서는 어떤 칼빈주의도 부인하지만, 저는 그의 수업 노트를 보았고,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도 이야기했으며, 누구라도 칼빈주의를 찾으려 고만 하면 그의 수업과 노트에서 쉽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저는 칼빈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교회 식구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독립침례교회가 칼빈주의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도시 내에 있는 한 독립침례교회에도 칼빈주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보기에 이곳 주변의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은 부분 칼빈주의에 대해 엄격하지 않으며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파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 다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나는 칼빈주의가 오랫동안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때 독립침례교회 신학교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린] 테네시 템플 신학교(Tennessee Temple Seminary)의 칼빈주의에 실망했기 때문에 1978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윙게이트(Wingate) 박사가 이 문제의 주범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필립스(Preston Philips) 박사는 5대 강령을 다 믿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나는 또한 온라인으로 블로그를 많이 하는 '젊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칼빈주의적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전형적 '젊은 근본주의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잭 하일즈 목사 계통의 교회에서 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 [한때 독립침례교회 신학교 중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진] 하일즈 앤더슨 대학(Hyles Anderson College)에 다녔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알팍한 영혼 구령(전도) 기술을 포함해서 이러한 근본주의 학교의 '히스테리적' 요소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킹제임스성경 등을 포함하여 이전에 자신들이 옹호했던 것 중 많은 부분을 버렸습니다.

일단 'A, B, C 순으로 나를 따라 해 보세요'라는 영접 기도 구원 공식을 거치고 나면, 그들의 구원론은 종종 칼빈주의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들이 훈련받았던 방식에 대해 그들이 반발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들은 얕은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얕은 질문 단계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주제에 대해 모든 종류의

거짓 교사들을 선택할 정도로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된 구원, 즉 회개하지 않는 구원에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성경의 입장을 벗어나서 칼빈의 품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들은 또한 칼빈주의자들의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 확실히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블로그에 있는 많은 글 중에서 진리가 아닌 글들이 있는지 파악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수백 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하일즈 목사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흔한 것인지 당신이 잘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 칼빈주의가 근본주의 안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당신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평생 근본주의자였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5대 강령을 믿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내부 관점에서 이 특정 주제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Sharper Iron 블로그(www.sharperiron.org)입니다. 그 안의 포럼에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맥아더(John MacArthur), 파이프(John Piper), 데버(Mark Dever) 등과 같은 칼빈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칼빈주의가 주로 우리 성경 대학과 신학교의 신학적 포괄주의에 힘입어 근본주의 침례교회 진영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간단히 말해서, 저는 학교에 들어갈 때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교육을 통해 이제는 칼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나이의 밥 존스 졸업생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북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보수적'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5대 강령 중 2-3개를 믿는 칼빈주의자라는 생각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11년 전에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을 때 2-3개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5개를 다 믿는 칼빈주의자들이 되었고 10명 중 9명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비성경적 책을 지은 릭 워렌(Rick Warren)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목적 중심의 교회가 된 모든 침례교회는 목사들이 5대 강령을 믿는 칼빈주의 목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5대 강령 친교'(Five Point Fellowship)라는 것입니다.

■ 저는 1960년대 이래로 근본주의 침례교 진영에서 칼빈주의가 부상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북부 뉴욕에서 왔으며 우리 가족은 신앙 체계 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칼빈주의의 언약 신학과 개혁신학이 모두 포함된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지역의 두 독립침례교회는 1970년대 성서침례교회(BBC) 계통의 클락스 서밋 대학(Clarks Summit University)으로부터 칼빈주의 가르침을 받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곳 일리노이주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저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새로운 목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무천년주의의 관점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주 칼빈주의와 언약 신학의 식단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오늘날 근본주의 학교에서 칼빈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설교자들이 구령 사역(전도)을 피하는 쉬운 방법으로 칼빈 철학을 받아들일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문 목회자'는 많지만 '구령 전도 사역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의 신학적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는 하지만 자기 교회 안에서의 구원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실제적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곤경에 처해 있으며 옛날식 전도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저의 아주 친한 친구가 '밥, 당신이 돌아온 이후로 여기 미국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보았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를 후원하는 몇몇 교회에서 개혁신학이 부상하고 있음을 즉시 주목했고,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사고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먼저 무언가를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약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고, 과거의 몇 가지 경우를 검토하면서 그 영역에서 나오는 더 많은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들 안에서 칼빈주의가 실제로 성장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 저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졸업생입니다. 칼빈주의에 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많은 동료들이 이제 칼빈주의자입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칼빈주의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2014년 이메일).

클라우드 형제의 메모: 2014년에 제게 이메일을 보낸 위의 졸업생은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많은 졸업생들이 칼빈주의자가 된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많은 근본주의 침례교 성경 대학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6년에 이 보고서를 처음 출판했을 때 나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과 연관이 있는 세 명의 형제들로부터 그 학교에서는 칼빈주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시대, 즉 칼빈주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6. 칼빈주의의 주요 오류들

1. 칼빈주의는 성경적 중생에 대한 간증이 전혀 없고 점진적 과정의 구원이라는 이단 교리를 가르친 칼빈에 의해 개발되었다

우리는 성경에 복종해야 하며 이단인 자들을 표시해서 드러내고 피해야 한다(롬 16:17; 딤후2:16). 어거스틴과 칼빈은 성경과 비교했을 때 매우 명백하게 이단자이다.²⁰⁾

칼빈은 단 한 번도 유아 세례와 ‘세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천주교 이단 교리를 반박한 적이 없다. 그는 구원이란 점진적 과정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지만 구원 자체는 일순간에 태어나는 출생이다(요3:3). 구원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며(엡2:1) 어둠의 권능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일순간에 옮겨지는 것이다(골1:13). 이렇게 일순간에 출생하는 구원 외에 다른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적이 없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첫 번째 오순절 날에 3,000명이 구원받은 것(사도행전 2장),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에 의해 구원받은 것(사도행전 8장), 사울과 고넬료와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의 회심 등(사도행전 9, 10, 16장)이 모두 일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그런데 칼빈은 한 번도 이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는 “세례의 효력이 누가 세례를 주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갈리아 신앙 고백 1559, 28항). 이로써 그는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물세례에 의한 중생을 계속해서 믿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 복음이다.

칼빈은 또한 어거스틴의 삶과 작품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에 구원이 점진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소위 자기의 ‘동산 체험’이라 불리는 것과 물세례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점진적 회심의 시작 단계라고 말한다(「어거스틴: 그의 삶과 영향」, David Beale, Historical Theology In-Depth, 2013, 1:334-50). [‘동산 체험’에 대해서는 95쪽의 각주를 참조하기 바람.]

현존하는 칼빈의 작품 가운데 그의 회심을 기록한 것은 한 군데에서 발견되며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해 내 생각을 누르시고 무언가를 가르치실 수

20) 이것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른다. 클라우드는 자신의 책에서 “Augustine and John Calvin were most definitely heretics.”라고 말하였는데 그가 이들을 이단자라고 한 것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 어긋남을 표현한 것이다. 성경에서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파당 혹은 다른 파당의 사상을 말하며 클라우드는 이런 의미로 ‘heretics’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있는 형태로 내 생각을 이끄셨다(「시편 주석」 서문, 1557).

이에 대해 비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볼 때 이런 회심은 단순히 지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은 회심, 회개, 중생을 모두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점진적 구원을 가르친다. 칼빈은 ‘회심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기록한다(「기독교 강요」, 2권 3장 6항).… 칼빈은 ‘전적 회심이란 회개라는 말로 이해된다.’라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3권 3장 5항).… ‘다시 말해 나는 회개가 회심이라고 이해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목표로 지정하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전 생애 동안 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야만 한다’(「기독교 강요」, 3권 3장 9항).

칼빈은 늘 어거스틴에 의존하면서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완벽히 충실하게 그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칼빈의 칼빈주의」(Calvin's Calvinism), Henry Cole, Reformed Free Publishing, 1987, p. 38).

2. 칼빈주의는 신학을 철학으로 바꾼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진술을 벗어난다. 칼빈은 훈련을 잘 받은 철학자였으며 그의 「기독교 강요」는 매우 철학적이다. 칼빈은 아주 젊었을 때 개신교로 새롭게 개종한 이후에 곧바로 그 책을 처음 저술하였는데 당시 그의 마음은 개종 전에 천주교 사제로서 배웠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된 신학은 단순히 성경을 믿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철학에 대해 또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떠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다(골2:8; 고후11:3). 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떨어진 진리에 이르기 위해 인간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의 경우, 칼빈이 성경기록의 실제 진술들을 넘어서서 인간의 추론에 의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핑크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미리 정하셨다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불 호수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셨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일반 명제를 인정한다면 이 특별한 결론은 불가피하지 않은가?”(「하나님의 주권」, p. 84)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핑크의 명제는 옳지 않고 따라서 결론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술을 넘어선 것이다. 성경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다.”라고 말하는데(엡1:11) 이것은 실제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핑크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정하셨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잘못된 토대 위에 신학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를 떠맡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다시 핑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수단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 목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동일 문서, p. 83)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추론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시며(딤후2:2-6; 벴후3:9) 그 일을 위해 방책을 실제로 주셨지만(요일2:2) 동시에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한다(요3:16).

칼빈주의의 철학적 접근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다. 핑크는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확실히 미리 아시고 미리 보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으로 자신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분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영벌(유기)에 이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동일 문서, p. 82).

이 진술에 대한 권위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아니라 핑크라는 사람의 인간적 추론이다. 핑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foreknowledge)을 미리 의도하심(foresight)으로 혼동하였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그들에게 많은 선택권과 더 큰 자유를 주며 그들이 실수할 것과 그러한 실수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미리 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 그것은 부모가 그것을 미리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주의가 간단하지 않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칼빈주의는 오히려 매우 복잡하다. 헛트는 칼빈주의에 대해 두꺼운 책을 써 가며 화이트와 논쟁을 벌였는데 화이트는 종종 헛트가 매우 지적이고 열심히 이 주제를 연구하긴 했지만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복잡성과 철학적 특성을 강조해서 보여 준다. 그래서 결국 칼빈주의는 엘리트들의 우월주의가 되고 만다. 화이트가 헛트와 논쟁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자.

양립주의(compatibilism),²¹⁾ 단독설(monergism) 대 협력설(synergism), 선택하시는 은혜(electing grace) 대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유효한 부르심(effectual calling) 대 일반적 부르심(general calling), 유효한 속죄(effective atonement) 대 가설적 속죄(hypothetical atonement), 자유주의자의 자유 의지 대 의지의 속박 등.

또 다른 칼빈주의자들은 객관적 은혜와 주관적 은혜,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 아담의 죄의 중재적 전가 대 즉각적 전가, 타락 이전 예정론, 타락 이전 선택론, 타락 이후 선택론, 소망적 의지 대 작정적 의지, 선행하는 가설적 의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칼빈주의가 건전한 성경 신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더 가깝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단순함을 떠난 ‘인간의 이론’이라고 믿는다.

21) 양립주의는 자유 의지가宿命론(결정론)과 양립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3. 칼빈주의 체제는 이 세상에서는 일치시킬 수 없는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 사도행전 13장 48절과 13장 46절을 상고해 보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절이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칼빈주의자들은 “보라, 믿는 자들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진술이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칼빈주의자들은 실제로 이 절이 말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라는 말을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단독으로 임의로 선택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가 되도록 이 절을 잘못 해석한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의 문제이다. 이런 입장이 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인간의 의지의 실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며 그 결과 그러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절 자체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런데 46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본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관련이 있음을 본다. 이 절의 분명한 가르침에 의하면, 여기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주권적으로 영벌(유기)에 이르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형벌인 유기에 내주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이것을 거절했다고 단순하게 말했다.

■ 요한복음 6장 37절과 6장 40절을 상고해 보자

요한복음 6장 37절은 칼빈주의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증거 본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찾는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만일 이 구절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단지 구원받도록 주권적으로 미리 선택된 특별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도록 몇 사람만을 미리 선택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 절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라는 점을 말할 뿐이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게 3구절 뒤에 나오는 40절에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요6:40).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아들을 볼 수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선택받은 자’라는 그들의 말을 그 구절에 끼워 넣어야만 가능한 해석이다.

4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임을 본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도 이에 동의한다.

■ 요한복음 6장 44절과 12장 32절을 상고해 보자

요한복음 6장 44절은 칼빈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증거 본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심을 본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칼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너무나도 명백한 많은 성경기록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실제로 답이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것들이 현 세상에서 적합하게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말썽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신학 체계로 형성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elect) 인간도 진실로 [무언가를] 택한다(choose). 하나님은 선택하시지만 또 동시에 모든 인간이 구원받도록 촉구하시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하시지만 그럼에도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진술은 모두가 똑같이 진실하며 성경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성경 자체가 하나로 풀어 주지 않으므로 현 세상에서 하나의 질서 정연한 신학적 패키지로 일치시킬 수 없는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4. 칼빈주의의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된다

■ 믿음이 행위라는 칼빈주의 교리와 성경의 증언

칼빈주의자들은 은혜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믿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없고 죄인이 스스로 자랑할 무엇인가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명백하게 믿음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을 주려 하실 때 앞으로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2-5).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믿음이 행위와 정반대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죄인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주의자들이 ‘믿음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성경에서 구원은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비유된다. 또한 사면을 받아들이고 구명 장비를 취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값비싼 선물을 사서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나의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재판장이 공물을 베풀어 내게 죄들의 사면을 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는가? 만일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 가고 있을 때 배 한 척이 다가와서 나를 구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 내가 무엇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는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나 자신이 하였는가? 물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죄인의 경우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이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 하므로 이에 죄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 죄인에게는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 믿기 전에 먼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칼빈주의 교리와 성경 말씀 핑크는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은 새로운 탄생, 즉 구원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이다. 이것은 결코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하나의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본성의 열매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8). 육신이 믿을 수 있다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믿기 전에 성령님의 일이 먼저 있어야 함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 매우 명료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듯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먼저 있는 뒤에야 그것이 진리를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하나님의 주권」, p. 73).

성경에서 새로운 출생, 즉 구원에 대한 주요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 들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1-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가르치신다. 9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0-21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설명한다. 그 답은 사람이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4-18).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죄인들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 즉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가?"라고 추론한다. 만일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사실 죽은 사람은 죄도 지을 수가 없다. 성경이 죄인들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진짜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죄인들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기 때문에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추론하는

것처럼 실제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단 교리로 옳기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한 분명하게 구원의 순서를 말한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먼저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는 성령님을 받는다. 구원의 순서는 사도행전 16장 30-31절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회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간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분명히 바울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일, 즉 믿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믿음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됨을 잘 알고 있었다.

구원의 순서는 또한 에베소서 2장 8-9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구원]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분께 내미는 손이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위에서 살펴본 구절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절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의 정확한 순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새로운 출생 이전에 있어야만 함을 배웠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핵심 교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조명의 빛을 주시고 자기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며 깨닫게 해 주시고 마침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신다는 배경에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는 것’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명확히 분리하여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 교리와 성경 말씀

성경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부패했고(렘17:9; 롬3:10-18)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며(엡2:1)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고전2:14) 가르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복음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인간이 복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음을 보여 주는 구절을 단 하나라도 제시해 보라고 했을 때 칼빈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구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 2장을 제시하였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사람이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 교리를 성경기록 안으로 집어넣고 칼빈처럼 해석해야만 이런 교리가 나온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요1:9) 그들을 이끄시며(요 12:32) 깨닫게 하시고(요16:8)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며(막16:15-16; 살후2:14) 그들에게 회개하고(행17:30)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면서(행16:31) 사람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다고 가르친다.

■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칼빈주의 교리와 성경 말씀

가인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창4:6-7).

하나님께서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시기심의 분노대로 행동하지 말 것을 촉구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저항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선택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영원히 버림받을 자가 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게 만드는 단서는 이 구절에 단 하나도 없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6:3).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과 다투셨고 노아를 시켜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그가 12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저항하고) 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도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시니라(롬10:21).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 당시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23:37).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들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적 의지가 그들에 의해 완벽히 거부되었음을 본다(그들은 저항하였다).
이제 우리 시대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해 보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해 복음의 빛에서 가려졌고 복음을 거부하므로(저항하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음을 본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지만(딤후2:3-4; 벰후3:9) 분명히 죄인들은 그분을 거부할(저항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가 오는 것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10-12).

왜 이러한 죄인들이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영원히 내버려졌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역하고(저항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

■ 제한 속죄라는 칼빈주의 교리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공활을 얻기를 원하신다(롬11:32).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고후5:19).
예수님에 의한 믿음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갈3:22).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딤후2:6).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히2:9).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까지도 사셨다(벧후2:1).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벧후3:9).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다(요일2:2).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다(사53:6).

따라서 제한 속죄라는 칼빈주의 교리는 성경기록의 명백한 가르침과 전적으로 반대된다.

5. 칼빈주의는 성경을 문맥이 아니라 신학으로 해석한다

칼빈주의 교리는 성경기록의 분명한 말씀들에 의해 지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성경 속으로 슬며시 파고들어 온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본문의 확실한 말과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문맥이 신학적 용어들을 정의하도록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미리 정해 놓은 정의를 사용해서 특정 구절들을 해석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의해 거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전적 타락은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 나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기록 말씀을 단 하나라도 내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교리의 증거 본문을 제시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이 쓴 많은 책들을 검토하였으나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기록들은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인용하지만 이 구절은 죄인이 자유 의지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 구절들은 죄인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이 세상의 행로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즉 마귀를 따라 걸으며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말할 뿐이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성경기록의 실제 말씀들을 넘어서서 죄인은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슬며시 추가하는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와 같지 않다.

그들은 또한 창세기 6장 5절과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사야서 64장 6-7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0-18절을 인용하지만 이 구절들에도 죄인이 믿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가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앞서 언급된 성경기록들을 인용한 뒤 싱가포르의 극동 성경 대학(Far Eastern Bible College)의 제프리 구 박사(Dr. Jeffrey Khoo)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타락 이후에 몰수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 타락을 가르친다(「아르미니우스주의 검증」(*Arminianism Examined*), 극동 성경 대학, 싱가포르, p. 4).

그렇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부패하였고 그 속에 구원을 보장하고 얻게 하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고 가르치지만 칼빈주의는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독특한 것들을 추가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음을 가르치는 구 박사의 제한 속죄 교리 발언을 살펴보자.

그분은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만을 획득하고 보장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속죄는 그 계획이나 의도에서 제한적이거나 특별하다.

구 박사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비록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시대에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지만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만이 유효하게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져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구 박사는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코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구절이 말하는 ‘그분 자신의 백성’은 유대인들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인용하지만 이 구절 역시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만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거나 혹은 그런 식의 다른 어떤 칼빈주의 방식의 왜곡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또한 요한복음 6장 38-39절을 인용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 역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속죄의 범위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의 모든 점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명백한 의미와 문맥에 의거하여 제대로 해석함으로써 오직 성경기록 그 자체만으로 그런 교리를 지지해야만 할 것이다.

6. 칼빈주의는 비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을 잘못 말한다

칼빈주의자들이 세웠다가 무너뜨린 허수아비 논쟁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논쟁들을 무너뜨리면서 칼빈주의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상상력의 한 파편만을 무너뜨렸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들은 비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비칼빈주의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나는 믿는다. 성경이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믿는다. 또 성경이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말해도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은 천국에 가도록 선택하시고 나머지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록 택하시거나 혹은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하도록 택하시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께 ‘이것이 옳다’ 혹은 ‘저것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데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비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칼빈주의자인 나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믿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요1:9)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고(요12:37)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뜻)로 구원받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은 이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12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13절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뜻) 구원’과 같은 종류의 그 무언가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믿거나 거부할 의지(뜻)가 사람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가르친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이 100%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비칼빈주의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경우 ‘구원이라는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제프리 구, 「아르미니우스주의 검증」, p. 20). 또한 핑크는 만일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거나 거역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성령님과 협력한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하나님의 주권」, p. 128).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칼빈주의자인 나는 아주 분명하게 구원은 100%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요1:9) 깨닫게 하시며(요16:7-8) 사람을 이끄시고(요12:32)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며 인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 내세울 그 어떤 것도 결코 아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래서 인간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빌2:1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선물을 받는 것이 그것을 받는 사람을 자랑할 위치에 둔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이요, [심하게 말하면 궤변²²⁾]이다. 무한한 가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분을 자랑한다. 바다에서 구출되거나 죽음에서 탈출한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 던져진 구명 튜브를 자신이 잡거나 구조원의 팔에 몸을 맡기긴 했어도 결코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구조자가 한 것만을 자랑한다.

칼빈주의자들은 또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죄인이 진실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유를 가진 도덕적 존재’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핑크는 자기 책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는 이런 진술에서 많은 허수아비들을 세우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영역 안에 놓여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정의해 준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이 자유를 가진 도덕적 존재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p. 138).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극단적 주장] 즉 ‘죄인이 자유를

22) 궤변: 철학에서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 <표준국어대사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가 없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단순하게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예수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요3:16)고 말한다. 이 말씀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 이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서 그러한 입장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그것은 죄인을 ‘자유를 가진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로마서 3장 10-18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은 죄인의 타락을 보여 주는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들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어떤 구절도 인간의 의지나 혹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언급하지 않는다. 창세기 6장 4절, 시편 51편 5절, 잠언 22장 15절, 전도서 9장 3절, 이사야서 64장 6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등과 같이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다루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 혹은 상상의 사상을 이런 구절들 안으로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읽고 해석한다.

핑크와 다른 칼빈주의자들은 ‘자유 의지’에 대한 비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로마 카톨릭주의의 주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핑크는 트렌트 공회의 말을 인용한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자극을 받는 인간의 자유 의지가, 인간의 뜻을 움직이고 자극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함으로써, 칭의 달성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단언한다면, 더욱이 어떤 사람이 인간의 의지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단순히 수동적 상태에 있다고 말하면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이렇게 천주교회의 말을 인용한 뒤 핑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오늘날 본성에 속한 자연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로마 카톨릭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로마 카톨릭교도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하나님의 주권」, p. 139).

사실 핑크의 이런 말은 극도의 중상모략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리 심하게 불의하지는 않으며 인간은 실제로 자신의 칭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행위’와 성례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와 같은 비칼빈주의자들은 결코 이와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단순하게 “누구든지 그[예수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요3:16)고 말하는 성경기록을 믿으며 칼빈주의의 TULIP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성경기록들을 왜곡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여 준 것들은 칼빈주의자들이 비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바를 어떤 식으로 오도하고 허위로 진술하는지를 보여 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7. 칼빈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고 국가적 선택과 개인적 선택을 혼동한다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²³⁾에 대한 칼빈의 중요한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에 기초를 둔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 ‘영원한 선택’이라는 글에 설명되어 있다.

로마서 9장 9-24절

9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10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12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4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16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7 성경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18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시고 친히 강박하게 할 자를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20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쥘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지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24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 구절들이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옹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 본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연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잃어버리도록 정하셨다고 가르치는가?

이 구절에서 우리는 8개의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다.

1. 에서와 야곱의 예는 개인적 구원에 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23) 유기(reprobation)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해서 영원토록 그분에게서 분리되어 지옥 불 호수의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전체적 인류 구원 프로그램에서 민족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12절 즉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리브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개인적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에서는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 구절은 결코 에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영원히 유기되어 버림받도록 미리 예정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의 선조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칠 뿐이다.

2 파라오에 관하여 성경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5장 2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²³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출5:2)

성경은 두 번이나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이 연기된 것을 파라오가 보고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출8:15).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그리하였더라*(출9:34).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유기²⁴의 예가 아니다. 성경기록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그분의 뜻이지만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분은 그들을 거부하고 심판하시며 그들을 본보기로 만드신다고 가르친다.

잠언 1장 23-33절을 보기 바란다.

23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5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26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리니 27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 28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29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30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31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32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33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순서는 매우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구원으

로 부르시며 만일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면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사야 66장 3-4절을 보기 바란다.

... 참으로 그들이 자기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이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므로
나 역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택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리
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순서는 매우 분명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길을 선택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12절을 보기 바란다.

그[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인들, 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멸망당할 자들은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할 것을 개인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강박하게 하는 파라오의 예를 드셨고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나 성경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벌(유기)에 처할 목적으로
파라오를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3. 로마서 9장 22-23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은 파멸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어떤 죄인들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vessels of wrath fitted to destruc-
tion)이라는 구는 대상자가 본인 스스로 어떤 일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진노의 그릇들(여기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스스로 행동하였다. 「빈센트 언어 연구」에 나오는 다음 주석을 살펴보
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파멸에 합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형용사적 의미에서 파멸에
거의 다다른 상태, 즉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최종적
진노의 대상들이 이 문제에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16절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 자체가 명백한 말씀들의 의미를 통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성경기록

과 성경기록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멸에 합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한다. 복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창조와 양심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 빛에 스스로 반응함으로써 더 많은 빛이 자기들에게 비치도록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다(행17:26-27).

4. 로마서 9장 23-24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공훈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여기서 칼빈주의를 주장하려면 이 절들에 있는 말들에 ‘주권적 선택’이라는 말을 임의로 집어넣어서 읽어야만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24절이 ‘유효한 부르심’, 즉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용어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며(살후2:14) 복음은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막16:15).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롬10:13; 계22:17).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6:40).

5.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주권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유대인들 개개인의 구원 역시 개인의 믿음에 기초를 둔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롬9:31-33).

6. 로마서 10장은 이것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 구원의 약속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것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9:33; 10:8-13).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와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그 뒤에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놀리셨단 말인가?

7.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뜻이 사람들 안에서 항상 성취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손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느니라(롬10:21).

마태복음 23장 37절도 참조하기 바란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늘 '아니요'라고 말해 왔으며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고 증언한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벰전1:16)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그 뜻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도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다.

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파라오처럼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12장 2절: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대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반역하며 듣기를 거절한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을 눈멀게 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성도 마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며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은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회심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별(유기)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사도행전 28장 25-27절: 그들[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심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눈을 감았음을 보게 된다. 이 구절은 칼빈주의의 주권적 유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8. 칼빈주의는 권위를 얻기 위해 순전하게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교부들’에게로 돌아간다

칼빈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권위는 어거스틴이었다고 인정했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라.

내가 만일 어거스틴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통째로 편집하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독자들에게 그의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기독교 강요」, 3권 22장).

나를 대신해서 어거스틴이 대답하게 하라(동일 문서).

어거스틴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신실한 증인으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인용하는 사람이다(「기독교 강요」, 4권 14장).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완벽히 충실하게 그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칼빈의 칼빈주의」(Calvin's Calvinism), Henry Cole, Reformed Free Publishing, 1987, p. 38, 「칼빈주의의 이면」(The Other Side of Calvinism), Laurence Vance, 1999, p. 38).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인가?

어거스틴은 이단 교리로 심히 크게 오염된 사람으로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를 ‘자기들 교회의 4명의 박사들’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은 점진적 구원이라는 거짓 복음을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소위 자기의 ‘동산 체험’이라 불리는 것과 물세례가 일생동안 지속되는 점진적 회심의 시작 단계라고 말한다(「어거스틴: 그의 삶과 영향」, David Beale, Historical Theology In Depth, 2013, 1:334-50). [‘동산 체험’에 대해서는 95쪽의 각주를 참조하기 바람.]

어거스틴은 참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한 자였으며 카톨릭교회의 박해 교리를 세우고 실행한 교부였다. 역사가 네안데르(August Neander, 1789-1850)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영적 독재, 편협, 박해로 이루어진 전체주의 시스템이라는 세균을 포함하며 그것은 중세의 종교 재판소의 법정까지 진출하였다.”라고 말한다. 그는 사도들의 신앙에 의거하여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애쓰던 성경 신자들인 도나티스트들을 심하게 박해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직접 그들을 박해하였다.

어거스틴은 또한 무천년주의의 아버지로 성경의 예언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카톨릭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가르쳤으며 연옥을 믿었다.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라는 이단 교리를 확립한 교부들 중 하나로서 세례를 받지 않은 유아들은 영원히 버림받아 유기된다고 주장하였고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교도’나 ‘저주받은 자’로 불렀다.

어거스틴은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높이면서 “카톨릭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⁴⁾

9.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경고와 그분의 심판을 설명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셨다(눅13:3, 5; 요8:24 참조). 그분께서는 또한 죄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누가복음 10장 12-1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대! 벳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대!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굶은베 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쫓겨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견인(은혜), 선택받은 자들의 다시 태어남에 대한 칼빈주의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의 경고와 심판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자들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왜 그분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으며 그리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심한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하셨을까?

10. 칼빈주의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 없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24) 영어 원문: “I would not believe in the Gospel if the authority of the Catholic Church did not move me to do so.” - Augustine.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고전9:19).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영원부터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바울이나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고전9:22).

칼빈주의에 따르면 바울의 도움이 없어도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가?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자신을 희생했다.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전10:33).

구원의 선택이 주권적으로 미리 예정되었거나 불가항력적이라면 바울의 이 같은 진술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고후5:11).

바울이 만일 칼빈주의자였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들은 설득할 필요가 없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꺼이 심지어 지옥의 저주도 받을 태세였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롬9:3)

어떻게 미약한 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걱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이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외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11. 칼빈주의는 히브리서를 설명할 수 없다

히브리서는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나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의 TULIP 교리,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의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절대적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교리를 논박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배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그렇게 무서운 경고와 권면들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받았다면 멸망할 가능성이 없으며 선택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절들을 살펴보자.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이 권면은 칼빈주의 교리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칼빈주의가 가르친 대로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2-1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주권적으로’ 미리 예정되었다면, 그래서 선택이 죄인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선택받은 죄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린다면 이런 권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반면에 어떻게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9-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권면이 어떻게 칼빈주의 TULIP 방식의 선택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 구절은 구원이라는 안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받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에 칼빈주의의 ‘주권적’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확실하게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히브리서 6장 4-6절: 이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만일 칼빈주의 TULIP 신학이 맞다면 왜 이런 권면이 있는가? 어떻게 선택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6-29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칼빈주의 TULIP 신학이 맞다면 왜 이러한 권면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들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들은 확실히 끝까지 견인될 것이며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확실히 끝까지 견인되지 못할 것이다.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칼빈주의 관점에서 선택이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믿는 자들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권도 없다면 이 구절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의 미리 아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벧전1:2) 죄인의 입장에서 개인적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면(‘누구든지 믿는 자는’ 요3:15, 16; 12:46; 행10:43; 롬9:33; 10:11; 요일5:1; 계22:17 등) 히브리서에 나오는 권면이나 경고는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는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성경이 모든 곳에서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죄인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 부여로 인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요1:9) 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요12:32) 성령님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조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죄인이 실제로 구원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구원에 가까이 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죄인들은 진실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진짜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이 내주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다.

12. 칼빈주의는 기도를 설명할 수 없다

핑크는 “하나님의 뜻은 변경될 수 없고 우리의 울부짖음으로 바뀔 수도 없다.”라고 말한다(「하나님의 주권」, p. 173).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로 변경될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라고 요구할 수 없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demanding)이 아니라 구하는 것(asking)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롬1:10).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요일5:4). 이런 말씀들은 결코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미리 예정하셨던 것에 대해 로봇같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도할 책임을 주셨고 그 기도가 그분의 뜻에 맞다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은 기도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인가가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도들은 세상에서의 일들을 바꾼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다음의 장면을 살펴보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뻗었던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출32:9-14).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고 모세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분께 간청하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혀 맞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고 문자 그대로 인간의 간청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된다.

누군가가 이 시점에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

민수기 23장 19절과 출애굽기 32장 14절 사이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그분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11:29).

그러나 여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의 맥락 안에서 그분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바꾸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다.

사무엘기상 15장 29절은 어떤가?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매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시고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뒤에 사무엘이 한 말이다. 사울은 그 결정에 대해 사무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간청하였고 사무엘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은 변경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마음(혹은 뜻)이 변경될 수 있는 때가 있고 될 수 없는 때가 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두 명의 대언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렐7:16; 겔14:4) 그것은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반역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성하신 뒤의 일이었다. 또 다른 순간에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하여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회개의 시간을 주었다.

민수기 23장 19절이나 사무엘기상 15장 29절 중 어느 것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결심한 출애굽기 32장에서의 계획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이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예스’나 ‘노’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인간은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이다. 성경기록에 있는 다른 기도의 장면을 살펴보자. 이사야 38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대언자 이사야에게 가서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사38:1)고 말하라고 하셨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다시 왕에게 보내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날들에 십오 년을 더해 주리라”(사38:5)고 말하게 하셨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의 우주 장기판에서 겨우 줄에 불과한 자를 창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큰 힘 즉 전능한 힘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후자가 더 큰 힘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불멸의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예비하지 않고 단지 그들을 불멸의 존재로 정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나는 사람의 무조건적

선택과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해 준다고 하는 데 의문을 가진다. 자신이 친히 선택한 구원자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권적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권능과 사랑을 보여 주시는 분이시다(「칼빈주의 5대 강령의 구원론적 의미들」(*Soteriological Implications of Five-Point Calvinism*), Philip F. Congdon,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Autumn 1995; A Calvinist's Honest Doubts Resolved, p. 76).

7.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동일하지는 않다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다양한 교리와 실행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결코 어떤 사람이 단지 칼빈주의 신학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를 진리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머레이(Iain Murray)가 쓴 「스펠전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복음 선포를 위한 전쟁」(*Spurgeon vs. Hyper-Calvinists: The Battle for Gospel Preaching*,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5)이라는 책은 칼빈주의자들 간의 차이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영혼 구원에 힘쓰며 매우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칼빈주의자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칼빈주의를 그릇되게 해석한다. 머레이의 정의에 의하면 이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다.

칼빈주의자였던 스펠전은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을 거부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만큼 지혜로웠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다는 것과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이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판단력이 취약해서 생기는 일일 뿐이다. 이 두 개의 진리는 서로 모순될 수가 없다. 따라서 만일 내가 어떤 곳에서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만일 내가 다른 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도 사실이다. 두 개의 진리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고 상상하도록 나를 유도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나는 이러한 두 개의 진리가 현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융점되어 붙여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 거의 평행으로 달리는 두 개의 철로이며 멀리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그것들이 합쳐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로 합쳐지게 되어 하나님의 왕좌 근처에서 영원 안의 어딘가에서 만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진리가 샘솟는다(스펠전, 「뉴파크스트리트 강단 설교」(*New Park Street Pulpit*), 4권, 1858, p. 337).

스펠전은 성경적 모든 난해 구절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신학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거의 병적으로 하나로 일치하는 신념, 즉 모든 것을 함께 모아 중국 퍼즐처럼 사각형을 만드는 신념을 가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혼을 편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많은 부분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성경에서 찾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들 모두를 일치시키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낼 수는 없어도 두 개든지 스무 개든지 이만 개든지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스펠전, '믿음'(Faith), *The Sword and Trowel*, 1872).

이런 문제에서 스펠전은 칼빈주의자였지만 사실 그는 칼빈주의자 이상이었다. 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스펠전에 관하여는 당신이 그를 찌른다면 그의 피조차 '성경의 피'였을 것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그는 신학을 사랑했고 신학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이같이 단순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스펠전은 칼빈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위대한 복음주의자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촉구해야 함을 믿었다. 스펠전은 복음이 선포된다면 더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과 자신의 복음 선포를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임이 가능한 한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도와 같은 도구가 영혼들을 더 많이 수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설교 전에 또 매주 월요일 밤에 그리고 다른 일들이 있을 때에 기도 모임을 가졌다. 때때로 그가 시무하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의 강당이 다 차면 한 그룹은 아래층 기도실에 남아 그가 설교하는 동안 기도하곤 하였다. 이것은 그 교회의 사무 비서인 윈콜(Hannah Wyncoll) 부인으로부터 2000년 6월 2일에 받은 이메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스펠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자가 되라고 가르쳤다. 그가 지은 유명한 책 「영혼 구원자」(*Soul Winner*)는 지금도 인쇄되고 있다. 스펠전의 교회에는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회심하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말씀 선포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들의 특별한 일로 여겼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영혼 구원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펠전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사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 형제에게 나는 사냥개라는 명칭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상처 입은 새들을 집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월요일 밤 기도 모임에서 그는 강단 위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사라졌고 나는 곧바로 그가 건물의 바로 다른 끝에 있는 것을 보았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왜 그가 그렇게 급하게 나갔는지 묻자 그는 회중 속에 있던 한 여인의 얼굴에서 가스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주 슬프게 보였기에 그는 걸어가서 그녀에게 가까이 앉은 뒤 예배 후에 그녀에게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참이었다(스펠전, 「풍성한 수확」(*The Full Harvest*), p. 76).

이를 통해 우리는 스펠전이 영혼 구원과 전도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며

그의 칼빈주의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확신이 그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음을 본다.

한편, 그 시대의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설교나 잡지에서 스펀전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하였으며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초청하는 그의 목회를 비난하였다. 그는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실제로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들을 그리스도께 오도록 초청했으며 그 당시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의 대형 강당의 모든 좌석에 앉아 있던 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스펀전 시대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문 중 하나는 「토기」(*Earthen Vessel*)였다. 1857년에 거기에 실린 글에는 “구원받을 만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설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대담한 말이 있었다. 아마도 그 말은 스펀전이 선포했던 말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 당시의 많은 칼빈주의자들에게 스펀전은 어리석은 친구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칼빈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들을 하나의 같은 틀로 묶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나는 신실하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 칼빈주의자들을 알고 멀리서 그들과 교류하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들과 강력하게 의견을 달리 하지만 그들을 원수나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나는 신학 면에서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같이 사역하거나 같은 교회에서 지체로 모이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믿는다.

8. 즉석 영접 기도 전도 신학을 주의하라

적어도 칼빈주의만큼 복음 선포에 해를 끼치는 것은 ‘쉽게 믿기’(Easy believism) 혹은 ‘즉석에서 영접 기도하기’(Quick prayerism)이다. 이것은 주로 근본주의 침례교 인들과 여러 다른 집단에 만연되어 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요 3:16)과 구원받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위험을 ‘쉽게 믿기’(Easy believism)라 부르기보다는 ‘즉석에서 영접 기도하기’라 부르기를 원한다. ‘즉석에서 영접 기도하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그들은 알파카게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도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는 무척 빠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릭 워렌(Rick Warren)의 새들백 교회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살펴보자.

우리의 불순종하는 본성이 우리를 우리의 창조자와 영원히 분리시켰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너무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어서 어디서부터가 구원에 대한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짧게 말해서 성경의 구원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모호하고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결단 이상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복음에 대해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르침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회개에 대한 언급도 없다. 복음에 대한 새들백 교회의 설명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죄인의 영접 기도로 이끄는 것은 하나의 중범죄이며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치욕이다. 이런 유형의 복음 전도의 천박함 때문에 나는 작년에 새들백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신도 옆에 앉아 그가 언제 다시 태어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했다.

2. 그들은 사도 바울이 침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증거를 요구한 것과는 반대로 죄의 확증이나 다시 태어남의 증거가 없어도 사람들을 영접 기도로 이끄는 데 빠르다

[내가]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행26:20)

3. 그들은 회개를 무시하거나 또는 죄나 삶의 변화와 관계가 없는 회개를 말하는 데 빠르다

이들이 사용하는 ‘일반적 영혼 구원 계획’은 회개, 즉 방향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마음이 변하여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전통적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단순히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재정의하였다. 그들이 회심시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삶의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지 않아도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회개란 항상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4. 그들은 구원의 증거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데 빠르다

성경적 구원의 안전 보장은 진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후5:17). 단지 죄인의 영접 기도를 했거나 목사의 구원 초청에 반응하여 예배당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가면서 교회 직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특히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 그들은 자기들의 전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숫자를 세는 데 빠르다

즉석 영접 기도를 실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담한 사람들의 구원 고백 중 상당수가 구원의 증거를 주지 못해도 대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상부에 보고한다. 이러한 사역에서 나온 믿음 고백의 90%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지난밤에 교도소에서 20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했다.”거나 “500명이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죄인의 영접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20명이 지난밤에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500명이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특히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해, 자신이 회심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회심하지 못했다는 점과 자기의 사역에서 나온 대부분의 믿음 고백들이 노숙자의 냉장고만큼이나 비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될 때 더욱더 확실한 사실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나는 성경적 형태의 칼빈주의가 있다거나 비성경적인 좀 더 극단적 형태의 칼빈주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스펀전은 우리가 칼빈의 칼빈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내가 스펀전을 존경하지만 - 그도 역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멋지고 훌륭한 믿음의 전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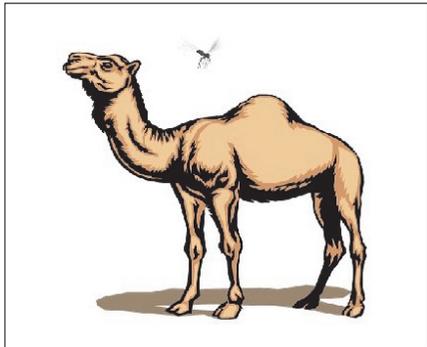
말에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그의 견해에서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칼빈 자신은 어거스틴에게까지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사실 의지할 수 없는 썩은 나무에 불과한 어거스틴에 의지하는 것은 칼빈의 주요 오류 중 하나이다. 우리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경기록에 완벽하고도 충분히 기록되어 있듯이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으로 항상 되돌아가야 한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조직 신학이 출발하고 끝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유3-4).

9. 칼빈의 낙타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마23:24).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과거와 현대의 많은 칼빈주의 저작물을 연구해 본 결과 나는 칼빈이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죄를 지었다고 확신한다. 어떤 형태라도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많은 성경기록들의 분명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성경기록의 전체적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나는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에 나온 많은 영향력 있는 칼빈주의 저작물을 공부하였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47년 동안 칼빈주의를 연구해 왔다.

나는 최선을 다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기꺼이 그 진리를 따르려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독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항상 비(非)칼빈주의자가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였다.

칼빈주의자들은 틀림없이 내가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나는 칼빈주의가 그렇게 복잡하다면 그것은 진리일 리가 없다고 대답한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성경 백과사전과 다른

많은 성경 연구 책들을 출판할 정도로 상당한 지성을 가진 설교자/선교사가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칼빈주의를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신학을 만들어 내는 장본인은 바로 마귀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11:3).

물론 칼빈주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바로 이런 이유로 칼빈주의는 엘리트 지성 세계를 생산해 낸다. 칼빈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립주의’(compatibilism), ‘[신] 단독설 대 [신인] 협력설’, ‘선택하시는 은혜 대 불가항력적 은혜’, ‘유효한 부르심 대 일반적 부르심’, ‘유효한 속죄 대 가설적 속죄’, ‘자유주의자의 자유 의지 대 의지의 속박’, ‘객관적 은혜 대 주관적 은혜’, ‘자연적 능력 대 도덕적 능력’, ‘아담의 죄의 중재적 전가 대 즉각적 전가’, ‘타락 이전 예정론’, ‘타락 이전 선택론’, ‘타락 후 선택론’, ‘소망적 의지 대 작정적 의지’, ‘선행적 가설 의지’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는 성경에 없는 많은 것들을 가정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철학이다.

칼빈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칼빈주의를 연구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비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칼빈주의자인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든지 기뻐하시는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다.

칼빈주의를 연구할 때마다 나는 이 교리 체계가 너무나 많은 성경기록들을 단순하게 반대하며 하나님의 명백한 가르침보다 인간의 논리와 철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교리이지만 결코 칼빈주의가 그것에 대해 내린 결론을 의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을 모기에는 긴장하게 하고 낙타는 삼키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기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경 밖의 논쟁들과 추론들이며 낙타는 문맥에서 분명하게 이해되는 성경기록들이다.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긴장하는 여러 개의 모기들을 살펴보자.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라면 인간은 의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분에게 반역할 수도 없다고 추론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죄인이 죽었다면 복음에 반응할 수 없으며, 그가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면 그리고 믿음 자체가 주권적으로 받은 선물이라면 - 에베소서 2장 8-9절에 대한 잘못된 주석에 근거하여 - 선택받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추론한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의도하셨다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러한 모든 예들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논리를 성경기록에서 나오는 분명한 진술에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자신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경기록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뒤집는 분명한 수많은 성경기록들은 삼키면서 미세한 모기들에만 긴장한다.

칼빈이 삼킨 낙타들

다음은 칼빈이 ‘로마 카톨릭교회 박사’인 어거스틴을 추종하면서 ‘주권적 선택’이라는 오류를 범하며 끌려 삼킨 낙타들의 몇 가지 예이다.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면 또 구원이 죄인에 의해 수용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 아니라고 추론하였다.

나는 완고한 칼빈주의자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다. 그는 선택하는 은혜와 보편적 은혜의 차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의 차이, 소망적 의지와 작정적 의지 그리고 선행적 가설 의지 사이의 차이를 교묘하고 난해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견고한 성채 속으로 즉시 도피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 신자들과 지적 명민함에 의해 위압을 받지 않고 인간의 신학으로 세뇌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1.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참으로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Yea, they turned back and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시78:41).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그분의 목적을 거역할 수 있다면, 즉 그분을 제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권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권적 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 제한한다고] 말하며 이런 것은 역사의 가장 처음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리되어 왔다고 증언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가인도 거역하였다. 노아의 세대도 거역하였다.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도 거역하였다.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그들을 가리켜 ‘그분의 법 안에서 건기를 거절하는 자들’ (시78:10),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시78:8)라고 묘사한다. 그런 다음 이렇게 놀라운 진술을 한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시78:41).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이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 칼빈주의는 이 두 가지 주장 면에서 틀렸음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의지가 있고 실제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다 해도 또 심지어 구원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그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은 약화되지 않는다. 그분께서 로봇을 창조하시어야만 그분의 주권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나 오직 구원 문제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어떤 면에서 그분을 제한할 수 있다 해도 여전히 그분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실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분명하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할지니라.”(계22:17)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실 수 있다.

2.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23:37).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와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꺾일 수 있음을 명백히 가르치는 증거이다.

그러나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눈물, 즉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흘리신 눈물]이 실망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냈는가? 진실로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명의 완벽한 인간을 보여 주었다(「하나님의 주권」, p. 199).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진술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꺾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소유한 본성의 측면, 즉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간의 본성적 측면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실망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주권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칼빈 자신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그러나 이것은 글자 그대로 수많은 곳에 있는 성경기록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심지어 이단적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14:9)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로서 또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주길 바라셨으나 그들이 원치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3.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거역하였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Ye stiffnecked and uncircumcised in heart and ears, ye do always resist the Holy Ghost: as your fathers did, so do ye](행7:51).

스테반은 유대인 박해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 책임을 지웠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다투시며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그분을 거역할 수 있음을 본다. 칼빈주의자들은 ‘의지의 속박’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진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 교리에 의하면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가 속박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고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 대신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가인부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사람은 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부르심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며 사람은 명백하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그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에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오직 일부만이 반응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위의 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고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에서 모두에게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다.]

4.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이스라엘에게 내미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하였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느니라(롬10:21).

내가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 온종일 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선하지 않은 길로 걸으며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돌 제단 위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사65:2-3).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형태의 진술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며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구원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본다.

5.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에게 가져왔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 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살전 2:14-16).

이 구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을 죽이고 초기 성도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악한 일을 하도록 주권적으로 버림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들을 쌓았고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닥치게 했다. 또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까 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것을 금했다고 바울이 말한 것에 주목하라. 따라서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어서 복음 선포를 받을 수 있었다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었음을 본다.

6. 믿는 자들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11:7).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12:41-42).

노아, 세바의 여왕, 니스웨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 주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노아의 믿음과 세바의 여왕의 믿음, 니스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예였다면 믿지 않는 자는 그것에 의해 정죄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께 무례히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10:29).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실제로 다시 태어남이 없이 거의 구원에 이르렀다가 마지막에는 피의 유효성과 은혜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네팔에서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힌두교도들과 불교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사며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심지어 침례를 받기 원하며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간증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서 인간의 종교와 우상 숭배로 돌아가거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부인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 깨우침을 받으며 언약이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의미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 구절은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칼빈주의 교리와 모순이 된다. 적어도 이런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가르친다.

8.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저주하셨다

그분께서 강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벧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베 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마 11:20-24).

예수님께서서는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 영벌(유기)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다루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다루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만일 그들이 회개할 수 없었다면 마치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왜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명령을 받는가?(행 17:30)

9.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눅11:2).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현재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물론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관한 한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거역해 왔다.

10.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들이 구원받도록 초청하신다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2).

하나님의 이 보편적 초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진심히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11.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사람이 와서 값없이 마시도록 초청하신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공휴이니라(사55:1-3).

칼빈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여 주는 다른 많은 구절에서 하듯이, 이 구절의 대상을 역시 선택받은 사람들로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특별한 초청은 ‘목마른 모든 자’를 향한 것이다. 이 초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곧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위에 창조하신 하나님(사45:12), 앞의 구절에서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2)고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런 초청의 수신자는 이스라엘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분의 아들 메시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이로써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언약에 참여한다(행13:34-38).

12.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4-18).

핑크는 이 구절의 ‘세상’은 ‘전 인류’를 의미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분석하자면 여기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편다(「하나님의 주권」, pp. 203-204).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그것만이 가장 분명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구절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은 이 구절에서 두 번 사용된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의해 입증된다. 만일 ‘세상’이라는 단어가 전 인류가 아닌 다른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가 정말로 ‘누구든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단어들은 아무 의미도 갖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칼빈주의자들은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바로 그런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둘째, 이 구절에 나오는 ‘세상’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예표로 볼 때 분명하다.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 높이 들려진 이 뱀은 뱀에 물린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충분하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13.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도록 초청을 받는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22:17).

이 구절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칼빈주의 교리를 반박한다. (1) 구원은 주권적으로 미리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아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님께 가서 생명수를 취할 수 있다]. (2) 하나님은 유효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지 않으신다[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 (3) 죄인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아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님께 가서 생명수를 취할 수 있다].

14.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니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8-13).

이것은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또 다른 구절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따라서 주권적으로 선택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주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의 신학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신학은 성경기록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주권적 선택, 의지의 속박, 주권적 부르심이라는 칼빈주의 교리가 맞는다면, 이 구절들은 실제로 그 안의 단어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초청하는 것은 미리 선택된 일단의 죄인들만을 위해 예정된 것으로 바뀌게 된다.

믿음에 관한 한 이 구절들은 믿음이 모든 죄인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한다. 죄인들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전적으로 불의하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15.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12:46).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2:21).

성경은 구원이 '누구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성경을 믿는 성도들 - 대부분의 비신학자들, 보통 사람들 - 은 이런 구절을 읽고는 어떤 죄인이든 모든 죄인이 이 시간 그리스도께 오도록 초청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사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칼빈처럼 해석하는 것은 그 말들 자체를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누구든지'는 실제로 '누구든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의 '누구든지'가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한 입으로는 구원이 실제로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서

도 그는 다른 입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앞의 내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그는 실제 의미에서 여기의 ‘누구든지’가 ‘선택받은 자들 중에 누구든지’라는 주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을 우리는 궤변이라고 말한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셨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요7:37-38).

여기의 초청 역시 우리가 다른 많은 구절에서 보았던 초청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것 역시 ‘누구든지’를 위한 초청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며 구원의 필요를 깨닫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만족을 누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요16:8).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요구 조건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에 목말라야 하고 그 물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만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원은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나 쉽고도 간단한 일인가!

17.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안식하라고 초청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마11:28-30).

아마도 이것보다 더 넓은 구원의 초청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구든지 안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도록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주권적으로 미리 예정된 개인들, 즉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초청이 아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확대되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실로 그분 마음의 소원이다.

18.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땅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0-1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 민족에게 거절당하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구원은 '믿는 자들은 다'와 '누구든지'의 문제이다.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칼빈이 가르쳤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한 뒤에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또한 우리는 13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의 뜻이나 의지'라고 정의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뜻에서 나옴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러한 인간의 논리를 반박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새로운 출생이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다시 말해 13절은 새로운 출생은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인간은 새로운 출생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인간은 구원이 일어나게 의지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믿는 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은 은혜의 기적이다.

19.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을 정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막16:15-16).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는 것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을 조롱하시는가?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와 '비극단적 칼빈주의자'라는 두 부류로 칼빈주의자들을 나누지만 사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결코 자기들이 극단적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들이 '순전한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비극단적(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누구든지'가 '실제로 모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가 다른 입으로는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빼고는 매우 고무적으로 들린다. 이러한 논쟁을 들었을 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확실하게 "이것이 대체 무슨 종류의 이상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나? 하나님이 고양이에게 쥐에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노시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내가 선택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 뒤에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일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나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빛도 구원에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무슨 사랑인가?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즉시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렇게 대답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신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그분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묻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다.

20. 누구라도 멸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벰후3:9).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늦추시는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한다. 다른 성경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위축하며 거절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주권적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길 그만두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이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정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 중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해석한다. 핑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는 그 ‘아무도’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바로 앞 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 곧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말한다(『하나님의 주권』, p. 207).

이 해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구절이 유일하게 이 한 구절뿐이라면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6장 40절, 로마서 11장 23절, 디모데전서 1장 15-16절, 디모데전서 2장 3-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등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하는 성경기록들 중 일부이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해’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반적인 인간 모두’라고 믿는 것은 합당하고도 성경적이다.

둘째, 만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심을 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부르심이라는 칼빈주의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이 구절에 매우 이상한 언어가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21.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3-4).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절이 단순하게 의미하는 바를 벗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며 그분께서 바라시는 바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 자신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게 정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디모데전서 2장 3-4절의 분명한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물리치기 위한 온갖 종류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열성적 칼빈주의자들만 그런 식으로 성경기록을 해석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적 의지’와 ‘결정적 의지’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의지(뜻)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지만(소망적 의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도록 정하셨다고(결정적 의지) 주장한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디모데전서 2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그분의 ‘소망적 의지’일 뿐이다. 반면에 그분의 ‘결정적 의지’의 범주 안에 들어간 선택받은 죄인들만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난 뒤 ‘믿음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칼빈주의 교수에게 이것은 ‘마술적 주문’ 즉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그는 매우 화를 냈지만 나는 이런 표현 외에 그것을 달리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물론 디모데전서 2장 3-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칼빈주의와 일치시키려는 무모한 시도는 실제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사실 하나님의 ‘소망적 의지’가 성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 - 그분의 ‘결정적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소망적 의지’ - 는 인간에 의해 정말로 거부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에게

‘주권적이지 않은 의지’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하시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22.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엔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1:15-16).

이런 구절의 ‘죄인’을 선택받은 자로 한정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은 다른 구절들을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듯이 이 구절도 다른 방식으로 잘못 해석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의 단어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예수님께서서 미리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보통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구절은 또한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구원받기 위해 그분께로 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위로가 됨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인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분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3.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롬11:32).

이 구절 전반부에 나오는 ‘모두’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면 다른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의 후반부를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데 가두어 두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주권이며 그분의 확실한 뜻이다.

24.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이 구절은 요한이 ‘내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른 사람들과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글이다(요일2:1). 그러므로 분명히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들, 즉 다른 곳에서 ‘선택받은 자’(골2:12; 딤후2:10)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졌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절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만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여기의 ‘온 세상’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5.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딤후2:6)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앞뒤 문맥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며 여기의 ‘모든’은 문맥상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디모데전서 2장 3-5절을 보라.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속죄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26.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기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기셨느니라(고후5:18-19).

이 구절은 대속의 교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18절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절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일을 온 세상으로 확대하시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은 성경기록의 분명한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결코 칼빈주의자들이 논쟁하듯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핑크는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논쟁한다.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모든 사람이 진 빛은 이미 취소된 것이다(「하나님의 주권」 p. 62).

그리스도의 속죄가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화해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구절은 또한 믿는 자들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막16:15-16; 벵후3:9).

27. 예수님께서서는 정죄받을 교리들을 가르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도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벵후2:1).

만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을 사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한다면 제한 속죄라는 칼빈주의 교리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

2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기록은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29.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하신다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상형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벵전1:2).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으로 해석하여 그것의 참된 의미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이 미리 보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베드로가 ‘미리 아심’이라는 말을 쓰며 사용한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그리스어는 ‘prognosis’인데 그것은 지금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예지’ 혹은 ‘예후’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가 질병에 대한 예후를 말할 때 그는 그 질병에 대한 정상적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리 아심’의 교리는,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뜻을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과 사람이 택하는 것의 신비를 거의 다 설명한다. 물론 미리 아심보다는 선택에 더 많은 신비가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과정 속에 ‘그분의 미리 아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결코 ‘미리 정하심’으로

재정의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칼빈주의자들은 '미리 아심'을 '미리 정하심'이라고 재정의한 뒤 그 말을 '미리 정하심'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 23절을 사용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정하신 계획'이 '미리 아심'보다 선행한다고 지적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과'(and)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정하신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and) 미리 아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심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오직 자신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만 선택하신다는 뜻이 아니며 미리 아심의 과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열등한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눅8:18).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듣는 책임을 부과하셨다. 만일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없다.

31.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로 오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들의 '전적 타락' 때문에 자기에게 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그분께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의 문제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주권적으로 선택받지 않았거나 정죄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빛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 이 구절이나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도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지(뜻)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잠정적으로 이 현 세상에서는 '100%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32.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민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눅8:11-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믿음이란 죄인들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사람의 마음과 복음에 반응하는 것 간의 차이는 주권적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지의 문제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네 유형의 인간의 마음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첫째 유형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서 그가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간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라고 이것을 설명한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복음이 차별 없이 죄인들에게 선포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들어 보려는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 전도지를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복음적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다(막4:15).

둘째 유형의 죄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아서 쉽게 뽑히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 많은 죄인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나타낸다. 그들은 더 많이 배우기 원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광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와 ‘믿음’은 매우 얇다.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서는 곧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겪는 문제들로 인해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별(유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죄인 자신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셋째 유형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등에 의해’ 그의 마음과 삶은 숨이 막힌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가리키며 이들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막4:19)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는 복음이 선포될 때 종종 일어난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까지 하는 많은 죄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 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 나간다. 이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별(유기)의 산물이라는 단서는 전혀 없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죄인 자신의 반응과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 유형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네 부류의 죄인들 중에서 진실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보여 준다.

33. 예수님께서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하시니라(눅7:9).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주권적 은혜라는 꾸러미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교리를 지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며 이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놀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믿음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34.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이 구절들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친히 사신 구원의 선물을 죄인이 공짜로 받는 수단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우리가 내미는 손’이다. 칼빈주의자들의 추론과는 다르게 선물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며 그 안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선물은 100% 그것을 사서 주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선물을 수용하는 그 일로 인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다.

35.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한다

[그가 오는 것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10-12).

7년 환난기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주권적으로 영별(유기)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개개인이 바르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36. 믿는 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벧후1:10)

이 구절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선택이 인간에 의해 확고히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고 그분은 그것을 불가항력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과 ‘믿음의 선물’을 통해 죄인에게 주신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37. 설교자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고전9:19, 22).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희생하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미리 예정되고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바울의 전도 행위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의 행위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하는가?

38.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고후5:11).

바울이 칼빈주의자였다면 선택받은 자들은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인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다시 태어남이나 ‘믿음의 선물’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설득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

39. 구원은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히2:3)

바울의 이런 권면은 칼빈주의 교리에 비추어 보면 말이 안 된다.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개인의 문제라면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또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가?

40.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을 받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라(히3:12-14).

선택받은 자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예정되어 있고, 선택은 죄인 자신이 받아들여든 받아들이지 않든, 혹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그가 분명히 보존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주권적으로 신분이 유지된다면 이 권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권적으로 선택받아 저항할 수 없도록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41.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4:9-11).

과연 어떻게 이 권면이 칼빈주의 방식의 선택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 구절에 따르면 구원의 안식이란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로 힘써야 하는 것이며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주권적’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예정되며 그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전혀 없고 확실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42.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요1:9).

성경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가르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가르친다. 이 말들의 의미를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 구절을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이 보여 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빛으로 이끄시며 또 그들이 그 빛에 반응하면 그분께서 더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예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 빛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빛보다 더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한다.

43. 성령님께서서는 세상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요16:8-11).

칼빈주의자들은 “죄로 인해 세상을 꾸짖는 것은 성령님께서 현재 이루시는 사역이 아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며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게만 한정된다.”라고 주장한다(핑크, 「하나님의 주권」, pp. 75, 77).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께서 참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를 향해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구절의 ‘세상’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한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기의 ‘세상’을 ‘선택받은 자들’로 바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라.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선택받은 자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물론 칼빈주의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죄에 대한 확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구절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영적으로 죽고 눈먼 상태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를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오직 몇 사람만 믿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그분을 거역할 능력을 갖게 하셨고 그 결과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창조 이래로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44.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라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요12:32-33)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끝까지 이끄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분의 의도도 아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은 100% 다 빛을 받으며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다. 예수님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23:37).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말씀들은 칼빈이 삼킨 낙타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큰 낙타들을 삼키지 말라. 성경기록들을 삼키거나 사전에 형성된 철학적 틀 안으로 억지로 그것들을 넣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기 바란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지만 그것은 결코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선택이 아니다. 칼빈주의의 주권적 선택을 받아들이면 결국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일을 격렬히 미워하시고 정죄하셨다.

칼빈주의자들의 증거 본문 검증

이제 우리는 TULIP으로 요약되는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 즉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들의 견인’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 본문들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TULIP 신학의 마지막 강령인 ‘성도들의 견인’은 다루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고 또한 단순하게 이것이 성경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 역시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경험상 나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신학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다음 구절들에 대한 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열정적 칼빈주의자들과 대화를 해 왔고 그들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비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상 불평하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라도 칼빈주의를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읽을 수 있으며 그들의 저서들로부터 직접 무언가를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비칼빈주의자라면 그들은 항상 그가 칼빈주의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다고 비난한다.

나는 현시대에 새로 칼빈주의를 접하게 될 많은 신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이런 칼빈주의 확산 추세는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계에서도 널리 일어나고 있다. 비칼빈주의 교회로 설립되고 비칼빈주의 교리적 진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 칼빈주의자들이 기어 들어오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가로채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 독자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의 자유라는 권리를 발휘할 것을 요청한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라도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영적 인도자로 모시고 있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쁨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므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쁨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요일2:27).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살전5:21)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해야 한다’(행17:11).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요7:17).

1.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구절들

칼빈주의의 근본적 오류는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선택권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는 이런 잘못된 기초 위에 계속해서 교리를 세우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성경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을 왕 같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표현하면서 성경적 교리를 왜곡하는 데 사용한다.²⁵⁾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는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뜻한다고 믿으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이르도록 예정된다. 각 사람은 이 둘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생명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왔다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극단적 칼빈주의자 중 하나인 팔머(Edwin Palmer, 1922-1980)는 이렇게 말한다.

25) 주권(sovereignty)이라는 말의 의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낙엽이 떨어지는 것조차 다 미세하게 미리 예정하여 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영어로 ‘micro control’이고 매사에 세세하게 혹은 세밀하게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섭리로 세상을 운영하신다. 이것은 영어로 ‘in control’이다. 삼성전자 회장이 자기 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의 출퇴근 시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장악한 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알고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할까? 일개 회사의 회장도 후자처럼 일을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인간의 자유를 다 빼앗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자기 뜻대로 일일이 세세하게 간섭하신다면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사탄과 그의 마귀들, 천사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지능이 있는 짐승들도 자유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증언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뒤에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일어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죄와 불신도 정해 놓으셨다”(「칼빈주의 5대 강령」(Five Points of Calvinism), Baker Books, 1980, pp. 25, 202).

핑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주권」에서 앞의 세 장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할애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1절과 같은 핵심 절들을 인용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린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일어나게 의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회전하는 것도, 별이 빛나는 것도, 폭풍우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창조물로 움직이지 않는다(p. 46).

사실 핑크가 이러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들은 결코 그러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며 따라서 신학을 검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것에 주의해야 한다. 합당한 성경 해석은 사람의 신학을 성경 말씀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자기 뜻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기록의 단어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대한 뜻과 프로그램을 항상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마귀들과 죄인들의 뜻을 억누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들과 죄인들이 어떤 효과적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의도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이 여러 시대들 속에서 자신의 전체적 프로그램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과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주요 증거 본문들을 검증해 보자.

1.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는지 아닌지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또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만하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창조하셨다는 교리와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근거가 희박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고는 성경기록의 분명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로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다.

2. 다니엘서 4장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뒤 자기의 이성이 자기에게 돌아오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한 이후에 한 말이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인간의 일들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신다고 말할 뿐이다. 이 구절은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시는데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프로그램은 이런저런 문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바르게 굴러가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다.

3. 시편 115편 3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는 것을 다 하신다고 확실히 믿으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항상 옳고 선하므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기록에서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드러내셨으며 성경기록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친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말한다.

4. 이사야서 14장 27절: 군대들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랴? 그가 자신의 손을 펼쳤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맥락은 민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이다.

이것은 온 땅을 향해 작정된 계획이며 이것은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펼쳐진 손이니라(사 14:26).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도하시면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나 주권적 영벌(유기),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칼빈주의 TULIP 신학의 다른 강령들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5. 사도행전 15장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항상 그것들을 아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TULIP의 5대 강령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자신의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은 인간이 주권적으로 구원받거나 영벌(유기)을 받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6.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한다고 말하므로 전혀 칼빈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 이 구절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정들을 지배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다는 사실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과 상관하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교리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7.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이 구절 역시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들을 도모한다고 말하므로 칼빈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한다(혹은 누른다)는 사실은 칼빈주의를 방어해 주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이 (통상적으로 잘못되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는다.

8.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운명을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신다는 칼빈주의 교리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칼빈주의 교리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 잠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느냐, 아니냐를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교리를 가르칠 뿐이다.

9. 잠언 21장 30절: 주를 대적하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주님을 대적하는 궁극적 계략은 없다는 것과 그분이 항상 최종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들로부터 마귀와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많은 계략들을 만들었지만 그런 계략들은 설 수가 없음을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주님을 위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은 그러한 의지를 발휘하고 그리함으로써 자신의 밭줄에 스스로 목을 매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으리라.”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다(막16:16).

10.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스스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기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1 이사야서 14장 27절: 군대들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랴? 그가 자신의 손을 펼쳤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중에 취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서 일어날 모든 것, 즉 인간과 마귀들의 결정이나 행동들까지도 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계획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나 권능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12. 이사야서 46장 9-10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그분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은 핑크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일들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일이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의 전체적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신다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는 성경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일들과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 가인의 예, 홍수 이전 세상의 예, 바벨탑의 예,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과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의 이스라엘의 예, 그리고 오늘날 죄인들의 예와 역사 전체를 통해 본다.

2.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 교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들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불의할 뿐 아니라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죽었으며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과 관련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 타락 이후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속박 가운데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전적 타락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에 동반되는 어떤 영적인 선(미덕)에 이르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선(미덕)을

심히 싫어하며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자연인(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자신이 그러한 회심에 이르도록 준비시킬 능력이 없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교리는 인간이 완전히 불의한 상태에 있으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교리는 또한 ‘의지의 속박’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극동 성경 대학의 학장인 제프리 구 박사(이분은 크리스천 믿음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충실하게 옹호하시는 분이며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는 “선택에 대한 인간의 자유는 타락 이후 박탈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 타락을 가르친다.”라고 썼다(「아르미니우스 주의 검증」, p. 4).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 말하면서 구 박사는,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제안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기록을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제시해 달라고 여러 칼빈주의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 본문을 찾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이 쓴 책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기록을 결코 하나도 찾지 못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증거 본문으로 내놓는 성경기록들은 인간의 의지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에 대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부패했고 불의하며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이 하나도 없고 또한 그런 사람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데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사실, 즉 죄인은 믿을 수도 없으며 그의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도 없다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주장으로 성경을 비틀고 자기 생각을 더한다.

다음은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구절들이다.

1. 에베소서 2장 1-3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구절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과 관련된 그의 의지의 상태에 대해서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순히 죄인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고 이 세상의 행로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걸으며 불순종의 자녀로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 구절은 성경기록의 실제 단어들, 즉 위의 성경 말씀들 안에서 발견되는 단어들을 넘어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 교리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칼빈의 이 교리는 이런 구절이 이야기하지 않는 죄인의 의지에 대해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그 죄인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2. 이사야서 64장 6-7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절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가 제시하는 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가르치지만 인간의 의지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무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다는 것은 결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다거나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죄인들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빛을 받았고(요1:9) 성령님에 의해 죄에 대하여 확증을 받으며(요16:8)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다(요12:32).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죄인에게 선포될 것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명령하셨다(막16:15-16). 빛을 주시고 죄를 깨우쳐 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에 죄인이 반응하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사야서 64장 6-7절에 나오지 않는다.

3. 로마서 3장 10-18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는 의롭지 않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찾지도 않는다. 그는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었다. 그는 선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입은 속임수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믿음을 행사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나

능력 또는 무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죄인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요1:9)과 성령님의 죄의 확증(요16:8)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끄심(요12:32)의 맥락에서 그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4.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인간의 의지나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5.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이 구절은 죄인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의 의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죄인의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명백하게 가르친다. 오늘날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코 죄인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죄인의 의지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6.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의지의 상태나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죄인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것들을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죄의 확증,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없이는 어떤 죄인도 복음에 반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조명, 죄의 확증, 이끄심을 모든 죄인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요1:9; 16:8; 22:32).

그것[그 빛 즉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요1:9).

7.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

핑크는 새로운 출생이 믿음보다 앞서 일어난다는 칼빈주의 교리를 세우기 위한

증거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음의 구절들로 비추어 볼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이런 일들의 정확한 순서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중요 구절들은 요한복음 3장에 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그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가르치신다. 9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분께 묻는다. 10-12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 답은 그가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요 3:14-16).

그런데 이것은 곧 칼빈주의자들이 죄인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한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유비(類比)를 문자 그대로 취한다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죽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을 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죽은 죄인이 복음은 거절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죄인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할 때 이것은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유비를 성경의 실제 가르침 이상의 의미로 취하는 것이나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예를 들어 죄인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결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추론하는 것은 진리를 이단으로 옮기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한 구원의 순서를 알려준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먼저 죄인은 믿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그분에 의해 영인토록 봉인된다. 구원의 순서는 또한 사도행전 16장 30-31절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온다.

[간수]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간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때 바울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분명히 바울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

구원의 순서는 또한 에베소서 2장 8-9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임을 발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그분께 내미는 손'이다.

구원 과정에서 가장 먼저 믿음이 오고 그 결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의 구절들 및 성경의 매우 명백한 다른 구절들로 미루어 보아 분명하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빛을 주시고 이끄시며 죄를 깨우쳐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룩히 구별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발휘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의로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시간적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무조건적 선택과 주권적 영벌(유기)에 대한 칼빈주의 교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된 구절들

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은 죄인이 행하는 일, 즉 심지어 복음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 어떤 것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말들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걱정하심으로써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여졌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운명이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구원받는 자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숫자는 확실하게 정해져서 늘어거나 줄어들 수가 없다... 나머지 인류(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에 따른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 그 계획에 따라 그분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공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간과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그들의 운명을 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뜻한다고 믿으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이르도록 예정된다. 각 사람은 이 둘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생명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왔다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권적으로 영벌(유기)을 받는다는 쌍둥이 교리(보통 이중 예정이라고 불림)를 수반한다. 칼빈은 주권적 영벌(영원히

버림받는 것, 즉 유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결점이 없어도 오직 그분의 주권적 의지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 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도록 태어나며 이로써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파멸로 인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택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영원히 내버리신다 (「기독교 강요」, 3권 23장,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

다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지지하려고 칼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증거 본문들이다.

1. 요한복음 1장 11-13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새로운 출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이끄심의 문제라는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종종 13절에 나오는 말들을 사용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람의 뜻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는가? 참으로 그렇다. 그런데 앞뒤 문맥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의지(혹은 뜻)의 행위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출생이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벧전1:3)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 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구원이 사람의 의지(뜻)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회심하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이 구절들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칼빈주의를 반박한다.

2. 베드로전서 1장 2절: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상형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으로 해석하여 그것의 참된 의미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이 미리 보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베드로가 ‘미리 아심’이라는 말을 쓰며 사용한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그리스어는 ‘prognosis’인데 그것은 지금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예지’ 혹은 ‘예후’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가 질병에 대한 예후를 말할 때 그는 그 질병에 대한 정상적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리 아심’의 교리는,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뜻을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과 사람이 택하는 것의 신비를 거의 다 설명한다. 물론 미리 아심보다는 선택에 더 많은 신비가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과정 속에 ‘그분의 미리 아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결코 ‘미리 정하심’으로 재정의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미리 아심’을 ‘미리 정하심’이라고 재정의한 뒤 그 말을 ‘미리 정하심’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면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 23절을 사용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두 개는 전혀 다르다.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정하신 계획’이 ‘미리 아심’보다 선행한다고 지적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과’(and)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정하신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심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오직 자신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만 선택하신다는 뜻이 아니며 미리 아심의 과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열등한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3.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주권적으로’ 선택받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믿음이나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엡2:8-9).

4.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진리를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여기의 단어들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결코 이런 선택이 죄인의 믿음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5. 에베소서 1장 3-5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지만 선택을 위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들은 단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예정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었음을 말하며 미리 아심과 또 하나님의 선택에서 미리 아심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그분께서 친히 믿는 자들을 위해 정하신 것을 가리키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말한다.

6.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 구절에는 칼빈주의와 관계있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 첫째, 이 구절은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믿는 자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정이 미리 아심과 아무 관계가 없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선택권도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둘째,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대한 칼빈주의의 정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기 원하셨고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의지)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런 사실은 이 구절의 가르침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신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신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7. 고린도전서 1장 26-29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논의되는 부르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있다. 이것은 이 구절들 앞의 말씀들을 보면 분명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고전1:21-24).

하나님께서서는 지성, 철학, 기적 혹은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신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살후2:14).

복음이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심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하나의 약속된 수단, 즉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만 구원받으며, 전 시대에 걸쳐 성경을 믿는 교회들을 볼 때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개 하층 계급 출신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겸손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쉽게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셨다.

8. 로마서 8장 29-33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그분의 선택 계획의 근본적 요소임을 본다. 그분께서는 친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미리 아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것처럼, 미리 아심이 예정, 즉 미리 정하심과 같다면 이 구절은 '주권적 선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아심이 예정과 같지 않다면 이 구절은 칼빈주의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 '미리 안다'(foreknow)에 해당되는 그리스어(proginosko)는 단순히 '미리 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라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그분의 예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미리 아는 것과 예정이 로마서 8장 29-33절에서 묘사된 구원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구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들을 예정하신다. 이것이 예지와 예정에 대한 성경적 교리이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 과정의 일부가 바로 미리 아심이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9. 로마서 1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종보하며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나?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핑크나 다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지지하려고 이 구절들을 사용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뿐이다.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이 행위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구원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이라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이나 다른 구절들은 그런 궤변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명백하게 에베소서 2장 8-9절과 반대가 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믿음이 결코 행위가 아님을 보여 준다. 로마서 4장 5절도 같은 것을 보여 준다.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믿는 것은 행위의 반대이다. 즉 믿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선택은 은혜를 받아들일 사람에게 은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에서 7,000명을 택하셨다고 말하지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 두셨다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은혜의 선택’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된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나?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일부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대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구했다. 이것은 9장을 보면 더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롬9:30-33).

10. 에베소서 1장 5절: [그분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성경에 오직 이 구절만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부르심에 대한 칼빈주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홀로 서 있지 않다. 로마서 8장 29-33절에서 우리는 예정(미리 정하심)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후에 있음을 본다. 로마서의 이 구절들에 대한 위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오직 이 구절만 있다면 칼빈주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홀로 서 있지 않다. 실제 문맥은 오히려 칼빈주의 신학을 반박한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은 죄인들이 복음 안에 거하도록 설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회중이 흠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따라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 부르심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다. 인간의 의지가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고전9:22).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고전9:19).

사도행전 13장 46절은 죄인들에게 복음이 제시될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 유대인들은 주권적으로 영벌(유기)에 이르도록 선택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발휘하여 그것을 치워 버렸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복음은 미리 선택받은 사람들의 집단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어야 하며(막16: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후 2:3-4).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무슨 의미인가?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것은 간단히 말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자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롬10:13) 그분을 믿었음을 뜻한다. ‘정해진’이라는 그리스어(tasso)는 ‘순서 있게 배열하다, 지정하다. 또는 배치하다’(스트롱 사전 참조)를 뜻하며 신약 성경에서 총 여덟 번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두 번은 ‘정하다’(ordain)로 번역되었고(행13:48; 롬13:1) 다른 데서는 ‘전념해서 헌신하다’(addict, 고전16:15), ‘임명하다’(appoint, 마28:16; 행22:10; 28:23), ‘결정하다’(determine, 행15:2), ‘[놓여] 있다’(set, 눅7:8)로 번역되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지는가?”이고 둘째는, “왜 혹은 어떻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지는가?”이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자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칼빈주의자들의 대답은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가 된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다는 것이다(막16:16; 눅8:50; 요1:12; 3:13-18; 3:36; 5:24; 6:35; 6:40; 6:47; 8:24; 11:25; 12:36; 12:46; 20:31; 행8:36-37; 10:43; 13:39; 16:31; 롬1:16; 3:22; 4:5; 10:8-13; 고전1:21; 갈3:22; 딤후1:16; 요일5:13).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구원 과정의 순서, 즉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순서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한편 어떤 이방인들은(모든 이방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여기서 성도 누가는 왜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성도 누가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 주는 어떤 증거도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께서는 사람의 마음 위로 운행하시며 어떤 이들은 그 영의 인도에 반응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옳으로 치워 버린다(로버트슨, 「워드 픽처」(Word Picture)).

12.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언급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의 ‘주권적 선택’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13. 데살로니가전서 1장 3-5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택하셨음을 말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문맥을 보고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

14.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핑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분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하나님의 주권」, p. 98).

그러나 핑크의 이런 ‘사적 해석’은 그 구절에 없는 것들을 그 구절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만들어진 궤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코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진노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믿는 자들(교회)은 7년 환난기에 쏟아질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 즉 7년 환난기 전에 휴거될 것 - 을 보여 주는 아주 단순한 약속이다(살전5:1-3). 문맥상 여기의 진노는 7년 환난기의 진노이다. 이 구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은 영벌(유기)과 심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음을 보여 주지 않는다.

15.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핑크는 “분명히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짐승들처럼 ‘잡혀서 죽도록’ 지어졌다.”라고 말한다(「하나님의 주권」, p. 99).

하지만 이 구절은 결코 구원받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주권적으로 영벌(유기)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순히 거짓 교사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말한다. 멸망되도록 창조된 것은 짐승들이지 거짓 교사들이 아니다.

이들에 대해 언급하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거짓 대언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며 이로써 이처럼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지만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왔다.

16. 유다서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핑크는 “무슨 대안을 선택한다 해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졌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영벌(유기) 교리를 지지하려 한다(「하나님의 주권」, p. 99).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인하는 교회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노아 시대의 죄인들과 소돔 사람들처럼 구약 시대에 정죄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이 구절의 분명한 의미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유1:5), 반역한 천사들(유1:6), 소돔 사람들(유1:7), 그리고 에녹이 대언했던 사람들(유1:15)에게 떨어졌던 형벌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앨버트 반즈 노트」).

여기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영원 전부터 정죄(유기)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정해졌다고 말한다. 즉 이것은 그가 구약 성경과 또 죄와 배도에 대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관된 경고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유다는 자신의 서신서 뒤에서 에녹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 대언하였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옛 시대의 대언자인 에녹을 거론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벌(유기)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구절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의미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영벌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Matthew Henry, 1662-1714)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영벌(유기)에 대한 어둡고도 의심스러우며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 이 영벌(유기)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없으며 어떤 많은 손실이나 상처가 없이는 정말로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유다서 4절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처럼 색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므로 미리 경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미리 무장해야 한다고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처음부터 알려 주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정죄에 이르도록

분명히 정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또한 은혜롭게도 자신의 아들을 대신 속죄 희생물로 주셨고 나아가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요3:16)고 정하셨다.

17. 요한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은 생명책에 사람의 이름이 더해지거나 더해지지 않는 근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영벌(유기)을 받았거나 혹은 주권적으로 구원받도록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이 구절은 7년 환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환난기 성도들)과는 반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18.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간단히 말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행위에서 나지 않고 은혜에서 남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므로(엡2:8-9) 따라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위 구원에 해당한다는 칼빈주의의 주장은 무너지고 만다.

이 구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칼빈주의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구절 안에 억지로 집어넣어야 생긴다.

19.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구절은 동일한 복음서의 다른 많은 구절들과 모순을 일으키며 충돌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5-1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12:46).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대개는 문맥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건전한 성경 해석에서 문맥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할 첫 번째 규칙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문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 구절은 선택과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이미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다(요17:2, 6).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어떤 근거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말씀하지 않는다. 그 근거를 보려면 우리가 이미 언급한 요한복음의 앞부분,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로 주어졌다. 모든 죄인이 복음을 듣고(막16:16) 구원받는 것은(딤후2:3-4) 예수님이 명백하게 보여 주신 그분 자신의 뜻이다.

선택에 관한 한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이 현대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요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며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딤후2:3-4).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과 말놀이 게임을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제공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내 친구 중 하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형제님,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그는 난해하고 묘한 신학적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명확하게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의 문제이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묻는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에서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형제님,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오류로 가득한 칼빈주의라는 인본주의 신학 체계에 의해 세뇌를 당한 사람이다. 이런 신학 체계는 성경이 알려 주는 명백하고도 단순한 가르침과 항상 모순을 일으키며 충돌한다.

4. 제한 속죄라는 칼빈주의 교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복음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비난하였다.

구원의 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특별히 교회의 자녀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부패시켜 악용하는 것이다(「기독교 강요」, 3권 22장).

다음은 제한 속죄 교리를 지지하려고 칼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증거 본문들이다.

1.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교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신 ‘매를 맞은’ 사람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구원받지는 않을 것을 잘 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8절의 ‘내 백성’이 ‘선택받은 자들’을 언급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 구절에 없는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그렇게 해석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또한 그리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기록들의 가르침과도 모순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이사야서 53장 6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화해하기 원하신다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셨다고 말하는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까지 자기 피로 사셨다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이셨다고 말하는 요한일서 2장 2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100%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들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또한 이 구절의 '자기 백성'이 '선택받은 자들'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절 자체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결코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2절을 포함한 다른 많은 성경기록들과 모순된다.

4.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5. 요한복음 11장 49-52절: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아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다.

핑크는 이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자신의 제한 속죄의 교리를 지지한다고 말한다(「하나님의 주권」, p. 66).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9-52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서 오직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6.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속죄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 교리를 슬며시 이 안에 집어넣어야만 한다.

7.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리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8절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회개 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속죄는 효력 면에서 결코 제한이 없으며 적용 면에서만 제한이 있다.

해당 구절의 문맥이 이것을 설명한다. 디모데전서 2장 3-6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들은 현재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5.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칼빈주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절들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죽어 있는 죄인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다시 태어나며 자동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거하여 때를 따라 어떤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갖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야시기 때문이다(행15:18; 엡1:11).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마음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부드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작정에 따라 결국은 믿음을 갖도록 굴복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을 통해 그들 자신의 완악함과 완고함에 남겨 두신다(도르트 종교 회의 문서에서 요약 발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님에 의해 소생하고 새롭게 된 이후에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주어지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일반적 효력을 체험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음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증거 본문들이다.

1.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교리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에서 그분의 영향은 볼 수 있다고 말한다.

2.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만일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르친다면, 그런 은혜는 주권적으로 구원받도록 미리 선택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몇 사람만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선택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뒤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에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6:40).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앞뒤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3.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6장 37절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40절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4.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구절은 중요한 진술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가르친다. 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롬 3:11). 성경이 오직 요한복음 6장 44절만 기록하고 있다면 이 구절에서 칼빈주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명백하게 가르치셨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요12:32).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빛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요1:9).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기 위해’ 오셨다(요16:8).

5. 요한복음 17장 1-2, 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4-16절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들 역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6.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4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말하지만 이 선택을 위한 기준은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어떤 것을 포함하지 않는 ‘그분의 주권적 뜻’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믿음이다.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칼빈주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 죄인들에게 빛을 주시고(요1:9) 죄를 확증시켜 주시며(요16:8) 그들을 이끄시는(요 12:32) 분은 성령님이시며 단순히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성경적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4절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부르심이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들이 복음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주권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칼빈주의 교리는 이 동일한 구절에 의해 이미 반박을 받았다. 바로 앞의 8-12절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거절한 결과 멸망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멸망받도록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

7.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칼빈주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성경 신자들이 이해하고 믿는 교리이다.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만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말씀은 루디아가 불가항력적으로 부름을 받았거나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믿음을 받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칼빈주의 교리의 틀을 슬그머니 이 구절 안에 집어넣어야만 한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극단적 칼빈주의(Hyper-Calvinism)는 일부 칼빈주의자들이 다른 칼빈주의자들에게 붙여 준 명칭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 칼빈주의 검증」이라는 책에서 제프리 구 박사 - 장로교 칼빈주의자로서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 - 는 자신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라는 명칭을 붙인 자들의 입장을 분석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주의는 프랑스의 대신학자 칼빈으로부터 나온 교리 체계이다... 그렇다면 극단적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접두사 ‘극단적(hyper)은 ‘초월하는’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극단적 칼빈주의는 칼빈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친 것을 넘어서는 왜곡된 형태의 칼빈주의이다.

구 박사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1) 일반적 은혜를 부정하고 (2) 값없이 제공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 은혜와 구원하는 은혜, 사랑의 등급

구 박사는 칼빈이 ‘일반적 은혜’와 ‘구원하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쳤으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구원하는 은혜는 ‘복음을 통해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활동’이며 일반적 은혜는 ‘죄로 오염된 이 지구에서 창조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 박사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일반적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고 모든 것이 그들의 파멸을 향해 활동하게 하신다.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일반적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일반적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은 사랑하신다고 가르쳤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설명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사랑의 등급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인정하지도 않고 의롭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어라 말해야 할까? 만일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구원받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어떤 종류의 사랑을 주셨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반적 은혜’와 ‘사랑의 등급’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귀에는 즐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버림받은 자’(유기되어 영벌에 처해진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는 하지 못한다.²⁶⁾

복음을 값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하시는 것

구 박사는 복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모든 사람, 즉 선택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는 칼빈식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구 박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도록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온 세상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며’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칼빈이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칼빈의 요한복음 3장 16절 주석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한다.

이런 인용구를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칼빈이 진짜로 믿었다고 잠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그가 의미한 것이 전혀 아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칼빈은 주권적 선택이라는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지 않으며 성령님이 내적 교사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만 일하신다... 참으로 복음은 구원을 위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것의 권능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멸망하는가?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는 성경 신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문제에서 선택권을 갖는 존재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죽는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주권적 선택에 대한 자신의

26)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보통 성도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하는 각종 이상한 용어들을 만든다(112쪽 밑부분의 각종 용어들 참조 바람).

교리에 의지해서 답을 해야만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다음과 같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파멸에 들어갈 존재로 만드신 ‘은밀한 작정’에 대해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신의 손을 내미시지만 그분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신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만 붙잡으신다(자신에게로 그들을 이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어느 면에서 궤변이다.]

소망적 의지 대 결정적 의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박사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소망적 의지’(desiderative will)와 ‘결정적 의지’(decretive will)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는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며 ‘소망적 의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일반적 관심 표명이다. ‘소망적 의지’ 대 ‘결정적 의지’라는 개념에 따르면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나의 친구여, 만일 이것이 마술적 주문이나 헛소리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가게를 열고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의 선물을 제공한다. 반면에 ‘칼빈식 칼빈주의자들’은 가게를 열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되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준다.

당신은 이 두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결 론

내 판단에 따르면, 칼빈은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자나 ‘버림받은 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잔인하게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분으로 믿은 것 같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초청하시지만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불신앙과 버림받은 상태만 확인하게 된다.

나는 극단적 칼빈주의나 칼빈식 칼빈주의는 ‘언어학 게임’이라고 본다. ‘칼빈식 칼빈주의자’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누구라도’ 복음의 부르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과 베드로후서 3장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그의 입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볼 때 그는 실제적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 선택받은 자들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인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버림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천국 문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잠겨 그들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칼빈식 칼빈주의’는 극단적 칼빈주의만큼이나 성경에 충실하지 않다. 이 둘 모두 자신의 신학에 따라 성경기록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신학으로 성경기록의 명백한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칼빈주의식 성경 역본

“사람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죄들에 대한 확증 사역’을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다.”(「아무도 감히 칼빈주의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Calvinism: None Dare Call It Heresy*), Bob Kirkland).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의 TULIP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며 이런 선택은 죄인이 행하는 그 어떤 것, 심지어 복음을 믿기 위해 믿음을 행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말을 다시 유의해서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작정하심으로써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여졌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운명이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구원 받는 자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숫자는 확실하게 정해져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다.··· 나머지 인류(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에 따른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 그 계획에 따라 그분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간과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그들의 운명을 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뜻한다고 믿으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이르도록 예정된다. 각 사람은 이 둘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생명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왔다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칼빈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내버리신다는 영벌 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결점이 없어도 오직 그분의 주권적 의지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 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도록 태어나며 이로써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파멸로 인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택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영원히 내버리신다 (『기독교 강요』, 3권 23장,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런 믿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기 생각 - [] 속에 들어 있는 말들 - 을 성경 속에 집어넣는다.

시편 10편 4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찾지 아니하리니'가 아니라 '찾을 수 없나니'] [그가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참으로]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편 78편 21-22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듣고 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대적하여 불이 붙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선택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시편 78편 41절, [비록 우리가 이런 일이 불가능함을 앞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잠언 1장 22-32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²²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²³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²⁴ [이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²⁵ 도리어 [선택받지 못한]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²⁶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리니 ²⁷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 ²⁸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 진실하게 나를 부를 수 없으므로]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그들이 찾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찾는 것이므로]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²⁹ 이는 [선택받지 않은]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³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³¹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약들로 채워지리니 ³² 이는 [선택받지 않은]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변영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 내게로 이끌림을 받으므로 돌아서서 내 말들을 들으며 나를 부르고 찾으며 발견할 것이다.]

잠언 29장 1절, [선택받지 않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뻗뻗하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며 어떤 구제책도 없으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았으므로]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나에게 선택받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여기의 '우리'는 '모두가 아니라 선택받은 몇몇 사람'이다]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서 55장 1-3절, 오호 [선택받은 자들 중] 목마른 모든 자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난 뒤에]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선택받은 자들이]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난 뒤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공훈이니라.

예레미야 7장 25-26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내가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나의 주권적 은혜에 의거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려고] 바로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 보내었는데도 그들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므로] 내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목을 뺏뺏하게 하여 [역시 나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나에게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네 믿음이 크도다. [너는 선택받은 자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선택받은 자들에 속하여]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선택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므로]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아 그분께서 믿음을 네게 주셨으므로 믿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신 뒤

누가복음 13장 3,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즉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에 속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거하여 회개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40-42절,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시력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요한복음 1장 11-12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들에 속하여]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선택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의 일부 사람들]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한복음 3장 14-18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부]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권적으로 선택받았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권적으로 선택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사실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가 아니라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28-29절,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33절,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자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선택받은 자들이]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선택받지 않았으므로]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 [죽어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뒤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 회개할 것이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9장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립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1절,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3절,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라면]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가 아니라 ‘내밀려 하였으리라’], 하느니라.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선택받은 자들의]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물론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 없고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오직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 12절, [그가 오는 것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택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진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의 일부]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디모데전서 2장 3-6절,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효력을 줄 것이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히려 [우리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15-19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물론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강박하게 할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강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선택받지 않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라]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물론 너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그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거역할 것이다] [선택받지 못하여]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물론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실제로 피할 수 없도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일부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에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선택받은 자들 중]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제 4 장

Chapter 4

왜 나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가?



Why I am Not a 5 Point Calvinist?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두 줄이 있었습니다.¹⁾ 한 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자들이 서 있었고 다른 줄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본인이 자유 의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권적으로 선택받아 예정된 자들의 줄로 가서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천사가 서 있다가 그에게 “당신은 왜 이 줄에 섰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이 줄을 선택하고 여기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러면 이 줄에 오면 안 되오. 저 줄로 가시오. 그 줄은 당신이 원해서 가는 줄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말한 그 줄로 가서 다시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천사 역시 그에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 줄의 맨 앞에 있는 천사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머이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무조건적 예정 교리와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 즉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는 교리는 지난 450년 동안 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주후 1500년경에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섯 솔라’(오직)입니다. ‘다섯 솔라’는 보통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이것은 2013년경에 가이슬러(Norman Geisler, 1932-2019)가 강연한 것을 그대로 번역한 글이다. 가이슬러는 자타가 공인하는 20-21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자이다. 그는 10년간 댈러스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고 조직 신학, 로마 카톨릭주의 문제, 이단, 비교 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성경의 영감 등에 대해 9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특별히 칼빈주의와 관련해서는 「선택받았으나 자유롭다」(*Chosen But Free*)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다.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서 <Norman Geisler, Why I am Not a 5 Point Calvinist>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https://youtu.be/YDiFHozVEXs>

1. 오직 성경으로 2. 오직 은혜로 3. 오직 믿음으로 4.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5.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다섯 솔라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주의의 차이를 잘 요약해 줍니다.

오늘 나는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오래된 문제를 강연 주제로 삼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관한 한 나는 양측에 속한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모두가 대개는 경건한 분들이고 또 다음과 같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들을 믿는 분들입니다.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오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대신 속죄, 이신칭의, 몸의 부활, 재림 등

물론 두 부류 모두 위에서 언급된 ‘다섯 솔라’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교리들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들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를 믿지 않는 편에 서서 왜 내가 그것들을 믿지 않는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요약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아름다운 꽃인 튜립(Tulip)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T Total depravity(전적 타락 혹은 부패)
- U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 L Limited atonement(제한 속죄)
- I Irresistible grace(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 P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들의 견인)

오늘은 TULIP으로 요약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바와 내가 믿는 바를 대조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평하려는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자들은 보통 ‘극단적 칼빈주의’(Hyper Calvinism)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Calvinism

TULIP Theory

Total Hereditary Depravity
Man's nature is corrupt
No ability to choose good over evil

Unconditional Election
God's choice – A few saved
All others excluded from salvation

Limited Atonement
Limited to certain individuals
Righteousness to chosen ones only

Irresistible Grace
Faith by direct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 never fails to convert the elect

Perseverance of the Saints
Given faith, kept in faith
If fall away, then never in grace

이제부터 나는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5대 강령의 정의를 말하고 성경 구절들을 제시한 뒤 성경에 근거해서 왜 내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1. T Total depravity(전적 타락 혹은 부패)

먼저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을 설명합니다.

1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죄성이 넘쳐 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은 물속에 동등 떠다니는 시체, 즉 스스로 듣지도 보지도 깨달지도 믿지도 못하는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쌍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죽어 있는 시체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며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중생’(re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시체로 지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은 먼저 구원(중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복음이 전달되어도 결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첫 번째 강령(포인트), 즉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베소서 2장 1-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빈번히 인용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다시 한 번 칼빈주의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 있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나게 된 그 사람은 그 뒤에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첫 번째 강령을 다시 풀어 쓰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 타락 교리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아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자들의 전적 타락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을 보기 위해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8).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먼저 와야 합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다시 8절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 와야 합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일(거듭나는 일), 즉 중생 혹은 구원이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칭의(Justification)를 다루는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다(롬5:1).

칭의는 곧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얻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해 칭의를 얻습니다.

먼저 칭의(구원)를 얻은 뒤 이것을 통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칩니다. 근대 철학자들 가운데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가 있습니다. 그는 칼빈 시대 이후 100년쯤 지나서 활동한 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의 말은 데카르트의 말과 비슷합니다. 무언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먼저 구원받아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0-31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개]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들은 결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간수여,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라 믿을 수가 없으니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구원)을 받아야 한다.

즉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먼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의 순서는 항상 ‘믿으면 구원받는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먼저 하나님이 죽어 있는 자를 살려 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항상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도 이와 동일한 순서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 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 놓아야만 그가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전도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를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자, 이제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는 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1. 전멸되었다(소멸되었다, annihilation)
2. 분리되었다(separation)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까요? 특히 우리는 이 구절이 영적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멸이나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즉 죽음은 결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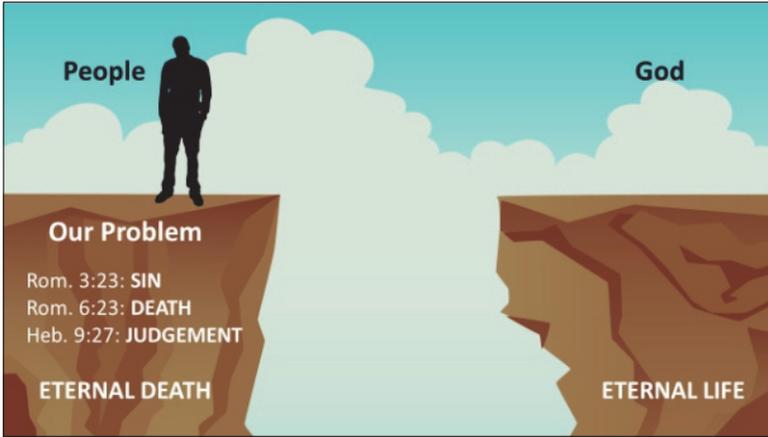
영적 죽음에 대해 묘사하는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사59:2)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의 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순간 영과 혼이 육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녀[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성경에서 죄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한다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나민이라 하였더라(창35:18).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후5:8).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빌1:23)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항상 분리를 뜻합니다.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죽음을 영적 소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죄들로 인해 죽으면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동등 떠다니는 시체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죽어 있는 시체를 살려 놓아야 비로소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창세기 9장 6절에 의거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창9:6).

여기에 나오는 사람, 즉 살인자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창1:27).

창조 이후 어느 시점에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혹은 형상의 일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존재한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혀)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약3:9).

그러므로 불신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죄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성경에 따라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

이 죽음이 바로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창3:9-10)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들은 듣고 판단한 뒤 그것을 수용하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19절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롬1:19).

여기의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위의 18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절의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억누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 1:20).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압니다. 창조 세상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가나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알려 주시는 진리를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지은 뒤 죄들 가운데 있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적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희미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이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단번 속죄 등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환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결과 그는 영원토록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이런 지옥 정죄를 피하려면 그는 그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토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죄들로 인해 죽어 있는 사체와 같다. 그들은 복음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살려 놓아야 즉 그를 구원해야만 비로소 그 뒤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죽음은 전적 소멸이나 박멸을 말하지 않고 분리를 말합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결과 지옥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명백한 결론입니다.

2. U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이제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두 번째 강령을 믿지 않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TULIP의 U 즉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의 첫 글자 U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즉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5절을 이에 대한 예시 구절로 들겠습니다.

³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⁴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⁵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일단 여기에는 성도들의 선택(택하심)과 예정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을 가르치고 또한 예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의 예정 선택과 성경의 예정 선택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A. 칼빈주의자들의 관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도 전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입니다.

B. 성경적 관점 혹은 조금 온건한 칼빈주의적 관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즉 선택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칼빈주의자들의 관점 추가 설명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하시고 이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즉 이들이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을 무조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도 무조건적이고 사람 편에서도 무조건적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자동으로 믿게 됩니다.

2. 성경의 관점 추가 설명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은 저 유명한 28절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정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상형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벧전1:2).

성경적 관점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 무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아심에 따라 즉 복음이 전달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3. 두 관점의 차이 추가 설명

내가 1억 원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칩시다. 이것은 나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즉 받으려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려는 선물, 즉 1억 원을 그가 받아야만 합니다. 즉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는 사람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네 것이 된다. 네가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또 실제로 너는 그것을 받을 수도 없다. 너는 죄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이므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구원해야 하며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믿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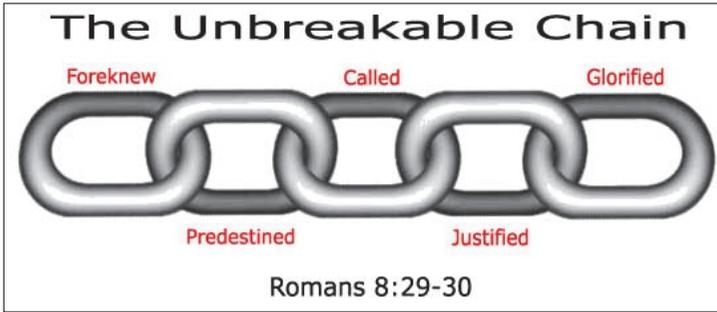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즉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이 구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내가 받아야만 선물이



구원 과정의 순서: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됩니다.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결코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13절을 보겠습니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혹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2절을 보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8).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을 둘러댁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혹은 이 구원에 대해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구원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행위이다!

이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궤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1억 원이 진짜로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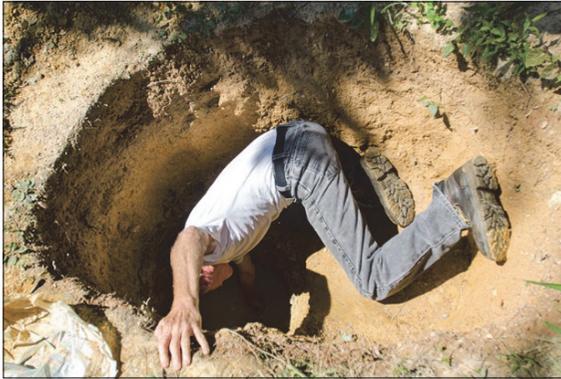
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일이나 혹은 선물에 일조하였습니까?

나는 단순히 선물을 준다는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 1억 원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신문에 보도되면 모든 사람들은 100% 다 1억 원이라는 큰 선물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조금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칭찬하는 기사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동원해 기력을 다해 그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드디어 구덩이에 있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은 구출자의 손을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아났습니다. 이 구조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 사람이 그 구조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궤변이 아닙니까?²⁾

칼빈주의자들은 첫째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 측면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조건적 선택 교리 면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2)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단독설(Monergism)과 협력설(Synerg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성경을 왜곡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오도한다. 우리는 구원의 협력설을 믿지 않는다. 다만 로마서 4장 1-9절 등이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제공하시는 구원을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므로 그대로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단독설과 협력설 등의 칼빈주의 철학 용어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3. L Limited atonement(제한 속죄)

이제 나는 칼빈주의자들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 강령, 즉 제한 속죄 교리의 오류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먼저 제한 속죄 교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제한 속죄 교리: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속죄값을 치르셨다.

전통적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 교리를 지지합니다. 사실 나는 제한 속죄 교리를 믿는 분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 속죄 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의 같은 말을 우리와 달리 읽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이나 ‘모든 사람’ 등의 말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세상’이나 ‘모든 사람’으로 읽지 않고 ‘세상의 일부’나 ‘일부 사람들’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의 ‘세상’을 그냥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의 세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다 집어넣는 것이며 영어로는 ‘아이서지시스’(eisegesis)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자기 해석 혹은 자기 사상을 구절에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해석입니다.

반면에 내 생각을 접어 두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것은 ‘엑서지시스’(exegesis)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미를 밝히는 것’이란 뜻인 그리스어 ‘엑세게시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성경 본문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이서지시스’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의 신학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18절을 보기 바랍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제 로마서 5장 6-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만 경건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가요?

만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면 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몇몇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었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컬러 안경을 쓰고는 여기서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온 세상’이라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

분명히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몇몇 사람’은 ‘몇몇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영어든 그리스어든 한국어든 ‘모든 사람’을 말하지 결코 ‘몇몇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딤후2:6)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3장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오직 선택받은 자들인가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가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은 여기의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니라 ‘크리스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의 ‘세상’은 결코 ‘크리스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것을 ‘크리스천 세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더러 선택받은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제 16절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세상’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명백하게 ‘온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의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세상 시스템’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만을 위해 속죄 사역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의 속성이 그분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우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지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은 반드시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일부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속성상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나와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뒤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칼빈주의자는 전통적인 극단적 칼빈주의를 주장하였고 나는 성경에 따라 온건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제한 속죄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습니다. “요한 목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실 그 말을 듣고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신’, 즉 알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의 신인 알라는 너무나 주권이 강해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자신이 원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미워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매우 듣기 싫어하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의 소년들은 거기서 수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영하다가 익사하면 안 되므로 농부는 거기에 펜스를 두르고 ‘접근 금지, 수영 금지’ 팻말을 크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동네 소년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다가 익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트랙터를 멈춘 뒤 팔을 접었다가 그 팻말을 가리키며 그들



에게 말합니다. “애들아, 이 팻말에 무어라고 적혀 있냐? ‘접근 금지,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위반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으니 빠져 죽어도 싸다.” 그러고는 팔짱을 낀 채 그 세 소년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있다면 과연 이 농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농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의 하나님과 이것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즉 선악과 접근 금지, 선악과 먹는 것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절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무조건 지옥에 넣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즉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농부처럼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것을 기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명의 아이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빠져 죽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이 세 아이들 가운데 하나에게만 구명줄을 던집니다. 그리고 줄을 당겨서 그 아이를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가 빠져 죽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도덕적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모든 사랑을 그분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일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조하려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아이들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물에 빠진 세 소년 모두에게 구명줄을 던져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들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 중 하나는 그 구명줄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명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게,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명줄을 던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명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자기가 던지는 구명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줄을 받게 하실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I Irresistible grace(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제 칼빈주의의 네 번째 강령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거역할 수 없는 은혜’ 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워낙 크시므로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그 결과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다음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런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초기의 청교도들, 즉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니테리언 신자³⁾가 되었는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3)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신격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한 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며 교회와 교리보다는 윤리를 중요시한다. <표준국어대사전>

1.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2.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교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해도 그의 의지에 반하여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극단적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교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논박하십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아 구원하려 하셨지만 즉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 주고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원치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저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의 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구원의 초청을 하셨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 즉 그 사람이 선택하려 하지 않는 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처녀에게 구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하며 좋아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선물을 주고 꽃을 보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나 처녀는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실망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강제적으로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그녀가 거부하자 끝에는 강제적으로 그녀의 몸을 취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 주면서 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이 자기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위대한 분리 혹은 분열」(*The Great Divorc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부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뜻대로 스스로 지옥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면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자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할 뿐입니다.

밀턴의 실낙원에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결코 이를 막지 않으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적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과도 배치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음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

다. 여기에는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테반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Ye stiffnecked and uncircumcised in heart and ears, ye do always resist the Holy Ghost: as your fathers did, so do ye.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은혜에 저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저항하다’(resist)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목살을 잡고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과 함께 20절이 사용됩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22-2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로마서 9장의 이런 말씀들은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주 성경이 있으면 이 구절의 관주를 보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1장 2-3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

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말1:2-3).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주님께서 야곱이라는 어떤 한 개인과 에서라는 다른 어떤 한 개인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야곱이라는 어떤 한 개인을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시고 에서라는 다른 어떤 한 개인을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의 형제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국가가 오랫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일,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막으려 했던 악한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한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국가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첫째로 개 개인의 예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영원히 하늘에서 일어날 일,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되 군대들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니니

즉 이 말씀들은 개인의 예정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시고 에돔이라는 국가는 몇백 년 동안의 악행을 보신 뒤 땅에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로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눅14:26)

자 여기의 ‘미워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부모보다 덜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혹은 히브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기 바랍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창29:31).

이제 ‘미움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30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칠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창29:30).

그러므로 레아가 미움받았다는 말은 라헬보다 덜 사랑받았다는 뜻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증오하는 것 혹은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개역성경 창29:31).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번역되면 독자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사악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예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서의 국가, 즉 에돔은 하나님께 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개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즉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 15절의 파라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일으키시고 강제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잘 보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무언가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의 인용 출처인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데도 있고(4:21; 7:3, 13; 9:12)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데도 있습니다(7:14, 22; 8:15, 19, 32; 9:7, 34).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출4:21에 가장 먼저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박하게 하심이 나옵니다. 3장 19절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파라오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강박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궁극적 파멸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듭니다.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초는 녹이고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동일한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햇빛 자체의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합니다. 초처럼 그 빛들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여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더 딱딱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녹색 됩니다. 그러나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흙처럼 더 딱딱해집니다.

5. P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들의 견인)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다섯 번째 항목인 성도들의 견인 교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속할 것이며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 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로 생각하면 사실 이 교리는 성경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것은 곧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에 관한 한 모두 안전하지만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끝까지 참으면서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두 명의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된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주일에는 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롬 6:14).

그러나 너희가 상형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갈5:18).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칼빈주의자들의 생각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를 녹이는 동일한 해는 진흙을 딱딱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로 이끄는 동일한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죄 가운데 머물게 한다(스펄전).

이들은 전 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비행기를 탔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게 되면 이것은 곧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딤후1:12).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10:2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8:39).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5-16)

성경대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는 성도들과는 달리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그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 여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죽음 앞에서 떨어졌을까요?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신실했는가를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결 론

오늘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들의 견인을 믿지 않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왜 내가 성경을 믿는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즉 진실하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고

4)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말한다. 이 구절은 극심한 핍박이 와서 성도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그분은 자신(즉 자신의 말)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하나님께서 친히 봉인하신 자(구원받은 자)를 누가 감히 그 봉인을 풀고 그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참고로 요10:28-29 등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들이다.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만나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무어라고 하십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23:37).

기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가라 폭포의 물과 같이 엄청난 규모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마음의 컵을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의 컵을 똑바로 들어서 그 사랑의 물을 가득 담되 흘러넘치도록 가득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컵을 거꾸로 들고서 사랑의 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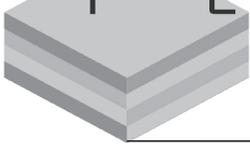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그 컵을 바로 세워서 나이가가라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당신의 사랑을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5 장

Chapter 5

개혁주의 신학의 위험들



Dangers of Reformed Theology

성경기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검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합니다(살전5:2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시험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석이 공평하고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온전히 진실이기를 원합니다.¹⁾

개혁신학의 교리적 위험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런 운동의 긍정적 측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개혁신학에서 성경(66권)은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규칙으로 간주됩니다. 개혁신학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존중하며 성경이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영감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사66:2)!

2. 개혁신학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는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분과 성경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 등과 같은 위대한 개혁 교리들과 더불어 적합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진리들이 초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어져서 빛으로 나왔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개혁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높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알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죄인들의 우두머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공홀 많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에 있어서

1) 이 같은 간단한 글을 통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신학적 문제들을 자세히 평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역자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의 칼빈주의 비평’을 번역해서 실었고 또 다른 책이나 인쇄물을 독자들에게 추천했다. 다른 저자들이 지은 문서를 제외하고 이번 장에 언급된 자료들은 대부분 미국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시에 있는 미들타운성경교회(조지 젤러가 웹사이트를 운영함) 웹사이트(www.middletonbiblechurch.org) 좌측 하단의 ‘Reformed Theology’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개혁신학의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므로 더 깊은 연구를 원하는 분들은 참조하기 바란다.

또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크게 기뻐함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 개혁신학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을 낮추고 모든 영광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1:36).

5.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며 죄를 몹시 증오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도덕적 기준 특히 십계명에 나타난 기준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벧전1:15-16).

6. 개혁신학 진영에는 우리가 사역의 공로를 인정해야 할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우리 모두는 그들의 연구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만큼 우리도 그들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고전11:1).

7. 개혁신학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널리 알리는 일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역 교회 활동이나 확장을 통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로 인쇄물(책)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개혁주의 작가들은 기독교 서적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학 책들과 성경 주석들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집필되었습니다. 다비(J. N. Darby), 켈리(W. Kelly), 아이언사이드(H. Ironside) 같은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펜을 강력하게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책을 많이 집필하였지만 후에 등장한 세대주의자들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횃불을 넘겨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작가인 헨드릭슨(W. Hendriksen,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음)이 지은 「신약 성경 주석」을 보면 오늘날의 세대주의자들은 그가 이루어낸 작업의 양이나 질의 근처에도 갈 수 없음이 곧 드러납니다(물론 그의 주석 편찬에는 그리스도의 친애하는 종이며 세대주의자인 히버트(D. Edmond Hiebert)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혁신학 주창자인 스프로울(R. C. Sproul)은 매달 새로운 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개혁신학을 수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저자들의 책들을 읽은 결과 자기들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²⁾ 그들이 지은 모든 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런 인쇄물을 통해

2) 최근에 활동하는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세대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회심하였다가 후에 개혁신학 저자들의 책을 읽고 개혁주의 신학자가 된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신랄하게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거스너(John Gerstner, 1914-1996)는 “나의 회심은 세대주의자의 증언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데 애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개혁주의 운동에는 추천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 사항(더 있을 수도 있음)은 분명히 그들의 공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총체적으로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한 운동/사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가지고 치리하심을 인정하고, 성경기록대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칭의를 얻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개혁주의 운동과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운동의 열매들에 대해 합당하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적 문제와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균형 있게 지키기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진리를 균형 있게 지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종종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 안에 가두어 됴으로써 그 진리를 옳아매는 오류를 범합니다. 매킨토시(C. H. Mackintosh, 1820-1896)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어떤 교리 체계 - 높거나 낮거나 혹은 보통 수준의 - 좁은 한계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도 귀중한 비밀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들, 즉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 그리고 넓은 창조 세상에 대한 것을 드러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대한 계시를 연약한 인간의 교리 체계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를 자기들이 만든 양동이 안에 가두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신학 체계나 신학교를 제쳐 놓고 어린이처럼 성경의 영원한 샘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의 살아 있는 가르침을 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³⁾

매킨토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어려움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 즉 극단적 칼빈주의 - 그것은 날개가 하나뿐인 새나 노가 하나뿐인 배에 비교할 수 있는 체계임 - 의 영향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페이지로 돌아서면, 우리는 한쪽의 진리가 아니라 양쪽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전한 진리, 바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진리가 나란히 균형 있게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조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말씀 안에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신학 체계를 어떤 구조 안으로 밀어 넣어 진리를 제한하는 것은 치명적 실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신을 조직화할

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Wrong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p. 1).

3) 『The Mackintosh Treasury』, “One-sided Theology”, p. 605.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조직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신학 체계나 신학교들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취해야 합니다.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연약하고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신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개혁신학이 단순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는지 또 특별히 대속과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한계에 관해 잘못 가르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위험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몇몇 개혁주의 신도들은 그것을 ‘확실한 속죄’(definite atonement)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오직 선택된 자들의 죄들을 위해서만 죄값을 치르셨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궁극적으로 불 호수에 있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 교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런 언어유희 게임(말장난)을 통해 그들은 실제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음을 의미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들 개개인을 위해 죽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그분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등을 위해 죽으신 것이 되며 세상의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오직 선택된 유대인과 이방인, 선택된 부자와 가난한 자, 선택된 남자와 여자, 선택된 백인과 흑인 등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라이터 박사(Dr. P. Reiter)는 이 문제에 대한 강해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⁵⁾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분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1. 모두를 위해(딤후2:6; 사53:6)
2. 모든 사람을 위해(히2:9)
3. 세상을 위해(요3:16)
4.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요일2:2)

4) C. H. Mackintosh, 「Short Papers on Scripture Subjects」, Vol. 2, p. 267.

5) 출간되지 않은 강의 노트에서 인용함. Dr. Paul Reiter, former professor at Appalachian Bible College, Bradley, WV.

5.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롬5:6)
6. 거짓 교사들을 위해(벧후2:1)
7. 많은 사람을 위해(마20:28)
8. 이스라엘을 위해(요11:50-51)
9. 교회를 위해(엡5:25)
10. ‘나’를 위해(갈2:20)

제한 속죄를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많은 구절들의 분명한 언어와 확실한 의미를 무시하고 성경기록을 자신들의 신학적 틀에 억지로 맞추어야만 합니다. 제한 속죄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문제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고 말합니까?”(롬4:3).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실제로 ‘세상’이 아니고 ‘모두’는 실제로 ‘모두’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은 실제로 ‘온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서 53장 6절과 같은 단순한 구절들을 아이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말고 신학자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신학 체계의 관점에서 그런 구절들을 재해석해야 함을 뜻합니다.

속죄의 참된 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였으며(요1:29) 구원자의 대속 사역(딤후2:6; 벧후2:1)과 화해 사역(고후5:19)과 화해 헌물(요일2:2)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가르친다(딤후4:10).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딤후4:10; 요3:16).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제한이 없으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한 그 일의 적용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로만 제한된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십자가는 오직 선택된 자들을 위해 계획되었고 ‘선택되지 않은 자들’(영속적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이 두 그룹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목적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딤후1:9; 살후2:13). 한편 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을 거절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제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요3:18; 5:40).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예비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 곧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딤후4:10)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슈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실제적 사안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복음의 제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고린도의 불신자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전15:3)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눅2:10-11 비교) 복음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친구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상담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것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값을 치르는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개혁주의 크리스천으로서 저자는 상담자들이 상담 대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대신 죽어야 했던 사람, 즉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⁶⁾

매킨토시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고등 교리 학교의 학생들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진 세계적인 복음’, 즉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에 대해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복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대상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지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이 그들을 위해 구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공짜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어떤 물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샘으로부터 물을 마시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먹을 약과 처방된 치료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약을 먹고 나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제한 속죄라는 이 가정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설명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합당한 기초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며 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지 않은 것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그것을 조롱하는 것같이 보인다.”라고 설명합

6) Jay Adams, 「Competent to Counsel」, p. 70.

니다.⁷⁾

개혁주의 설교자가 정말 제한 속죄에 대해 정직하게 믿는다면 그는 자기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구원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대신 죽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만일 당신이 그분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면 -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증명함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고 죽는 날까지 불신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제한 속죄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정말로 제한 속죄를 믿는다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과 맞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고 주의 깊고 진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제시할 때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라이트너는 “제한 속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기쁜 소식’을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 선포 및 증언 대상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⁸⁾

「천로역정」의 저자인 번연(John Bunyan, 1628-1688)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7) W. Lindsay Alexander, 「A System of Biblical Theology」, Vol. 2, p. 111.

8) This quote is from an article by Robert Lightner in the book, Walvoord: A Tribute, p. 166.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상의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거된다면 복음도 없고 죄인에게 적용되는 은혜도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께서 복음 선포 대상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복음 선포 대상을 위해 예비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라이트너는 “구원을 제시한다는 것은 구원이 예비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⁹⁾

칼빈주의자인 보트너(L. Boettner, 1901-1990)는 “보편적 구속은 보편적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¹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죽은 모든 자들만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이 제공된다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이 제공된다 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생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음을 뜻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실 경우에만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성취와 구속의 적용 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¹¹⁾

주님, 죄인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¹²⁾

2. 중생(다시 태어남)이 믿음보다 앞선다고 가르치는 위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의 전적 타락 교리를 사람의 무능으로 왜곡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행16:30-31, 행2:37-38 비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답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9) Robert Lightner, 『The Death Christ Died』, p. 114.

10) 동일 문서, p. 96.

11) 이 주제를 좀 더 공부하기 원하는 독자는 미들타운성경교회의 다음 소책자를 보기 바란다. <For Whom Did Christ Die? - A Defense of Unlimited Atonement>, <Savior of all men - The Meaning of 1 Timothy 4:10>, <God's Willingness and Man's Unwillingness>

추천 도서는 다음과 같다. 『The Death Christ Died』(Robert Lightner, Kregel, 1998), 『Did Christ Die Only for the Elect?』(Norman F. Douty, Wipf and Stock Publishers, Eugene, OR), 『Systematic Theology』(Lewis Sperry Chafer, Vol. 3, pp. 183-205.)

12) Nikolaus L. von Zinzendorf, 1739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고 따라서 다시 태어나기(중생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중생(구원)이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하고 사람은 믿기 전에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이 믿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죄들 안에서 죽은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생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이 채택한 신학 체계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기록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믿으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6:47).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3:15).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살면 네가 믿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A가 맞고 B는 맞지 않습니다.

A.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B. 중생한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또한 “믿음으로써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결코 “다시 태어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력하고 소망 없는 조건 속에 있는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요3:14-16)!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보고 살라”(Look and Live)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단어들 “살고 보라”(Live and Look)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중생(구원)이 믿음보다 앞선다면 죄인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중 아무도 결코 만족스럽게 이것에 대해 답하지 못했습니다. 웨드의 답변은 전형적입니다.

죄인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2) 마음을 그 진리에 심각하게 적용한다. (3) 확신과 중생을 위해 성령님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한다.¹³⁾

이 답에 대한 엘드리치의 반응은 매우 적절합니다.

믿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전적 타락 교리는 또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확신이나 중생을 위해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의 가능성도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살아 있는 영적 시체를 다루고 있습니다.¹⁴⁾

이 교리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이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확신과 중생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스프로울(R. C. Sproul)을 포함한 몇몇 개혁주의 목사/신학자들은 심지어 사람이 유아처럼 다시 태어나고도(구원받고도) 그 뒤 수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¹⁵⁾

3.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는 위험

이 가르침은 에베소서 2장 8-9절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 오류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여기서 대명사 '그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실제로 가르친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IFCA 교리문은 이 점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을 받음을 믿는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향해 뻗어나가 그것을 받는 '마음의 손'입니다. 우리는 선물과 선물을 받는 데 필요한 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W. G. T. Shedd, 「Dogmatic Theology」, Vol. 2, pp. 472, 512, 513.

14) 엘드리치(Roy L. Aldrich)의 이 글은 추천하기에 아주 좋은 글이다. <The Gift of God>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Bibliotheca Sacra'(1965년 7월, pp. 248-253)에서 볼 수 있다.

15) 여기에 대해서는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에서 <Does Regeneration Precede Faith?>를 보기 바란다.

구원(영생,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요4:10; 롬5:15-17; 6:23 등). 비록 하나님께서 공물을 베푸시고 은혜롭게 능력을 주시며 계몽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실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할지라도, 신약 성경에서 ‘선물’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요6:44-65; 마11:27; 16:16-17; 행16:14 등).¹⁶⁾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르침은 매우 실제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법과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내가 이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내가 믿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방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권적으로 그 믿음을 주실 것을 바라는 것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중의 하나이기를 바라는 것

둘째 방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께서 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둘째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며 죄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고 그분은 그것을 유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 즉 겸손함과 죄에 대해 상한 마음을 가짐으로 시작되고 의에 이르는 순종으로 마감되는 그 영원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얻기 소망한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십시오.¹⁷⁾

맥아더 목사가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행16:31) 오히려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¹⁸⁾

16)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 웹사이트에서 <What is the Gift of God in Ephesians 2:8-9?>라는 제목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Lordship Salvation을 다룬 맥아더 목사(John MacArthur)의 테이프 GC 90-21에서 녹취함.

18)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엘드리치(Roy L. Aldrich)의 글 <The Gift of God>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4. 구원하는 믿음에 부가적 요소를 더하는 위험

최근에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로드십 구원’이라 불리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로드십 구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주인 되심)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즉 죄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제자로서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거나 적어도 그것들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사랑 많으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공훈 위에 자기 자신을 던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항복이나 굴복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혹은 하겠다고 약속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요건으로 만드는 위험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항복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자의 신분과 요구 사항에 동의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행동과 열매는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들이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열매를 뿌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요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고후5:21).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요구 조건에 충분히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눅14:25-33 등). 제자로서의 요구 조건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요구 조건은 우리의 구원자를 단순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약속을 해도 그것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굴복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자신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제자의 신분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해도 혹은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행동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 천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의해 얻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이 영원한 생명은 모든 믿는 자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5:12). [모든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당신이 한 일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와 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어떤 달콤한 것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약속과 같이 언제든지 밀로 가리אות는 모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다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¹⁹⁾

5. 성도는 더 이상 옛 본성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위험

모든 개혁주의 신봉자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존 맥아더(John MacArthur),²⁰⁾ 마틴 로이드 존스(M. Lloyd-Jones), 데이빗 니드햄(David Needham)을 포함한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옛 본성을 부정합니다.

니드햄은 자신의 책 「타고난 권리 - 크리스천이여,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Birthright - Christian, Do You Know Who You Are?*)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옛 본성’은 없고 오직 새 본성만 있다는 것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맥아더는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직 새 본성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개선되거나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에는 다음의 말씀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새로 다시 태어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19) 다음의 소책자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Saved By Grace Alone - A Clarification of the Lordship Issue; Salvation and Discipleship>,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 What is the True Gospel?>, <Charles Spurgeon and Lordship Salvation>

20) 맥아더는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는 세대주의의 입장을 취하지만 대부분의 교리 측면에서는 개혁주의 신자이다. 그는 로드십 구원에 대해 기록한 자신의 두 책에서 자신이 세대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세대주의를 공격한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거스너(J. Gerstner)는 그가 세대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세대주의자로 불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1986년 9월 27일 제네바 대학에서 선포한 메시지 테이프로부터). 미들타운성 경교회 웹사이트에서 <The Teaching of John MacArthur with respect to Dispensationalism>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후5:17). 이것은 단순히 그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 본성은 옛 본성에 추가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한다. 변화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나’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용어는 크리스천이 두 개의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본성 하나만 가지고 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둘은 서로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남아 있는 옛 본성 때문이 아니라 남아 있는 죄 많은 육신의 옷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두 본성을 가진 ‘영적 정신 분열증 환자’가 아니라 하나의 새 사람, 완전히 새 창조물이다. … 종합적인 사람으로서 성도는 변화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그에게는 내주하는 죄가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는 않다. 그는 더 이상 부패된 옛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다.²¹⁾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새로운 자아를 받지만 또한 옛 자아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구원은 변화가 아니고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성경적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옛 자아는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그는 고후5:17과 롬6:6을 인용한다] 구원은 변화이다. 옛 자아는 없어졌고 새 자아로 대체되었다.²²⁾

맥아더의 주장과 같은 견해에는 아주 실제적인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본성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가 현저하게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가 실로 예외적으로 뛰어난 삶의 질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²³⁾ 그러나 과연 그런지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기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므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죄도 이 교제를 깰 수 없다.²⁴⁾ 그러나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기 바랍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으므로 어둠 가운데 걸을 수 없다.²⁵⁾ 그러나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기 바랍니다.

21)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 Ephesians」, p. 164.

22)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 Colossians and Philemon」, p. 148.

23) 「Marks of a True Believer」, Moody Press, pp. 34, 37. 「MacArthur Study Bible」의 요한일서 2장 28절의 주석도 참조하기 바람.

24) 「Confession of Sin」, Moody Press, pp. 12-14, 55. 「MacArthur Study Bible」의 요한일서 1장 3절 주석도 참조하기 바람.

25) 「Confession of Sin」, pp. 28, 32-34, 「Faith Works」, p. 167, 그리고 「MacArthur Study Bible」의 요한일서 1장 7절 주석도 참조하기 바람.

4.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죄들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²⁶⁾ 그러나 과연 그런지 요한일서 1장 9절과 시편 51편을 보기 바랍니다.

5.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서 살 수 없다.²⁷⁾ 그러나 과연 그런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기 바랍니다.²⁸⁾

6. 문자적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위험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오리겐의 비유 해석과 어거스틴의 교회/왕국 개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대다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인해 예언에 관한 한 덩어리 있거나 불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은 성경의 예언들을 평범하고 분명하며 정상적인 감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또한 이 세상의 끝에 한 번의 부활이 있고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 구원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 마지막 날에 일으켜져서 모두 한 번에 심판받는다고 이해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심판들과 천년의 기간을 두고 분리된 두 개의 부활 (의로운 자들을 위한 부활과 불의한 자들을 위한 부활)이 있음을 가르칩니다.²⁹⁾

블테마(Harry Bultema, 1884-1952)는 아이오와주와 미시간주에서 크리스천 개혁 교회들을 목회하였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자였지만 예언을 연구하면서 구약과 신약 둘 다가 단 한 번의 일반적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깨달음을 자신의 저서 「마라나타 - 성취되지 않은 예언 연구」(*Maranatha - A Study of Unfulfilled Prophecy*)를 통해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원래 처음에 네델란드어로 출판되었다가 1985년에 크레겔(Kregel) 출판사에 의해 재발행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그의 논의는 매우 통찰력이 있으며 이런 주제를 다룬 세대주의자들의 대부분의 글보다 더 상세합니다. 블테마는 또한 '종교 개혁부터 오늘까지'라는 제목의 멋진 장을 썼으며 거기에서 많은 개혁자들을 포함하는 여러 명의 전천년주의자들을 밝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³⁰⁾

26) 「Confession of Sin」, pp. 48, 52, 55. 맥아더는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하지 못했다. 성경에는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있고(행10:43) 교제를 위한 용서가 있다(요일1:9).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에서 <Two Aspects of Forgiveness>를 참조하기 바람.

27) 「Faith Works」, p. 117.

28) 이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해서는 「The MacArthur Study Bible - A Critique」, 「The teaching of John MacArthur on the two natures of the believer」, Chapter 7, 「One nature position」, 「The complete green letters」(Miles Stanford, Zondervan)를 참조하기 바람.

29)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에서 <Shedding Light on Dispensations>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성경 바로 보기」를 참조하기 바람.

30) 이 주제에 대해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A Comparison and Contrast Between Our Present World, the

7. 성경을 문자적이고 정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 위험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언어는 그런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 주는 비유적 언어를 종종 사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언어의 평범한 사용, 단어들의 사용법, 역사적 문화적 배경, 구절의 문맥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 등에 비추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딤후2:15).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진리의 영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에 환한 조명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요5:39; 16:13-15; 고전2:9-16). 본성에 속하여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고전2:14). 그의 마음은 마귀에 의해 가려졌습니다(롬3:11; 고후4:3-4).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시며 친히 의미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를 속이기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세 가지 중요한 부문에서 문자적 해석을 버렸습니다.

1. 왕국의 예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될 미래의 왕국 시대를 놀랍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성경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른 모든 대언서들에 나타나는 성경의 위대한 예언들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예언들이 절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떳떳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언자들이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들의 예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무효가 됐습니까? 개혁주의 신자들은 왜 성경이 평이하게 말하는 왕국의 이런 예언들을 정상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합니까?

Millennium and the Eternal State>, <Do You Interpret the Bible Literally? Six Tests to See if You Do>, <Discerning Between the Two Comings of Christ>, <The Five Judgments and the Two Resurrections>. 이 주제에 대한 다른 저자들의 책들은 다음과 같다. 「The Greatness of the Kingdom」(Alva McClain), 「The Theocratic Kingdom」(George Peters), 「The Basis of the Premillennial Faith」(Charles Ryrie), 「Millennialism」(Charles Feinberg), 「The Interpretation of Prophecy」(Paul Lee Tan).

2. 환난기와 재림의 예언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신자들은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이 과거에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들의 캠프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혹은 모든 예언이 과거에 이미 성취됐다고 믿고 특히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이 곧 재림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7년 환난기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위대한 예언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주요한 예언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7년 환난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이미 주후 70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이미 주후 70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고려해 보고 그것들이 주후 70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이미 왔다는 개념과 얼마나 완전하게 모순되는지 보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분은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마24:25-30; 계1:7).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주후 70년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2.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로 부터 다시 모이고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마24:31; 렘16:14-15; 사43:5-7; 렘23:7-8; 31:7-10; 겔11:14-18; 36:24).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모이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과 죽임을 당하며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사 2:4; 미4:3; 시46:9; 스9:10).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주후 70년에는 강력한 로마 군대에 의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니다.

4.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것이며(행1:6),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위치할 다윗의 왕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사9:7; 렘17:25; 23:5-6; 33:15; 호3:4-5; 암9:11-15; 눅1:32-33).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다윗의 계보에 따른 왕도 왕좌에서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5.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큰 구출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복이 넘치는 때가 될 것입니다(렘30:7-9; 겠34:25-31).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40년 전에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배반한 유대인들에게 큰 심판이 닥친 불행한 때였습니다(물론 몇몇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6.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분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겠37:26-28; 겠40:5-43:27).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성전도 없게 되었습니다.

7.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짐승의 희생이 드러질 것입니다(겠44:1-46:24).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 직분을 폐지하였으며 짐승의 희생 제도도 폐지하였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고 거기에 정착할 것이며 그 땅은 다시 12개의 지파의 몫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³¹⁾ 천년 왕국 시기에 12지파가 차지할 모든 지역에 대한 설명은 에스겔서 47장 13-48장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곱 지파의 땅은 성전의 북쪽에 놓이게 될 것이고(겠 48:1-7) 나머지 다섯 지파의 땅은 성전의 남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겠48:23-29).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에 당시 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1948년에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이 선포될 것입니다(사52:7-10). 이 메시지는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화평의 기쁜 소식 2)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 3)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는 기쁜 소식 4)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다는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후 70년에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나쁜 소식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화평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과 파괴와 멸망과 죽음 등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사35장).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음의 일로 인해 생길 것입니다. 1) 사막이 비옥해질 것이다(1-2, 6-7절). 2)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3-4절). 3)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귀먹은 자들이 치유될 것이다(5-6절). 4) 야생의

31) Arnold G. Fruchtenbaum, 「Footprints of the Messiah」, p. 328.

약한 동물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9절). 5) 그래서 그것은 큰 기쁨의 때가 될 것이다(10절).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후 70년에는 다행히 로마의 침략을 견뎌 낸 유대인들이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탄식만을 겪었습니다(사35:10과 비교).

3. 우리 주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

문자적 해석을 저버린 개혁주의 신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해석에서 발견됩니다.

개혁주의 신자들도 보편적 용어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음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보편적 용어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자들은 ‘세상’(요3:16; 6:51; 고후5:19)이 실제로 ‘세상’을 의미하지 않고 ‘온 세상’(요일2:2)도 실제로 ‘온 세상’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딤후2:6)이 실제로 ‘모든’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딤후2:4)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히2:9)이 실제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모두’(사53:6)가 실제로 ‘우리 모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 1841-1918)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던 시기에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같은 성경기록들에 있는 평범하고도 단순한 단어들 - 세상, 모든, 모든 사람 등 - 이 어떤 신학에 입문한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이해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다 사실이 아니라 하는 가정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일 [즉 칼빈주의 신학]이 그런 말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세기 전에 그 당시 내 친구였던 고 보나르 박사(Horatius Bonar, 1808-1889)가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이런 이상한 잘못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이 무한한 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들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거룩한 성경기록의 단어들에 신뢰하는 믿음이 방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³²⁾

세대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해석의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적인 의미라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비상식적인 의미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기록의 어떤 부분에 이르게 될 때 문자적 접근 방법을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죄를 믿는 이들은 위에서 언급된 규칙과는 다른

32) 앤더슨의 책 「Forgotten Truths」의 서문에서 발췌함.

규칙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의미가 우리의 신학 체계와 모순이 될 때에는 다른 의미를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칼빈주의 브랜드와 모순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300년도 더 전에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이를 위해 그 단어들의 평범한 의미를 뒤엎어 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것과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이 두 가지와 그 말씀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에서 공평하면 서도 조화를 이루는 일관성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복음의 두 가지 평범한 진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두 가지가 다 평범한 진리일 때 당신은 그 둘 중 하나를 거부할 것인가? 영감으로 성경기록을 주신 하나님의 영의 지혜보다 당신 자신의 명철을 앞세우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 아닌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의심의 여지없이 둘 다 진실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진리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분께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사람들을 위해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획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사람들을 정당하게 징벌하실 수 없다 등등] 그러나 과연 성경기록이 이 같은 그들의 말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기록이 대체 어디에서 그분께서 모두를 위해 죽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기록이 대체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직 나머지 모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기록이 대체 어디에서 그분께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제외하고 오직 자신의 양들, 즉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말은 없다. 그렇다면 분명한 진리들과 명백한 본문들이, 불확실한 점들과 희미한 본문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³³⁾

그리고 나서 백스터는 이런 경우에 맞는 원리들을 능숙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자 한다. 당신은 성경기록이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을 것인가? 그리하고자 하면 그리하라. 그러나 혹시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보다 더 명확한 것을 원한다면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좋은 단어들을 고안할 수 있거든 내게 말해 주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세상’(world)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요4:42) 당신은

33) Richard Baxter, 「Universal Redemption of Mankind」, pp. 282-283.

“그러나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가요?”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성경은 그분이 ‘온 세상’(whole world)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기록한다(요일2:2). 그러면 당신은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은 아니죠?”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이다. 그분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시다. 성경은 그분께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람’(all men)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딤후2:4-6). 그러나 당신은 “성경은 그분이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해 죽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이다. 그분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해 죽으셨다. 성경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 개개인(every man)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한다(히2:9). 그러나 당신은 “그것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만일 성경이 선택받지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믿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이다. 그분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성경은 주님을 부인한 자들 곧 자기들 위에 신속한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한다(벧후2:1). 이 모든 것을 보여 주어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³⁴⁾

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믿음을 확고히 갖지 못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것을 시인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진정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바로 이 사람은 성경기록의 분명함과 평범함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제한적 속죄 교리를 나중에 받아들였습니다.³⁵⁾

8. 대부분의 예언들이 주후 70년에 성취되었다고 가르치는 위험

위에서 개혁주의의 일곱 번째 위험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봉자들이 특히 성경의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해석하는 것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위험은 이미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여 당신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에스더 왕비가 살던 때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추정해 봅시다(대략 주전 470년경). 어느 날 당신은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 두루마리를 만났습니다. 이 둘은 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 700년 전쯤에 쓰인 책들입니다. 이 신성한 책들을 읽어 나갈 때 당신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예언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34) 동일 문서, pp. 286-287.

35) 문자적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음 기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Consistent Literal Interpretation - A Study Showing the Inconsistencies of Non-Dispensationalists>, <Do I Interpret the Bible Literally? Six Tests to See if You Do>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사9:6)

한 유대인 친구가 왔기에 이제 당신이 흥분된 감정을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언젠가 보내 주신다고 약속을 했더니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의 친구는 당신처럼 흥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예언들을 오해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이네. 이런 예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성취된 예언들이야.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예언들이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이루어졌다고 이해하고 있네.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셨어. 이런 모든 예언들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야. 물론 아무도 그때에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그때 오셨어.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자네는 미래에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네. 사실, 이사야 대언자는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네.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라”(사13:6). 분명히 이것은 바빌론의 멸망 사건이 곧 오리라는 것이지 먼 훗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현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슬프게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위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진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예언들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고 위에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한 이야기와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위대한 예언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주후 70년에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오신 것을 보지 못했는지라도 그들은 그분께서 그때에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성도들, 즉 자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살전4:13-18), 7년 환난기(계4-19),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메시아의 왕국 통치 등과 같은 성경기록의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은 다 여러 대언자들에 의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다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모든

예언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백 개의 예언들이 주후 70년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다.³⁶⁾

9. 언약 신학의 위험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약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이 신학의 체계는 종교 개혁 이후에 발전되었습니다. 이 신학은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종종 구속 언약으로 설명합니다.³⁷⁾ 개혁주의 언약 신학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은 한 백성이고 신약의 교회는 단지 이스라엘의 연장선에서 그들의 계승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계승자로서 이제 구약의 예언들과 약속들을 다 흡수했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이제 교회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모든 약속들을 몰수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1-37절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신학 체계는 세대주의 신학과 직접적으로 상반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약 시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성경적으로 매우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행 15:13-18; 롬11:25-26).

다음에 소개하는 정확하고도 유익한 진술은 뉴잉글랜드 성경 회의를 주관한 분들이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세대주의에 대한 분명한 설명’(Clarification regarding dispensationalism)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필연적으로 세대주의가 나옵니다. 세대주의는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성경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경륜(dispensation)이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드러나는 독특한 단계이며 한 경륜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 혹은 일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계시에 대해 선한 청지기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엡3:2, 9; 골1:25; 출34:27-28; 갈3:10-12; 딤후1:4; 엡1:10 등).

36)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의 다음 기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Preterism Answered by the Scriptures>, <Did the Lord's Coming In His Kingdom Take Place in 70 A.D.? (Matthew 16:28)>, <A Problem for Preterists - Romans 16:20>, <J.C. Ryle and Preterism>,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Tribulation at the End of the Age (Luke 21:20-24)>, <The Great Tribulation - Future or Fulfilled?>

37)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세대주의 신자들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만 강조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딤후2:15) 서로 다른 것들을 구별하고 성경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기본적 차이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이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에 대한 계획 사이의 차이(행 15:14-17; 롬11:25-27),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계20:4-60), 다양한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심판들 사이의 차이(고후5:10; 마 25:31-46; 계20:11-15), 율법과 은혜의 차이(요1:17; 롬6:14-15; 7:1-6) 그리고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서 교회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회복되어 다윗의 왕좌에 앉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히1:3; 10:12-13; 행15:16; 눅1:32).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이며 '구약의 대언의 주제가 되지 않았던 성도들[즉 신약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엡3:1-9; 골 1:25-27).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즉 다니엘의 69이레 이후에 생겨난 교회의 시작(오순절 날, 행2장)부터 다니엘의 70이레(단9:24-27)의 시작 전에 일어날 휴거 사이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부르시려고 이방인 나라들을 방문하고 계십니다(행15:14-16; 엡3:1-11; 롬11:25).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단입니다.

우리는 대언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언약과 왕국 약속들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창12:2-3; 15:18-21; 신30:3-10; 삼하7:4-17; 렘31:31-37; 33:15-26).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창12, 15, 17), 팔레스타인 언약(신30), 다윗 언약(삼후7) 그리고 새 언약(렘 31)의 약속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천년 왕국은 이러한 언약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성취하심을 포함할 것입니다(렘31:31-37; 33:14-26; 겔36:25-28; 40-48; 롬11:23-32).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두 그룹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새 사람' 혹은 '새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엡2:15; 고전10: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등의 말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나라나 그 나라의 온 백성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 안에 남아 있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교회나 특별히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시대의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들이지만(롬4:12, 16; 갈3:7, 26, 29),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닙니다[즉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로마서 9장 4-5절에서 바울에 의해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다 성취되었고 모든 경륜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엡2:8; 창15:6; 히11:4-7; 롬4:1-8).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경륜에 걸쳐서 사람을 다루시는 전체적인 목적은 자신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엡1:6, 12, 14; 3:21; 롬11:33-36; 16:27; 사43:7; 딤펢1:17).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은 현시대가 삼입구 같은 (괄호 부분) 성격을 가졌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부터 메시아의 재림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니엘 9:24-27의 70이레 예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69이레 이후에 끊어질 것(그분의 끔찍한 죽음을 의미함)과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기록들로부터 70번째 이레는 아직 미래의 일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돌아오시기 전의 마지막 7년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69번째와 70번째 이레 사이에는 거의 2,000년의 '갭(간격)'이 있는데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며(마16:18)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행15:14).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의 역사를 자세히 들려주지만 - 주께서 네 백성[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단9:24) - 주님의 초림 이후 2,000년(혹은 그 이상) 동안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뚜렷한 '갭' 혹은 '괄호 부분'이 다니엘의 위대한 연대기적 대언과 맞물리게 될 때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역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1)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역사(490년), 2)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괄호 속의 교회 역사(이미 2,000년이 다 되어 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한 분명한 역사와 계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분명한 역사와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두 가지 계획들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만 서로가 충돌하지는 않으며 또한 시간상 겹치지도 않습니다. 전체 교회 시대는 69이레가 마감을 하고 70이레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의 중요성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세대주의자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백한 차이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분명한 성경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비교 형식으로 설명된 다음의 차이들은 성경기록들이 평범하고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을 때의 분명한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 희생 제사가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지만 이것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측했던 것입니다.³⁸⁾ 다음 비교에서 '교회'란 단어는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진정한 신약 시대 교회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즉 단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요일5:12).

이스라엘과 교회의 비교와 대조

1.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언약에 의해 지탱되는 나라입니다(신7:6-9).

38) 이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면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에서 Dr. John Whitcomb의 <The Millennial Temple of Ezekiel 40-48>을 보기 바란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롬9:6; 11:2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고전12:13). 현 세상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구원받았습니다(딤후2:19).

2. 이스라엘의 기원은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임).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처음 들어갔던 때, 즉 신약 시대 오순절 날이 기원입니다(행2장).

3.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분의 증인들은 한 나라를 구성합니다(사 43:10).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분의 증인들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습니다(행1:8).

4.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고(마23:37) 7년 환난기(마24:15-20)와 천년 왕국 기간에도 다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사2:1-5).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분 자신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땅의 끝부분까지 확장되었습니다(눅24:47; 행1:8). 교회는 땅에 있던 어느 도시와 동일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5.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대는 대언자들에 의해 이미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렘23:5-8; 사2:1-5; 11:1-16).

교회의 소망과 기대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요14:1-3; 빌 3:20-21; 골3:1-4; 살전4:13-18).

6.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고 신약 시대 사도들과 대언자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엡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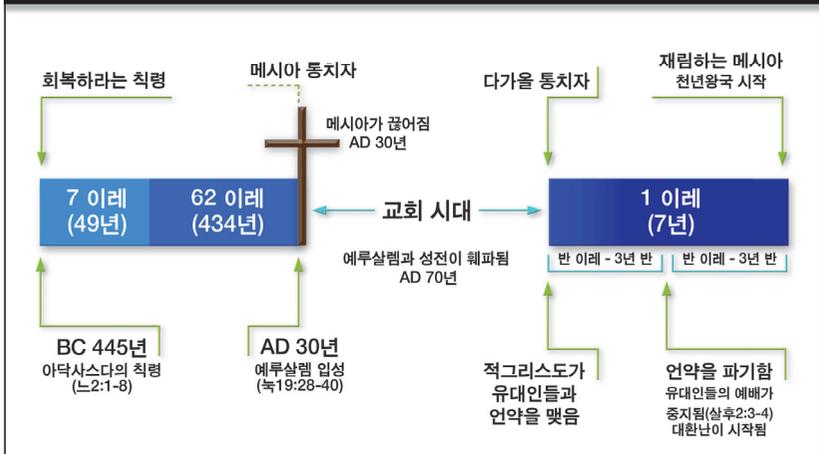
7.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70이레 혹은 490년)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포함합니다. 490년의 마지막 7년은 미래의 환난기인데 이 중 첫 부분의 3년 반 동안에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시행될 것입니다(단9:27).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 예배에도 짐승의 희생 제사가 포함될 것입니다(겔43:27).

교회의 역사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희생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8.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7년 환난기를 포함한 490년)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도 동일합니다(겔40-48장). 대부분의 교회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분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 드러내시되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성전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리하십니다(고전3:16; 6:19-20; 엡

다니엘의 70이레

(다니엘서 9장 24-27절)



2:21-22). 이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9.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490년은 아론의 아들들로 제한되어 있는 제사장직을 포함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직에서 제외됩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물론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천년 왕국에도 동일한 것이 이루어집니다(겔40:46; 43:19; 44:15).

교회 시대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제사장이며 주님께 영적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히13:15; 벧전2:9; 계1:6).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직을 맡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제사장직을 맡습니다.

10.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 교회의 휴거와 함께 마감될 것입니다(살전4:13-18; 롬11:25).

11. 이스라엘의 역사 기간 동안(환난기를 포함하는 다니엘서 9장 24절의 490년)에 세상의 민족은 둘로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또한 천년 왕국에 자연적인 몸(변화되어 영화롭게 된 몸이 아니라 지금 현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오순절부터 휴거까지의 교회 시대 동안에는 세상의 민족들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셋으로 나뉩니다(고전10:32). 여기서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엡2:15; 3:6).

12.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민이 된 때부터 천년 왕국까지의(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기간에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할은 우선권이 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남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신4:6-8; 사43:10; 마10:5-6; 눅8:23 참조).

교회 시대 동안 세상에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평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한 몸으로 함께 연합하였습니다(골3:11; 갈3:28). 즉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혹은 차이가 없습니다.

13. 유대인 남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렘4:4).

교회 시대의 믿는 자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내적 할례를 받습니다(골2:11; 빌3:3). 육체적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4. 이스라엘은 삶의 규정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규칙 아래 있습니다(갈6:15-16).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믿는 자의 삶의 규칙은 무엇입니까?”(*What is the believer's rule of life?*)라는 글을 보기 바랍니다.

15.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요8:37-4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의 모든 참 지체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롬4:11-12; 갈3:26-29). 이런 말은 교회 시대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6.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출20:8). 안식일 준수는 또한 7년 환난기(마 24:20)와 천년 왕국(겔46:1, 3) 때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해야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히4:9-11). 이것은 매일매일의 의무입니다.

17. 유대인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은 출생이나 개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침례 사역에 의한 새로운 탄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고전12:13).

18. 오순절 전에 죽은 유대인 성도들, 7년 환난기 동안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 기간에 믿음을 갖게 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즉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사이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19.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단6:10; 요4:20) 이것은

7년 환난기(단9:27)와 천년 왕국(사2:1-5)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 장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입니다(마18:20; 요4:21-2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들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계1:13, 20).

20.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종종 신실하지 못한 아내로 비유됩니다(호 2:2).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고후11:2; 계19:7-8). 교회 역시 종종 신실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제시될 것입니다(엡5:27).

10. 성도들을 율법 아래 놓는 위험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칙의 핵심을 공격합니다. 개혁신학은 성도를 신약의 갈보리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의 시내산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성화의 가르침 면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꺾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갈3:1)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절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칭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바르게 주장합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실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는 삶의 규정 아래 있다고 시종일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그들은 성도들이 구약의 의식법(희생 제사 체제 등)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도덕법(십계명 등) 아래에는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개혁 신학자들의 압도적 특징은 성도들과 율법에 대한 관계의 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는 삶의 규정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녹색 편지들』(*The Complete Green Letters*, 존더만 출판사의 클라리온 고전 시리즈에 속함)의 저자인 스탠포드(Miles Stanford)는 율법 준수를 옹호하는 칼빈주의자들이나 자기들의 신학을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에 스며들게 하는 개혁신학 저자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백스터(Baxter, R.), 벌코프(L. Berkhof), 뵈트너(L. Boettner), 보이스(J. Boice), 보나르(A. Bonar), 거쓰너(J. Gerstner), 길(J. Gill), 핫지(A. Hodge와 C. Hodge), 카이퍼(A. Kuyper), 로이드 존스(M. Lloyd-Jones), 마우로(P. Mauro), 오웬(J. Owen), 팩커(J. Packer), 핑크(A. Pink), 라일(J. Ryle), 스토트(J. Stott), 밴틸(C. Van Til과 H. Van Til), 워필드(B.

Warfield) 등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많은 사람들은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분들이며 또 그렇게 여겨져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 한 것, 즉 그분의 대의를 위해 그들이 공헌한 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성도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삶의 척도 아래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성화를 위해서는 성도는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신약의 갈보리산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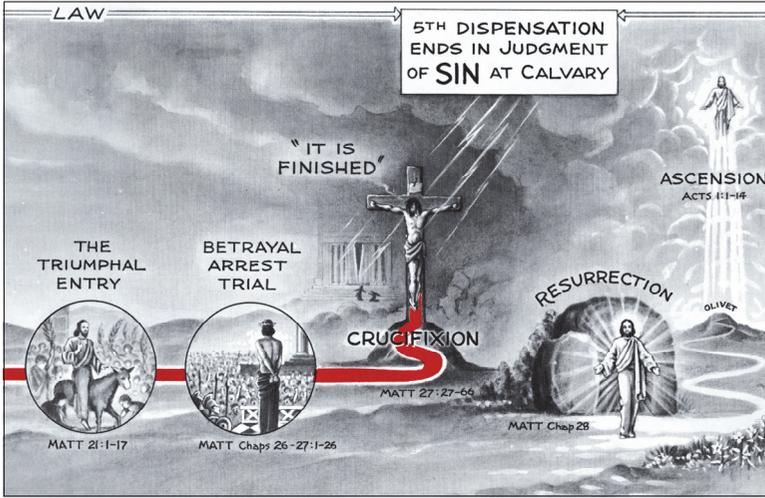
헌팅턴(William Huntington)의 고전 「성도의 삶의 규칙」(*The Believer's Rule of Life*)이란 책의 서문에서 베리(W. J. Berry)는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속한 모든 자들을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에 따른 형벌 및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출해 주셨다는 것은 신성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일부 믿는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문제가 초기 사도들에 의해 곧바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이 진리를 거부한 일은 초대 교회에 만연했을 것입니다. 이 일의 핵심 문제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논의되고 기록되었습니다(행 15:1-35).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을 통해 또 갈라디아에 있던 유대교 율법주의 주창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고 또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최종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처럼 분명하게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들을 끈질기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 공회에서 그의 감독들은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혼합된 법들을 갖춘 첫 번째 체계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황들과 감독들의 계급 제도에 의해 중세 암흑시대 동안 확장되었고 그 뒤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계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옳게 행하느냐, 그르게 행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서 섬길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든 유대교/기독교 법이든 그런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에 이르는 죄를 섬깁니다. 반면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아들들로서 의와 참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자유롭게 주님을 섬깁니다(롬6:15-23).

초기 세대주의자들도 이 문제를 잘 이해했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배웠지만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것이고 나의 교육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 율법이 적용되는 육신(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율법을 향해 죽었습니다(롬 7:4). [다비(John Darby), cited by Miles Stanford in the paper entitled, Arminius, To Calvin, To Paul-Man, Law, or Christ-Centered?]

통탄할 오류를 범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적용하는 어떤 선한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시대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났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원리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율법이 삶의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안에 죄를 가진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율법은 결코 성화의 수단이 아니며 실상 죄의 힘입니다(고전15:56). [켈리(William Kelly), cited in 「The Complete Green Letters」 by Miles Stanford, p. 265]

우리는 참되고 실제적인 성화의 상부 구조가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굳게 믿고 그렇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문제(즉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성화'를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근처에서 서성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성도의 삶의 규칙이 아니라라는 것도 그와 동일하게 분명합니다... 성도의 삶의 규칙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게는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합니다(빌1:21). 구원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규칙이고,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시금석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 있는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율법(십계명)이 사람이 사는 동안 완전한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저주한다고 믿습니다. 한 죄인이 율법(십계명)에 의해 생명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이 그를 어디에 놓는지 보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율법에 의해 자기의 길을 형성하려 할 때 그것이 그를 어떻게 만들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의 영을 따라 걸으면 그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밀어 넣는다면 복음의 영을 따르지 못하고 실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킨토시(C. H. Mackintosh), 「The Mackintosh Treasury-Miscellaneous Writings」, pp. 628, 653-654.]

우리를 대부분은 갈라디아주의(율법주의)의 영향하에서 양육되었고 이제는 그것의 영향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대부분 철저하게 갈라디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율법이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리되어야 하듯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둘은 일관성이 없는 체제하에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율법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는 일을 하지 못하고(고후3:7; 갈3:10) 사람을 유죄로 확정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롬3:19).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혜도 죄의 지배권에서 우리가 구출받는 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의 평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여기며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필드(C. I. Scofield), cited in 「The Complete Green Letters」 by Miles Stanford, p. 265]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율법을 필요로 합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율법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혹은 율법이나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까? 이 질문들의 답은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롬7:4-6). [개블린(Amo C. Gaebelein), 「Gaebelein's Concise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p. 907]

오늘날 성도들은 칭의의 수단이나 삶의 규칙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은혜 안에서 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25절에서 우리는 율법을 삶의 규칙 혹은 규범으로 사용하여 성화를 추구하려고 애쓰며 자기의 옛 본성을 역지로 그것에 복종하도록 단호하게 시도하고 있는 한 유대인 성도를 봅니다. 그런데 현시대 기독교계에서 우리는 평범한 이방인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 엄수가 일상적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화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는 것은 이제 다만 결심과 끊임없는 노력의 문제이고 이로써 그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그분의 백성이, 믿는 자의 육신이 불신자의 육신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율법 준수 같은 스스로의 노력을 중단할 때 그는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심으로 인한 율법에서의 구출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언사이드(H. A. Ironside),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see under September 18; and Romans, p. 89]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율법 아래에' 놓는 모든 시도를 가차 없이 정죄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런 이단 교리를 다루시려는 바로 그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를 주셨습니다. 이 서신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저자가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오류를 주의 깊게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는 율법 아래에서 혹은 그 일부분 아래에서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오류입니다(갈3:2-3). [매클레인(Alva McClain), 「Law and Grace」, pp. 51-52. This book in its entirety is highly recommended. It is published by BMH Books, Winona Lake, IN 46590]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열쇠 혹은 규칙은 구약 시대 율법의 속박을 가져온 시내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는 '신약 시대 갈보리산'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는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골3:3). 율법은 시내산에서 왔지만 은혜는 갈보리산으로부터 세차게 흘러나왔는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딤후2:11-12).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자기들 가운데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시내산을 택하고 은혜의 갈보리산을 버렸습니다(갈3:1).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개혁신학은 성화에 관한 가르침 면에서 부족합니다. 느웰(William Newell)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교리나 실행 면에서 16세기 종교 개혁은 초기 교회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교리 면에서 그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칭의를 가르쳤습니다(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은 많은 면에서 바울 이래로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자들은 바울이 가르친 신자의 정체성 혹은 신원 문제 같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신자의 역사가 갈보리산에서 끝났다는 것,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를 향해 죽었다는 것, 또 그가 죄에게 큰 힘을 주었던 율법을 향해서도 죽었다는 것 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 신조들은 한결같이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여기며 성도를 율법 아래 두었지만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성경기록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한 완전한 양심과 완전하게

된 믿음,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루는 완전한 거룩함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느웰(William Newell), 「Revelation - A Complete Commentary」, p. 63(계3:2에 대한 그의 주석 참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규칙하에서 이 세상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의 다음 자료들을 참조하기 바랍니다.³⁹⁾

11.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근거 중 하나로 두는 오류의 위험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롬5:19).

이 구절은 전 인류를 죄 속으로 밀어 넣은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해서 보여 줍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분들 가운데 다수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여기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분께서 평생을 사시는 동안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서 드러난 순종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빌립보서 2장 8절이 보여 주는 대로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입니다. 즉 이 순종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단회적 순종을 말하지 그분께서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신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보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히 지키셨다는 이론’(vicarious law keeping)을 주장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우리를 위해 사시면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진 빚을 두 가지에 의해 즉 첫째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 둘째는 사시면서 율법을 모두 지키시는 것에 의해 다 갚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자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active righteousness)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그들은 칭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를 둘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순종에도 근거를 둔다고 주장합니다.⁴⁰⁾ 그러면서 이들은 이 두 가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순종과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이룬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9) 1. <New Testament Teaching on How to Live the Christian Life>, 2. 로마서 추천 도서: 1. 「Law and Grace」(Alva McClain), 2. 「The Complete Green Letters」(Miles Stanford), 3. 「Romans」(William Newell, especially his discussion of Romans 6-7), 4. 「There Really Is A Difference」(Renald Showers)

40) 스프로울이 편집한 「종교 개혁 스터디 성경」(Reformation Study Bible)의 로마서 3장 24절 주석을 참조하기 바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율법과 무관합니다(롬3;22).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즉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죽음의 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100% 지키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생애 전에 그분께서 완벽한 삶을 사신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4장 25절은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키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고전 15:17).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전하게 100% 지키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완벽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의 세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고전 15:1-5).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로다(롬1:16).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메이첸(Gresham Machen, 1881-1937)은 자기가 몸담고 있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배도의 길을 걷자 거기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스다코다주의 추운 12월에 복음을 선포하다가 폐렴에 걸려 1937년 1월 1일 병원에서 죽으면서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인 머레이(John Murray)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것이 없이는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시는 동안 율법에 순종한 것(능동적 의)을 의지하고 죽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의 심각한 율법주의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 점에서 개혁신학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가르치는 위험

개혁신학 신봉자들의 공통된 믿음 중 하나는 갈보리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속죄값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류, 즉 그리스도께서 평생 동안 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한 것이 우리의 칭의(Justification)의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믿는 것을 보면 이번 오류 또한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속죄에 기여한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이론을 두 가지 이유에서 믿지 않습니다.

첫째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마26:39, 42, 44 등).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재판장으로 죄들의 대속물인 어린양 예수님에게 자신의 극심한 진노를 퍼붓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한 즐거움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마27:46 참조).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둘째로 주님께서서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신 뒤에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8:11).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일 이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시며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다음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골1:20).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롬 5:8-10).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사53:6).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3).

바울은 한 번도 겿세마네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그래서 그는 항상 십자가만을 선포하였습니다(고전1:18; 2:2).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께서 겿세마네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개혁신학 주창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결 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개혁신학의 극단적 칼빈주의는 복음이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개혁신학의 치명적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화에 대한 전반적 가르침 안으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중생)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에 대한 개혁신학의 가르침은 죄인이 복음을 믿기 위해 개인적으로 져야 할 책임,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개혁신학은 로드십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믿음 외에도 행복과 순종이라는 부가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며 이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혼동시키고 부패시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선포했고 자신의 생명으로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의 단순한 복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개혁신학의 주장은 칭의의 단순한 교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가르치는 것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규칙으로 정하여 성도를 율법 아래 놓는 것은 신약의 갈보리산이 아니라 구약의 시내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처럼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성도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들 외에도 개혁신학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관련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해 성경기록을 문자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에 관한 한 많은 개혁신학 주창자들은 주후 70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거주의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의 수백 개 구절들의 예언적 중요성을 파괴시켰고 이로써 교회가 재림과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서는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실제적 메시아 왕국을 강탈하였습니다. 교회가 극단적 칼빈주의로 인해 복음 전파의 열정을 잃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영향으로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을 때에는 슬픈 영적 상황이 불가피하게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성경의 건전한 교리에 적합한 일들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George Zeller
The Middletown Bible Church
349 East Street
Middletown, CT 06457
Telephone (860) 346-0907
www.middletownbiblechurch.org

Middletown Bible Church ENHANCED BY Google

Dedicated to the faithful teaching of God's Word, the Bible, and pointing to the sufficiency of the crucified and risen Saviour to provide salvation and stability in the midst of, and motivated to consider the Living God and your relationship to Him. John 3:16; 17:3

[About Us](#) [Related Ministries](#) [Bible Question?](#) [Literature List](#) [What's New?](#)

OUR STUDIES

Help for the Seeking Heart

Salvation

Doctrinal Studies

Helpful Bible Studies

Sunday School Materials

The Christian Life

Christian Home and Family

The Local Church

Missions and Evangelism

Bible Study

Prophecy

Dispensationalism

Biblical Separation

Reformed Theology

Literature List

Audio Messages

A brief audio message from our Pastor, George Parsons





Children's Bible Ministry
where boys and girls can grow in Christ and learn about His wonderful love.

BIBLE STUDIES IN OTHER LANGUAGES

[Studies in Spanish - Estudios Biblicos en español](#)

Studies also available in [Nepali](#), [German](#), [Polish](#), [Chinese](#), [French](#) and [Arabic](#)

Visit our Audio Library for the Sunday and Wednesday messages by our Pastor.



Messages include a complete series on the book of Philippians and Job.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의 좌측 하단에는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많은 글들이 있다

제 6 장

Chapter 6

로드십 구원이란 무엇인가?



What Is Lordship Salvation?

이번 장에서 우리는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 등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로드십 구원(주재권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로드십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¹⁾

로드십 구원 논쟁은 크리스천 서클 내에서 구원 문제에 대하여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관해 제기된 신학적 논쟁이다. 이 논쟁은 1980년대 이후로 초교파적 교회들과 복음주의 진영 내의 교회들 안에 존재해 왔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또한 그 사람의 주 혹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만 인정해서 받아들인다면 그의 구원은 참으로 진짜인가?” 다시 말해 이것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떤 도덕적 규칙을 지키거나 행동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그리스도에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로드십 구원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인 핑크(Arthur W. Pink)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행위의 왕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도 자기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한편 맥아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회개, 믿음, 성화, 굴복, 복종,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생산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실 때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이런 것들이 없는 구원 고백(체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님(주인)이시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노예(slave)로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며 그런 순종이 구원의 징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드십 구원은 보통 ‘약속 구원’(Commitment salvation) 혹은 ‘포기나 항복 구원’(Surrender salvation)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성도의 종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맥아더 목사는 여러

1) https://en.wikipedia.org/wiki/Lordship_salvation_controversy

면에서 좋은 분이지만 칼빈주의와 로드십 구원 등에서는 성경과 매우 다른 것들을 가르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프로울, 파이퍼 등도 비슷한 경향을 가진 칼빈주의자들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역시 신중하게 살펴보고 배격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로드십 구원에 대한 조지 젤러의 반박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²⁾

하나님의 구원 조건

하나님의 구원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칭의를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다(롬5:1).

로드십 구원 조건

로드십 구원의 조건은 매우 많습니다. 맥아더 목사의 세 가지 책 「예수님이 전한 복음」(*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GATJ*), 「믿음은 행위를 한다」(*Faith Works, FW*), 「믿기가 어렵다」(*Hard to Believe, HTB*)를 보면 로드십 구원의 조건들이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확실하게 약속을 해야만 한다(GATJ, p. ix, J. I. Packer의 글).

1.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그분을 따른다(GATJ, p. 21).
2.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GATJ, p. 30).
3. 회개하고 굴복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GATJ, p. 31).
4.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GATJ, p. 45).
5.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자기 삶을 드린다(GATJ, p. 67).
6.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GATJ, p. 78).
7. 복종하기 위해 확실히 약속한다(GATJ, p. 79).
8. 그리스도를 삶에서 최상의 권위로 여겨야 한다(GATJ, pp. 86-87).
9.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GATJ, p. 88).
10.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GATJ, p. 106).
11. 죄에서 돌아선다(GATJ, p. 112).
12.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버린다(GATJ, p. 135).

2) <https://www.middletonbiblechurch.org/salvatio/lordshrq.pdf>

13.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린다(GATJ, p. 138).
14.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GATJ, p. 138).
15. 자기의 의지를 전적으로 버린다(GATJ, p. 140).
16. 옛 생활을 철저히 부인한다(GATJ, p. 162).
17. 가족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GATJ, pp. 200-201).

맥아더 목사는 야고보서 4장 7-10절이 모든 서신서에서 구원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초청이라고 말합니다(GATJ, p. 218). 과연 여기에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성화의 지침이 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18. 스스로 굴복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라(FW, p. 49).
19. 죄들에서 돌아서라(FW, p. 74).
20.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FW, p. 194).
21.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HTB, pp. 2, 6).
22. 영생의 필수 조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혹은 그럴 의향이 있는 것이다(HTB, p. 9).

주목할 점들

1. 로드십 구원의 조건은 죄인인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있지만 성경적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 의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를 두고 있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5).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맥아더 목사는 “우리는 (혹은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만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구원의 조건들을 나열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드십 구원의 문제입니다.

2. 로드십 구원의 조건들을 보면 맥아더 목사 등은 제자의 길(제자도)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 로드십 구원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끝내신 일,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도의 조건은 구원받은 뒤 성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로드십 성화’는 말이 되지만 ‘로드십 구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제자도의 한 가지 조건은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보다 주님께 더 충성을 보이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가 되려면 내 가족, 소유, 생명보다 귀하게 주님을 여겨야 합니다. 이 제자도의 조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다시 진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그런데 로드십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바로 밀의 40절이 보여 주듯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므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명령과 십계명에 따라 우리는 다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에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후 1:15).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롬8:3).

4. 로드십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제자도의 요구 조건을 실제로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아더 목사의 로드십 구원의 요구 조건들에는 ‘모든 것을 버릴 의향이 있어야 한다’(be willing), ‘복종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have an eagerness),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be willing), ‘아버지와 어머니 등을 미워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be willing)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의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눅14:33).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희생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아더 목사 등의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은 제자도의 조건을 예수님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성도들은 제자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하여 많은 경우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5. 맥아더 목사는 「믿기가 어렵다」의 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필수 조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혹은 그럴 의향이 있는 것이다. The requirement for eternal life is to be willing to give up all your earthly possessions if the Lord should ask this.

이 경우 사람마다 소유가 다르므로 구원의 조건이 다 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구원의 조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경우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런 조건에서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영생의 조건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무어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6. 로드십 구원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맥아더 목사는 구원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예수님이 전한 복음」, p. 182). 그래서 그의 책들 중 하나의 제목도 「믿기가 어렵다」입니다.

그러면 로드십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주님을 극도로 최상으로 사랑했음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기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제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달성하였다고 그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한 약속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경우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없을까요?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죄로부터 돌아섰을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에 언급된 모든 조건들과 자기 삶을 비교해 보면 과연 그들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검증을 하면 과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더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그것 하나만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8-9).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원에 따른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구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8-10).

그러나 로드십 구원의 경우에는 은혜와 믿음과 행위 혹은 약속(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100%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로드십 구원의 혼란과 혼동

다음은 데이빗 클라우드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³⁾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결코 완전한 복종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전체와 신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바울이 육신에 속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자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하였노라(고전3:1).

우리는 결코 성도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의 주장대로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구원은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3) <https://www.wayoflife.org/database/repentancerevisited.html>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마19:14)

이런 면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과 같이 틀에 박힌 구조로 간단히 사영리 같은 것을 설명하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삶에 나타나서 삶의 방향을 180도 트는 것입니다.

3.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의 주장대로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 구원입니다. 성도가 이 오류에 빠지게 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경험을 바라보게 됩니다.

4. 구원은 반드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구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만 살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7:18).

바울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옛 사람(육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지금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딤후1:12).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나 자신, 변화된 삶, 경험, 확고한 충성 등에 내 소망을 두거나 결코 그것들을 내 구원의 확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벧전1:14-16).

그런데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맥아더 목사를 포함해서 로드십 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적 측면에서 완전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완전함에 대해 내가 바르게 집중하지 않고 나 자신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나는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에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 멤버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런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그런 교회들에 생길까요? 목사가 강단에서 늘 다음과 같이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1. 과거의 모든 죄를 낱알이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삶의 모든 일에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삶에서 이런 전적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3. 구원에 의심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4.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없다.

강단에서 즐기치게 이런 메시지가 쏟아지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는 비참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데이빗 클라우드) 역시 구원받은 첫 해에는 구원받고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여러 차례 기도하였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고 또 과거의 나쁜 습관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는 나를 보며 나는 구원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까지는 아직 내 믿음이 진리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교회에서 칭의, 성화, 거룩함,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에 대해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전체적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나는 내 구원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드십 구원은 칭의와 성화(제자도)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언 사이드(Harry A. Ironside, 1876-1951)는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목사로서 1929년부터 1948년까지는 시카고의 무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젊어서 구원받은 뒤 잠시 구세군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그 교회에서 그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아 자신의 옛 본성을 누르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런 경험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죄성과 불안전함을 보고는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 은사주의가 강조하는 두 번째 축복(완전 성화)이라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는 드디어 자기가 두 번째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간증 집회에서 앞으로 나가 자기가 이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기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 정신과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병원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성경적 성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것을 통해 그는 평생토록 그리스도에게 뜻을 내리고 오랫동안 성경적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로드십 구원 교리가 나온 배경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 강령은 ‘성도들의 견인’인데 이 교리는 성도가 선한 행위를 지속하며 끝까지 견뎌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자기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징표는 끝까지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가 여부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면 끝까지 선한 행위를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주의자들 가운데는 율법 준수 - 특히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안식일 준수 등을 강조함 - 을 강조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을 바꾸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은 무려 100번 이상이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사영리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류 때문에 다른 극단으로 가서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즉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로드십 구원에 대한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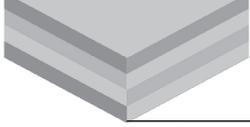
1.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2.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노예로서 항상 100% 복종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3.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4.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5. 제자도의 모든 조건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6. 우리의 의로운 행위, 신실한 행위, 충성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 일5:12).

제 7 장

Chapter 7

칼빈주의에서의 14년 여정



14 Years in Calvinism

칼빈을 처음 만남

내가 칼빈을 처음 소개받은 때는 적막한 와이오밍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던 어느 봄날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¹⁾ 그때는 초저녁이었고 도로 상황은 그 지방의 도로에서 늘 그렇듯이 약간 붐비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나는 스프로울(R. C. Sproul)의 로마서 8장 28-30절에 대한 주석 테이프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그 순간을 잘 기억합니다. 보름달이 초원의 낮은 언덕 사이를 비추고 있었고 눈발이 도로에서 훑날리고 있었습니다. 경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분위기지지만 내 마음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분께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대해 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사실 나는 칼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교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봄날의 어느 저녁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나는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성도로서 나는 내게 스프로울의 강해를 알려 주었던 내 담임 목사님이 오직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리라 믿었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그 목사님이

1) 이것은 14년 동안 칼빈주의에 빠졌다가 성경 말씀으로 성경 신자가 된 브렌다 니켈(Brenda Nickel)이 기록한 증언이다. 브렌다는 지금 <더 이상 칼빈주의는 그만!>(Calvinism No More!)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s://www.calvinismnomore.com/>

추천한 가르침이 내가 벗어나기 심히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봄날의 바로 그 저녁에 나의 생각은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해 즉각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골2:8).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또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지정받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수태되기도 전에 이미 나를 구원의 길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내 얼굴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눈물로 시작되었던 것은 14년이 지난 뒤에 절망의 눈물로 마감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나는 “이런 절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칼빈이란 이 사람은 진정 누구였던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주의에 매료됨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선택할 자들을 ‘미리 예정하신다’는 개념을 테이프들로 소개받은 뒤에 내게는 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프들을 돌려드리기 위해 목사님의 사무실로 걸어가서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것들이 내게 준 충격을 논의하기 위해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나의 생각이 온전히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질문을 하자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럴 줄 알았어요”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당시 내게는 보이지 않는 이 숨겨진 비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꺼려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의 이런 ‘선택적 구원’이 성경에 따른 진실인지를 나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의문들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그분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선택적 특권이 진짜로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스프로울의 강의에서 내가 들었던 선택의 형태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구절들을 발견하고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가르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친구들에게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내가 ‘회심’했음 - 즉 이전과 달리 생각하게 됨 - 을 말하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을 지지하는 구절들을 나를 위해 찾아 주었습니다. 내가 얼굴을 돌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강화되었고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나와 내 생각을 그 틀로 빚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목적들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한 것에 대해 특권 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 내 생각은 학자들의 단순한 제안들에 불과한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것들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제시되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새로운 조명하에서 성경 말씀들을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보고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칼빈이라는 학자의 그럴듯한 지적 솜씨를 신뢰하였고 나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채 이 새로운 해석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의 논리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나는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 성경이 경고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딤후3:6-7).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벧전5:8-9).

내가 칼빈주의 방식의 선택적 예정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꼈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기를 갈망했고 그것이 내 삶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도 알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씨가 내 생각 속에 뿌려진 뒤에 나는 칼빈주의 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노력하였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갈5:7)

칼빈주의의 기초를 놓음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기로 한 뒤부터 내 성경 공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나의 새로운 친구들을 모으려고 와이오밍의 눈길, 바람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와이오밍의 이 작은 교회는 나에게 마치 집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기록들을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예정을 말하는 듯한 구절들이 나오면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 발견한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갈망하였으므로 이런 주제가 조금이라도 언급되지만 하면 매우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펜지처럼 선택에 대한 구절들을 빨아들였고 이 교리에 대해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찾아서 즐겼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암기하는 것이 내게는 쉽고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추적하는 것은 내게 스포츠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카드 파일 암송 시스템을 만들고 인덱스카드에 대문자 'P'로 표시된 곳에 '예정'(Predestination)에 대한 구절들을 모두 뽑아서 모았습니다.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곳에서 그것들을 임의로 뽑아내어 벽들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으면서 선택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에 관하여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정, 선택, 부르심, 택하심, 미리 아심 등을 언급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그것들은 다 내게 단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를 의미하였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성경기록들도 오해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8장 29절을 읽고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성경기록들을 그것들의 문맥 안에서 읽기보다는 항상 칼빈주의 틀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초기의 신학 형성 단계에서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내가 늘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이질적 단어였지만 상황은 곧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내 가족들은 유타주의 쏘트레이크시티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쏘트레이크 시티가 깨끗하고 또 우리가 사는 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계 최상급 스키 코스가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뒤 우리는 인생이 상쾌하고 기쁘고 아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와이오밍 교회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내게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우리는 바람 많은 와이오밍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타주의 혹독한 여름 더위조차도 우리에게는 환영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유타주에서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쏘트레이크시티에서의 나의 첫 임무 중 하나는 내가 섬길 교회와 성경 공부를 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은 매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7년 동안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제공하는 성경 연구 펠로우십(Bible Study Fellowship, BSF)²⁾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쏘트레이크시티에서의 첫 해에 나는 모든 범주의 새로운 사람들과 배우고 섬기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 교리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나는 선택에 대한 암시들이 그들의 성경 공부 노트에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퍅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등에 대한 언급 그리고

2) Bible Study Fellowship은 구조화된 성경 공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평신도들의 국제 기독교 교파 간 교제 또는 파라 교회(Para-church) 교제이다. 1959년 영국의 전도사인 존슨(Audrey Wetherell Johnson)이 이를 설립했다. <위키백과>

그와 비슷한 말들은 BSF 회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 성향을 가진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귀는 이런 교리의 조그만 부분에도 예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당시 나는 “아마도 칼빈주의의 이 교리가 내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교리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나는 주저하였지만 점차로 다른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는 쪽으로 조심스레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나는 그 주제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전화로, 성경 공부 논의 그룹 사람들과 일대일로 나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누구와 선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안전한지, 누구와는 안전하지 않은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악의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믿게 된 형태의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에 동의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확신에 대한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 가르침이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게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로 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의 유명한 칼빈주의 목사인 맥아더 목사의 가르침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가 건전하고 안전한 성경 교사라는 확신이 들어서 나는 테이프 대출 도서관에 등록을 하고 한 번에 6개의 설교 테이프들을 빌릴 수 있었고 곧바로 이것들을 듣고는 또 다른 6개의 테이프들을 빌려서 들곤 하였습니다. 나는 심지어 두 사람 이름으로 회원 등록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세트 6개를 듣는 동안 다른 세트가 준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안의 잡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좋은’ 가르침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퍼가 달린 작은 주머니와 워크맨뿐이었고 그것들은 항상 내 영당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맥아더 목사가 칼빈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관한 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 있는 설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테이프 도서관의 목록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테이프를 대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였습니다. 물론 내게 최우선 순위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다루는 테이프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어떤 요소에 대해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단순히 도서관 목록에 나와 있는 소개 글들을 보고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설교 테이프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테이프들을 듣다 보니 더 많이 들어야겠다는 욕망이 생겨서 나는 칼빈의 선택 교리에 호의를 보이는 다른 설교자들로부터도 더 많은 것들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테이프들을 주문해서 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강해들과 설교들이 내 머릿속으로 펌프질되어 들어오면서 칼빈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많은 양식을 주입해 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를 나누는 데 조심하며 주저하던

나는 이제 힘차게 그것을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물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이제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내게 들렸습니다. 나는 훈련받은 칼빈주의자가 모든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대응책들로 내 믿음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나 역시 네 포인트 칼빈주의자 - 즉 칼빈주의 5대 강령(Five points of Calvinism) 중 네 개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 - 처럼 말하고 생각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임)!

BSF 성경 공부 사역의 고층

칼빈주의에 중독된 그 몇 년 동안 나는 BSF 성경 공부 교제 모임에 더 깊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의 리더가 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들을 맡았고 1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그룹의 지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나의 훈련 및 지도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일들을 하면서 보낸 나의 여러 해 동안의 시간이 내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는 교제, 성경 공부, 기도, 조직 및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는 훈련, 찬양, 그리고 내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것 등을 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BSF 성경 공부 반이 로마서에 대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로마서 공부가 매주 진행될 때마다 강의에 동반되었던 주석 노트들은 매우 칼빈주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더 심각하게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내게는 전체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 선택을 믿었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강의 노트들에는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리는 나를 매우 큰 혼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노트들은 칼빈주의의 이런 주된 교리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런 가르침들로 인해 결국 BSF 지도자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택 교리 쪽으로 심하게 치우쳤지만 또한 믿음 이전에 중생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뭔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판이 있는 BSF 사역이 이런 분열을 초래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롬16:17).

우리의 지도자 그룹과 토의 그룹들은 칼빈의 교리, 다시 말해 ‘믿음에 앞서 다시 태어남, 즉 중생이 있다’는 교리가 소개되어 서로를 나누어 놓을 때까지 큰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가끔 뜨거운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나는 그런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어떤 성경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을 위해 저녁에 강의했던 성경 공부 지도자들 중 한 분에게 전화를 하면 이 논쟁에 대해 어떤 영적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심각하게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분이었으므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분이 무슨 합당한 답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에 앞서 중생이 있다’는 주제에 대해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절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분명히 이 구절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분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왕국을 인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그분의 이런 영적 해석이 제한 속죄를 포용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감을 알고 당시에 나는 재고의 여지없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습관적으로 해 오듯이 나는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왜 그것이 혼동과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 주제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탐구를 위해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근에 개점한 크리스천 서점으로 갔습니다. 유타주의 쏘트레이크시티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몰몬교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서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가게로 들어가 주인인 조지와 그의 형제를 만난 뒤 우리는 크리스천 소매 서적 장사를 시작하는 그들의 새로운 노력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아이콘들(종교적 상징물)을 보며 나는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 정교회를 다닌다고 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 정교회와 성경적 기독교 사이에 중요하게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의 책장 선반들이 당시 유명한 크리스천들의 책들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 정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때까지 더 이상 그들을 압박하며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미 칼빈주의로 딱 차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나는 다양한 개혁주의 학자들의 카세트테이프들이 숨겨진 작은 선반을 발견했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분명히 조지가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도록 내놓은 개인 수집품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내 차로 돌아와서 나는 가장 흥미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나는 내가 연루된 BSF 성경 공부반이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수용했는지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믿어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앞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왜 그리 그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면서 구원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라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카톨릭주의를 벗어난 종교 개혁으로부터 생성된 신학의 가르침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그것을 몰랐지만 BSF 이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5개 강령(포인트) 전체를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이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16세기 천주교에서 나온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의 신학은 초기 로마 카톨릭 신학자 어거스틴에 의해 대부분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인 TULIP의 다섯 가지 강령들이 어떻게 통합되었고 서로에게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칼빈이 구원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는 칼빈의 복음과 천주교를 개혁하려는 그의 사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의 다섯 요소, 즉 5대 강령을 발견함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TULIP을 세로로 놓고 각 단어를 풀어 보면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도들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 나오며 이 5대 강령은 사람의 타락이 전적으로 완벽하여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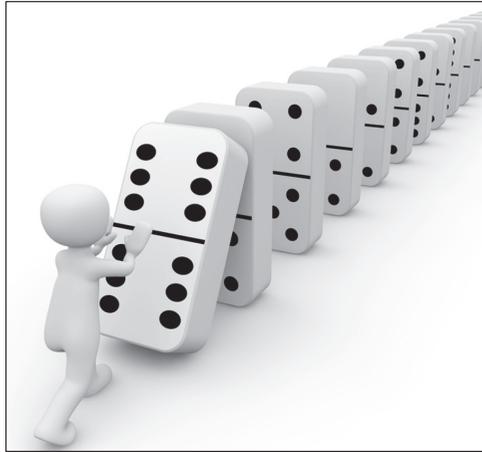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은 죄성이 있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거나 깊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며 - 이것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든 성경의 조건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않으므로 이 사실은 곧 분명하게 칼빈주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음을 증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받도록 미리 예정된 그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제한 속죄). 왜냐하면 그분께서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낭비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분의 피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선택받은 자들의 의지, 지식, 동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믿음에 앞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은혜는 그들이 믿은 뒤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과 순종 면에서 견딜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런 개념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속죄에 대한 나의 거부감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나의 지속적인 지지와 결합되어 나만의 독특한 칼빈주의 브랜드를 창출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편파적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믿음을 이 다섯 가지 요소들과 함께

합성해서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칼빈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뭉쳐서 함께 서든지, 아니면 함께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즉 다섯 가지 중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네 가지는 자동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칼빈과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카톨릭주의’³⁾가 설명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생각을 이 주장들과 함께 섞지 말고 그것들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가르침, 즉 위에서 TULIP으로 요약된 가르침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도미노 게임(연속으로 무너뜨리는 게임)과 같다. 그것들은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넘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가운데 한 요소 - 예를 들어 ‘전적 타락’ - 를 믿는 칼빈주의자라고 주장하고 또 그가 그 교리를 칼빈이 가르친 대로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나머지 네 가지 요소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⁴⁾



도미노 게임

이 모든 가르침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나는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중 하나인 샌드라는 장로교 학자인 제임스 케네디(D. James Kennedy)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칼빈주의로 개종했는데 우리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만나서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추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매주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해서도 자주 논의하였으며 성경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저자는 칼빈주의를 ‘개혁된 혹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카톨릭주의’(reformed catholicism)라고 생각한다.

4) <http://www.biblebelievers.net/Calvinism/kjcalvn1.htm>

우리는 성경이 사람의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 견해를 가르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부만 선택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지 않는 것도 추론해 보았는데 그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은 요한일서 2장 2절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한 속죄는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제한 속죄를 거부하였으므로 우리는 칼빈주의 진영에서 네 가지 요소(4대 강령)만을 믿는 네 포인트 칼빈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의미를 알려고 씨름했고, 그것을 복음이 제시될 때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은혜라고 보았지만 이 은혜가 믿음에 앞서 중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일단 구원받으면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 면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은혜가 순종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과 행위 면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인 TULIP을 통해 추론하게 된 결론입니다.

믿음의 딜레마

하나님의 선택과 개개인이 믿는 것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혼돈 속으로 넣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 이 둘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샌드라와 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이 생기도록 하실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매주 참석하는 세대주의 예언 연구 그룹에서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그룹은 세대주의의 기본적 교리들을 지지합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교회는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며 또 교회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성경에 약속된 미래의 천년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며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한 예언 전문가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가르쳤을 때 우리의 딜레마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물론, 바로 그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주의 퍼즐에 이 조각을 더하니 내가 쌓아 온 나의 강한 요새가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내 요새를 쌓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벽돌들은 오류와 진리가 혼합된 것들이었습니다. 거짓에 대해 조사할 때마다 그 거짓에 동반된 일부의 진리가 그것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즉 진리가 그런 거짓을 포장해 주는 절반의 진리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칼빈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었지만 오래전에 내가 처음 칼빈의 예정설을 접한 이후로 내 생각에는 구조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주권적 선택이라는 칼빈주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내게는 다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칼빈주의의 영향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그런 자만심 속에서 나는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르침을 평가하면서 나는 에베소서 2장 8-9절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시금 성경기록이 나를 위해 잘못 해석되었고 나는 계속해서 나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고전3:10).

반대를 꺾음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는 대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미소를 띠면서 그들을 정중히 무시하는 태도로 그들의 도전에 답을 하였습니다. 칼빈주의 교사들의 말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 선택’을 반대하는 어떤 말에도 즉각적으로 외워서 대답할 수 있는 레퍼토리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 구절들에 대해 칼빈주의 교사들이 말하는 것들에 조직적으로 중독이 되었는데 이 구절들은 대개 문맥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실제로 내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다수 말씀의 참된 의도 혹은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칼빈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완벽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네 포인트 칼빈주의를 대적하는 견해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라는 요새는 그 거짓 교리를 깊게 심어 주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므로 거의 난공불락의 교리였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딤후 2:24-26).

따라서 나는 성경기록들을 상세히 보여 주면서 구원을 다른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호소를 다 거부하였고 이와 관련된 성경의 모든 것을 나의 편협한 칼빈주의적 이해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대적하는 공격들을 기계적 반응들로 방어했는데 이것은 결국 나의 증독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함

나는 ‘무조건적 선택’과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면 그분은 모든 사건들을 전적으로 통제하셔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적 주권을 갖지 않은 분이 되고 맙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실제로 그것은 나를 통해 그분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책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개인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복음을 믿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믿음의 창시자이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자주권은 그 어떤 것이라도 칼빈주의적 사고에서는 육신의 죄였습니다. 나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수여된다고 믿었습니다. 스프로울은 다음 인용문에서 칼빈주의적 예정 교리를 잘 요약합니다.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 바로 그 핵심부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들이 단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속임수이고 이미 예정된 것들에 대한 헛된 놀음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본을 자세하게 써 놓으셨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시나리오 대본에 맞게 현 세상에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⁵⁾

슬프게도 이제 나는 당시에 내가 사람의 능력을 높이려는 모든 시도를 대적하여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의 능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을 대적하여 바쁘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다른 속성들 중 어느 것도 결코 위반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어렵게 배웠습니다. 나는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사랑과 또 다른 모든 속성들보다 과도하게 강조하고 과장하였습니다.

5) R. C. Sproul, 「Chosen by God」, p. 51.

복음 전도에 대한 엘리트 의식을 가짐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그때 '사랑'을 소모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모든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그들을 깊이 돌봐 줘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리하시지 않았나요? 그분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엘리트라는 미묘한 느낌이 내 생각 속에 슬며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더 높은 진리라 불리는 것들(칼빈주의 5대 강령 같은)과 성경의 진리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차별 의식과 편견이 슬며시 내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내게 수여되었으므로 나는 배우는 것이 느리고 어눌한 사람들에 대해 은연중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잘못된 동정심을 보이는 내 태도를 숨기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는 척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슷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교제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한 번 전해 내려온 믿음은 오직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주관적인 목적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만일 그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진정으로 믿었을까요? 그들은 거짓으로 회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런 열등한 믿음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을까요? 예정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그분은 모든 일,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의 불신으로 인해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칼빈주의로 빠져들던 이 당시 나의 생각은 콘트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성경기록의 증언과 학자들, 목사들,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들의 증언에 의해 나는 이런 가르침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정의 목적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기들을 의심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순이 발견되면 나는 '그분의 길들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는 칼빈주의자들의 진부한 표현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가끔씩 내 마음속에 생기면 나는 재차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기록들로 돌아갔지만 성경기록들은 그저 칼빈주의를 내게 다시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단지 칼빈주의를 재확증해 주었을 뿐이고 거기서 벗어나거나 잠시라도 반대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정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궁극적으로 사람들 [즉 구원의 기회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칼빈주의가 가르치고 있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자신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에 다다르지 못한 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의 추정에 따라] 그분을 거부하는 선택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들,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쨌든지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양심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경고라는 것을 당시에 나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칼빈주의 서클에 만연한 이 은밀한 엘리트주의는 슬며시 내 생각 속으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며시 작동하는 마음의 통제(심리학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세뇌 작용)는 처음에는 단순한 제안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 지식을 통해 이런 생각들을 내 안에 심었고 이런 가르침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통제하였습니다. 한 기준에서 보면 나는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기준에서 보면 일들이 바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생기는 혼동은 의문들을 가져왔지만 슬프게도 다른 칼빈주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들을 가장 먼저 내 안에 속임수를 심어 준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뒤돌아볼 때 그것은 더 많은 질문들을 생산하는 해답들을 가져다주는 질문들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이해할 때마다 나는 나의 신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중대한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배우는 모든 것과 새롭게 성경을 이해하게 된 모든 것은 항상 무조건적 선택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적 선택은 내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전에 형성된 내 생각의 구조와 맞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신학의 스프레드시트를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와 일치하도록 나의 모든 교리들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내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복합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한 구절이 더 완전하게 이해될 때 내 신학의 자료집 내의 다른 항목들이 조정되어서 내 신학의 전체 시스템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조정하신다는 견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모순이 되는 구절들은 내 시스템에 맞도록 재해석되었고 결국 이 신학 속에서 나는 끝도 없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것을 수정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새로운 조명 없이 논리와 이성적 해석의 높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이런 강해들과 설교들을 통해 칼빈주의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나는 이런 교사들이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saving faith)⁶⁾을 정의하는 데 집착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결국 모든 의문을 함축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결국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미리 정하신다면 그분께서 순종도 미리 정하지 않으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면 또한 선택받은 자들의 복종(혹은 순종)도 미리 계획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성가시고 진이 빠지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은 복종(순종)을 갖대로 사용함으로써 선택받은 자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인 선택을 옹호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어떤 종류의 믿음으로 믿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적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슬프게도 칼빈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수백 년 동안 모방해 온 선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는 ‘덧없이 사라지는 믿음’(evanescent faith), 즉 거짓 믿음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믿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 칼빈이 말하는 것을 다음 인용문에서 보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때로는 선택받은 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행13:48).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판단해 봐도 그 두 부류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고 한 것(히6:4-6)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잠정적 믿음’(temporary faith)이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것(눅8:13)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권능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더 잘 확신시키고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이 없어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선하심과 같은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입하신다. ...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fading faith)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점이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갈4:6; 롬8:15 참조)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란다. ...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화해의 호의를 베푸신다고 믿는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다. 이는 그들도 혼란 속에서 합당한 분별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정도의 조명의 빛을 주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확신은, 이 점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증언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버림받은 자들은

6) 칼빈주의자들은 꼭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학을 유지하려 한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만 나오지 ‘구원하는 믿음’ 혹은 ‘구원을 주는 믿음’(saving faith)이라는 말은 없다. 저자의 간증을 통해 곧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신조어이다.

결코 온전한 결과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화해의 호의를 보이실 때 이것은 결코 그분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잠시 동안 베푸는 긍휼’(present mercy)을 나타내실 뿐이다. 그분께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살아 있는 믿음의 뿌리를 심으시고 이로써 그들은 심지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마24:13). 그러므로 반대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보이신다면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잠시 동안 베푸는 은혜’(present grace)의 감정으로 조명의 빛을 주시지만 그것은 후에 ‘사라져 버리는’(evanescent) 빛으로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⁷⁾

참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TULIP의 마지막 요소인 ‘성도들의 견인’ 교리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순진하게도 나는 ‘성도들의 견인’이란 성도가 믿는 일에 인내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참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혹은 그것이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거짓 믿음인지를 검토하느라 심히 분주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일 선택받은 자들이 ‘위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은혜와 믿기도 전에 중생하는 은혜 둘 다를 받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삶에서 순종을 위해 필요한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견인’은 성도가 믿음 면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순종 면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야말로 한 사람이 위에서 주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혹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짓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제적 시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매사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 혹은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냅니다.

일단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 내가 깊이 생각하다 보니 칼빈주의로 빠져드는 일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질을 조사하면서 그들에게 향했던 손가락이 이윽고 내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동력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 믿음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나에게서도 참 믿음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위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것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erdmans Publishing Co., 1989,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3.2.11.

나는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내가 항상 참 믿음에 필요한 '매사에 순종(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해하기 쉬웠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묘하게도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내가 늘 순종하는 지 여부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침대에 누운 채 그날 내가 행한 일을 자세히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가? 나는 충분히 고백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고백했는가?

분명하게도 나는 완전하게 믿음으로 견고하지는 않았습니다(즉 거의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나의 구원에 행위를 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없었으므로 위로나 용서의 느낌 혹은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이나를 받아 주셨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 그것만이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확신을 내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불순종에 따른 정죄라는 두려움, 즉 나를 쇠약하게 하는 두려움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의 값을 다 지불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리 죄 짐에 눌러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칼빈주의가 범인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주의의 이런 유인 상술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과 늘 막판 싸움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의 마지막 요소는 궁극적으로 칼빈주의자가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선택을 입증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를 몰고 가는데 이것은 보통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드십 구원에 사로잡힘

내게 로드십 구원은 항상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Lord 혹은 Master)과 구원자로 따라야만 한다는 의무로서 설명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인과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 순종, 즉 노예로서 주인에게 항상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기준으로

8) ‘로드십 구원’은 로드십이라는 말의 의미 그대로 예수님이 성도의 주인이시고 성도는 주인의 뜻에 100% 복종해야 하는 노예이므로 성도의 삶에서 주님의 뜻에 거의 완벽하게 맞는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그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성도를 ‘종’(servant)이라 부르지 않고 ‘노예’(slave)로 불러야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칼빈주의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도 꼭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며 성경을 번역할 때도 ‘종’이 아니라 ‘노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드십 구원’을 외치는 대표적인 분이 존 맥아더 목사이다(6장을 참조하기 바람).

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만일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없으면 그는 틀림없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리의 혼돈 속에서 참 성도가 어떤 죄라도 짓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드십 구원은 그것의 추종자들에게서 용서와 소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죽은 율법주의’를 설립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은 아니라는 것을 그 추종자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로드십 구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유의 길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잘못 해석된 구절들에 의해 이미 다 막혀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다시 칼빈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내가 테이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참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은 사람들도 항상 그 교리에 맞게 처신하거나 교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내려는 이 막중한 시도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심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아내는 일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충분히 믿었지만 내 믿음이 칼빈이 가르친 것과 같은 가짜 믿음이었는지 혹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진짜 믿음이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나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고민들은 내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두려움들을 물리치기 위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속임수의 계략은 내 앞에 답들을 제시하고는 동시에 내가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속임수의 계략은 마치 자기가 사로잡은 포로가 도망치리라는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은 채 대중 앞에서 그를 자유로이 행진하게 하는 포획자와 같았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에 사로잡힌 죄수로서 나는 성경기록들로 돌아가서 자유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칼빈주의적 설명들로 인해 성경기록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해석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기록들은 나에게 더 많은 두려움을 심어 줄 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었다고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믿음으로 내가 믿었습니까? 회개를 지속하면서 내가 열매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성경기록들에 대한 칼빈주의의 합리성에 대해 내가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성경 말씀은 내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부드러운, 친절 등을 내게 전해 주지 않았고 오직 칼빈주의의 신이 가져다주는 혹독함과 매서움 등만 전해 주었습니다, 급기야 성경기록들은 칼빈주의라는 전통을 위해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내게 잘못 설명된 성경 말씀들, 바로 그것들이 나를 옥죄는 감옥의 창살이었습니니다. 나는 칼빈주의라는 견해를 통해 인간의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칼빈에 의해 공식화된 기독교식 숙명론을 배웠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것은 피상적 믿음일 수 있으므로 구원받으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사람들과 그들의 학자적 성경 해석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 나는 그들이 성경 강해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가면을 쓰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사적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빈주의가 모든 것의 핵심 문제였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나는 방향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내가 청취하던 오디오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은 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 부분을 지킬 것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는 율법이 믿는 성도의 삶을 위한 인생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때 보여 주신 의(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라고 부름)가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고 내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설명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 측면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이고 다른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실 때 보여 주신 의,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는 의였습니다(다시 말해 그들은 이 두 개의 의가 있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함). 이런 가르침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새 본성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유일한 본성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의 내부에 있는 죄의 본성 혹은 육신의 본성은 완전히 죽어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것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혹은 본인들이 성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선택받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판단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해 염려할 때마다 자기가 칼빈주의식으로 제대로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런 믿음 체제 안에서 칼빈주의로 한참 동안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은 순종에 의해 증명되지만, 믿음에 의한 구원은 확신을 얻기 위해, 죄들의 용서를 얻기 위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예정론 교리는 그것의 지지자들 위에 균립하는 잔인한 감독자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단순한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풍성히 줍니다. 칼빈주의 선택 교리란, 전면에서는 좋게 보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후반에서는 사람을 정죄하는 심문자로 돌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 구원을 뜻하는 ‘성도들의 견인’ 교리의 최종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견인’은 실제로 믿음 면에서의 인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순종과 행위 면에서의 인내와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영향 아래에 있던 나의 마지막 몇 년은 내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잠 못 이루고 비평적이고 자기혐오와 절망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끔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확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바랄 때 깊은 절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 나는 나의 객관성을 잃었나? 내가 본 모든 것이 실패로 드러날 때 그들은 내 안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정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망가진 음반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계속 물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 구원의 확신의 자유를 만끽하던 때, 즉 근심이 하나도 없던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프로그램 속에 갇혔기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언제 믿을지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도 이제는 긴박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강하게 촉구했지만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면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 뒤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알맞게도 그토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던 시기에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거부한 바로 그곳에서 나 자신을 고립 상태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라는 나의 우상이 동일한 믿음과 간증을 가진 자들과만 교제해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나눌 때 통과해야 할 기준은 대다수 사람들이 맞추기 어려운 칼빈주의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나와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다 믿는 칼빈주의자들과의 교제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죄를 제외한 나머지 네 요소만을 믿는 자들을 만나는 것은 심히 어려웠습니다. 칼빈주의 선택의 교리가 율법주의를 통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잡았고 그것이 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주의에서 구출을 받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 칼빈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기대하지도 않은 소포 박스처럼

내게 배달되었습니다. 쏘트레이크시티에서 내가 처음에 속했던 교회가 담임 목사 후보로 최근에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세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위적 교회 성장 방법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여러 성도들은 흥분이 되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 자들과의 이 교제에 연합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격려가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모임에는 칼빈주의 4대 강령 신봉자들도 있었으므로 그들과 다시 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술문을 제출하였고 내 절친한 친구는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내게 복사본을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다시 연합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녀는 내 소파에 앉은 채 내가 흥분해서 그의 진술문의 앞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⁹⁾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내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와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지 않는가?”

불행히도 지난 몇 년 동안 성경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에 남게 된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를 믿지 않았고 따라서 칼빈주의를 신봉하며 개혁주의 신학을 인정하는 이런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의 옛 친구들이 이 후보자의 교리적 견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알고 할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종말론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칼빈주의는 우리를 나누는 사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칼빈주의에 대해 내게 도전했던 한 친구도 이제는 그 목사 후보의 교리적 입장에 대해 내 의견을 구했고 또한 자기가 새롭게 채택한 관점들을 가진 ‘논쟁이 되고 있는 책’에 대해서도 나의 의견을 구하면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Free grace)라는 교리적 견해에 대해 내게 상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낯선 교리로 보였으므로 나는 그것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교리는 수정된 칼빈주의와 세대주의를 특이하게 섞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한하게도 나는 이 책의 논쟁이 되는 가르침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발견했고 그것은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칼빈주의 믿음의 견해에 대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나는 칼빈주의의 언어로 표현된 믿음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훨씬 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선물은 선택받은 자들이 믿기 전에 그들 안에 놓이며 그것이 활동하기 전에 아마도 몇 년 동안 동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택받은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위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발동하여 그는 믿게 됩니다.

9)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환난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7년 환난기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달리 성도들이 7년 환난기를 통과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즉 환난 통과설)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개 장로교회나 개혁 교회 안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주장하지만 장로교회나 개혁 교회의 주류 사상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이다.

그런데 나의 칼빈주의적 해석은 선택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혹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순식간에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위에서 거저 주어지는 믿음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즉 중생을 포함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이 스스로 믿기도 전에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칼빈주의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진짜 칼빈주의가 아니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4대 강령만 믿는 칼빈주의와 5대 강령을 모두 믿는 칼빈주의 사이에 엄청난 심연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모든 칼빈주의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믿음’(belief)이지만 ‘믿음’(faith) 특히 ‘구원을 주는 믿음’(saving faith)에 대해서는 그들이 심히 큰 편차를 가지고 서로 달리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토요일에 나는 칼빈주의의 새로운 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 샌드라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견해에서 ‘믿음’이란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들 안에 놓인 채 동면 상태에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접하는 순간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샌드라도 이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에베소서 2장을 펴고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8).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 7, 8절과 4장 7절에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읽고 나니 갑자기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 하면서,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에베소서 2장 8-9절은 ‘가장 가까운 순행사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믿음이 선물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더 조사를 했습니다.

칼빈주의의 요새를 부수어 버림

나는 이런 사안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좋은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¹⁰⁾ 그때까지

나는 칼빈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위에서 믿음이 거저 주어진다’는 칼빈주의의 확고한 지지 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지려 하기에 나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논쟁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성경적인 것은 다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내 앞에 펼쳐 놓고 손에 하이라이트 마커를 가진 채 마크해 가는 순간 내 삶에서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칼빈주의가 옳지 않다는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기록된 한 기사는 에베소서 2장 8-9절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보여 주면서 그중 한 가지만이 논리적으로 바르고 그리스어 문법과 해석에 딱 맞는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즉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주장에서 그들이 쉽게 간과한 것은 그리스어 단어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여성 명사이고 ‘그것’은 중성 명사입니다.¹¹⁾

‘믿음’이 선물이라는 가면을 벗겨 준 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샌드라와 나는 이런 발견이 주는 의미로 인해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었고 ‘구원’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믿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타락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 즉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결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타락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눈에서 큰 비늘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칼빈주의는 종으로 지은 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도미노 현상처럼 칼빈주의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리를 조명하는 빛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짓을 폭로하였습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10) 이것은 이 책의 5장 ‘개혁주의 신학의 위험들’의 출처인 미들타운성경교회 웹사이트이다.

11) 영어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다.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여기의 that과 it이 무엇이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칼빈주의자들은 that과 it이 바로 앞에 나오는 믿음(faith)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어 품사를 보면 ‘믿음’은 단수 여성 명사이고 ‘그것’은 단수 중성 명사이므로 ‘믿음’이 선물이 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또 문맥상 에베소서와 성경 전체의 요지는 여기의 that과 it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뜻한다.

구원을 예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한 나의 세계관 역시 무너져 내렸고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의 올바른 세계관, 즉 의롭게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책임과 특권을 주는 세계관이 내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하나님이나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혹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정말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 그 사악한 존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주입하려 했음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큰 속임수에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두려움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놀란 상태로 앉아 있다가 내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철저하게 속아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에 속아 왔습니다. 나는 학자들과 유명한 목자들이 성경이 진실로 말하는 바를 내게 가르쳐 주리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가르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기꾼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한 사람들을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역겨운 느낌이 나를 감쌌습니다. “내가 따르긴 따랐지?”

즉시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심각하게 오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선택하신다는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확신시키는 간사한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한 굴욕감이 내게 몰려 왔습니다. 이 악은 칼빈이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의하게 죄인들을 정죄하고 속이고자 하는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고 한 것(히6:4-6)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잠정적 믿음’(temporary faith)이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것(눅8:13)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권능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더 잘 확신시키고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이 없이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선하심과 같은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입하신다.¹²⁾

칼빈주의가 우상 숭배이며 거짓들로 구성된 대규모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며칠 동안 이 모든 것이 안정을 찾도록 내버려 둔 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길로 빠져들었는지 나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나는 믿을 수 없게도, 나를 가르친 오디오 교사들에게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선택에

1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erdmans Publishing Co., 1989,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3.2.11.

대해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택의 교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기록에서 선택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듣고자 했던 특정한 테이프는 다시 한 번 칼빈주의의 최고봉 구절인 예레미야 1장 5절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배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이 구절은 내가 전에 알았던 선택의 교리로 나를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생각은 “선택이 맞아? 그럴 리는 없는데!”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도와주십시오, ‘무조건적 선택’이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추스르고 성경을 가지고 앉아서 나는 이 구절에 나오는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를 만들었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후에 그는 유다 왕국의 대언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을 때 그것은 예레미야가 믿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미리 아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칼빈주의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심(예지)이 예정(미리 운명을 정함)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때 나는 다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 해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할 좋은 일들을 미리 쉽게 예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그분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예레미야를 쓰실 것을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대언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칼빈주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속임수의 끌어당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음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인해 큰 굴욕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나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믿음 시스템을 배격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무리 사과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함

이렇게 내가 칼빈주의에서 빠져나온 것은 내 옛 친구들이 담임 목사 후보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전화를 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의 종말론 신학에만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의 종말론 신학과 칼빈주의 두 가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내가 개혁신학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를 연구한 뒤에 그 후보자의 교리 체계를 살펴보니 그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것은 매우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던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던 성도들은 이 엄격한 칼빈주의자를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기에 나는 이런 지도자 밑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연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칼빈주의가 남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 혼동했으므로 그들은 내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칼빈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모아 두었던 그 카드 파일 속에 있는 바로 그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극심하게 잘못 이해했던 것에 대해 심히 당황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침묵을 지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공훈 가운데서 내가 그 친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돕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내게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내게 전화했을 때 내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도움을 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구절들을 내게 가져오면서 “이것이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지, 맞지?”라고 말하며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은유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은 “실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 혹은 “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 즉 사람의 자유 의지의 선택도 지키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도 지키는 방법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수년 동안 중독되었던 그 나쁜 가르침들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온화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 친구들은 자기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도 주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큰 공훈 속에서 - 사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 내가 바르게 이해하도록 부드럽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칼빈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을 걸로 잘 드러내어 보여 주는 나의 굴욕감과 수치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채 나를 위로하시며 내 발들을 단단한 바닥 위에 세우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개혁된 카톨릭주의’ 신학의 감옥에 내가 갇히도록 선고를 내린 그 교사들의 이빨에서 나를 잡아채셨는데 그 교사들은 나를 칼빈주의라는 신학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기꾼에게 정훈시키려 하였습니다. 주님의 구출은 누가복음 4장 18-19절에 있는 위로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의 올무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지 거의 5년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요새가 깨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칼빈주의와 개혁신학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나 자신을 교육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무조건적 선택이 칼빈주의를 통해 개혁신학 체계 속으로 사람들을 입문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빈주의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신학의 복음과 기초가 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세 가지 주요 언약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언약 신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언약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여섯 가지 언약에 이것들을 첨가하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1. 구속의 언약: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는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나머지는 지옥에 가게 하시는지를 설명한다.
2. 행위의 언약: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대가로 구원을 약속하시는지 설명한다.
3. 은혜의 언약: 사람이 순종할 수 없기에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능동적으로 그분의 삶 속에 있는 순종을 제공하시고 수동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한 순종을 제공하시는지 설명한다.

세 번째 언약, 즉 은혜의 언약의 결과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둘 다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둘 다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 이 한 가지 행동이 모든 자들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한 속죄를 제공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칼빈주의자들이 자의로 추정하여 만든 이런 언약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이 두 가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칼빈주의 교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의 부가적 언약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개혁신학이 칼빈주의의 선택과 영원한 정죄(한 부류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부류를 선택하지 않는 것) 교리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과 대환난이 주후 70년에 이미 일어났고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오류의 신학 사상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왜곡합니다.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가 가짜라면 이렇게 복잡한 신학은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16세기 카톨릭주의를 개혁하려는 종교 개혁에서부터 현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주의로

개종하기 전에 자기가 속했던 마니교도 집단으로부터 선택과 예정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이런 선택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예정의 개념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계몽주의, 엘리트주의, 숙명론 등의 아주 오래된 개념들 속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기독교를 신플라톤주의의 숙명론 철학과 결합한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많은 오류들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왜곡된 교리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안에서는 카톨릭주의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재정의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내의 많은 교파들은 모교회인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일부분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로드십 구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인한 절망감은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절망감을 가져다줍니다.

감사하게도 주 예수님께서 나를 칼빈주의의 참 모습에서 구출하셨고 나에게 그것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밤에 잠도 잘 자고 더 이상 정죄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을 통해 나의 죄의식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그분의 말씀의 순수한 진리는 내게 큰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죄를 짓거나 속임수에 넘어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활을 더 많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겪은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베푸시는 깊은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잃어매었던 속임수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실 때 그분께서 보여 주신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는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칼빈주의의 영적 속임수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들이 믿는 것을 그들이 위배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듯이, 나는 이런 능수능란하고 지적인 이단 교리를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도우려 합니다. 그런 교리는 16세기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나온 종교 개혁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도서 1장 9절이 말해 주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오류입니다.

이미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것이 전혀 없도다.

본서의 뒤에는 7장의 저자가 만든 <성경과 칼빈주의 비교>, <성경적 구원 선도>, <칼빈주의 구원 선도>, <칼빈주의 5대 강령 비교> 컬러 선도가 들어 있다.

제 8 장

Chapter 8

칼빈주의자의 정직한 의심

A Calvinist's Honest Doubt

이번 장에서 우리는 버트와 제니라고 하는 가공의 부부를 통해 칼빈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고민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¹⁾ 그들은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버트는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사제가 된 두 명의 동생과 수녀가 된 여동생이 있었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그것과 자신이 평생 알고 있었던 카톨릭 교리 사이에 명백하게 다른 모순들을 해결해 보고자 그는 6주 정도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카톨릭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때부터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인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한편 제니는 전형적 뉴에이지 신봉자(New Ager)로서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에 개방적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성경적 기독교 사상만큼은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이유로 몹시 싫어했습니다. 버트가 회심한 지 6개월쯤 지나서 제니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는 영광스럽게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한 8년 동안 버트는 크리스천 신앙 안에서 행복했으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여 그중 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과 자신의 구원의 기초 면에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에 의해(요16:7-11)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버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한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행16:30-31)라고 권했던 것처럼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변했고 이 사실은 그가 교회에서나 혹은 개인적 교제를 통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할 때 공개적으로

1) 이 글은 칼빈주의 비평서 중 최고의 작품으로 알려진 헌트(Dave Hunt)의 책 「대체 이게 무슨 사랑인가?」(What love is this?)의 30-31장을 번역한 것이다. 헌트의 책은 아마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나누었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버트에게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와 제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성경 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가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전형적 형태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트와 제니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칼빈주의자의 정직한 의심들

버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와 제니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매일 헌신하는 삶을 살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이들도 아주 활동적인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천주교를 믿는 다른 가족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려는 버트의 시도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가족들의 모임을 무겁게 만드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해물이 그들의 삶에 끼어들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버트가 참석하고 있던 형제들의 성경 모임에 칼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활발하게 토론이 이어지면서 그는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사의 설교에서도 칼빈주의의 교리가 조금씩 더 강하고 더 빈번하게 안으로 파고들어 왔습니다. 목사는 드러내 놓고 모든 교인들이 칼빈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많은 가족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때려시켰던 ‘체대로 된 성경 해석’을 더 이상 자기들의 목사에게서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대신에 목사는 아무 때나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 균형도 없이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물론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제시해 줄 뿐이었지만 그 내용은 과거에 그의 설교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80권 이상의 기독교 서적을 저술한 맥도날드(William MacDonald)가 말한 것이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혹독하게 주입하는 것이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의 관행이다. 그들의 경우 칼빈주의라는 이 ‘신학적 틀’, 즉 ‘신학적 시스템’이 그들의 대화, 설교, 공적 기도, 사역에서 주요 강조점이 되었고 다른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들의 시스템 자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몇 특정 구절들에서 그들이 유추해 낸 것이다.²⁾

2) William MacDonald to Dave Hunt (marginal note in review copy). On file.

버트는 목사의 새로운 통찰력과 사고에 휩쓸려 갔습니다. 사실 그 목사는 버트를 그리스도계로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버트는 성경의 진리를 더 깊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미리 예정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 등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는 이러한 가르침이 자신의 양심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버트가 행복해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에 속으로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곧치 아픈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다

목사는 버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맥아더(John MacArthur), 파이프(John Piper), 스프로울(R. C. Sproul) 등이 지은 여러 권의 책과 테이프를 빌려주었습니다. 버트는 칼빈주의에 대한 스프로울의 라디오 설교를 매일 청취하고 「제네바 스터디 성경」이라는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성경책의 주석들은 그에게 칼빈주의가 개혁주의 신앙이며 참 복음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점점 새로운 ‘진리’가 마음에 더 와닿게 되자 버트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논리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교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버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빠져 들게 되었고 밀른(Bruce Milne)의 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밀른은 그 책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들의 확정적 원인이다... 심지어 그 뜻은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도 확정적 원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³⁾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는 이러한 말이 그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최고의 저자는 핑크(A. W. Pink)였으며 곧 버트는 친구들의 추천으로 핑크가 지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구매하여 거기에 빠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으며 심지어 ‘가룟 유다가 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영원부터 작정하셨다’⁴⁾고 생각하는 것이 버트를 괴롭혔습니다. 핑크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중 어떤 것에서 발견되는 ‘죄로 가득한 속성들’을 만들어 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며 죄를 승인하시는 분도 아니다.”⁵⁾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트는 오랫동안 그 사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

3) Bruce Milne, 「Know the Truth」(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n. d.), p. 66.

4) Arthur W. Pink, 「The Sovereignty of God」(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4th ed., 2nd prt. 1986), p. 155.

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의 확정적 원인이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시고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르침 앞에서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어떤 것들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변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버트가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의지라는 문제는 점점 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그 주제에 대한 많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핑크는 자유 의지(free will)라는 개념을 반대했는데 이 개념은 그가 지속적으로 비난해 오던 것이었습니다.⁶⁾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 - 예를 들면 칼빈주의 교리 - 에 대한 연구를 권하기 위해 그는 “뜻(의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사실이다.”⁷⁾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의지(뜻)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통해 그들이 의지적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도록 만드셔야 했다면 왜 그들의 의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버트를 순간적으로 괴롭히긴 했지만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개혁주의와 그것이 창출해 낸 신조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탐색한다는 즐거움으로 인해 곧 잊혔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다

자신의 새로운 믿음을 제니와 함께 나누고 그녀를 이 고무적인 배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버트는 TULIP이라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버트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안전 보장’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버트는 자신의 회심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그 일, 즉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살려 놓으신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기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믿으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당연히 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이 점에서 매우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다시 태어나는 것(중생 혹은 구원)은 그가 전혀 알지

5) 동일 문서, p. 156.

6) 동일 문서, p. 1.

7) Pink, foreword to 1st ed. 1918, 「Sovereignty」

못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슬며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났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제안이라면(한때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칼빈주의에 매료된 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믿는 것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가 실제로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구원이 그들에게로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의 유일한 확신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데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선택받은 자였을까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으키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요한일서 5장 10-13절 말씀,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가 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 구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도록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칼빈주의 구원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사도 요한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썼으며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의 한 명이 아니라면 자신이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사람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며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버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목사에게 갔지만牧사는 요한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버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버트는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문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 온다고 말하고 있으며 믿으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 따르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태어난 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중생’이였는가?

버트가 형제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하자 칼빈주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짧지만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칼빈주의 저자들의 책들을 연구하고 자신들이 모두 매일 읽는 「제네바 스터디 성경」을 중심으로 그

안의 주석들을 탐독했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 즉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은 칼빈주의 권위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를 본 사항이었습니다. 저녁 모임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은 버트가 아르미니우스주의 성향이 있다고 비난했지만(본인은 물론 이것을 부인함) 불확실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트는 자신의 의심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쓴 마귀의 공격이 될 수 있을까요? 버트가 그곳을 찾아 다음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엡6:16)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니?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

며칠 후에 토론 그룹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만장일치 의견이 없었습니다. 버트는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인간 편에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며 물론 우리가 다시 태어난 뒤에 믿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버트가 물었습니다. “왜 맨 처음 믿음에는 의지가 없는데 나중 믿음에는 의지가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믿음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믿어야 하는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장시간의 토론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점이 없이 끝났고 그에게 아르미니우스주의 성향이 있다는 등의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버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속임수의 희생자?

버트의 관심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칼빈주의 계통의 저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버트의 구원에 대해 혼란과 의심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이트(James White)와 같은 학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 죽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을 그 복음에 복종시킬 수 없을 뿐이다.⁸⁾

이러한 글을 읽는 것이 실제로 버트를 괴롭게 했습니다. 만일 영적으로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혼으로 있는 동안 그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는 것, 즉 순전히 인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버트는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즉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였을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결실이 많은 듯했지만 지금 버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심을 확신할 수도 없었고 또한 자신의 회개와 또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순전히 인간적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는데도 그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 감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억이 전혀 없으며, 자신이 항상 회심이라고 언급해 왔던 것이 존재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먼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영향

버트는 만일 자신이 구원받도록 선택받았다면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며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졌던 ‘믿음’과 완전히 별개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구원받은 뒤에(중생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했기 때문에 버트 편에서는 의지적으로 믿는 것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트의 경우 이것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기가 생각하던 것을 되돌아볼 때 그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써 복음에 반응했다는 것이어서 그의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저녁)을 기억했습니다(혹은 칼빈주의 식으로 말하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목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즉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할 때 그것은 마치 한줄기 빛이 지나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행하던 천주교회의 각종 성례전, 고해 성사, 고행과 마리아에 대한 기도, 메달과 성의 착용 같은 것들이 갑자기 모두 다 소용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그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었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았으며 8년의 행복한 기간 동안 자신의 구원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버트는 사람들이 단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8) James R. White, 『The Potter's Freedom』(Amityville, NY: Calvary Press Publishing, 2000), pp. 100-101.

권능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거짓말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와 관계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든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진실한 제안이었다고 상상했으니 그는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 당시 그가 그렇게 상상한 것은 얼마나 주제넘은 일이었던가요? 바로 이것은 그가 비칼빈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비극적 결과였으며 이제 그는 그 대가를 툭툭히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령님의 확신 속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제안이었다는 착각 속에 지내던 시절에 자기를 통해 자기의 이런 잘못된 견해를 전달받았던 사람들도 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사는 버트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이 좋은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의심들은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벧후1:10)는 베드로의 권면에 그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즉 베드로가 말하는 선택받은 것”을 과연 확고히 할 수 있을까?” 버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버트, 나는 당신의 행위를 꾸준히 보아 왔어요.”라고 목사는 늘 반복되는 말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요? 그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상이 아닌가요?” 버트는 절망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인도될 필요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들 편에서 무엇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아도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내가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어쨌든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선택받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받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버트는 진지하게 대답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목사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버트는 자신의 시계를

쳐다보면서 양해를 구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제한 속죄’가 그를 더 절망하게 하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세 번째 강령인 제한 속죄는 버트가 한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단순한 믿음을 더 심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자신의 죄들로 인한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속임수에 속았는지요!

그런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제한 속죄 교리가 버트에게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 교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의 피의 일부는 낭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이미 다수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피는 그들을 위해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버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어떻게 자기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자신의 교만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버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이었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증거를 찾으리라는 희망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트는 그동안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죄들로 인한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버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를 생각하니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버트는 자기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한때는 그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끈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전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버트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타락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때문에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도'나 '영혼 구원'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한 망상입니다. 그가 구원받을지, 영원히 버림받을지는 영원 전에 하나님에 의해 모두 정해졌으며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파이프(John Piper)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큰 위로와 기쁨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기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 적어도 선택받은 자들만 천국으로 미리 예정된다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 - 버트에게 절망만 가져다주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 마지막 강타

칼빈주의의 네 번째 강령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한때 그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처음에는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를 몹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회심'을 뒤돌아볼 때 버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회심'을 돌아보며 자기가 죄 속에서 즐겁게 살면서 몇 년을 보낼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재어 보며 고민하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늦추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의사는 그가 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에게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모닝콜'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버트는, 지금은 자기의 담임 목사가 된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버트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이 모두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망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그는 복음이 참된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였고 자신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셔야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이성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즉 자기가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어떤 표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는 믿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망 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회심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자기가 다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지금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에게 도움을 청하다

그렇게 도전적이고 지적으로 매력적인 책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읽었다는 것이 버트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를 칼빈주의로 이끈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선택에 대해 말할 때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거스틴에 의해 발견되어 칼빈에게로 이어져 온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동지애 같은 고양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위로를 얻기 위해 칼빈의 책 「기독교 강요」로 돌아와서 그 책이 자신의 의심을 가라앉혀 줄 뭔가를 줄 것이라고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문들에 대한 칼빈의 대답, 즉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잠시 동안 존재하는 은혜의 감정으로 빛을 주시지만 그것은 후에 사라져 버리는(efanescent) 빛으로 드러나고 만다.”⁹⁾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 거의 사악한 수준의 속임수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버트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속이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왜 자신이 전에는 칼빈의 그러한 말에 주목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상 역시 사탄의 또 다른 미혹일 뿐입니다).

칼빈이 하나님 뜻으로 돌리는 속임수는 버트에게 거의 마귀의 말처럼 들렸으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에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해 아주 적은 양의 지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흠뻑 적실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버림받은 자들 안에서 반짝이는 그 빛은 나중에 꺼져 버린다.¹⁰⁾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W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ed.), 3.2.11.

10) 동일 문서, 3.2.12.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불법들과 죄들로 죽은 도덕적 시체들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며 복음에 대해 ‘약간의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지식의 빛은 희미하게 가물거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꺼져서 그들이 구원받을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빛입니다! 이 말은 사실 마귀에게서 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트의 체험과 맞물리며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가 한때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버트는 절망적으로 성경을 탐구했으나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구절을 찾지 못하였고, 특히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벌(유기)에 처하기로 예정하셨던 자들에게 거저된 빛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절도 찾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복음의 빛에 눈멀게 하는 자는 사탄이 아닙니까? 버트는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핑크(Pink)의 「하나님의 주권」, 화이트(White)의 「토기장이의 자유」, 파이프(Piper)의 「하나님의 칭의」와 다른 칼빈주의 저자들의 책들을 찾아보았으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이 중요한 구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 구절을 피했을까요?

마침내 그는 슈레이너(Schreiner)가 이것을 자세하게 다룬 책을 찾아냈습니다. 버트는 흥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 빛의 조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구원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¹⁾ 그러나 계속 읽다 보니 기쁨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슈레이너는 요한 웨슬리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헐뜯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¹²⁾ 그의 말은 확실히 칼빈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버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영벌(유기)에 처하도록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분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 중 여러 사람을 속이셔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상상하도록 만드신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버트는 그러한 교리를 지지하는 어떤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으며 칼빈이 자기가 말한 것을 지지해 줄 어떤 성경적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버트는 이제 가학적 추론처럼 보이는 칼빈의 다음 글을 읽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때로는

11) Thomas R. Schreiner, “Does Scripture Teach Prevenient Grace in the Wesleyan Sense”, in 『Still Sovereign』, p. 237.

12) 동일 문서, p. 240.

선택받은 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행 13:48).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판단해 봐도 그 두 부류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선물을 맞본다고 한 것(히6:4-6)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잠정적 믿음’(temporary faith)이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것(눅8:13)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권능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더 잘 확신시키고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 없이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선하심과 같은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입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fading faith)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점이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갈4:6; 롬8:15 참조)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란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화해의 호의를 베푸심을 믿는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다. 이는 그들도 혼란 속에서 합당한 분별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정도의 조명의 빛을 주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확신은, 이 점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증언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버림받은 자들은 결코 온전한 결구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화해의 호의를 보이실 때 이것은 결코 그분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잠시 동안 베푸는 긍휼’(present mercy)을 나타내실 뿐이다. 그분께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살아 있는 믿음의 뿌리를 심으시고 이로써 그들은 심지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마24:13). 그러므로 반대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보이신다면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잠시 동안 베푸는 은혜’(present grace)의 감정으로 조명의 빛을 주시지만 그것은 후에 ‘사라져 버리는’(evanescent) 빛으로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¹³⁾

이분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칼빈이 말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베푸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혼들에게 이 세상 삶에서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시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의 궁극적 결말이 파멸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긍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예정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은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버트는 자신이 무신론적 사상과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반역을 억누르느라 애를 썼습니다.

루터 또한 「의지의 속박」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가학적인 ‘하나님’, 즉 자신이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셔서 그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13) Calvin, 「Institutes」, 3.2.11-12.

수 없는데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¹⁴⁾ 진짜로 선택을 받았지만 고의로 구원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시도한 자들을 조롱하는 것과 칼빈과 루터의 하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 그들을 영벌(유기)에 처할 운명에 속한 자들로 조롱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버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속임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칼빈과 루터가 자신의 멘토로 삼았을 뿐 아니라 현대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위인으로 치켜세우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뛰어난 '성인'인 어거스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버트는 자신이 읽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개혁은 본질적으로 어거스틴 사상의 부활이며 그것을 통해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¹⁵⁾

버트는 구원받기 전에 카톨릭 신자였으므로 어거스틴이 칼빈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창시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리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찾다가 버트는 칼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즉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확신의 근거인데 그 확신은 선택받은 자들만 소유하는 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¹⁶⁾ 버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도록 예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천국에 이르도록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버트는 눈이 멀어서 완전히 타락해서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버트 자신이 칼빈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버트가 어떤 희망도 없이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가 얻은 유일한 위로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진실로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시거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견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¹⁷⁾

14)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the Will」, trans. J. I. Packer and O. R. Johnston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57, 11th prt. 1999), p. 153.

15) Lo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32), p. 367.

16) Calvin, 「Institutes」, 3.21.1.

17)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ondon: n. p.1643), XVIII: iv.

이 말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지만 버트는 참된 신자들에게도 성경이 단순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확신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친구가 자신의 의문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책 한 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보트너(Loraine Boettner)의 「개혁주의 예정론」이었습니다. 책의 뒤표지에는 ‘이것은 예정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된 것 중 가장 철저하고도 확실한 설명 중 하나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¹⁸⁾ 버트는 아주 큰 희망을 품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그를 더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의 한 장, 즉 역사 속에 나타난 칼빈주의를 다루는 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게 될 것이다.”¹⁹⁾라는 <크리스챤티티 투데이> 잡지에 나온 추천사 때문에 그는 그 장을 맨 처음 읽었습니다.

보트너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정에 대한 칼빈주의의 견해를 거부하였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는 어거스틴에 의해 처음 분명하게 드러났다.”²⁰⁾고 인정한 것을 보고 버트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주의의 교리와 실행의 근간의 대부분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을 버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한 신문 사설은 교황과 로마 카톨릭교회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성인’을 [카톨릭] 교회의 박사’로 추앙하는 일종의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칼빈주의 교리를 발견할 때까지 수 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것과는 정반대의 교리를 믿었다면 어떻게 칼빈주의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카톨릭 신자로 지낸 지 거의 25년 동안 버트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카톨릭교회와 거기서 베푸는 각종 성례전(일곱 성사)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행위, 의식, 메달, 수사들의 옷과 ‘성인들의 통공’²¹⁾을 신뢰하는 카톨릭 체제하에서 그는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망으로

18) Boettner, 「Reformed」, Back cover.

19) 동일 문서.

20) Boettner, 「Reformed」, p. 365.

21) ‘성인들의 통공’(communion of the saint)은 지상에서 순례하는 우리들과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한 가지 표현 방식이다. 성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자신들의 생활로써 보여 주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훌륭한 벗들이다. 또한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향해 순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신비로운 방법으로 대신 간구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에 성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많은 무명의 모든 성인들까지도 기억하고 공경한다. 교회는 <모든 성인 통공>에 대한 믿음에서 <위령 성월(11월)>과 모든 <성인대축일(11월 1일)>을 기념한다(두산백과). 한마디로 이것은 여분의 공로가 있는 ‘죽은 성인들’이 공로가 부족한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간구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다.

인해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개신교 이단 교리라고 배웠던 것을 한번 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개신교로 발을 들여놓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절망 속에서 그는 비록 로마 카톨릭주의가 칼빈주의가 주는 확신보다 덜한 확신을 준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주의로 되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트가 이전에 다녔던 천주교회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에서 그러한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으므로 결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안다고 말함으로써 예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트렌트 공회가 파문을 내렸던 것을 어렵듯이 기억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버트는 오코너(John O'Connor, 1920-2000) 주교(후에 추기경이 됨)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최종 종착지를 알지 못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을 알지 못하며 캄캄의 성녀 마더 테레사도 알지 못한다[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²²⁾

버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특별 계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혹은 칼빈주의자로서 자기가 끝까지 견인되어 천국에 이르도록 예정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고후13:5). 버트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통해 자기가 그 믿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검증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빌2:12-13).

그러나 버트가 읽은 책의 저자인 한 칼빈주의자는 그 구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시니라.”(빌2:13) 이것이 회심 이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전 죄의 노예였을 때, 즉 회심 전에도

22) Sam Howe Verhovek, “Cardinal Defends a Jailed Bishop Who Warned Cuomo on Abortio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 1990, A1, B4. [참고로 김수환 추기경도 동일한 것을 고백하였다.]

그랬을 것입니다.”²³⁾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했는지, 아닌지는 결코 말해 주지 않습니다. 버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것은 무엇인가?

버트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의 문제를 다시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했지만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버트가 거의 절망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버트의 모든 의심과 혼란을 깨끗이 제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났을 때 목사는 서재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내 버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맥아더(John MacArthur Jr.) 목사의 신간 서적인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인데 목사가 많이 봐서 그런지 제법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읽어 봐요. 다 읽으면 돌려주세요.” 그는 버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진 것 같군요. 아마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라니요? 그게 뭔가요?”

“음, 그 차이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내가 당신을 그쪽으로 끌고 간 것 같군요. 난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를 강조했지요.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설마 세상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죠?”

“글쎄요, 극단적 칼빈주의와 맥아더 박사가 이 책에서 취한 ‘좀 더 온건한 칼빈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것을 꽤 잘 말해 주고 있지요.”

“꽤 잘 말해 주고 있다고요?”

“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버트는 예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아시죠? 그것이 맥아더가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는 제한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23) Wm. Oosterman, “Take a Long Look at the Doctrine of Election” (Ottawa, Canada: The Lord’s Library Publications, n. d.), p. 7. Available from Westboro Baptist Church, Ottawa, Canada.

여전히 그는 극단적 칼빈주의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 줍니다...”

“그분이 친히 불 호수에 보내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고요? 그건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쳤던 것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돼요. 날 놀리시나요?”

“제발, 버트 형제님, 맥아더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벌(유기)에 처하게 될 자들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요...”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고요? 도대체 그런 종류의 사랑도 있나요?”

“음,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지요. 패커(J. I. Packer)도 그런 말을 했어요. 파괴피도 그렇고... 아내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맥아더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와 상충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했습니다.”²⁴⁾

“보편적 사랑이라?... 지금 목사님은 나를 놀리고 있군요!”

“이 책을 들고 가서 잘 읽어 보세요. 답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음 날 저녁을 먹고 형제들의 성경 공부 모임(당시에는 모이지 않은 것 같음)에 가는 대신에 버트는 집에서 기대를 잔뜩 품고 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맥아더 목사가 - 지금은 분명히 자기의 목사가 -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말한 것이 버트에게는 바로 자기의 목사와 주도적 칼빈주의 저자들(물론 칼빈도 포함해서)이 쓴 책들에서 배운 칼빈주의와 같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분명히 온전한 칼빈주의와 극단적 칼빈주의 둘 다 제한 속죄를 포함해서 5대 강령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였을까요?

버트는 마침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예외 없이, 그러나 차이는 있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돌아선 뒤 그는 자기가 비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하면서 ‘예외 없이, 그러나 차이는 있게’라는 이 신비한 말을 끼어 넣기를 좋아하며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맥아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 심지어 선택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자들도 -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전적 칼빈주의자들이 항상 믿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신실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그분은

24) John MacArthur, 『The Love of God』 (Dallas, TX: Word Publishing, 1996), p. 110.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비된 특별한 방식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덜 실제적 사랑으로 만들지는 않는다.²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을 주기로 의도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말인가? “말도 안 돼!” 버트는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왜 그들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버트는 책을 읽으면서 맥아더 목사가 스스로 모순을 보이는 모든 곳에 표시를 했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담임 목사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이미 표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버트는 그다음 주 제자 훈련 모임에서 자기 목사에게 그 모순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맥아더 목사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봐요.”하고 버트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지만 그것을 인정할 만큼 정직하지는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로 그것을 덮고 있지만 그것이 그를 심각한 모순들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버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그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기록에서 보여 주느라 책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분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비된 특별한 방식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덜 실제적 사랑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좀 보세요.”²⁶⁾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영원한 벌을 받도록 예정한다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요?”

“글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목사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듯이 이 점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해야만 할 의무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버트가 주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계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강제로 의무를 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법을 만드셨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본질이 사랑 아닌가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본성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않으시지요!” 목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다르죠.”

“나는 지금 논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25) 동일 문서, pp. 14-16.

26) 동일 문서, p. 16.

하나님의 그러한 높은 기준을 잊어버리고서… 내가 이웃집에 불을 지른다면 그것도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요?”

“물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즉각적으로 단호한 대답이 왔습니다.

모순들과 애매한 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불 호수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나요? 그건 실없는 말일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형제님은 이 사람들이 죄인들임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께 반역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왕좌에서 그분을 쫓아내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유죄이고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만일 하나님의 정의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정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의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죠. 물론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하시며 모두를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선택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반대 의견을 말했습니다.

“계획이라니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분은 그 계획 속에 모두를 포함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나요?”

“그 점이 바로 맥아더 목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책 좀 볼까요?” 목사는 마치 그 책을 여러 차례 읽었던 사람처럼 재빠르게 손가락으로 책을 뒤적거렸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탄원, 버림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그분의 긍휼, 듣는 모든 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라고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신실하게 표현한 것들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사55:1; 계22:17)… 개혁 신학자들은 항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임을 단언해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맥아더는 칼빈을 인용하였는데 그는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생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변명을 제거하기 위해 ‘누구든지’라는 보편적인 말을 사용하셨다.’”²⁷⁾

버트는 목사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건 더 애매한 말이군요. 목사님은 확신이 드시나요? 나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맥아더 목사가 말한

27) 동일 문서, pp. 17-18.

것을 압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이 인용 부분의 마지막을 보세요. 칼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의 눈만 열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순을 보지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미 과거의 영원부터 구원받지 않도록 정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사람들이 포함된다.’ 분명히 맥아더 목사의 이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요. 목사님은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목사는 설득력 없이 말을 시작했지만 버트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의 눈만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지금 그분이 눈을 열어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트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러 내 집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 놓고는 선택된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알려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물론 내 칼빈주의 친구들은 내 편을 들면서 내가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을 찾도록 하는 것을 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게 애매한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스프로울, 패커, 파이퍼, 맥아더와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뻔뻔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맥아더 목사를 변호하였고 버트는 그런 저자들의 모순들이 부끄럽지만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음을 거칠게 참을성 없이 주장하면서 논쟁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버트는 목사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 직장으로 가면서 논쟁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였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생각에 질식하며

버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론적인 말을 해부하면서 칼빈주의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간에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바랄 정도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맥아더와 파이퍼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배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신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포함시키실 수도 있었는데도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 처하도록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셨다고 주장하는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의 위선을 생각할 때마다 버트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편적 은혜’로 인해 자신이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영원한 불 호수로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버트가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칼빈주의의 일반적 오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무슨 ‘하나님’이었습니까? 버트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 무신론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온통 그를 사로잡았고 두렵게 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버트는 변증학의 필요성을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성장한 그는 진화가 사실이라고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한 기독교 창조론자와 같은 분야에 있는 교수 간에 진행된 진화에 대한 논쟁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버트는 자기가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일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증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것들이 모두 성경과 기독교의 유효성을 증명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로서 그는 변증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연구 모임에 나오는 몇 명의 칼빈주의 친구들은 변증학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증거나 설득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증거나 설득이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다소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변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꼈지만 한 동료 칼빈주의자(버트보다 칼빈주의에 조금 더 오랫동안 몸을 담은 형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변증에 무관심한 태도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여 주자 그러한 감정들을 버렸습니다.

변증자로서 칼빈의 약점

증거를 바라보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칼빈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 믿음이란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버트는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 동요될 수 없으며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설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믿음도 없이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결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그러한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이 어떤 증거나 증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온 세상이 강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이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즉 설득이나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호소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불확실성과 의심 그리고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면 성경기록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인간의 추측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 확신은 곧 성령님의 은밀한 증언이다... 논쟁을 통해 성경기록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을 키우려고 시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성으로 입증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증언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대답한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들에 대해 적절하게 증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내적 증언에 의해 봉인될 때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다면 고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경기록은 증거들이나 논쟁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이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성령님의 증언에 달려 있다. 우리 역시 그 확신과 함께 성경기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는 증거들이나 가능성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이성을 요구하지 않는 확신이며 이것은 가장 높은 이성에 부합하는 지식, 즉 우리의 생각을 어떤 다른 이성보다 더 확고하고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지식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계시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확신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봉인하는 그 믿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유일한 특권을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며 그들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신다.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사실로 인해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비들이 주어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신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²⁸⁾

성령님의 주관적 증언이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버트에게는 성경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불신자들에게 이런 증거들을 적용하셔서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때 확고한 증거들을 사용해야 하고 믿는 자들의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28) Calvin, 「Institutes」, pp. 71-73.

어떤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중생의 결과로 그것이 주어진다면 대체 증거를 보여 주고 설득하는 이런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증명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까?(행1:3; 9:22, 29; 10:43; 13:26-41; 17:2-3, 17-31; 18:9-11, 28 등)

버트는 무슬림들도 칼빈이 성령님의 내적 증언에 대해 말한 것의 대부분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는 모두 꾸란이 사실이 아니며 무함마드가 거짓 대언자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몰몬교도들 또한 몰몬경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유효성은 '가슴에서 타고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신에 의해 그들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DNA 대 몰몬경> 같은 비디오 등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 찬 모든 이단 종파들의 비밀스런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증거와 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증거들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칼빈은 여러 가지를 계속 제안했으나 그것들은 대개 매우 빈약하였으며 지적인 회의주의자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심히 부족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기록의 영감에 대한 증거들보다는 언어의 위엄과 성경기록에 제시된 숭고한 진리들을 나열한 것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예언들을 짧게 다루었지만 그것들은 고레스 치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복과 같이 즉석에서 성취된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성취될 예언들, 메시아의 오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취될 예언들을 그는 거의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을 무시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며 사실 루터와 칼빈은 자신들의 이런 사상을 카톨릭주의로부터 가져왔습니다(이것은 현시대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 불린다).

칼빈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교도들의 거짓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을 여러 장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데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제공한 증거들은 빈약하고 피상적이며 지적인 무신론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칼빈이 썼던 변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변증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그랬듯이 성경은 증거 위에 증거를 줍니다. 우리는 성취된 대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증거들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딤후1:9).

버트는 변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변증은 자신이 새롭게 이해한 칼빈주의 측면에서 볼 때 거의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변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변증이 칼빈주의 선택의 진리를 세워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변증은 선택받은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버트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안식하며

버트가 믿음 및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빈번한 모순들로 인해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맥아더 목사(John F. MacArthur, Jr.)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의 길 안에서 끝까지 견뎌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²⁹⁾라고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딜로우(Joseph Dillow)는 버트의 목사가 버트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책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맥아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말을 지지하기 위해 칼빈이 말한 것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칼빈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³⁰⁾ 그런 경우 그 믿음은 어떤 행위와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칼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³¹⁾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살펴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과 모순이 되게 칼빈이 거짓 확신에 대해 말한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버트는 칼빈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공포로 인해 비참한 존재가 되어야 함이 틀림없다.”³²⁾라고 말했던 바로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참함은 결국 끝이 없는 것이어야만 할까요?

버트의 혼란은 거스너(John Gerstner)가 인정한 것을 읽었을 때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버트는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거스너는 이렇게 말하였

29) John F. MacArthur, Jr.,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Academie Book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p. 98.

30) Joseph C. Dillow, 『The Reign of the Servant Kings: A Study of Eternal Security and the Final Significance of Man』 (Haysville, NC: Schoettle Publishing Co., 2nd ed. 1993), p. 253.

3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ed.), 3.24.5.

32) 동일 문서, 3.21.1.

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기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소망의 확신을 구원에 필요한 핵심으로 만들었다. 이제 후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검증해 보았고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했듯이) 그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거부하였다.”³³⁾

거쓰너의 이 말은 버트가 이전에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실제로 초기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과 일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으로 부터 후퇴한 사람들은 후기, 즉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트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이러한 불일치가 있어야 할까요?

버트는 그토록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신이 놓쳤는지 의아했습니다. 겐트리(Kenneth Gentry)는 “확신은 주관적이다... 다브니(Dabney)는 성경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개개인에게 특정해서 그것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확신]은 성경기록을 넘어서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고 제대로 파악하였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나, 즉 겐트리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³⁴⁾라고 썼습니다. 버트는 몹시 동요되었습니다. 버트는 이제 겐트리의 글이나 다른 주도적 칼빈주의자들의 유사한 주장들로부터 칼빈주의는 자신이 찾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실제로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찬트리(Walter Chantry)의 주장은 그런 결론이 맞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났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 적어도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 의 의심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약속들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들을 합당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그들은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 즉 “우리는 믿고 회개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인가?” 우리는 가룟 유다같이 자기기만에 빠진 위선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읽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필수적 질문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당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는 성령님밖에 없다.³⁵⁾

33) 「Discussions by Robert L. Dabney」, ed. C. R. Vaughan (Richmond, V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890), 1:183

34) Kenneth Gentry, “Assurance and Lordship Salvation: The Dispensational Concern” (「Dispensationalism in Transition」, Sept. 1993); quoted by Robert N. Wilkin, “When Assurance Is Not Assurance”,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Autumn 1997, 10:19, pp. 27-34.

버트는 주도적 칼빈주의 옹호자들이 이야기하는 선택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관심을 갖게 된 주제이고 우리가 이 책의 전반부에 여러 장에 걸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 나온 정신적 태도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열정으로 딜로우(Dillow)는 에베소서 6장 2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³⁵⁾ 그러나 그는 6장 16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즉 믿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딜로우가 주장하는 주권과는 모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이 구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버트는 칼빈주의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위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평상시에는 그것들을 부인했지만 아주 드물게 솔직해지는 순간에는 그것들을 인정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고 평생토록 자기의 구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칼빈주의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트는 자신이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친구가 버트에게 스프로울(R. C. Sproul)이 지은 「구원의 확신」(*Assurance of Salvation*)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었습니다. 버트는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읽었지만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장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³⁷⁾

그것은 버트가 한때 가졌던 구원에 대한 확신, 즉 칼빈주의를 알고 나서 보니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난 그 확신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버트는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셜(Howard Marshall)의 진술은 버트의 가슴을 바로 관통하는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상황과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이었습니다.

35) Walter J. Chantry, 「Today's Gospel: Authentic or Synthetic?」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0), pp. 75-76.

36) Dillow, 「Reign」, p. 280.

37) Cited in Philip F. Congdon, “Soteriological Implications of Five-point Calvinism”, *Journal of the Grace Evangelical Society*, Autumn 1995, 8:15, pp. 55-68.

누가 말했든지 ‘칼빈주의자는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칼빈주의의 구원 문제를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렇다면 칼빈주의 그것 자체가 버트의 의심의 뿌리였을까요?

버트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딜로우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명하다가³⁹⁾ 결국에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행16:31)라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했을 때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그 간수가 알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했을 것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딜로우의 긴 설명이 정말로 바울의 단순한 진술만큼 단순할 수 있을까요?

중심 주제: 하나님의 사랑

버트의 고민에 찬 안색과 저조한 기분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침내 제니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죠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하고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라고 버트가 거칠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항상 믿어 왔던 분이시며 당신도 믿는 바로 그분이세요!”

“나도 짐 목사님의 말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신 해석이지.”라고 말하며 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버트는 제니가 자신이 의심하는 것들을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끝낼게요. 제발… 당신이 발견한 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죠.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서 그들을 자신의 주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버트는 바로 썩붙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믿도록 만드셔.”

“당신은 의지적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몰라.” 이러한 말들은 버트가 의식적으로 알아채기도 전에 불쑥 그의 입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해. 우리는 먼저 다시 태어나고 그런 다음에 믿음을 받지…”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였어요. 어느

38) Howard Marshall; cited in D. A. Carson, “Reflections on Christian Assuranc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4:1, p. 24.

39) Dillow, 「Reign」, pp. 272-91.

날 갑자기 그분이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글쎄… 나는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어.”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이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어야 돼.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려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렇다면 그분은 주권을 가진 분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 권세를 다른 어떤 존재와도 나누지 않으셔.”

“주권, 예지(미리 아심), 자유 의지… 칼빈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니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요. 진짜 주제는 사랑이지요, 그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당신은 진짜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나요? 대체 이게 무슨 사랑인가요?”

“글쎄… 성경은 선택을 가르치고 있어, 당신도 인정하겠지만…”

“잠시 선택은 잊어버려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 제발!! 어떻게 그걸 당신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내 말은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더 단순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자신이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게도 편한 사실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파멸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버트,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난 당신과 목사님이 빠져 있는 칼빈주의가 하나님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저 논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논쟁하는 게 아냐. 이것은 중요해. 나는 여러 달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어.”

“버트, 당신이 그것에 쏟은 노력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 개개인의 죄들을 사면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들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결과 그분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한 절만 있으면 돼요.”

“이런 구절에 나오는 ‘세상’이란 모든 사람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야!” 버트가 대꾸했습니

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조금만 연구해도 알 수 있어...”

“나도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딤후2:4)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벧후3:9)는 것을 칼빈주의가 훼손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구절들을 난 충분히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의미해. 바울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 여기서 그는 선택받은 자들 속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설명을 좀 하자면...”

“버트, 제발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 왜 그 구절들이 선택을 말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노력하죠?” 제니는 힘없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칼빈주의나 연구하세요. 난 단순한 믿음에 붙어 있을게요.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우리는 논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제니는 부엌으로 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것이 나의 확신일세!”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지옥: 누구의 선택인가?

버트는 (비록 제니에게 이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공활을 베푸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지만 지금 그는 주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화이트가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장 고귀한 목표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다. 따라서 “성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이 주는 가장 심오한 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결코 놀랄 것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⁴⁰⁾

이러한 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버트가 금세 동의할 수 있었던 아주 듣기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예정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또한

40) James R. White, 『The Potter's Freedom』 (Amityville, NY: Calvary Press Publishing, 2000), p. 178.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에 제니로부터 들은 다음과 같은 말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며 거저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거부되는 것이라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간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허용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버트는 칼빈주의에 대한 몇 개의 비평서들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하다가 꽤 일리가 있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의 전 우주적 장기관에서 단지 줄에 불과한 존재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를 만드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권능(전능함)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후자가 더 큰 힘을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파멸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결코 자기 의지대로 그분을 선택할 수 없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게’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과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나는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선택과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사상에 의문을 가진다. 자신이 선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다.⁴¹⁾

성도들의 견인?

버트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문제로 씨름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차치하고라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성경적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화이트의 「토기장이의 자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칼빈주의자들이 거의 100% 동의했던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거나’ ‘믿을’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것은 본성에 속한 자연인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적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⁴²⁾

41) Congdon, “Implications,” 8:15, pp. 56-57.

42) White, 「Potter’s」, pp. 112-113.

버트의 기억에 따르면 화이트의 진술과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다시 태어났고 그 결과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와 같이 유명한 청교도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도 “믿음에 선행하는 거룩함의 원칙,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수 있기 전에 죄인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있어야 한다.”⁴³⁾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결정적 변화가 생긴 밤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버트는 그때의 기억이 어떻게 이런 진술과 부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버트는 자신이 매우 존경했던 칼빈주의 지도자 암스트롱(John Armstrong)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다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나는 한 일 년 전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어떤 목회자들로부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라고 말했습니다.⁴⁴⁾

버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다시 돌려 두 번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가 처음 들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악하고 파괴적인 것일까요? 암스트롱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롭다 하시지만 인간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롬2:13-14). 성경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설적 구절이 아니며, 여러분, 많은 개신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14절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이 점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보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구원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필요한 행위들입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⁴⁵⁾

당연히 칼빈주의에서는 어떤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버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이 맞을까요, 아니면 딜로우가 맞을까요? 그러나

43) John Armstrong, “Reflections from Jonathan Edwards on the Current Debate over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quoted in speech given at Annapolis 2000: A Passion for Truth conference, sponsored by Jonathan Edwards Institute, PO Box 2410, Princeton NJ 08543). For more information on Jonathan Edwards’s view on justification, contact Grace Evangelical Society, (972) pp. 257-1160.

44) 동일 문서.

45) 동일 문서.

그들은 둘 다 서로에게 모순이 될 뿐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설교 테이프에서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고, 루터의 의지의 속박은 종교 개혁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으며,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믿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버트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해법을 주었을 때도 그것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성도들의 견인이야말로 칭의를 나타내는 필수적 속성이다.⁴⁶⁾

성도들의 견인?⁴⁷⁾ 그것이 버트에게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일 버트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도들의 견인은 어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다른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트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애당초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자,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진짜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짜로 구원받았음을 결코 확신할 수 없음을 뜻하였습니다.

버트는 한때 성도들의 견인 교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견인해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 교리, 즉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빌2:13)

그런데 이제 그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 있음을 발견했으며 동시에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더욱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버트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는 성도들의 견인이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버트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성적’이 최근에 나빠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이것은 믿음 면에서의 그의 인내가 원래 성도가 이루어야만 하는 인내와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심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그가 인내하면서 견뎌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었습니

46) 동일 문서.

47) ‘성도들의 견인’은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칼빈주의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은 성도들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된다. ‘persevere’라는 말은 영한사전에 있듯이 원래 뜻이 ‘참다, 견디다, 버티다’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는 견인이 맞고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인내가 맞으므로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 견인과 인내 두 개를 다 사용하였다.

다. 그리고 그의 의심들은 고대 저자든 현대 저자든 칼빈주의 저자들의 저서들을 연구할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칼빈주의 그 자체가 의심들을 키웠을까요? 아마도 칼빈은 자신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을 때 이것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종종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란 거의 없다. 당신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온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에 대해 당신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 이러한 생각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은 계속해서 그를 영구히 비참하게 만들고 무시무시한 형벌에 굴복하게 하거나 완전히 인사불성의 상태로 던져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선을 두려워한다면 이 바위, 즉 그것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위를 피해야만 한다.⁴⁸⁾

버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임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잠깐만요! 버트에게 구원의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은 칼빈의 선택 교리가 아니었나요? 비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러한 의심들이 결코 없습니다. 버트가 이 교리를 버린다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는 더 많은 의문들

버트는 조심스럽게 기독교 친구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들에 속했으며 그것을 증명해 줄 행위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행위를 특별히 만족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단순히 복음을 믿었다고 답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것이 자기들에게 충분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버트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의문거리들이 더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본성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면 어떻게 그가 선한 행위를 바라고 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전적' 타락이 그러한 점에서 정말로 '전적'이 아니라면 왜 복음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데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실까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해서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 이것이 항상 제니가 제기하는 불만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구원하실 수도 있는 사람들(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더 심한 것은, 어떻게 모든 은혜와 공훈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멸시킬 수 있을까요?(벤전5:10) 그는 결코 제니에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으며 이제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밖으로

48) Calvin, 「Institutes」, 3.24.4.

밀어내고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의 진심어린 다음의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랑인가요?

여하튼 스펔전의 작은 책자가 버트의 손에 들어왔고 그는 흥분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이며 확실한 칼빈주의자인 스펔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언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스펔전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오고 있을 때 나는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얼마 지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밑바닥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믿음의 창시자시며 그래서 은혜의 전체적 교리가 나에게 열렸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⁴⁹⁾ 그는 자신의 설교를 끝내면서 가장 경건하고 독실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것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입니다.”⁵⁰⁾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스펙전의 이 말은 버트 주변의 비칼빈주의 친구들이 하는 말같이 들렸고 스펔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버트가 칼빈주의자가 되기 전에 믿었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버트는 자신이 칼빈주의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구원의 창시자, 죄인들의 구원자시라고 찬양했고 그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그분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도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스펔전이 말한 것 중 어떤 것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될까요?

제니는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칼빈주의자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진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소?” 하며 버트가 반발했습니다.

“나의 감사와 찬양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록 프로그램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49) Charles Haddon Spurgeon, “A Defense of Calvinism”, single-sermon booklet (Edmonton, AB: Still Waters Revival Books, n. d.), pp. 3-4.

50) 동일 문서, p. 22.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어떤 칼빈주의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물론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믿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나는 믿도록 프로그램 되지 않았어.” 버트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언제나 제니가 이것을 이해할까?] “은혜롭게도 우리의 의지가 바뀐 거지!”

“좋아요. 당신은 믿도록 조정되어 있어요. 버트,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에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시려고 당신의 의지에 무언가를 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당신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이나 어떤 이해나 어떤 믿음에 의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칼빈주의 책들 중 일부를 읽어 보았어요.”

다른 문제로 논쟁할 때처럼 그들은 진지하게 논쟁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또한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버트의 확신은 더욱더 흔들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자신의 불확실성이 칼빈주의 자체로부터 일어난다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많은 경고의 소리를 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이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시험들 가운데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의심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것은 없다. 동시에 사탄은 합당한 방식이 아니라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가지려는 타락한 욕망으로 그들을 자극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최종 결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중 숨겨진 깊은 것들을 꿰뚫어 보려는 열망을 가진다.⁵¹⁾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하신 최종 결정을 알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버트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칼빈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때때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위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안 된다.⁵²⁾

버트는 자신이 칼빈이 말한 대로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칼빈주의를 버리고 복음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버트는 절망 속에서 어찌면 자신이 회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할지도 모르며 자신을 길러 준 카톨릭교회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 그리고 깨우침

버트는 카톨릭교회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51) Calvin, 「Institutes」, 3.24.4.

52) 동일 문서, 3.24.3

하고 불확실했지만 그는 옛날 교구로 다시 가서 자신을 모르는 사제가 그곳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좀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제에게 자신이 로마 카톨릭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원한다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칼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버트는 아주 놀랍게도 이 사제가 자기의 담임 목사보다 칼빈주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제는 반질반질 많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서가에서 뽑더니 참 교회로 돌아오려는 버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문도 자기가 잠재울 수 있다고 확실하는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이 침례(세례)에 대해 말한 것을 그가 읽게 되었을 때 버트는 거의 뛰어 오르면서 “할렐루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받은 유아 세례가 그를 선택받은 자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었다는 칼빈의 설명을 들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받은 카톨릭 유아 세례에 내재된 약속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버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카톨릭교회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그는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자신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버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유아 세례를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확신은 겨우 며칠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던 유아 시절에 받은 세례, 그것도 스스로 거짓된 구원을 가르치고 실행했던 카톨릭 사제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확신으로 믿어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구원의 성경적 기초였습니까? 아무튼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참 복음 즉,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결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유아 시절에 세례를 받은 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였고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칼빈이 그것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버트는 마침내 칼빈주의 연פות에 있는 한 마리 물고기, 그러나 너무 커서 칼빈주의가 삼킬 수 없는 물고기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의심들에 직면했습니다. 칼빈이 유아 세례에 대해 이처럼 틀렸다면 - 루터가 틀린 것처럼 칼빈이 이 점에서 틀렸다는 것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 - 혹시 그의 다른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버트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인 TULIP을 믿어야 할까요? 칼빈이 유아 세례에 대해 쓴 것과 같은 이단적 교리를 쓸 수도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아 세례에 대한 칼빈의 말은 이단적인 말(heresy)입니다. 그것을 달리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을 찾아 버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트는 집에 가서 혼자서도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잊어버린 도전

버트는 자기가 찾으려는 답, 즉 이해하기 힘든 답을 찾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칼빈주의 저자들의 책들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통독하고 한 번 더 설교 테이프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권의 책에서 버트는 자신이 칼빈주의자가 되고 나서 수개월 후에 한 친구가 자기에게 보낸 염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잊었지만 그 편지가 자신의 의심들에 중요한 몫을 했던 것이 그의 기억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다시 읽었습니다.

버트, 자네를 겸손하게 만든 칼빈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 말하려 하네. 자네는 어떻게 자네가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에 들어가는지 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중 어떤 자들을 제대로 더 잘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믿었고 선택받은 자들 중에 들어간다고 상상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했지. 그 하나님이 지금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설마 자네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이라고 그저 상상하는 건 아니겠지?

선택받은 자들 중 한 명이 되려면 자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네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네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 칼빈은 또한 영원한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도록 예정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네. 그것이 자네를 괴롭게 하지 않는가? 자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하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버트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일부 죄인들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책 속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그 편지가 그를 화나게 해서 그는 그 친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에 답변을 하려고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니가 그 편지나 자기의 답장을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환점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답장을 쓸지 생각하면서 버트는 자신을 '주님께 인도했던' 아내가 자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그가 칼빈주의가 주는 지성적 호소에 끌렸을 때 그녀는 그가 그 주제를 끄집어낼 때마다 토론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자 한 요점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여 평안 가운데 있으며, 복음은 말씀들의 명백하고도 분명한 의미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사랑이 훨씬 더 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칼빈주의에서 구출해 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칼빈주의 전문가나 비칼빈주의 전문가의 말을 듣거나 읽는 것을 멈추고 성경 자체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칼빈주의에 맞추려고 성경기록의 말씀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성경기록의 말씀들을 그대로 읽고 그 의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버트는 자기 어깨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써름했던 마지막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버트는 자신이 간단한 것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고용주라도 자기의 고용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즉 고용주의 선택은 결정적이라는 사실 그 이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자신을 고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에 관한 전적 책임을 지고 있긴 하지만 고용인이 그 일에 고용되는 것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버트는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 있는 의문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토론하였고 그를 붙잡아 두려는 목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에 대한 버트의 믿음은 심하게 퇴색되었으며 반면에 단순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차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릎을 꿇고 써름해야만 했던 한 가지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음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버트가 지금 믿게 된 그 사랑)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칼빈주의와의 마지막 라운드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고 화이트가 상당한 관심을 보인 성경기록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⁵³⁾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53) White, 「Potter's」, pp. 105-109.

함이라, *하였더라*(요12:39-40).

화이트는 또한 요한복음 8장 34-48절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43절을 강조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다시 인간에 대한 개혁주의의 성경적 관점은 힘 혹은 능력과 함께 나타난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어서(무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인식할 영적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⁵⁴⁾

하지만 이제 버트는 이러한 구절들이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칼빈주의가 정의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들 가운데서 죽었으며 그러한 조건에서는 보거나 믿을 수가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음을 보신다는 사실은 결국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고의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버트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려 할까요? 이렇게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면서도 대언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죄, 반역, 완고함을 들추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사1:2)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아셨고 그들에게 더 호소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파라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대언자들의 외침을

54) 동일 문서, pp. 112-114.

통해 선포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주시고 또 과거에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친히 우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으며 그들과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거역하면서도 그분께 십자가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순간적 감정에 의해 자신의 이런 목적이 좌절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요19:15) 바로 이것이 그들의 강박한 마음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 연민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시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행2:23)라고 말했습니다.

버트는 눈이 멀게 되는 것에 대한 동일한 예를 휴거 전에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을 거절할 사람들, 즉 휴거 때 땅에 남겨지는 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특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려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후2:11-12).

무슨 까닭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바로 앞의 10절이 해답을 줍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마음이 강박해진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믿기를 원하던 거짓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소원대로 회개하지 않는 반역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일에 완벽하게 공의를 보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칼빈이 정의한 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은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막16:15)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숨겨진 지혜…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그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질문

짐 목사는 칼빈주의에 대한 버트의 확신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비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에 대해 그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냐고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칼빈주의자들의] 믿음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형제님은 언젠가 - 심지어 영원한 천국에서라도 -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하기로 결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버트는 제니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답은 성경 그 자체만큼이나 간단했습니다. “왜 내가 천국을 포기하길 원해야 하나요? 나를 유혹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떼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이라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소?”라고 버트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사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있으며 가장 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었소. 그럼에도 그는 반역했소!”

제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맞아요. 그러나 그는 결코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적도 없으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초도 없고 자기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감사가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하며 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없을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말이 안 돼.”

버트는 논쟁하지 않고 그녀를 행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탄을 유혹했지? 그의 반역의 이유는 무엇이지? 교만이잖아.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자유 의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교만에 이르도록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버트, 당신은 계속 사탄을 끄집어내고 있군요. 난 사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과 그의 마귀들에 대해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육신은 상형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상형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갈5:17)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지 그 이유를 이 내적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4-25)라고 말한다고 바울은 덧붙여 말해요. 그는 부활, 즉 죄의 몸, 고통, 죽음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이야.” 그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사탄의 예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과 관계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 당신이 맞아. 사탄은 결코 다시 태어나지 못해. 분명히 성령님은 사탄 안에 내주하시지 않아.”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그는 “이봐요, 나는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야. 과거에 내가 너무 논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이것은 실제 문제이고 나는 정직한 답변들을 찾고 있소,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떨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는 풀이 죽은 채 침묵하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제니는 그에게 이해와 연민의 표정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다고요?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나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할 전부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녀는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버트의 옷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버트에게는 은혜로 구원받을 때 자신이 얻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생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같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은 행위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고, 행위는 한 사람의 구원의 실체의 징표도 될 수 없으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이적을 행하거나 마귀들을 쫓아내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한다 해도 그것들은 결코 그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1-23).

반면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의 실체를 나타내는 선한 행위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시대의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 계획하신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동기와 행위를 시험하시는 불에 의해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소멸될지라도, 바울에 의하면, 즉 어떤 구원의 외적 증거가 없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고전3:11-15).

물론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트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도 한 사람이 선택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초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칼빈주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자기들끼리도 일치하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버트는 마침내 그 칼빈주의 이론과는 작별을 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성경적 확신은 그분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미리 아심), 예정/선택,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존 능력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갔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벧전1:2).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엡1:4-7).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2-13).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17-18, 36).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1-1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딤후1:1)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요3:16)는 그분의 풍성하신 약속 안에서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는 것을 통해 믿는 자는 자신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요일5:10)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롬8:16-17)인 것을 압니다.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3-14).

이 구절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그분만 신뢰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딤후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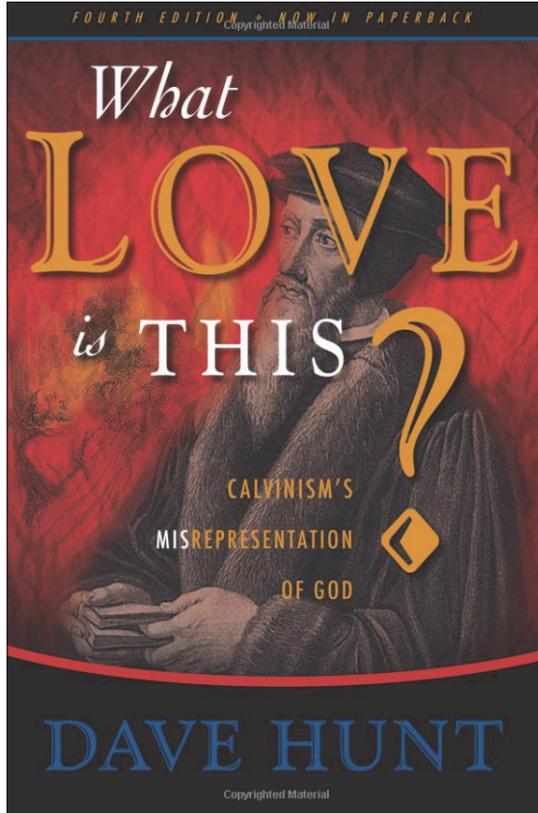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믿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증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공훈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3-5).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된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예언들, 즉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된 예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 증거들과 고고학적 증거들, 과학적 증거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의 창조에 대한 참되고도 오류가 없는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담과 이브의 타락,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공중 강림과 휴거)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천년 왕국, 즉 의가 통치하는 때에 그분께서 철장(쇠막대기)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조상 다윗의 왕좌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과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많은 거처들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로써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살전4:16-18).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대체 이게 무슨 사랑인가?」
(*What Love Is This?*)
데이브 헌트

제 9 장

Chapter 9

칼빈주의 비평 결론

Conclusion on Calvinism Debate

위에서 살펴본 대로 칼빈 신학의 핵심은 어거스틴 신학의 부활이며 그 목적은 국가 교회를 시행하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런 사상을 결코 지지하지 않으며 더욱이 무력을 동원하여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플라톤 사상에 심취한 어거스틴과 그를 그대로 답습한 칼빈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사고의 틀 속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칼빈주의 속에 들어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많은 것을 가정해야 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칼빈주의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대개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성인의 신학 혹은 철학이다.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칼빈주의가 너무나 어렵고 평생을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그 가르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칼빈주의가 제시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로봇과 같다. 이 로봇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리모컨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장치를 부여받은 로봇이고 다른 하나는 부여받지 못한 로봇이다.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로봇들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야만 로봇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수신 장치가 없는 로봇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입력받을 수 없다. 그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신 장치가 있는 로봇들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리모컨의 조작을 받아 - 칼빈주의는 이것을 중생, 즉 '다시 태어남'이라고 함 - 프로그램이 입력되면 - 칼빈주의는 이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함 -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로봇들에게는 하나님의 리모컨 작동과 프로그램 입력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이 들어 있지 않은가? 심지어 사람에게는 스스로 지옥을 택해 멸망당할 수 있는 자유도 부여되어 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람이 자기의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한 범법이다.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부인하

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각각 회계 보고 하리라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또 이를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하고 사람의 부정함이 극심하다 해도 성경에 없는 이론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는 이미 성경과 역사의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없는 인조 사상임이 확실히 드러났으며 우리는 이것을 낱알이 성경적으로 증명하였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라면 먼저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독재와 만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런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상을 가르치거나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장로교가 주축인 한국에서는 칼빈주의의 횡포가 극심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 어거스틴주의에서 나온 ‘교회교’이다. 이 ‘교회교’ 시스템에서는 특히 교회 목사나 교단 총회장이 천주교의 사제나 교황 노릇을 하며 여기에 얽매인 성도들은 구약 시대 신권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와 목사와 교단에 예속된다. 또한 극도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이며 이 책의 6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칼빈주의 자체가 구약식 교회를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제사장이 되고 건물은 성전이 되며 성도들은 제사장과 계급이 다른 평신도가 되어 종속되는 것이다.

사실 과거에 제네바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 시간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목사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목사의 말 한마디에 별별 떠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국내외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서도 칼빈과 같은 독재자가 종종 생긴다. 이런 목사들은 모두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교회 목사의 독재나 교단 총회장의 독재는 모두 국가 교회를 운영하려 하기에 생기는 악행이며 천주교 교황이나 제네바의 칼빈의 사례가 이들의 행위를 변명해 준다. 대부분의 이단들 역시 국가 교회를 운영하려 하기에 지도자들이 철저히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 영혼의 자유(soul liberty)를 구속하는 것은 신약 교회나 목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우리의 교리가 옳아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도 그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일을 미워하셨다.

우리는 국가 교회 사상을 가진 목사들을 특히 주목하고 몰아내야 한다. 목사라면 누구나 다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혹이라도 자신이 성도들을 압제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복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벧전5:1-4).

바울은 다음과 같이 떨리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몸이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고전2:3-5).

그러면서 그는 목사의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후1:24).

바울은 대사도였지만 결코 무력이나 강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였다. 그러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에게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전혀 볼 수 없다. 그들은 구약의 신권 정치하에서 모세나 여호수아 혹은 사무엘이 휘두른 권력을 스스로 휘두르려 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무력 사용을 금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마26:52).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력을 쓰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일이 후대에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시며 그들이 무력을 쓰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요16:2-3).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교리를 근거로 중세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무수히 많은 성경 신자들과 유대인들을 죽였고 장로교회와 루터 교회 역시 재침례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실 나뭇처럼 피를 흘리며 무고하게 죽어간 그들은 대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저들이 그들을 죽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니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 역시 양심의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행9:1-2).

그러나 바울은 죽기 전에 간증을 통해 알지 못하여 그런 악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 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1:13-14).

이런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그는 그 이후로 무력 사용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남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다. 신약 시대에는 신권 정치가 시행되던 때와 달리 법과 제도로 사람을 종교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 그런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 세력을 발휘하던 구약의 율법 시대까지, 즉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새 상속 언약(신약) 시대가 열려서 누구나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이 땅에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 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불법이요 최악이며 콘스탄틴 이후에 어거스틴이 기초를 놓은 로마 카톨릭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있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에 무엇이 부족해서 칼빈의 독선적 가르침을 따르단 말인가?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며 외국에 가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도 이 위대한 편집광이자 천재적 이론가에게 진리를 양보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허다하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 집요한 가르침의 족쇄를 풀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다음은 장로교 계열의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간증이다.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근현대 교회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의는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업적과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칼빈을 연구하여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칼빈의 업적과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그 아래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에게 대다수의 학우들이

감명을 받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질문을 해서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망쳐 놨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독재를 통한 철권통치를 시행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무참히 화형시킨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곳 원주민 인디언들의 목숨을 무참히 죽인 것이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의 얼굴이 약간 상기되면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대부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종교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다른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는 주변의 여러 학우들이 제 질문에 대해 “논리가 맞지 않는다. 더 연구하고 질문해라. 더 공부해 봐야 진실을 안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저를 제압(?)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다 장로교 출신이고 대다수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 목회하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칼빈과 청교도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배워 왔기에 그런 반응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속으로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후에 연구를 통해 칼빈주의, 즉 ‘튤립’(TULIP)이 비성경적이며 후대에 칼빈의 추종자들이 칼빈의 신권 통치를 합리화하고 아울러 자기들이 앞으로 칼빈처럼 교회에서 철권통치로 군림하기 위해 만든 인본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무참하게 인디언들을 학살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에 목숨을 건 채 죽을 고생을 하며 힘들게 신대륙에 도착해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이 굶고 있어도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렸다면 청교도들, 장로교에서 신앙의 표준이 되는 청교도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칼빈과 그의 후예인 청교도들의 학살이 로마 카톨릭주의 의 아버지 어거스틴이 만들어 교회에 독약처럼 주입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므로 가나안 땅(신대륙)에 신정 국가를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즉 죽어 마땅한 이방 족속들로 여겨야 한다.”라고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며 고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종교적 열심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칼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특히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술 퍼런 칼빈의 칼날 앞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며 구원에 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참히 죽임을 당했던 재침례교도들의 순교에 깊은 신앙적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진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것이 하루 종일 가슴에 메아리칩니다.

사실 청교도들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문제의 핵심인 것은 명확하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곧바로 청교도 신앙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국가 교회를 시행하려 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칼빈의 가르침이 가득 차서 그들은 무력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유의 땅에서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독재는 허용되지 않았고 대다수 미국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는 침례교회를 선택하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국가가 되었고 침례 성도들의 주장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헌법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명확하게 기술되었다.

칼빈의 독재적 제네바 통치를 거론하면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역사가 왜곡되었다거나 로마 카톨릭교회가 칼빈을 모함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들이 오늘날 정설처럼 퍼져 있다는 등의 매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칼빈의 독재와 반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하며 원주민들에게 행한 무자비한 폭력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이런 역사가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학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기에 골수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이런 일들을 축소하고 거론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성경 신자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위에 있는 장로교 신학 대학원 학생의 글을 읽고 어떤 한 분이 다음과 같이 사려 깊은 글을 적었기에 소개한다. 이것은 심히 왜곡된 칼빈주의의 진실을 알게 된 성경 신자들이 혹시라도 과격한 행동을 통해 오히려 진리의 행로를 막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기술한 것이다.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성경 신자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배워 바른 관점을 회복한 뒤에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요,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하는 장로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추운 겨울에 더욱 그리워지는 욕조의 뜨거운 물은 사람 체온과의 온도 차이로 인해 사람이 바로 들어가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장 뛰쳐나오게 만듭니다. 서서히 사람의 피부가 적응하고 체온이 적응하게 만들어 욕조 물의 뜨거운 온도가 부담스럽지 않게 되고 난 후에야 사람이 편안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명확한 진리를 알고 칼빈은 독재자요, 그에게는 엄청나게 잔혹한 역사가 존재하며 칼빈주의 신학에 매우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바로 장로교인들에게 쏟아 놓는다면 열에 아홉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도망갈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장로교인들은 장로교회 중에서도 소위 개혁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 즉 교리 교육이 강한 소수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튤립(TULIP) 교리’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 등 개혁주의 주요 교리들을 그리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저 막연하게 대강의 교리를 인지하는 정도가 현실입니다.

대체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교인들에게 무작정 당신들이 믿는 칼빈의 교리는 허상이라는 얘기를 맹렬히 늘어놓는다면 논쟁만 이어지거나 그저 겉으로 듣고 진심 없는 동의 정도나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의 배교와 성경 이슈,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의 본모습을 정확히 알게 된 성경 신자가 자신이 알게 된 바른 지식의 그 틀에만 갇혀 그것을 모두 철저히 전해야 한다는, 조절되고 통제되지 않는 열정과 의무감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면하면 열매가 없거나 매우 부실한 영적 수확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서재에서 산고를 겪으며 완성한 장문의 설교 원고에서 자유로워질 때 설교자는 비로소 강단에서 살아 있는 진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일반 교회 교인이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경 신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능히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자신 안에 다지고 또 다져서 갓난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리할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리를 자신만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해 능력 있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즉 다양한 상황과 사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넌 배교자고 거짓 신자라고 매우 간단하게 정죄만 해 댄다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영적 독재자 칼빈과 무엇이 다를까요?

장로교회 교인들과 또 다른 일반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우리에게서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자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멸망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고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무치는 염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깊고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5:13-14).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4:13-15).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대외적으로 담대하게 공표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지적하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 그리고 선한 행위,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이 사람 대 사람으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만나게 될 때의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 신자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언젠든 순식간에 영적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깨달아 알고 확신하게 된 진리를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지극한 사랑으로 무장한 명철한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계 보고 할 것이 두렵지 않은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고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이다.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부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부 록

Appendix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명백히 구분하여 율법을 한 경륜에, 은혜를 다른 경륜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요1:17). 여기서 율법이라 함은 모세의 율법을 뜻하며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도덕법: 출20:1-17(십계명)
2. 시민법: 출21:1-24:18
3. 의식법: 출25:1-40:38

여기서 우리는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4). 사실 아담의 죄는 동산의 열매를 먹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법을 범한 것이었으며 은혜는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 밖에 있던 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결코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의해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롬2:14-15). 사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언급하려는 율법은 '모세의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경륜에서든지 다른 경륜에서든지 율법과 은혜는 결코 혼합되거나 혼용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율법

1.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롬2:14)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출20:8-11; 31:13).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에게나 교회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의 첫 날을 쉬며 경배하는 날로 준수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로서의 안식일은 폐기 또는 변경되거나 주간의 다른 날로 이전되거나 다른 백성에게 이양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과 3장 45절에서 예언되었듯이 지금은 안식일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¹⁾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본토로 회복되어 돌아올 때 다시 지켜질 것입니다(사66:23; 겔44:24; 46:1-3).

2. 율법의 목적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롬3:20; 갈2:16).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롬3:20). 만일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롬7:7). 이와 같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롬3:19).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감독 교사로 주어졌습니다(갈3:24-25). 절기나 헌물과 같은 의식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은 예표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들은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롬10:4; 갈2:19). 따라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주의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II. 은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1) 라킨이 이 책을 지을 당시인 1920년대에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져 민족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요1:17).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관한 법이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모세와의 언약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출20:12; 19-21; 겔 20:12, 19-21).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롬3:20; 갈2:16).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롬3:20).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이나 반제 헌물과 같은 의식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롬10:4; 갈2:19).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분의 긍휼이다(엡2:8-9). 은혜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딤훈2:11) 은혜를 입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다(엡2:8).

율법: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율법	은혜
종(히3:5) 네 신을 벗어라(출3:3-5)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레18:5). 거룩함을 요구함 양이 목자를 위해 죽음 여러 번 드리는 수많은 짐승 희생물	아들(히3:6) 네 신을 신어라(눅15:22) 살라. 그리고 행하라(엡2:8-10). 거룩함을 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음 한 번 드리는 영원한 희생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은혜가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단지 샅 혹은 임금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보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구원을 샀거나 보상으로써 받게 된다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단지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은혜의 통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요1:17).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딤후2:11)

은혜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8).

이 믿음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와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 이 둘을 대조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와 포도즙²⁾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출7:19-21). 그러나 은혜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생명의 상징인 포도즙으로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요 2:7-11).

2. 어둠과 빛

모세가 칠혹 같은 어둠을 일으켜 온 이집트 땅을 덮게 했듯이 율법이 할 수 있는

2)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 의미를 둘 다 포함하지만 성경의 전체적 용례 면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한다.

것은 어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출10:22-23). 그러나 은혜는 빛을 가져다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9:5).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눈먼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3. 죽음과 생명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은 죽음 곧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출12:29-30). 이처럼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롬6:2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 중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 즉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요11:41-44).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출32:26-28). 그러나 은혜가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에는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행2:41). [역사 주: 흥미롭게도 이 두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음.]

4. 벗기는 것과 입히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강도들에게 강탈당해 옷마저 벗겨진 채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눅10:30-37).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지만 은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주고 자신이 타던 짐승 위에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줍니다.

5. 찾는 것과 구원하는 것

율법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동안에 그분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라고 말합니다(눅 19:10).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것을 얼마나 잘 그려 주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방황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 없이는 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가 일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6.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와 ‘살라. 그러면 행하라.’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레18:5)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단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고 구원받았기에 행합니다.

7. 종과 아들

율법은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출3:3-5)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종이기 때문입니다(히3:5). 그러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는 그에게 “네 신을 신으라.”(눅15:22)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눅15:24).

율법은 말합니다	은혜는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무릎을 꿇으라’ ‘처벌하라’ ‘그를 채찍질하라’ ‘죽이라’	‘그분을 껴안으라’ ‘그분께 입 맞추라’ ‘용서하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살게 하라’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습니다(요10:14-15).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룩함을 줍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0).

은혜는 말합니다 -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4:7-8).

율법은 말합니다 -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은혜는 말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율법은 말합니다 -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 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10:1).

은혜는 말합니다 -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히10:12-14).

율법은 선언합니다 -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롬2:12)

은혜는 선언합니다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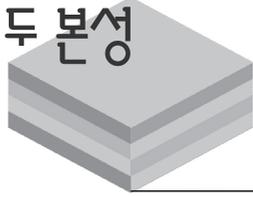
은혜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대형 박물관에는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채집한 동물과 식물 심지어 광물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표본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표본들이 모두 채집될 때까지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지파와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은혜의 표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줄 샘플로서 이와 같은 은혜의 트로피를 전시하실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는 결코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하고 천박하며 심보가 고약하고 괴상하며 유별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죄인의 표본들만 저 위에 있게 하셔서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온 우주에 보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사람의 두 본성에 관해 무어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 혼이 두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새 희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다가도 이내 자신의 옛 본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뎠어지고 실의에 빠지게 되어 떠돌다가 결국에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물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요3:6)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유전적 계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의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계통입니다. 성경은 첫째 계통의 사람을 자연 그대로 ‘본성에 속한 사람’(Natural man), 즉 자연인이라 부르고 둘째 계통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이라고 부릅니다.

1. 자연인

성경은 자연인을 가리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엡2:3).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며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렐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행음,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입니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죽은 사람입니다(엡2:1). 그의 속에는 선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롬7:18).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렘13:23).

물론 하나님은 자연인이 항상 세련미가 없고 교양이 없으며 부드러운 기질을 갖고 있지 않고 관대함도 전혀 없는 무정하고 거짓되며 진실하지 못한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따라서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롬3:23).

II. 영적인 사람

자연인이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사람도 그에게 영의 생명을 준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에서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자연 발생으로 튀어나오는 생명체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생명이 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태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벧전1:23). 자연 세계에서 씨가 생명이 없으면 싹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성령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회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로 태어날 때 새 본성을 받게 됩니다. 이 본성은 영적인 본성입니다.

상형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요3:6)

이 같은 새 본성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이 새로운 영적 본성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불리며(골1:27)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부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요일5:12).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골3:3-4). 영적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갈5:22-23).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상형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살이 살피시느니라(고전 2:9-10).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자연인에서 진화하거나 혹은 발전한 사람이 아님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고후5:17). 영적인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자연인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인격과 기질 등에서 자연인과 정반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모두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말해 주듯이 두 부류의 사람 즉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신자 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III. 새로 태어난 사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새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옛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옛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마치 한 거주지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같은 몸을 차지하려고 서로 정반대되는 두 본성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¹⁾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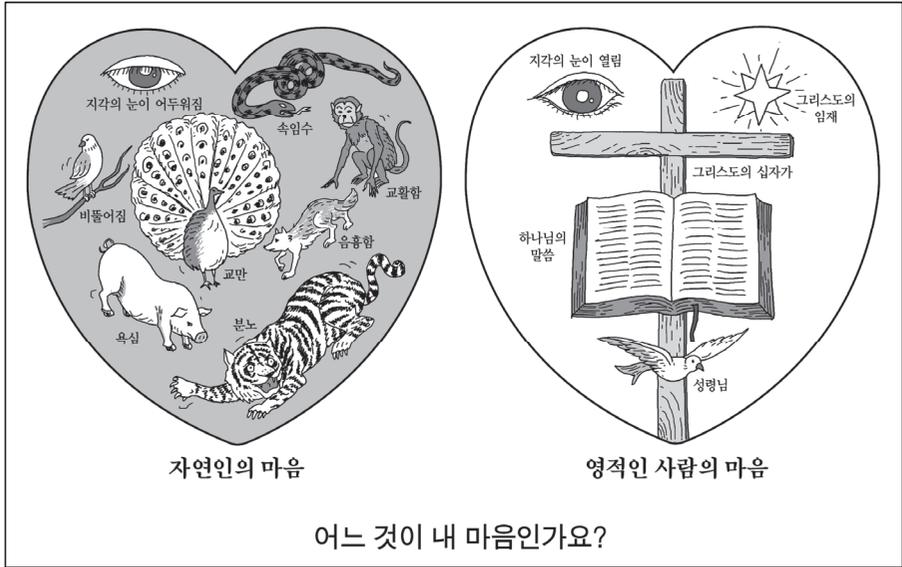
다시 태어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 너무나 놀라고 또 어이가 없게 되어 우리는 혹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의 구원과 회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399쪽의 <두 본성>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이 선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25절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영적 싸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싸움은 회심한 이후에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24-25절에 있듯이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를 이기고 성령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본성 간의 전쟁

1. 우리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옛 성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2. 우리는 육체를 향상시키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갈6:12). 더욱이 그것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빌3:4).
3. 육신을 억눌러서 육신의 욕정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롬13:14).

1) 어떤 이들은 갈2:20을 인용해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옛 사람이 죽었다 해도 육신은 살아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자는 옛 사람 혹은 옛 본성을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성경은 이것을 종종 육신(flesh) 혹은 육체라고 말한다.



4. 새 본성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새 본성은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으므로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벧전2:2). 또한 아주 규칙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학작품도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를 키워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을 굶주리게 만들어 그가 약해져서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 해도 옛 사람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는 다시 기운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오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타락하여 이전에 옛 본성이 즐기던 것들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옛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본성을 양육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음악이나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본성을 양육하는 것은 다른 본성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상형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 첫째는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마18:8-9).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손이 어떤 것을 도둑질했다면 도둑질을 서서히 줄여 나가기보다는 단번에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발이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마치 발이 잘린 사람처럼 즉시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여인을 본 뒤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오히려 실명하여 보지 못하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2. 둘째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골3:5).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곧 살아 있는 몸의 한 부분을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끊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담력의 부족함, 성급함, 자만심 등을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죽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술로 잘라 내는 것 같은 외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을 복용하여 치료하는 것과 같은 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빌 2:12-13).

3. 셋째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히12:1)

모든 무거운 것과 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무거운 것이 되지만 무거운 것이 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업의 노예가 된대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책임을 간과할 만큼 사회봉사에 몰두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거운 것들로 그 사람이 적절하게 영적인 삶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 때에 방해를 놓기 때문입니다.

두 본성

로성에 속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받음

(창5:3;
롬8:6-8;
고전2:14;
엢2:3)

다시 태어난 사람

옛 본성
육신

새 본성
성령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갈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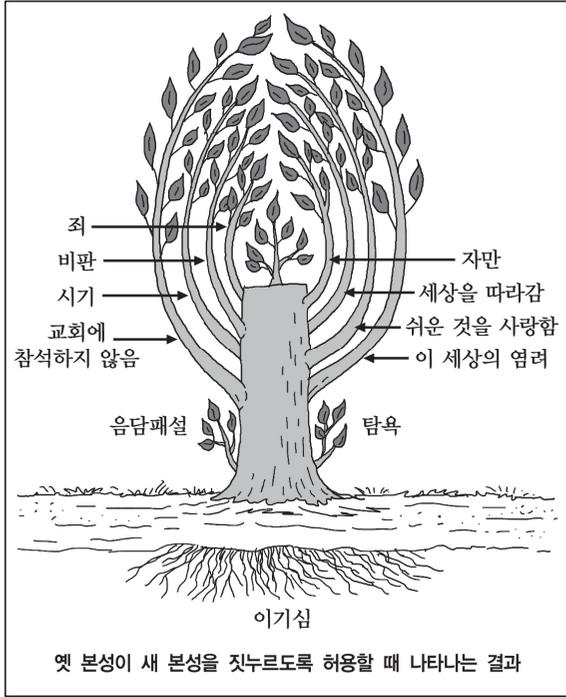
(롬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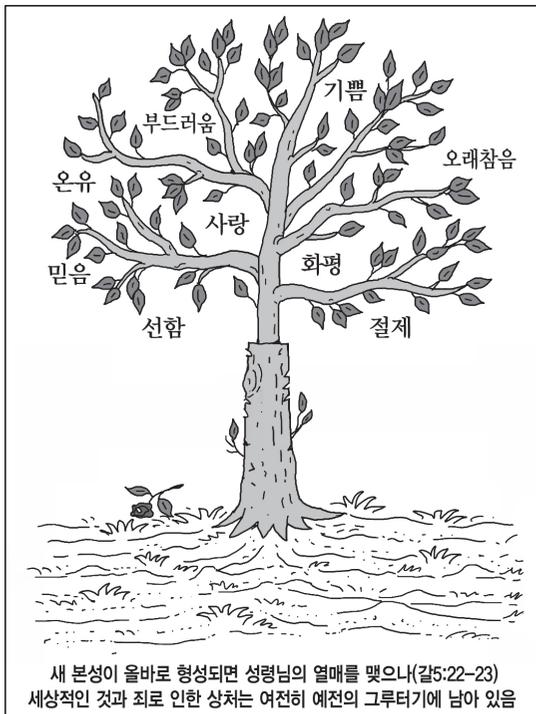
영적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받음
(벧전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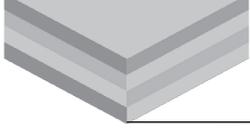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느라(갈2:20).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Standing and State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둘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겠죠.”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억지 추측에 불과하며 죽을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경험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어라 말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들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¹⁾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1)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증거와 과학의 증거를 보여 주며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원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즉 사람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며 믿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영이 속에 거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롬8:17).

이렇게 상속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4-5).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요10:28-29).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고(엡4:30) 우리의 생명, 즉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골3:3).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 놓았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에 나오는 ‘떨어져 나간다’는 말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유대인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독자에게 적용이 되나 이방인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배도한 유대인을 향한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²⁾

2) 히브리서 6장에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6절에서 가정법이 쓰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일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비록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이라고 양보의 형태로 이 일을 기록한 점이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가정법을 써서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스스로 말한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는 결론을 맺는다. 또 히브리서 10장의 경우 26-29절을 살펴보면 여기의 심판 혹은 형벌이 육체적인 죽음을 알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극도의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레10:1-7), 고라와 그의 형제들(민16), 아간(수6-7), 우사(삼하6) 등이 있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 음행한 자(고전5:3-5), 주의 만찬을 무시한 자들(고전11:30),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딤후1:19-20) 등이 있다. 성경의 요점은 성도들이 스스로 죄를 판단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다(히12:1-13). 여기서 9절을 보면 의미가 확실해진다. 그래서 육체의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친다(요일5:16; 약5:14-20; 램7:16). 끝으로 마24:13 등을 인용하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거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 즉 말세의 대환난 속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환난기의 끝까지 견뎌야 함을 말한다(마24:6, 13-14 참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므로 그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구원과 구원 유지는 모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자마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II.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정착되어 확고하지만 그의 상태는 일정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한 본성만을 갖고 있었으나 새로 태어난 뒤에는 두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아담 곧 영적인 본성을 받았다고 해서 옛 아담, 즉 육신의 본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여전히 육이요 오직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만 영이기 때문입니다(요3:6). 따라서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25절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것처럼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직접 체험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두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두 본성 중 어떤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가 없는지 혹은 죄로 가득한지가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본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일3:8).

그러나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요일1:8-10).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죄’(sin)와 ‘죄들’(sins)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란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범하려는 성질 혹은 성향을 가리키며 종종 원죄 또는 타고난 타락성이라 불립니다. 죄들이란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특정한 죄들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 즉 죄성을 제거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성이 없는 새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두 본성에 대한 설명(394쪽)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위치

이집트



유월절
(출12:1-51)
피에 의해 구원받음

이 세상의 예표

상태

관아



두 본성이
감동을 일으킴
(골 7:9-25)

육신의 예표

경험

가나안



에스콜의 포도
(민13:23)
민들의 안식

마귀의 예표

가데스
바네아

여리단 강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향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한다.”(롬6:1-2)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의미한 바는 우리가 판결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새 본성을 받아 죄의 법을 향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도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6:11).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죄를 향해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옛 생활 습성을 향해서도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고 말하며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롬6:12)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될 때 다음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롬 6:14).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믿는 자의 위치는 확고히 정착되어 안전하나 그의 상태는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 새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는 죄로 가득하기도 하고 죄가 없기도 합니다.

III. 그리스도인의 경험

경험에 관한 한 믿는 자들은 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육신의 모형인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마귀의 모형인 가나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이 거하는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뿌리는 순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비록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를 뒤로 하고 떠났으나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은 어떤 때는 이집트 쪽을 바라보며 예전에 먹던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때로는 가나안 쪽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에서 얻을 새 곡식과 포도즙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를 고대하며 방황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안식도 없고 열매 맺음도 없이 불평만을 일삼으며 방황합니다.

어떤 이들(신자들)은 가데스바네아까지 갔고 또 가나안에 도달하여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인들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을 보고는 이내 겁에 질려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기를 거절하였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하다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민13:1-33).

또 다른 신자들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의 일곱 족속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버림으로써 소유를 얻게 되고 자기들이 밟은 땅을 다 다스리게 되리라는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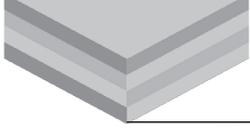
가나안은 결코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믿음의 안식과 승리하는 삶의 모형입니다.

한편 가나안은 마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이 이집트(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육신에 정복당한 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나안에 도달하면 마귀는 그들이 밟을 디는 곳마다 나타나서 대적하며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는 끊어질 수 있으나 이미 맺은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몫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남으로써 그와 아버지와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반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롬8:35)

선택과 자유 의지



Election and Free Will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가 있는데 이 선택은 봉사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한 교리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조화하기란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교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짝으로서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고 자유 의지는 사람 편에서의 일입니다.

선택의 교리가 왜곡되면 운명론 혹은 무능력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부인하며 따라서 구원받는 일에 사람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니 목사¹⁾는 평생토록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 악한 교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만 아는 특정한 목적, 즉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사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아벨을 택하셨고 함과 야벳 대신에 셈을, 나홀 대신에 아브라함을, 마음이 후한 에서 대신에 피 많은 야곱을, 말아들 느닷세 대신에 동생인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1) 찰스 피니는 극도의 알미니우스주의를 믿고 가르쳤으며 그의 가르침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다. 여기서 저자는 자유 의지를 가르친 사람의 예로 그를 언급하였을 뿐이다.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롬9:15-16).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푸시고 친히 강박하게 할 자를 *강박하게 하시느니라*(롬9:18).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롬9:21)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요15:16).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행13:48).

[그분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엡1:4-5)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상형*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살후2:13).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딤후1:9)

위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는 말씀은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혹은 결심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한된 숫자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정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며 봉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한편 성경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특정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향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22:17).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미리 아심’(예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벧전1:1-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위의 로마서 구절에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단계, 즉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그전의 말씀, 즉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들어 있으며 그 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이라는 말씀 또한 이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택하다’(chosen), ‘예정되다’(predestinated), ‘미리 정하다’(foreordination 혹은 before ordained)라는 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택하다’라는 단어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분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엡1:4)

‘예정되다’라는 단어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서의 우리의 상속 유업이 예정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엡1:11)

‘미리 정하다’는 현재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엡2:10)가 오래전에 미리 정해졌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이 셋째 단어는 첫째와 둘째 단어를 연결해 주며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잘 보여 준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을 미리 결정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일을 반드시 하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 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1850년 10월 28일에 태어날 것과 1869년 5월 어느 저녁에 YMCA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아신 대로 그분께서는 필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해 주시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가 예술적 재주를 갖고 태어나 선도의 형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 이처럼 성경에 대한 책들을 쓰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제가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자연적으로 즉 나 자신의 내적 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며 제 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즉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힘에 의해 저의 자유 의지에 역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저의 소망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의지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의지라는 것은 곧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의지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 아닙니다. 의지는 단지

취해야 할 행로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의지도 악하고 마음이 선하면 의지도 선합니다. 자연인, 즉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자연인의 마음의 성향이란 그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의지가 그 마음의 자연적 성향을 거슬러서 행동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 의지가 성령님의 힘 아래에서 복종될 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가 성령님의 힘 아래 있게 되면 자유 의지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의지는 자유로워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무죄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의 경우는 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타락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그의 의지는 더 이상 도덕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던 첫 아담의 의지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자연인의 의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의지는 전혀 악을 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룩함을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의지가 선택하는 바가 다 악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자연인이 악을 좇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이 완악해져서 외부에서 오는 좋은 영향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본성은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요6:44).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인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실이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원을 찾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느끼며 또 그 일이 자기 밖에 있는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힘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롬1:16).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롬10:17).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믿을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새 본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요3:5).

그런데 사람이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행7:51).

그러므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의지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간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역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행13:38)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며(행17:30)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해야 한다면(고후5:18-20),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진실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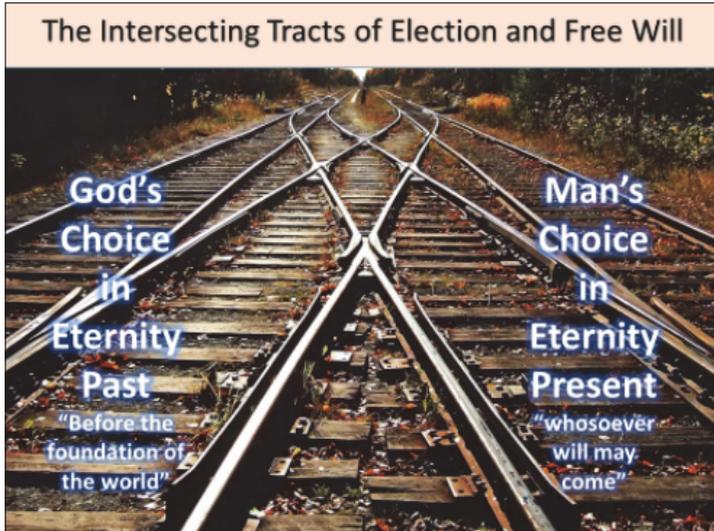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므로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표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출생을 의식함

2.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음
3. 점진적으로 성화됨
4. 신앙의 굴곡이 없이 주님과 동행함
5. 믿음 안에서 인내함



과거의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과
 현재의 영원에서 인간이 자유 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영원에서 교차하게 될 것이다

어거스틴의 창세기 6장 해석 변경



Augustine's Misinterpretation of Genesis 6

창세기 6장에는 현시대 사람들이 해석상 난제로 여기는 어려운 기사가 나옵니다.

1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²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³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⁴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던라.

이 사건은 결국 노아의 대홍수로 이어졌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5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⁶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⁷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당시 땅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¹¹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¹²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아무런 편견 없이 창세기 6-7장을 읽으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였고 그 결과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들이 땅에 생겨났으며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콧구멍에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멸하고 홍수 뒤에 새롭게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²¹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22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23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창 7:21-23).

이런 기사를 읽으면 누구라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성경 신자라고 하면 구약 시대 특히 모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율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욘1:6).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욘2:1).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욘38:7)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신학자들, 목사들, 성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롬8:14, 19).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요1:12).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manifest, 롬8:19).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보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간 현재 드러나 있으며 욥기 38장 7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임을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눅3:38).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창 2:7).

유다서 6-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 일부가 자기들의 처음 신분(위치)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4-6절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성경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사실 이외의 다른 해석은 사적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강력한 칼빈주의 자로서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 역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확인합니다.¹⁾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반대를 제기하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 주장을 펴는 이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합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참조 막12:25; 눅20:33).

이 구절은 천사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자기들의 처음 위치(신분)를 버리고 떠났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반역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으면 모든 천사의 성은 남성이며 날개 같은 것도 없고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신화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1장의 날개 달린 창조물은 그룹으로서 천사가 아니며 이사야서 6장의 날개 달린 창조물은 스랍으로서 역시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천사와 UFO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람).

그런데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렇게 명백한 해석이 갑자기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바뀌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고 그 일은 천주교의 국가 교회 교리를 확립한 어거스틴이 자기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 영해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를 저술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어거스틴 이전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믿던 신앙을 180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1) John MacArthur, 「맥아더 스테디 성경」(*The MacArthur Study Bible*). Nashville, London, Vancouver, and Melbourne: Word Publishing, 1997, p. 24.

가인의 후손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글은 어거스틴의 이런 해석이 왜 문제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1차 수신자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모세 오경) 해석에 관한 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물론 구약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유대인 역사가들이나 성경 이외의 그들의 작품이 무어라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아마 요세푸스일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누구라도 요세푸스에 대해 조금은 배울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요세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틴어: Flavius Josephus, 37-100)는 1세기 제정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 주후 66년에 발발한 유다িয়া 전쟁에서 그는 유대군을 지휘하여 로마군에 맞섰으나 로마군의 포로가 된 뒤 투항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풀려나 로마 시민이 되었다. 그는 티투스의 막료로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의 순간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훗날 이 전말을 「유대 전쟁사」라는 책으로 남겼다.

요세푸스의 글은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여 주는 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그의 책들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늘 참고하는 고전입니다.

예수님 승천 바로 이후에 살았던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뿐만 아니라 「유대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정통과 유대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의 견해가 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담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는 「유대 고대사」의 1권 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들 곧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전통에 따르면, 이 남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헤라클레스 같은] 거인들이라고 부른 자들의 행위와 비슷한 일을 행하였다. 참고로 여기에 붙은 각주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느 면에서 과거의 거인들이었다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꾸준히 내려온 의견이었다."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의 이런 증언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은 후이(Bryan Huie)가 요약한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²⁾

1.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인 종족을 믿었음을 보여 준다.
2. 역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필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3. 에녹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4. 「주빌리의 책」(*Book of Jubilees*)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5. 주후 2세기에 살았던 저스틴 마터(순교자 저스틴)도 「두 번째 변증」(*Second Apology*) 5장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6. 주후 240년경에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주교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7.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8.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모든 구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창6; 신32:8; 욥1:6; 2:1; 38:4; 시29:1; 89:5 등).
9. 유명한 성경 학자인 벌링거(E. W. Bullinger, 1837-1913) 역시 그의 유명한 저서 「Companion Bible」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0. 유다서 6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1. 야살의 책 4장 18절은 짐승들도 혼합되어 하이브리드 종류가 나온 것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물로 심판하셨다(창6:7).
12.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7절 역시 이를 지지한다.³⁾

이런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과 주후 300년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를 초지일관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며 <위키백과>는 이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⁴⁾

1. 어거스틴 이전에 고대 작가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던 견해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거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 - 외경에서는 이들을 순찰자라고 부름 - 과 사람들의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종족이라는

2) <https://www.douglasjacoby.com/sons-of-god-by-bryan-t-huie/>

3) 우리는 요세푸스, 필로, 에녹서, 주빌리의 책, 야살의 책, 저스틴 마터나 북아프리카의 주교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다만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들이 한결같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증언하였음을 보일 뿐이다.

4) <위키백과>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항목

것이다.

2. 그런데 어거스틴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았다. 어거스틴은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연설에 의거하여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시」(신국)에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셋의 후손들로, 사람들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결혼하여 혼혈 종족을 낳음으로써 순수한 종교를 부패시켰다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⁵⁾

이처럼 역사는 매우 분명하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어거스틴임을 보여 줍니다.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천주교회를 위해 연옥 교리를 만들고 영혼의 자유를 지키려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며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유대인)을 신약 시대의 교회로 대체함으로써 천년 왕국 같은 실제적 왕국은 이 땅에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를 도입하고 그 교리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비록 그가 천주교회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지만 성경 신자들은 천주교회의 성인들이란 한결같이 ‘믿음+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므로 성경적으로는 ‘다른 복음, 저주받은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힘입어 천주교회는 그 뒤로 무려 1,000년 이상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유대인과 성경 신자 말살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반셈족주의’(Anti-Semitism)⁶⁾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는 유대인 자체를 말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말살하려 했고 바로 이런 시도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왕국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유대인들과 성경 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카톨릭주의의 무지와 미신에 갇혀 살게 되었고 이에 역사는 이

5) 「하나님의 도시」의 원제목은 「이교도들에 맞서는 하나님의 도시」(*On The City of God against The Pagans*)이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시대에 로마를 침략하는 이교도들을 순수한 종교를 부패시키는 자들로 보았고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창세기 6장 사건을 이교도들의 침략과 같은 것으로 영해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말의 영어식 표현을 직역하면 ‘셈족에 대한 반감’이란 뜻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셈족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혹은 유대 민족에만 해당된다. 유럽 모니터링 센터는 반유대주의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인식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유대인 개개인과 그들의 재산, 또는 유대인 공동체 기관과 유대교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인데 공격의 대상은 유대인들의 집합체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국가도 포함된다.” 반셈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기독교 - 사실은 천주교 - 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유대인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Christ killers)로 증오한 것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반유대주의자였다. <나무 위키>

시기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비성경적 카톨릭주의와 반셈족주의의 기반을 놓아준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1535년경부터 프랑스 출신의 칼빈이라는 또 다른 어거스틴주의자가 일어나 스위스 제네바에 신정 정치 국가를 세우면서 장로교라는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칼빈주의는 그 원천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으므로 엄밀하게는 어거스틴주의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회들은 불신자였던 어거스틴을 크게 신봉하고 따라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 역시 유대인 말살과 성경 신자 배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칼빈도 어거스틴처럼 자기의 믿음을 반대하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숙청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당연히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는 가르침을 전파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세 청교도들과 경건한 주석을 지은 매튜 헨리, 미국의 대각성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등이 기록한 구약 성경 관련 글들을 읽으면 내용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혹은 배척 신학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는 당연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되고 맙니다. 이들의 교리적 근원은 어거스틴이므로 이런 주제에 대한 그들의 글은 언제나 거기서 멈추고 결코 성경 자체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천주교회처럼 유대인들의 귀환과 천년 왕국의 확립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관련된 성경을 거의 다 영해(靈解)합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도 이런 맥락에서 영해가 되어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견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교회는 교회이지 이 둘이 혼합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원토록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니엘서 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있을 넷째 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므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41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 왕국이 나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42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43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룯의 때에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 했던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명료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전혀 다른 번역으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개역성경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는 20세기에 미국에서 창조 과학을 확립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토목 공학 박사이며 창조 문제와 창세기에 관한 한 이분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리스는 생전에 「창세기 기록」(*Genesis Record*)이라는 매우 두꺼운 창세기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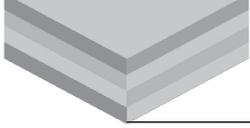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에 의해(created) 존재한 자들이며 사람에게서 태어난(born) 자들이 아니다. ‘강력한 자의 아들들’ 같은 표현도 역시 천사들을 가리킨다.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순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 줘도 이미 성경대로 믿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득 노력이 아무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 무슨 진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해석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대로 믿는 바를 간략하게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성경을 영해하는 사람들의 헛된 전통과 교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평범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음과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하나님의 진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달됨을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존된 성경으로 성경을 풀 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성경 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온전한 해석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흑역사



Martin Luther's Dark History

현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및 개혁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¹⁾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다섯 솔라를 믿으며 많은 면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1,000년 이상 진행된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성경과 교리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그 암울한 기간에 카톨릭교회의 일곱 성사 같은 행위 구원 제도가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였다. 이런 시대에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이 이신칭의, 다섯 솔라 등을 외치며 암흑시대에 밝은 빛을 주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신칭의와 다섯 솔라 때문에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성경과 비교할 때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교리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신칭의 빼고는 거의 모든 교리가 그들의 가르침 안에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 심지어 칼빈의 경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을 시킨 이후에 성도가 무조건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을 뜻하므로 우리는 더욱 성경적으로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

미들타운성경교회의 젤러는 이 글에서 루터와 칼빈의 흑역사²⁾를 간략히 기록했는데 칼빈의 인권 침해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과 일치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마르틴 루터의 사례를 다루려고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스프로울이 편집한 「종교 개혁 스터디 성경」(*The Reformation Study Bible*, 1998)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문이 있다.

「종교 개혁 스터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 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1) 이 글은 미들타운성경교회의 조지 젤러가 지은 <우리는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Should We Go Back to the Reformation?*)를 번역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유대인 핍박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이 당시의 시대정신에 따라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https://www.middletonbiblechurch.org/reformed/backto.htm>

2) 흑역사: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은 만큼 부끄러운 과거. <국어사전>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 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빛은 종교 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시119:130).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빛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여러 면에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중 아무도 자유롭게 살 수 없다. 프로테스탄트들 안에서도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야 한다. 즉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더욱이 4-500년 전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전11:1).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므로 그들이 이룩한 좋은 점들에서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점들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루터와 칼빈이라는 두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펴보고 한다. 이 두 사람은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 즉 이들의 흑역사를 살펴보고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루터의 반(反)유대인주의

1517년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여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은 기독교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하였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심한 독설을 퍼부었다.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자신의 교회사에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관용을 공개적 의견으로 진전시킨 사람이다. 처음에 그는

1523년에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에 항거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543년에 그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대적하는 두 개의 폭력적인 책들을 지었다. 그는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을 한 뒤 이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들을 개종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기독교 국가(독일) 영토에서 추방하고 그들의 책들(토라와 탈무드 등)을 금서로 정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우리의 구원자를 모독하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공공의 원수이므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³⁾

루터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칭의는 이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밝은 미래가 예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9-11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고 말한다(요4:22).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기록자들도 유대인이다.

그럼에도 루터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 등에 대해 무지하였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파멸 뒤에 강제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루터 당시까지 무려 1,4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에게 전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천주교에 의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전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역사는 이것을 ‘반셈족주의’(Anti-Semitism)라고 부른다. 420쪽의 ‘반셈족주의’ 각주가 보여 주듯이 마르틴 루터는 지독한 반유대인주의자였다.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악행을 저지른 루터를 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랍비 조셉 텔루슈킨의 책 「유대인들에 대한 교양 지식: 유대인들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참조하기 바란다.⁴⁾

이 책에서 텔루슈킨은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무자비한 일을 자세히 보여 준다. 심지어 그는 루터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비교한다.

텔루슈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루터는 히틀러 시대 이전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반유대인주의 책들 중 유대인들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책을 지었다.⁵⁾

3)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총 8권 중 Volume 7 「Modern Christianity – The German Reformation」(독일의 종교 개혁), P. 61-62.

4) Rabbi Joseph Telushkin, 「Jewish Literacy-The Most Important Things to Know About the Jewish Religion」, 1991, pp. 204-206. 여기에는 ‘마르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Martin Luther 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이라는 장이 들어 있다.

5) 1543년에 루터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On the Jews and Their Lies)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는데 텔루슈킨은 이 책이 반셈족주의 책 가운데 가장 악독한 책이라고 하였다.

2. 기독교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중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유일한 한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들의 목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 내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루터는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은 심히 증오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심히 이상한 일이다.]

3. 수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제2차 세계 대전은 1945년에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 뒤 1946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피고인으로 불러 나왔을 때 독일 나치 장교로 선전 선동을 주동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슈트라이허(Julius Streicher)에게 재판관이 질문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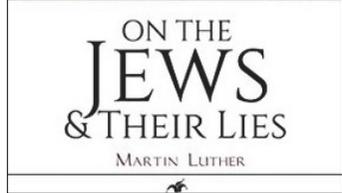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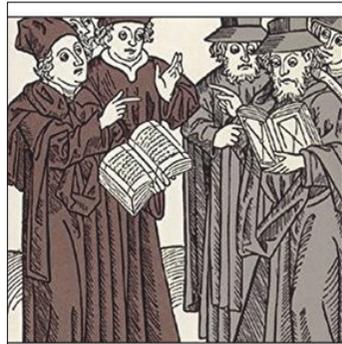
그러자 슈트라이허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죄가 없소.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그 일을 하였을 뿐이요.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먼저 재판하시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루터가 그들에게 행한 일보다 나쁘지 않았소.”

4. 히틀러는 자랑스럽게 루터가 자기와 한 편이라고 말하였다. “루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보았다.” 즉 루터는 그들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5. 루터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루터는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기가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한 카톨릭 종교 정신이었고 루터나 칼빈 등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
(마르틴 루터)

칼빈의 무자비한 학살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반대하며 종교 개혁을 실행하였다.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카톨릭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극도로 핍박한 것이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종교 재판(Inquisition)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것이다. <위키백과>의 ‘스페인 종교 재판’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스페인 종교 재판은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스페인 왕국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이다. 스페인 종교 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이며 한 기록에 따르면 31,912명이 산 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다. 한편, 희생자의 수를 가장 크게 잡은 기록은 사형이나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이백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유대인, 개신교인,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유대인의 경우 탄압을 피해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역사가 후안 데 마리아나는 80만 명가량이 스페인을 떠난 것으로 추산하였다.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대개 포르투갈이나 모로코로 옮겨갔고 후에 유럽,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각지의 도시로 흩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큰 아이러니가 있다. 카톨릭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거기서 나온 루터와 칼빈 등 대다수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샤프(Philip Schaff)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불관용’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⁶⁾

종교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어머니 교회(모교회), 즉 카톨릭교회로부터 박해와 탄압이라는 불관용 교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을] 최대한 핍박하였다. 그들의 박해와 불관용은 카톨릭교회와 비교해서 규모와 정도는 달랐지만 원리 면에서는 동일하였다. 이들은 교황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향유하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애나뱃티스트(재세례파, 재침례파) 등과 같이 자기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지역에서 추방하고 옥에 넣고 익사시키고 참수하고 목매어 죽이고 불태워 죽였다.

우리는 이 모든 행위와 역사를 바로 규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 정통으로 숭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실로 인본주의 철학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대개 지성주의자들이 거기에 매료된다. 그러다 보니 현시대 칼빈주의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⁷⁾

6)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8 ‘Protestant Intolerance’(프로테스탄트들의 불관용), pp. 700-800.

7) W. J. Seaton,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1970, p. 8.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킨 진리’⁸⁾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⁹⁾고 주장하기도 한다.

칼빈에게는, 스스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믿으며 세운 본인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시며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신약 시대라는 새 시대를 여셨다. 예수님의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무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며 무력으로 불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주후 100년 이후로 교회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며 세상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행은 다 국가 교회를 시행하는 카톨릭교회와 거기서 파생된 개신교회(특히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청교도 신앙/개혁주의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무서운 독재자의 사상을 성경 위에 두고 그대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천주교회의 통치보다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통치의 실상을 성도들이 정확히 자세히 알아야만 한다. 다시는 그런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는 실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역사는 잘 보여 준다.

[여기부터 다음 쪽의 결론까지는 역자가 추가한 것이다.]

현시대에는 칼빈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종교 개혁의 산물인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교 시스템이다. 이 책의 2장 ‘칼빈의 실체’를 보면 칼빈과 동시대에 제네바에 살면서, 신정 국가를 건설한 칼빈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며 관용을 부르짖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생생한 증언이 있다.

칼빈은 종교적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사람들까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문학자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다 처형당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다음과 같은 칼빈의 주장을 보면 그가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탄압하였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이 사실이 나의 양심에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은총을 내리셨다.¹⁰⁾

8) J. B. Davis, The Berea Baptist Banner, 1995, p. 30.

9) M. Duncan, 「The Five Points of Christian Reconstruction from The Lips of Our Lord」, 1990, p. 10.

10)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p. 53.

이런 칼빈을 두고 카스텔리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칼빈으로 인해 제네바에서 자유는 끝났다.¹¹⁾

결 론

종교 개혁자들이 받은 빛은 다 성경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신칭의, 성경의 충분성, 다섯 솔라 등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다. 이외에도 교회에 대한 중대한 교리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보여 준 대로 칼빈은 제네바에 [구약 시대의] 국가 교회, 즉 신정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교회에 대한 교리, 재판에 대한 교리,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교리는 이보다 훨씬 뒤에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발견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국가 교회와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 하였고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특히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가르쳐 주는 교회론, 구원론 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은 성경이 주는 빛으로 카톨릭 중세 암흑시대의 매우 미소한 부분에만 빛을 비추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즉 물이 나오는 원천인 샘으로 돌아가야지 샘에서 나온 조그만 물줄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실행의 원천인 샘이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항상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비교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

보충 설명

한국에서도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정서가 있다. 2022년 8월 18일자 <크리스천투데이> 신문에는 ‘노벨상 많이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저자는 고신대 대학원을 다니고 현재 부산 세계로 병원 원목으로 있는 권O 목사이다. 그는 한국 장로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셈족주의를 다음과 같이 가감 없이 표현하였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로 혈통적 유대인 개념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성경의 증언처럼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반드시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롬2:28-29). 이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동일하게 물려받는 다(롬4:16).

둘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전혀 아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혼혈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미 혈통적으로도

11) 동일 문서, p. 46.

순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적 단위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된 '보편 교회'에 해당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학 상식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일 수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갈6:16).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동일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11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보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롬11:1-2, 11).

비록 교회 시대에 일부가 눈머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미래가 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현재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슌12:10)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아굽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위 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11:25-27).

주 예수님의 재림 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개와 메시아 영접에 대해서는 스가라서 12-1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지 않고 어거스틴, 칼빈, 루터 등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빠져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인류 경영에 관한 한 새까만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 성경을 읽을 때 특정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주장을 배제하고 문맥에 맞게 있는 그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읽고 이해하면 된다. 이것만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BIBLOS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Ἀ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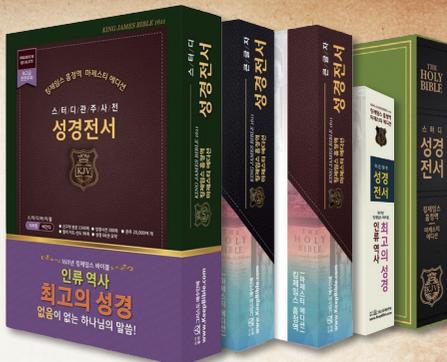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성경과 칼빈주의 비교



칼빈주의는 아직까지도 확고하게 정립된 이론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지금도 '타락 이전 선택설', '타락 이후 선택설', '원죄 이후 선택설'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를 보여 주는 다음 표는 창조와 타락, 선택과 유기 등에 대한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성경적 교리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타락 전 선택 (Supralapsarian)	창조	▶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 타락 허용	▶ 선택받은 자들만 을 위한 속죄	▶ 중생과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짐
타락과 동시 선택 (Infralapsarian)	창조	▶ 타락 허용	▶ 몇몇은 선택을 받고 나머지는 정죄를 받도록 정해짐	▶ 선택받은 자들만 을 위한 속죄	▶ 중생과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짐
타락 후 선택 (Sublapsarian)	창조	▶ 타락 허용	▶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진다 는 조건하에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 믿을 수 있는 능 력과 은혜를 주 기 위해 하나님 께서 몇몇은 선 택하고 나머지는 정죄를 받도록 정하심	▶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짐
아르미니우스 주의 (Arminianism)	창조	▶ 타락 허용	▶ 개인이 믿는다는 조건하에 모든 사 람을 위한 속죄	▶ 자유 의지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천히 예정하심	▶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협력 하는 모든 자들 이 구원 받음 (구원을 잃을 수 있음)
성경 (Bible) 	창조	▶ 타락 허용	▶ 개인이 믿는다는 조건하에 모든 사 람을 위한 속죄	▶ 자유 의지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천히 예정하심	▶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건기를 선택 함으로써 은혜에 협력하는 모든 자 들이 성화됨(구원 을 잃을 수 없음)

(*) 영어 'Lapsarian'은 사람의 타락을 뜻하며 'Supra'는 이전, 'Infra'는 이후, 그리고 'Sub'도 이후를 뜻하되 특히 원죄 이후를 뜻한다.

성경적 구원 선도 설명

삼위일체 즉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격 안에서 서로 교제하신다. 성경에는 시간이 생기기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가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예비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며 구원 뒤에도 믿음에 따라 걸을지, 육신을 따라 걸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을 통해 일하신다.

역시 창조자이신 **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과 자신의 의와 칭의를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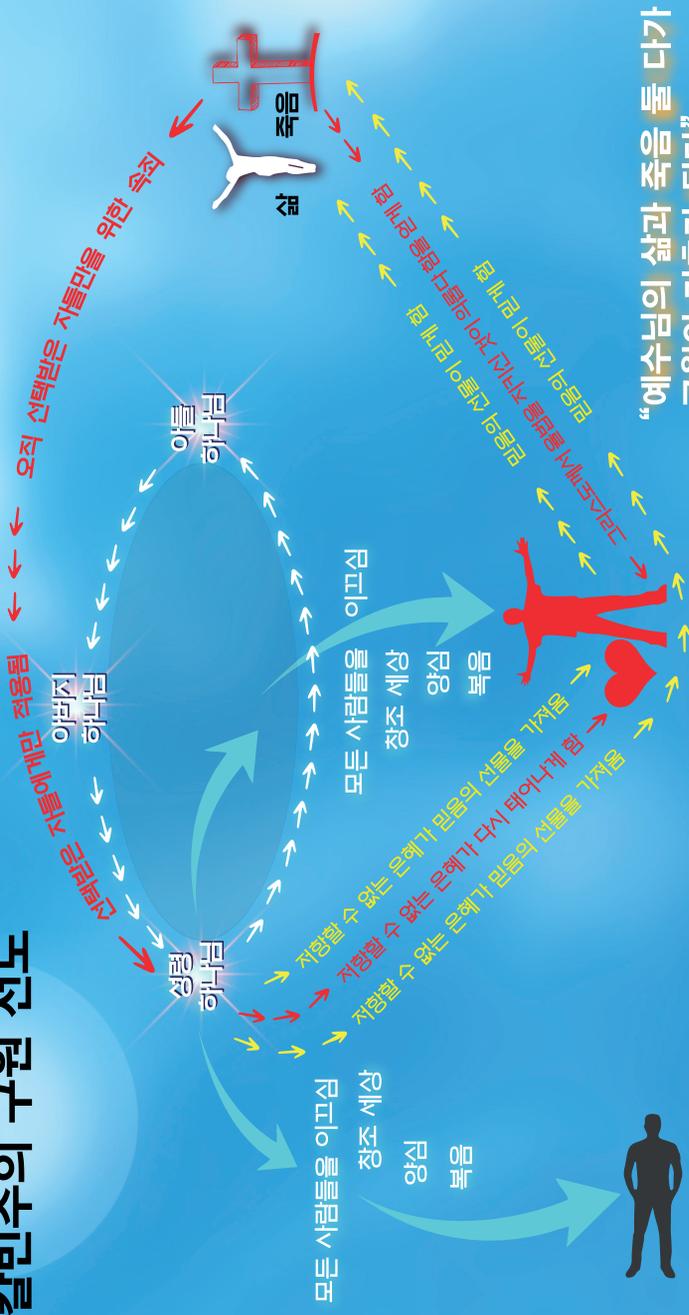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세상과 양심과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이끄신다. 단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준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주신다. 성도들은 섬김을 위해 각각 필요한 선물을 받는다.

복음을 믿는 죄인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의 공로만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정된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 놓이며 그분의 의로 옷을 입는다. 또 그들은 구속의 증표로서 성령님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 외에도 성도의 위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일들이 생긴다.

믿는 자들은 두 개의 본성을 갖는다. 그들에게는 힘을 잃은 옛 사람과 육신의 몸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성이 있지만 새 사람이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들은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이루어야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종종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선물이다. 영벌의 정죄 즉 유기는 사람이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로 그에게 닥친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칼빈주의 구원 선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 직을 기운데 죽어 있음
- 결코 믿을 수 없음

선택받은 사람들

- 믿기 전에 다시 살아남
- 신자는 세 번성 한 개만 가진

칼빈주의 구원 선포 설명

삼위일체 즉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신격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며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작정하시고 타락을 작정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영벌에 이르도록 유기됨) 선택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속죄하도록 작정하시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작정하신다.

아들 하나님은 (1)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2)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셔서 율법을 지키므로써 얻는 의를 획득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1) 선택받은 자들에게 속죄를 적용하여 그들이 믿기 전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2)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 복음을 믿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신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끌려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1) 믿기도 전에 다시 태어나고 (2) 칭의를 위해 필요한 의 즉 땅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획득하신 의를 얻는 데 필요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원에는 무조건적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의 선물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등이 모두 필요하다.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표현되는 단 한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믿음의 선한 행위 면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외적으로 창조 세상과 양심과 복음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지만 전적으로 부패하여 죽었으므로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다.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영벌의 정죄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의 참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로 여겨진다. 선택 받은 자들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도 전에 구원받는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비교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아름다운 꽃 튜립(Tulip)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나왔고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T**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혹은 부패)
-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 I**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견인 혹은 인내)



칼빈주의 진영에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영원히 버림받는 유기 교리와 속죄의 범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 칼빈주의 TULIP을 요약한 다음 표는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성경적 교리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TULIP 비교

	T	U	L	I	P
극단적 칼빈주의	전적 타락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없음)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사람이 믿기 전에 종생과 믿음이 주권적 선물로 주어짐)	성도의 견인 (율법 준수에 의해 복종이 가능함)
온건한 칼빈주의	전적 타락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없음)	무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사람이 믿기 전에 믿음이 주권적 선물로 주어짐)	성도의 견인 (은혜에 의해 복종이 가능함)
아르미니우스주의	자유 의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음)	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구원을 잃을 수 있음
성경	자유 의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음)	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믿음에 의한 성도의 견인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음)